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장점을 통해 본

1950년대 전후(戰後)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

여 성 학 과

김 미 선

2021

양장점을 통해 본
1950년대 전후(戰後)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6 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 성 학 과 김 미 선

김 미 선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 도 교 수 김 은 실 _____

심 사 위 원 김 선 혜 _____

김 현 미 _____

이 명 휘 _____

이 은 아 _____

김 은 실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론	8
1. 연구 과정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구술자(口述者)	8
2. 구술자료 수집과 구술생애사	12
C. 연구 참여자의 구술생애사 사례 소개	16
D. 논문의 구성	25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자원	26
A.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적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6
1.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1950년대 경제에 관한 기존 논의	26
가. 1950년대 전후 여성에 관한 연구	26
나. 1950년대 전후 경제에 관한 연구	31
2. ‘여성적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	33
B. 이론적 자원 검토	38
1. 소상품 생산양식과 여성의 자영업	38
2.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	41
3. 여성 ‘직업인’(women in profession)	44
4. 분석틀	46
III. 전후 여성의 직업으로서 양장점	49
A. 전후 여성의 직업 실태와 양장점의 부상	49
1. 전후 피폐한 경제 상황과 여성의 직업	49
2. 양장 제작의 전문화로서 양장점	54
B. 여성 직업으로서의 양재사(洋裁師)	63

1.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경제행위로서 양장(洋裝) 일	63
2. 양장점 운영 :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70
가. 양장점의 위상을 둘러싼 언설들	71
나.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양재기술과 기술주체의 차이들	79
C. ‘여성집중업종’의 형성과 여성 자영업주화(自營業主化)	89
1. 여성화된 양장업	89
2.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등장	93
D. 소결	96
IV. 여성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양장점과 자영업의 생산요소	99
A. 양장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작업장이자 점포	99
1. 생산을 위한 작업장(作業場)	99
가. 공간의 마련 : 입지의 중요성	100
나. 필수 생산 수단인 재봉틀 : 양장점 규모	106
다. 양장지의 구비(具備) 방식과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	111
2. 여성 대상의 마케팅을 위한 점포(店鋪)	118
가. 양장점을 상징하는 이름과 광고 간판	118
나. 옷감과 양장을 홍보하는 쇼윈도 혹은 진열창	121
다. 양장점 실내의 시각적 배치 방식과 구성	124
B. 자영업주로서 직업적 능력 발휘	127
1. 여성 주도의 양장점 운영	127
가. 독립적·자율적 운영	127
나. 사회적 관계의 자원화	131
2. 숙련된 양재기술의 보유	136
가. 지속적인 양재기술의 개발과 훈련	136
나. 디자이너로서 유행 감각의 창조	142
3. 직원과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능력	146
가. 고용주로서 분업화된 방식의 노동 구성	146
나. 지역사회 기반의 고객망 구성	151
C. 성별규범의 틀에서 구성되는 ‘여성’경제인의 곤경	154

1. 일·가정 병행에 동반되는 퇴근 없는 고된 노동	154
2. 가족 관계로 인한 경제적 대표성의 인정 불가	158
3.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서 ‘여성화된’ 공간인 양장점	162
D. 소결	168
 V. 전후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여성의 경제’로서의 ‘양장점’	170
A. 이분법적인 근대적 공사영역의 유동적 구성	170
B. 기술보유자로서의 여성‘직업인’과 기술 전수(傳受)	175
1. 기술직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	175
2. 기술자를 양성하는 양재기술교육의 장(場), 양장점	178
C.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의 경제사회의 구성	188
1. 양장문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문화의 생산	188
2.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여성의 다층적 계급화	192
D.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의 동원과 주변적 존속(存續)	198
E. 소결	205
 VI. 결론 : ‘여성의 경제’로서의 전후(戰後) 양장점의 성별정치	207
 참고문헌	211
 ABSTRACT	242

〈표 차례〉

〈표 1-1〉 주요 구술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표 3-1〉 1958년 산업별 인구종사율	53
〈표 3-2〉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남녀노동자수(1957년)	53

<표 3-3> 1950~60년대 제조업체 명부 목록	55
<표 3-4> 부인및소녀용외의제조업 혹은 여자용외의제조업(2432) 종업원 수 현황	91
<표 3-5>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1957~1961)	93
<표 3-6> 직업 (대분류) 종업 상의 지위 및 14세 이상 취업자 : 업주(1955년)	95
<표 3-7> 직업 (대분류) 종업상의 지위 및 취업자 : 자영업주(1960, 1966년)	96
<표 4-1> 주요 제조업 제품생산량 : 재봉기	109

<그림 차례>

<그림 2-1> 분석틀 : 전후사회에서 여성자영업주의 등장과 ‘여성의 경제’의 형성 및 재편	46
---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인 양장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후 여성은 어떠한 경제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전후 1950년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사 접근과 가부장적 민족주의 재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전후 사회의 회복 과정에서 여성이 실천한 경제활동의 성격과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전쟁으로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남성 부재의 상황 속에서 여성이 수행한 경제적 역할, 특히 한국 자본주의 맹아(萌芽)단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전후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화 이전인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고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전개된 양장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전후 여성은 어떠한 경제주체로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전후 여성 자영업자가 경제적 실천을 통해 구성한 ‘여성의 경제’가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성별화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소상공인 생산양식과 여성의 자영업을 검토하며, 연구방법으로는 구술생애사를 통한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시장경제는 확대되고 가구 경제가 해체되는 가운데,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 부재는 가족경제를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전후의 현실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화폐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 시작했으며 여성의 양장 소비가 확대하면서 양장점이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들은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른 경합과 위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양장점 운영이 여성의 성 역할에 “적합한” 직업으로 의미화하였다. 양장점 운영에 대한 여성들 사이의 다른 이해는 여성들의 양재기술 습득의 방식과 과정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습득한 여성들은 양장의 대중화 과정에서 자신을 기술 주체로서 인식하고 양재기술을 경제적으로 자원화하였다. 이로써 전후 의류산업의 태동기에 여성의 양장을 생산하는 양장업은 ‘여성집중업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주가 전후 사회에 등장하였다.

둘째, 양장점은 여성이 양장을 생산하는 작업장이자 여성 고객을 상대로 양장을 판매하는 점포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점포라는 공간, 설비로서의 재봉틀, 자재로서의 옷감 등을 마련하였다. 여성 고객의 방문 및 맞춤 양장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시각적인 배치로서 양장점의 이름 간판, 쇼윈도, 시각적인 실내 장식을 구비하였다. 여성들은 가구 경제에서 전개된 남성 가장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 양장점의 ‘여주인’ 즉, 여성 자영업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점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원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이 양장점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숙련된 고도의 양재기술과 고객의 취향과 최신유행을 다룰 수 있는 감각적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직원과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는 것이 필요하였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전후 가부장적인 재건 담론의 영향 속에서 여성들은 양장점의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장 생산 과정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였다. 그 대신에 양장점의 외부에서 전개되는 양장지와 부자재의 구입 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가시화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을 여성의 직업으로서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일·가정 병행에 동반되는 퇴근없는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으며, 자신을 대표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존재함으로써 독립적인 여성‘경제인’이라는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곤경을 겪었다.

셋째, ‘여성의 경제’로서 양장점은 자본주의적 논리와는 다른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이 여성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공간이자 살림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혹은 ‘연결된’ 곳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녀 양육과 살림을 병행함으로써 근대적인 공사영역의 이분법을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재기술을 가진 기술직 여성‘직업인’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는 양장점에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기술을 전수해서 기술교육장으로 양장점을 위치시켰다. 이로써 양장점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양장점에서는 주인과 직원 사이의 위계적인 관계와 기술습득의 제약과 직원의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여성 양재기술자들은 양장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여성 양재기술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여성 양재기술자의 관계망은 여성 중심의 경제적 장의 구성 및 운영에 주축이 되었다. 또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양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양장의 ‘로컬화’를 통한 ‘생활개선’을 하면서 양장문화를 이끌어갔다. 이로써 새로운 여성문화의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점은 전후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끝으로 양장점은 고객과의 신뢰와 친밀함을 통해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사회를 구성하였다. 양장문화를 통한 도시 여성의 소비문화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범주화하면서도 여성의 계급화 과정이 전개되었다. 전후 ‘여성의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동원 및 편입된 동시에, 주변적 위치에서 유지 및 존속되

어왔다.

본 논문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인 자영업을 ‘여성의 경제’라는 범주로 설명해내면서, 여성 중심의 경제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여성의 사업체 운영이 갖는 성격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는 경제적 생산은 물론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생계경제이자 자급경제이며 가족을 넘어선 여성 중심의 경제적 관계와 다양한 관계망을 구성하는 ‘공동체경제’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는 전후 1950년대가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적 경제만이 형성되는 시기로 설명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전후 경제는 자본주의적 경제는 물론 비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닌 ‘여성의 경제’가 여성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회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전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독자적인 경제 모델 중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발전모델에서의 자본주의적 헤게모니 담론 외부의 경제양식들을 중요하게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다. ‘여성의 경제’를 드러내기 위한 여성의 경험 사례로서 양장점에 관한 주목은 여성노동연구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여성 중심의 경제적 관계망을 새롭게 구성하는 자영업 등 여성의 사업체 운영을 새로운 여성주의 연구의 영역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여성학적 의미가 있다. 후속연구로서 여성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20세기 한국에서 전개된 ‘여성의 경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논의를 심화 및 확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인 양장점이 어떻게 운영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후 여성은 어떠한 경제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동안 전후 사회에 관한 관심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수립된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의 학자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지 못한 채 산업화 시기 경제정책 수립의 토대로 이어졌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왔다(박태균, 2007; 정진아, 2007; 이현진, 2009). 또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남성 주도의 경제재건과 가정 내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한 민족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재건담론을 비판하면서, 전후 여성이 성별규범을 벗어난 ‘문제적’인 여성으로 타자화되었음을 규명했다(이임하, 2004; 김은경, 2007).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사 접근과 가부장적 재건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는 한국전쟁으로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기존의 경제주체인 남성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수행한 경제적 역할, 특히 한국 자본주의 맹아(萌芽)단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성별화된 과정과 그 실천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후 성별규범의 자장 안에서 수행되었던 여성의 경제적 활동, 구체적으로 양장점¹⁾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이는 이전에 여성들이 수행했던 경제적 실천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밝힘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라는 범주로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성별정치의 문화경제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양장점은 전후 사회에서 ‘생산 없는 소비’가 이뤄지는 여성의 소비공간으로만 여겨졌다. 전후 여성의 소비에 대한 가부장적인 혐오담론에 의해서 양장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미화되면서 타자화되었다(김수진, 2007). 그리고 양장점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재한 남성을 대신한 여성의 가족 부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만 이해됨으로써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갖는 사회정치적 함의가 간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장점은 여성의 외모관리와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성별화된 공간으로 이해됨으로써 여성주의적으로 주목할 만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영업의 형태로, 여성이 교환거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이뤄진 경제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1) 양장점(洋裝店)은 양재점(洋裁店)으로도 불리기도 하였으나 양장점이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장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다. 전후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젠더이데올로기와 성별규범은 전후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 동시에 성별정치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양장점은 전후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갖는 다층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품 생산 방식의 여성 자영업이라는 경제활동이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한 채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문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 시기²⁾에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의 경제적 실천 경험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다룬다. 가부장적 젠더이데올로기와 성별 규범 등 젠더통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성들이 구성해내는 경제의 의미를 새롭게 묻고자 한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은 자영업주로서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경제를 책임지고 동시에 기술(교육)자나 문화생산자(예술가)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며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화된 경제주체인 여성 ‘직업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협소하게 규정지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형성 배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양재기술³⁾을 비롯한 생산 수단, 사회적 관계, 직업적 능력 등에 주목하며, 양장이라는 상품의 생산과 거래를 둘러싼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후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있는지를 문화경제학적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양장점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성의 의복이 한복에서 서구식 의복인 ‘양복’⁴⁾, 즉 양장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 1950~60년대는 한

2) 본 연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1965년까지를 주목한다. 박정희 정권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했지만 ‘봉재의류’의 수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전개되었다. 국가의 지원으로 의류봉제업의 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의복에 관한 관심과 소비행위는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의류봉제업 수출이 본격화되어 전환되는 1960년대 중반까지 다룬다.

3) 본 연구는 서구식 양복과 양장을 제작하는 기술을 통칭할 때는 ‘양재(洋裁)기술(dressmaking ski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서구식 양장을 만드는 기술은 ‘양장(洋裝)기술’, 서구식 양복(European-style clothes)을 만드는 기술은 ‘양복(洋服)기술’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여성의 양장은 dressmaking, 남성의 양복은 suit로 번역한다.

4) 일제시대 양복은 남성복은 물론 여성복과 학생복을 통칭했다. 초기에는 양복과 양장이 성별을 구분하는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양장의 착용이 확대되면서 양복은 남성복을, 양장은 여성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김순영, 2017: 91~92).

5) 여성의 양장을 부르는 명칭은 식민지 시기 ‘부인복’으로 불리다가 이후 ‘양장’으로 바뀌었다. 양장이 일반 복장으로 정착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숙녀복’으로 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 ‘양장(洋裝)’은 서구식 여성복을 뜻한다.

국 여성복식사에서 ‘한복우세’에서 ‘양장우세’로 전환된 시기이다(조효순, 1998: 165).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의복 전환은 양장을 만드는 경제활동에 여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소규모 사업체인 양장점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해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술전문직 여성으로서 근대적인 기술인 양재기술을 통해 기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여성의 양장문화를 주도해나갔다. 양장점은 맞춤형 주문생산(customization)으로 소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객과의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운영되었다. 이로써 자영업주로서의 여성들은 운영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양장점을 경영하였다. 더욱이 양장점은 여성이 운영하고 생산하며 소비하는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전후 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양장점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양장점의 특성에 의해 지역 여성의 거점으로 자리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즉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전후 생계경제, 자립경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장점은 전후 사회에 부상한 대표적인 여성의 자영업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확장되어 1960년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화·비가시화되었다.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의류산업⁶⁾이 대량생산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양장점은 의류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⁷⁾.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의류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의류산업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하에서 기성복 중심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전환되었다(장필화, 1991: 72). 박정희 정권은 의류산업을 산업화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미혼여성을 위주로 하는 저임금의 공장노동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이끌었다.⁸⁾ 이로써 외국에서 주문한 의복을 만드는 의류봉제업⁹⁾이

6) 의류산업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의복과 관련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패션산업이라는 용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르면서 의류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50~60년대 의복 생산과 관련한 산업을 ‘의류산업’으로 부르코자 한다. 영어 표기로는 clothing industry, fashion industry, garment industry, apparel industry 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옷감으로 의복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clothing industry를 사용한다.

7) 섬유산업은 방적(紡績)과 방직(紡織)을 포함하며, 일제시대부터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달리, 의류산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화가 전개되었다. 식민지 시대 전개된 면방직공업과 여성 노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권태익(1989), 『한국근대면업사연구』, 서울: 일조각; 안연선(1988), “한국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강이수(1992),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8) 의류산업 이외에도 섬유산업 및 전자산업이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가로부터 집중지원을

크게 발달했다.¹⁰⁾ 그러다가 해외에 섬유와 기성복을 수출하던 기업들이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성복시장으로 합류하게 된다.¹¹⁾ 산업화 시기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형성된 대기업과 해외 수출기업들이 국내의 기성복 의류 시장에 참가하면서, 1970년대 후반 한국은 기성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¹²⁾ 즉 1970~80년대 국내 의류 시장은 맞춤복과 기성복이 공존하였으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기성복으로 정착되었다. 수출지향의 산업화와 대기업의 기성복 내수시장에 관한 관심은 의류산업을 기성복 위주로 재편하였으며, 양장점은 맞춤양장 소비문화의 쇠퇴와 함께 사라져갔다. 결과적으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뤄지던 양장점은 주변화·비가시화되었다.

그동안 전후 1950년대 여성의 양장문화에 관한 연구는 양장 유행의 변화나 여성의 양장 소비에 집중함으로써,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 생산이 갖는 젠더사적 의미가 논의되지 못하였다. 주로 의류학이나 의상학에서 전개된 논의는 한국전쟁이 여성 양장점의 대중화와 유행하는 디자인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유수경, 1989; 1990). 그리고 여성의 양장과 관련한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미국화와 국가통치에 대한 고찰에 그쳤다. 전후 여성의 의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화’ 혹은 국가의 통치 레짐(regime)으로써 조명하였다(최수아, 2009; Chung, 2014). 의복의 양장화 과정에서 전개된 미국화는 일종의 규율권력이었음을 드러내거나, 국가의 통치레짐(regime)이 패션을 통해 구현된 방식을 가시화하며 전후 여성의 새로운 패션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권력이 작동한 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전후 1세대 여성 디자이너들을 주목한 연구는 한국패션사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기여에 주목할 뿐,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¹³⁾

받는 수출용 경공업으로 급성장하였다.

- 9) 의류봉제업은 패턴으로 잘린 옷감을 재봉틀을 사용해 박는 것을 위주로 하는 업종을 뜻한다.
- 10) 서울 동대문에 있는 청계천은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는 피복공장 혹은 봉제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전후 의류산업의 본거지이자 이후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구로동이 의류 봉제 업체가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추가되었다.
- 11) 대기업인 삼성물산은 1970년에 ‘댄디’라는 기성복을 출시했으며 1978년에는 ‘버킹검’이라는 브랜드를 내놓았다. 현재 LG그룹인 럭키그룹은 1974년에 ‘반도상사’라는 기성복센터를 명동에 열었으며, 반도패션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다(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2017: 192~193). 신사복 수출업체였던 삼풍은 1977년에 신사복 브랜드를 런칭하고 기성복 시장에 참여했으며, 해외에 섬유를 수출하던 섬유기업들인 코오롱상사, 제일모직, 부흥사, 파일상사, 경남모직, 대한모직 등이 기성복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2017: 192~195).
- 12) 섬유 기업들은 해외에 기성복을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사 기성복 브랜드는 물론 여성복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기성복 보급률이 1981년에는 15% 정도에서 1985년에는 50%를 석권하였다(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2017: 192~195).

1950년대 여성의 양장 생산과 양장점 운영이라는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관심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¹⁴⁾ 이들은 주로 산업화 과정에서 전개된 의류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공장노동과 의류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위기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산업화 시기 기성복 중심의 공장노동 혹은 산업노동에 초점을 두었으며(이수자, 1984; 전순옥, 2004[2003]; 김귀옥, 2004; 2005; 2006; 정현주, 2006, 김경희, 2006), 의류봉제업에 종사한 여성노동자들이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임금노동자로서 어떠한 성차별적인 노동 경험을 했는지와 여성노동자들이 어떠한 저항적 성격을 가졌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의류산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도 의류산업의 쇠퇴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문제점, 대책 마련을 다루는 데 집중하였다.¹⁵⁾ 1980년대를 지나면서 수출주도의 의류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축소로 구조조정의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사양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의류산업에 주목한 여성주의 연구들은 주로 산업화 시기 혹은 그 이후 시기의 국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공장노동과 노동운동에 관심을 두었으며, 여성이 주도하는 소상품 생산 방식을 가진 양장점 운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개된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Gamber(1997)는 의류산업의 생산 방식이 변화함에 따

13) 박신미(2014a; 2014b; 2017; 2019; 2020)는 한국전쟁 이후 패션 분야에서 활약한 노라노와 최경자 등 1세대 디자이너에게 초점을 맞췄다. 여성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영화에 등장한 여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은 전후 한국 사회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고 국외의 유행을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14) 좀 더 살펴보면, 김수진(2007)은 한국전쟁 이후 여성의 의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의복 논란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김미선(2011; 2012)은 명동이라는 장소를 근·현대 공간으로써 주목하면서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과 미용실과 같은 소비공간을 통해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을 시도하였지만, 여성의 경제적 실천보다는 소비문화를 통한 명동의 장소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예은(2019)은 산업화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양재기술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나 양재기술을 여성의 수공예 실천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쳤다.

15) 의류산업의 구조조정기인 1980년대 의류산업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들(장필화, 1991; 장필화·정영애·강선미, 1993; 서정혜, 1993)은 의류봉제공업에서 공장자동화 추진이 여성노동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를 다루거나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6) 한국의 의류산업은 산업화 시기 대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의류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의류업체의 소규모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수시장에 참가하는 대기업은 자체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외주하청을 선호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의 가내노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내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급화·패션화가 추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전명숙, 2000: 201).

라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주목하였다. 우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여성들이 양장점을 통해 맞춤복 생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규모 제조업을 발전시켜나갔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의복제작에 대한 주도권이 남성으로 넘어가면서 의복의 생산 방식도 기성복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혔다. 즉 가내수공업에서 소규모 제조업으로, 다시 대규모 공장생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의 성별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미국의 의류산업에서 전개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은 여성이 남성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구(舊) 체제(1675-1791) 시기를 다룬 Crowston(2001)은 여성 재봉사들이 상품 제작, 길드 조직과 여성 도제, 도제에서 여주인이 되는 과정 등을 주목함으로써, 양장점을 기반으로 전개된 여성 양재사의 노동, 조직, 여성의 삶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 여성 재봉사들은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이 양장점을 통해 갖게 되는 운영자의 역할과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적인 위치로 내몰리는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제활동이 가부장적인 젠더이데올로기와 성별규범에 의해서 젠더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과, 여성이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장인 ‘여성의 경제’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젠더 통치와의 관계 속에서 밝히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전후 가부장적 젠더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성별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여성이 주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양장점이 여성의 자영업으로 부상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등 전후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시기였다. 이와 동시에 가부장적인 국가체제와 재건 담론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전후 여성의 성별규범과 젠더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후 여성이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천을 하면서 젠더 관계의 정치학을 어떻게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적 주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중심 경제활동의 장이자 경제영역인 ‘여성의 경제’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

17) 여성의 성역할인 바느질과 의복제작, 근대적인 의류산업의 성장 그리고 여성 노동의 관계를 주목한 외국의 연구들이 있다(Green, 1997; Miller, 2006; Goggin and Tobin, 2009). Miller(2006)와 Goggin and Tobin(2009)은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행해진 여성의 바느질과 공예 그리고 여성 장인 등을 주목하면서 여성의 바느질과 의복제작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밝혔으며, Green(1997)은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18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여성복 의류의 생산과 소비를 주목하면서 의류산업에서의 젠더 정치학을 주목했다.

인은 무엇인가?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인 양장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후 여성은 어떠한 경제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와 여성 '직업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별화된 문화적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전후의 현실 속에서 양장점 운영이라는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후 여성 자영업자가 성별화된 경제적 실천을 통해 구성한 '여성의 경제'가 가진 의미와 가능성은 무엇이며, 모순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이 성별화된 경제주체인 여성 '직업인'으로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분된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다.

첫째,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특히 양장점 운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서 구성되었는가.

둘째, 자영업주로서의 양장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수단과 요소들이 필요하며, 자영업주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직업적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 내부의 차이는 양장점 운영과 성장 과정에 어떤 차이를 낳았는가. 가부장적 젠더 질서와 성별규범은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통제했는가.

셋째, 전후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구성한 '여성의 경제'로서 양장점은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경제적 주체화 과정에서 양재기술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자신을 어떻게 여성 직업인으로 정체화했는가.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로의 역사적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경제 다양성을 주목하는 등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저평가되었던 소상공인 생산 방식인 여성의 자영업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차화된 방식의 통제와 성별을 둘러싼 성별정치의 과정에서 양장점에서 전개된 생산요소와 기술 전수 등 소상공인 생산 방식과 경제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여성 자영업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 연구방법론

1. 연구 과정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구술자(口述者)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크게 구술자료와 문헌 자료로 구성된다. 자료 수집의 과정은 문헌 자료를 수집한 뒤, 문헌 자료에서 발견한 인물들을 찾아 구술을 요청하면서 구술자료를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 초기에 양장점 운영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며 구술인터뷰 진행 시 필요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산업 실태, 여성과 관련한 경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술자료를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을 다룬 다양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로 단행본 위주의 회고록, 전기류 등을 수집하였으며, 최경자와 노라노와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자서전이나 평전, 구술자료, 다큐멘터리인 《노라노》(김성희 감독, 2013) 등도 수집하였다. 그러나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의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기관이나 역사 관련 기관에서 구술인터뷰를 진행한 뒤 발간된 구술자료 책자 중에서 양장점, 양복점, 의류 도매를 했던 인물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1990년대 이후에 발간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1950~60년대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미 수집된 자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으며, 이미 생산된 구술자료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장점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인지도와 접근성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술자 섭외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윤이나 생산성의 성과를 냈던 여성 양장점 운영자에 관한 자료는 기존에 생산된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박부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물 및 의류 관련 기업의 기업사와 양재(洋裁)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의류 및 양재 관련 자료들은 양장을 만드는 방법 위주의 양재기술, 양장 관련 용어, 양장을 입는 방법에 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후 1950~60년대에 발간된 양장점 관련 사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신문과 여성지에 실린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했다. 검색어는 양장(洋裝), 양장점(洋裝店), 양재점(洋裁店), 양재(洋裁), 양재학원, 양복, 양복점 등이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의 주요 신문과 《여원》, 《신가정》 등의 여성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역의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확장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양장을 입는 법, 최신 유행하는 양장 스타일, 양장점이나 양재학원에 관한 정보 중심이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을 운영하는 방식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중매체 분석을 통해 여성의 양장점 운영과 양재기술에 관한 지배 담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양장점을 포함한 의류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와 경제와 관련한 정책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발간한 『한국산업경제 10년사』,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 『광업센서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양장점의 수, 양장점의 운영자와 직원의 수 그리고 종업원의 성별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양장점의 규모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당시를 분석한 경제사 문헌연구에 도출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당대에 생산된 문화적재현물을 수집하였다. 당대 영화나 소설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와 양장점에 대한 재현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영화는 《미망인》(박남옥 감독, 1955년), 《자유부인》(한형모 감독, 1956년), 《지옥화》(신상옥 감독, 1958년), 《여사장》(한형모 감독, 1959년), 《자매의 화원》(신상옥 감독, 1959년), 《하녀》(김기영 감독, 1960년) 등이다. 그리고 소설가 임옥인이 1958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젊은 설계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자료 수집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구술생애사 방법론으로 수집한 자료와 결합해 연구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경험을 역사화·지식화·이론화하기 위해서 문헌 자료의 수집과 함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발화하는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를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전후 여성의 구체적인 양장점 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론을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¹⁸⁾ 1950~60년대의 양장점 운영에 관한 경험에 주목하기 위해 구술대상자의 나이는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술자의 나이는 대부분 80대에서 100세에 해당하였다. 구술자의 경험과 당대의 양장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술자 발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서울의 명동, 인천, 제주 등 양장점 거리로 유명했던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양장점은 폐업하거나 점차 주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당시 번성했던 양장점 거리는 현재 수선집이나 한복집 혹은 옷가게로

18)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 자료의 부족이다. 문서자료도 보관과 수집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얼마 되지 않던 자료마저 소실되고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고 보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나마 관공서나 단체의 자료는 일부 보관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 기업의 경우에는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제사연구가 정책 중심적, 수량 중심적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생산이 필요한데, 기존 기록물의 한계를 일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술자료이다(서문석, 2006).

대부분 바뀌어 있었다. 결국, 1950~60년대에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을 찾기 위해 신문과 책자 등의 자료 조사에 집중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사이에 본격적으로 양장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여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하였다. 문제 제기와 연구 물음이 명료해지기 전에는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은 물론, 한국전쟁을 체험하거나 전후 사회에서 양장을 입었던 구술자를 발굴하였다. 구술사 인터뷰는 2019년 5월부터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70~80대의 여성과 남성을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만났으며 양장점에서 양장을 맞춰 입었던 여성을 만나 1950~60년대의 양장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산업화 시기 변화하는 양장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970~80년대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과 남성을 만나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보조 구술대상자로 주로 배치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 구술자의 발굴은 대부분 지속적인 문헌 자료의 아카이빙 과정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주요 구술대상자인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발굴 및 선정은 기사화된 데이터 검색을 통해 수집 발굴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생존 여부 확인과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소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였다. 양장점 운영이 갖는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목포, 제주 등지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구술자를 찾고자 했다. 양장점의 규모나 성공의 정도 등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양장점 운영에 관한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양장점 운영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후반부 혹은 2~3차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의 양장점 경험에 대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 및 생애 전반에 관한 질문을 추가해서 진행하였다.

구술인터뷰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것 혹은 양장점 운영에 관한 경험 중에서 말하고 나서 인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상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구술자가 원하지 않거나 구술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구술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거나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만난 구술자들은 총 17명이지만 본 논문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구술대상자는 8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구술인터뷰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 반 정도에 걸쳐 진행하였다. 서울, 목포, 제주, 파주, 인천 등 연구 참여자의 집 혹은 점포에서 만나 진행하였다. 보통 인터뷰 진행 시간은 2~3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8회에 걸쳐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구술인터뷰 시 녹음하고 녹취한 뒤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1〉은 주요 구술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에 주로 참조하여 연

구 자료로 쓴 참여자는 편의상 주요 구술대상자로 구분하였다. 구술 대상자의 이름은 신문이나 잡지 혹은 국가기관에 기증된 자료에 실려 있기 때문에 본명으로 표기하였다.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구술자는 가명으로 작성하였다.

박혜영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는 1920~1940년대 생이며, 양재기술을 배운 시기는 10대에서 20대가 많았으며, 양재기술을 배운 방식은 일본 유학, 여학교, 양재학원, 양장점 등으로 구분된다. 양장점에 취업한 뒤 경험을 쌓아 양장점을 운영한 경우는곽정희, 인순옥, 신희자, 박부대, 박혜영으로, 인순옥과 박부대는 재단사로 시작을 했으며, 곽정희와 신희자, 박혜영은 양장점에서 시다부터 시작해 재봉사와 재단사를 거쳐 양장점의 운영자가 되었다. 그리고 양장점 운영을 시작한 나이는 10대 말에서 20대에 걸쳐져 있으며, 1950~60년대에 본격적으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양장점 운영을 곧바로 시작한 경우는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이다. 결혼하기 전부터 양장점에 진출한 구술자는 이종수, 김경옥, 신희자, 박부대, 박혜영이고, 결혼 후에 시작한 구술자는 송용순과 인순옥이다. 그리고 구술 당시 곽정희, 인순옥, 신희자, 박부대는 남편이 생존했으며, 송용순은 남편이 노환으로 사망했으며, 김경옥은 그녀가 사십대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표 1-1> 주요 구술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이름	출생연도	양장점 (취업 및 운영) 관련 경험	지역
1	송용순	1921년	일본 동경양재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월남하여 충무로에서 양장점 운영함. 1970년대 중반경에 양장점에서 화상을 입은 이후 양장점을 중단함.	서울
2	이종수	1927년	일제 시대 만주 안동으로 이주하여 여학교를 다니면서 양재기술을 배운 뒤, 고모와 함께 양장점을 운영한 적이 있음. 해방 이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양장점을 운영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산양재전문학원을 설립해 운영함.	부산
3	김경옥	1931년	전남 목포에서 1950년대 후반 미미양장점을 운영하여 1980년대까지 양장점을 운영함.	목포
4	곽정희	1937년	서울에서 태어나 십 대 후반에 서울 양장점에 들어가 양재기술을 익혔으며, 이후 양장점을 개업함.	서울
5	인순옥	1938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내려옴. 1960년경에 서울에 있는 서라벌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하였다가 이후 고향 근처 미군 부대가 들어선 장파리에서 서라벌양장점을 1970년대 초반까지 운영함.	경기
6	신희자	1940년	제주 한림의 최초의 양장점인 미도파양장점을 1950년대	제주

			부터 운영했으며, 현재는 한복점을 운영함.	
7	박부대 ¹⁹⁾	1941년	대구가 고향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정으로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으나 진학을 못 하였음. 이후 양재학원에 다닌 후 양장점에 취업했다가 이후 독립하였음.	대구
8	박혜영 ²⁰⁾	1951년	인천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기술을 익힘. 인천 신포동에 있는 양장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70년대 중반 독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임.	인천

2. 구술자료 수집과 구술생애사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역사적 사료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기 위해 구술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를 발굴하여 구술인터뷰를 진행한 자료와 함께 기존에 구술되어 인쇄된 자료를 포함하였다.

그동안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구술자료의 분석과 해석 작업에 대한 논의 역시 심화하였다. 문헌 자료로 남아 있지 않은 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이 여성학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²¹⁾ 문제를 시작으로, 식민지 시대 ‘배운여성’과 직업여성²²⁾, 제주 4.3사건의 피해여성²³⁾, 전쟁미망인²⁴⁾ 등 여성의 역사적 경험이 구술생애사라는 연구방법을 통해서 가시화

19)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구술자료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로 인쇄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재구조화된 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20) 박혜영은 가명이다. 구술 인터뷰 과정에서 실명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아 가명으로 작성하였다.

21)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60집, 60-96쪽; 김수진(2013),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집1호, 35~72쪽;

22) 정미경(2000), “일제시기 ‘배운여성’의 근대교육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김미선(2009),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학과 역사』, 제 10집, 141~186쪽; 김은정(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 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미용사 L의 생애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 64~100쪽.

23) 이정주(1999), “제주 ‘호미’ 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제37권 제1호, 3~39쪽; 김은실(2016), “4·3 홀어머니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제49권 제3호, 313~359쪽

24) 이임하(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나성은(2015), “유자녀 ‘전

되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전개되었다.²⁵⁾ 이러한 가운데 산업화 시기의 여성 노동자 연구²⁶⁾에서 구술생애사를 문헌 자료를 대신하는 역사적 자료로써 접근하는 연구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김귀옥, 2004; 2005; 김경희, 2006; 강남식, 2006; 김귀옥, 2006; 장미경, 2006a, 2006b, 장미경, 2006b; 정현주, 2006; 진양명숙, 2007; 배은경). 여성노동자의 구술자료를 구술생애사의 서사구조나 서사화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여성 구술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했으며 그것을 구술증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구술생애사 자료가 갖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한계를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경험의 역사성과 서사 방식을 상호적으로 주목하는 연구를 주로 참고하고자 한다(윤택림, 2012; 이희영, 2013). 윤택림(2012)은 여성의 구술생애사 서술형식이 여성들의 경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이야기된 경험의 주관적 의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야기된 경험의 역사화는 여성의 주관적 의미화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윤택림(2013)은 서술형식 분석과 더불어 여성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의 삶의 경험을 역사화하여 여성의 삶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 지워야만 젠더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138)라고 강조하였다. 이희영(2013) 역시 여성의 경험을 전체 사회구조 속에 맥락화 시켰을 때 여성 경험의 실체가 드러나며, 서사적 주체와 경험의 주체 혹은 서사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맥락 중심의 해석은 구술자가 서술하는 경험을 역사화하려는 작업으로, “구술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 즉 구술자의 경험

쟁미망인'의 재혼과 모성: 1920년대 출생 여성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31권1호, 161~200쪽.

25)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방법에서 초기에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여성의 서술형식(narrative firm) 혹은 서사화 방식이었다(김성례, 1991, 2002; 유철인, 1996; 1997; 2004; 2011, 이희영, 2005; 이재인, 2006). 서술형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해석하고 발화하고 있는지, 즉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여성의 구술생애사에서의 개인의 발화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서사 분석은 서술 자체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치우쳐, 젠더 경험의 구체성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윤택림, 2012).

26) 윤택림(2002),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노동운동의 의미: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17권, 33~62쪽; 김귀옥(2004),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 과정 :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김귀옥(2005), “1960~1970년대 의류봉제업 작업장의 성격과 여성 노동자의 실천: 반도상사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한울아카데미; 김귀옥(2006), “1960~1970년대 의류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의 문화건설과 문화의 성격과 한계”,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정현주(2006), “청계천변 피복공장 여성노동자의 삶”, 『여성과 역사』, 제5권, 47~68쪽.

이 시대적 특수성, 사회 계층적 특수성, 지방적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성됐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윤택림, 2010)이다. 이들은 서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구술생애사의 서사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양장점 운영에 관한 서사화 방식과 경험의 역사를 상호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질문하고 맥락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여성의 경험이 말해지는 과정, 즉 담론적 구성 과정과 담론적 장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둔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의 경험이 역사적 경험으로 등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 담론의 장이었던 지식체계와 인식틀을 문제시한다. 여성의 경험이 이해되고 맥락화 되었던 담론적 장²⁷⁾에 주목한다. 구술자료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험이 언설되는 조건과 배경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⁸⁾ 본 연구 역시 담론의 구성 과정은 물론 담론적 장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담론적 장과 조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될 때 ‘여성의 경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실(2003)은 여성 경험의 구술과 해석에 관한 방법론적 모색을 하면서 역사적 자료로 존재하지 않는 여성 경험의 역사적 자료화, 자료의 성별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사 연구의 인식틀, 특정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료가 될 수 있는 언설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의 경험을 구축하는 담론적 장-즉 발화자체를 구조화하는 담론의 장-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와 이들의 경험에 어떻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여성이 자기 경험의 발화 자체를 구조화하는 담론의 장에 주목한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가시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담론적 장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은경(2013) 역시 경험을 구성하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역사성을 갖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의 경험이 어떤

27)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지식 생산과 경험의 장이 된다. 여성의 특정한 경험이 말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담론적 장의 권력을 문제제기하기 때문이다. 양장점을 둘러싼 논의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자영업의 전개과정에서 성별 구성의 역사적 과정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통한 주체적인 행위성과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가시화하는 과정이 된다.

28) 포스트구조주의 역사학자인 스콧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여성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 스콧은 경험은 이미 해석인 동시에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언제나 경험적이며 그러므로 언제나 정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험 자체만이 아니라 경험이 담론화되었던 과정 역시 해석의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스콧, 1991; 1996). 즉 경험의 담론적 구성과 구성 과정의 정치학을 강조한다. 경험을 자연화하는 맥락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범주들을 경험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들의 역사적 구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역사적 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구조의 영향하에 구성되므로, 성별체계의 작동에 대한 구조적 읽기를 필요로 한다.

담론적 구도 속에 배치되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구술사 자료에 문제의식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여성 구술자들이 자신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발화하지 못했던 혹은 하고 싶지 않았던 맥락과 이유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²⁹⁾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서사적 방식과 경험의 역사성, 담론의 구성 과정과 담론적 장,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것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9) 정지영(2016)은 생산된 구술자료의 서사적 진실을 맥락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곧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은실(2017) 역시 언어중심적인 재현과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실’이나 정치적 진실에 포획되지 않는 피해자의 ‘침묵’, ‘말할 수 없음’, ‘말을 넘어서는 느낌이나 감정’에 접근해야 하고, 그들의 몸적 경험을 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여성들이 겪은 역사적 삶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을 재현하는 언어의 불충분성과 재현의 불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경험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선(2020)은 정동과 감정 등 구술 과정에서 구술자와 연구자 사이의 교류되는 지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구술자들이 발화하지 않았던 지점, 구술자와의 감정적 관계 등을 다루고자 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재봉틀과 가위를 오랜 세월 사용하였다. 이에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술자들이 이러한 물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술자가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와 표정으로도 무언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술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감정과 몸짓에서 나타나는 것이 갖는 의미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C. 연구 참여자의 구술생애사 사례 소개³⁰⁾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 참여자의 연대기적인 생애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자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구술자의 삶에 대한 서사화 방식을 간략히 구조화함으로써 언술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를 소개하는 것은 구술자의 위치성과 구술자 간의 차이, 구술생애사 자료의 맥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ㄱ. 송용순(1921년생)³¹⁾ : 교사보다 못한 직업이지만, 남편 내조로서 만족스러운 양장점

송용순은 신문 검색을 통해서 발굴한 사례로, 그녀가 속한 (사)한국부인회충본부와 황해도 중앙부녀회 등을 통해서 연락이 닿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송용순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구술인터뷰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두 시간가량 전화 인터뷰가 이어졌으며, 메모를 기반으로 구술 텍스트를 정리했다.

전화 인터뷰의 한계로 정확한 연도나 부족한 사항은 신문 기사를 참고했다. 송용순은 1921년생으로,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다. 송용순은 해주여고 졸업 후 일본 유학을 가서 동경기예전문학교에서 1년 동안 양재를 전공하고 졸업했다. 귀국 후 19살부터 직장생활을 했다. 교사로 근무하다가 20살에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했던 송용순은 남북 간의 이념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월남했다. 월남한 뒤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일본 유학을 가서 배운 양재기술을 활용해 양장을 만들어 노점상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에는 길거리에 재봉틀을 내놓고 양장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로 돌아와 이전에 살던 충무로에 정착해 양장점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송용순은 1970년에 양장점 안에 있던 난로 위의 뜨거운 물을 담은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양장점 운영을 그만두었다. 그 뒤로 송용순은 부인회, 황해도 고향 모임, 야간학교 교장 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해왔다.

30) 나이순으로 작성하였다.

31) “‘전신화상 아픔 딛고...’ 봉사하는 삶 사는 90대 할머니”, 《경향신문》, 2016.6.28.; “[자비의 특별 희년] (17)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중부직업청소년학교 전 교장 송용순 클로틸다: 33년간 직업 청소년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 《카톨릭평화신문》, 2016.8.21.; “96세 할머니, 앙드레김 가르친 디자이너에서 봉사의 삶으로”, 《연합뉴스》, 2016.6.28.; “‘앙드레김 스승’ 96세 송용순 할머니, 전신 화상 아픔 딛고 30여 년 ‘봉사의 삶’”, 《경향신문》, 2016.6.28.; “송용순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 ‘교육과 봉사에 헌신한 삶... 99세 내 인생’”, 《여성소비자신문》, 2019.6.24.

송용순 구술의 서사구조는 양장점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데, 식민지 시대 일본 유학을 가서 배운 양재를 직업으로 갖게 된 것은 해방 이후 가족이 함께 월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양장을 만들어 노점을 하던 것이 양장점 운영의 출발이었다. 송용순은 자신이 가진 인생관으로 행복, 노력, 명량 등을 강조했으며, 자신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송용순의 구술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혼 전 교사 생활을 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양장점 운영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이자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돈보다는 인격에 초점을 두었다는 자기 항변이기도 했다. 더욱이 송용순은 박봉인 공무원 남편을 내조하는 목적으로 양장점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못한 양장점 운영을 직업으로 가졌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아내로서 양장점 운영을 통해 남편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송용순은 교직에서 양장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강한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송용순은 양장점의 고객을 ‘하이클래스’라고 칭하며 자신 역시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신은 여학교 동창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으며 황해도 고향과 관련된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했음을 강조했다. 송용순은 명문여고 출신과 양재 전공 선택, 멋쟁이, 돈보다는 인격을 보고 남편을 선택, 결혼 후 재취업, 적극적인 사회활동 등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자신을 서사화했다. 한편 송용순은 친정이나 형제에 관한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 송용순의 생애에서 전환적 사건으로는 일본유학, 월남, 양장점 운영과 화상으로 인한 양장점 운영의 중단, 활발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천 등이다. 현재 송용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배움과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ㄴ. 이종수(1927년생) : 가족의 생계 부양과 사회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양장점

이종수는 1927년생으로, 경상남도 김해가 고향이다. 이종수의 아버지는 식민지 시대 일본 우에노음악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조선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이종수는 통영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근대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1939년에는 온 가족이 만주 안동으로 이주를 하였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교직에 있었으며, 이종수는 만주에서 안동심상소학교를 졸업한 뒤 안동여학교를 다녔다. 만주에 있는 동안 일본인 여교사로부터 방과 후에 1년 정도 양재기술을 배웠으며, 고모와 함께 작은 점포를 얻어 양장점을 운영한 적이 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부산으로 귀국해 연화양장점과 호프양장점을 운영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1948년에 ‘부산양재전문학원’을 운영했으며, 강사로 부산사범대 가정과에 양재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결혼 전 미군 부

대에 포로복을 납품해서 번 돈으로 친정 부모에게 재산을 마련해줬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친정부모의 재산은 물론 자신의 양재학원도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했다. 이후 자녀 교육을 위해 상경한 이종수는 해화동에서 오랜 기간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남편은 한일관계개선을 위한 운동을 하며 일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종수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1983년에 일본 동경으로 이주해 남편과 지냈으나 남편은 2006년에 사망했다. 그 이후 한국에 있는 자녀들 곁으로 영구 귀국했다.

이종수는 여러 차례 구술이 진행된 만큼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종수의 구술은 어린 시절의 경험, 학창 시절, 만주 안동에서의 이주 생활, 부산에서의 양장점 및 양재학원 운영 그리고 미군 부대 포로복 납품, 상경한 뒤 양장점 운영과 자녀교육 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종수는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겪은 근대적인 경험과 미군 부대에 포로복을 납품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구술했다. 포로복 납품 과정에 대한 구술은 상당히 당당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종수는 부산 양장점 운영 당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여성이 패션유학을 제안했지만, 맏딸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이종수의 생애에서 전환적 사건은 만주 안동으로의 이주와 양재기술 습득, 해방 이후 부산에 귀국한 뒤 양장점 운영, 결혼 뒤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양재학원 운영 중단 등이다. 이종수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강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강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종수는 구술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술에 참여했다. 노년의 이종수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들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강한 의욕과 배움에 대한 열망하고 있었다.

ㄷ. 김경옥(1931년생) : 고생스러운 양장점이지만, 양장점을 통해 관계와 세계 구축

신문 검색으로 구술자를 찾다가 목포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³²⁾를 통해서 김경옥을 알게 되었다. 당시 책자의 원고를 작성했던 연구원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인터뷰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응해주었다. 김경옥과의 구술인터뷰는 둘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첫 만남에서 만나질 가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김경옥은 1931년생으로,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다. 유년시절은 아버지와 떨어져 시어머니를 모시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 조천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목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다. 김경옥은 고모부³³⁾를 비롯해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32)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2018), “제2절 김경옥 소장 자료”, 『목포시사 다섯마당: 기록목포 (현황자료 역사자료)』,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419~424쪽.

33) 김경옥의 고모부는 김명식으로 잡지《신생활》의 주필로 활동하다가 함흥형무소에 투옥되었다.

받아 정치의식이 발달했던 여성이었다. 목포고등여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순사건(1948.10.19) 발생 당시 제주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반대한 것을 이유로 연행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이로 인해 김경옥은 여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다. 한국전쟁 전에는 세무서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여순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로 신상에 위험이 닥칠 것을 우려해 그만두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형부가 일본으로 떠난 뒤 언니와 조카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양장점 운영을 시작했다. 그녀의 여순사건과 연루된 정치적 참여가 이후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이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1966년경에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으로, 김경옥은 자녀들이 장성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김경옥은 1980년대 후반에 양장점 운영을 그만두고 서울에 와 있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김경옥의 구술 내용은 주로 양장점 운영 이외에도 어린 시절 친가와 외가에 대한 기억, 여순사건 동조로 인한 형무소 생활과 고문, 남편의 빚보증으로 인한 고통과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장성한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전개되었다. 김경옥은 양장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힘겹게 살아온 생애를 구술했다.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 운영 이야기를 목포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목포시사』에 사진과 함께 수록할 만큼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편 김경옥은 한국전쟁으로 언니네 식구가 모두 도일(渡日)한 뒤 다시 복송하는 바람에 언니와 연락이 끊어졌다. 언니에게 주기 위해 오래전 만들어 놓은 코트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다. 김경옥은 할아버지 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꽤 오랜 시간 했는데, 남성 집안 어른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체화했다. 여학생 시절에 여순사건³⁴⁾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만큼 일찍부터 정치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어린 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김경옥은 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옥은 남편의 빚보증과 사망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의 부지런함과 굳센 의지로 잘 극복해내었다. 더욱이 김경옥은 여학교 출신으로 학교를 통해 맺은 여성들과의 관계망이 그녀의 삶에 중요한 자원이었다.

김명식 '신생활'필화사건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으로 불린다. 김명식은 1918년에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뒤, 조선유학생 회지《학지광》을 발행했으며, 2.8독립선언에 참여했다. 그는《동아일보》창간 당시 논설반 기자로 입사했다. (네이버 검색)

34) 김경옥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여순사건은 단순해”라는 말로 시작했다. 인터뷰 당시 여순사건 자체와 고문을 위주로 구술했다. 김경옥의 구술에 기반해 작성한 책자에 따르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민주청년회'라는 목포 지역 좌익청년지하조직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여순반란'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검거되어 고문 끝에 겨우 생환했다”고 한다.

ㄷ. 광정희(1937년생) :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던 시절,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광정희는 1937년생으로, 경상북도에서 3남 3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3살에 서울 서소문로로 이주했으며, 이후 아버지가 가구공장을 하면서 서울 을지로2가 수표동에서 살았다. 1943년에 덕수초등학교를 입학했으며, 1949년에 서울여상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서울여상에서 공부를 시켜 사무직 여성(은행원)으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전쟁으로 그의 계획은 수포가 돌아갔다. 한국전쟁으로 대구에 피난을 가서 연합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귀환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광정희는 이웃 주민의 소개로 양장점에서 양재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광정희는 명동에 있는 유명 양장점의 대부분 점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양장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1960년에 한국전쟁에 참여해 상이군인이 된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후암동과 약수동 등에 있는 양장점에서 근무하다가 싸룽을 넘겨받아 운영했다. 1990년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하면서 싸룽 운영은 그만두었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건강이 불편한 상태였으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광정희는 양장점 운영을 중심으로 구술이 전개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 이외에는 원가족, 즉 부모나 형제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명동의 양장점에서 근무했던 시절에 대해서는 즐겁고 좋았던 경험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광정희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양장점 운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는 싸룽을 오랜 기간 운영했기 때문이다. 싸룽은 상가가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제한된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싸룽은 고객의 사적인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였는데,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안이 주 고객이었다. 광정희는 인터뷰하는 동안 싸룽에 관해 얘기하기는 했지만 공개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여러 차례 비공개가 될 것을 강조했다. 광정희는 구술할 때는 소극적이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던 재봉틀과 옷본 등을 보여줄 때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즐겁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광정희의 구술에서는 생애 전환적 사건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ㄹ. 인순옥(1938년생) : ‘경제적’ 성공은 못 했지만, 양재기술을 배워 가족 부양과 자립 가능

구술자 인순옥의 발굴 역시 책자³⁵⁾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책자를 발간한 기관에 연락해

35) 현장사진연구소·문발작가협동조합(2020),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 파주시도서관.

인터뷰를 진행했던 작가에게 연락해 소개를 받았다.

인순옥은 1938년생으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가 고향이다. 마정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다가 한국전쟁을 겪었고 아버지는 냉병을 앓다가 사망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인순옥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마정리에서 어머니와 농사일을 했다. 언니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어머니와 두 남동생을 보살피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였다. 이에 인순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파주시에서 서울에 있는 서라벌양재학원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며 영재기술을 배웠다. 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해 양재기술을 익혔다.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해 서울에 양장점을 개업하려고 했으나 땅이 팔리지 않아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문산읍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했다가 이후 미군 부대가 위치한 파평면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독립을 했다. 파평면의 양장점에서 일할 때쯤에 농사를 짓는 남편을 소개받아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1970년대 초반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양장점 운영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현재 남편은 노환으로 외출이 불편한 상태다.

인순옥의 구술은 양재학원에 다닌 계기와 과정, 서울과 파주에 있는 양장점 취직과 양장점을 독립해서 운영했던 경험, 그리고 두 남동생과 자녀들 얘기로 주로 이어졌다. 그녀는 시댁에 관한 내용을 구술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다. 남편이 육 남매의 맏이였기 때문에 시동생을 시집·장가 보내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등 시댁과의 관계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인순옥은 양장점 운영에 대해서 “쓸 만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혹은 “좋은 얘기 다 못 해 드린 것 같아서”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미 부여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순옥은 양장점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해서 재봉틀, 가위, 옷감, 자, 교본 등을 보관해왔다. 양장점 운영을 그만둔 지 벌써 사십여 년이 되어가지만, 이웃들이 여전히 그녀를 “양장점 아줌마”로 부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이 드물고 특별했음을 알 수 있다. 인순옥의 생애에 있어서 서울까지 아침저녁으로 다니며 양재학원을 힘겹게 졸업한 것이 전환적 사건이었지만, 양재기술을 배우면 경제적으로 넉넉할 것이라고 여겼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한다.

ㄴ. 신희자(1940년생) : ‘여공’보다 못했던 양장점이지만, 지금의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신희자³⁶⁾는 1940년생으로 제주도 한림 출신이다. 신희자의 부모님은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멀리에서 와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릴 만큼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36) 구술자 신희자는 신희자 인터뷰가 실린 책자를 소개받아 작가에게 연락하여 소개받았다. 콩메(김경화·신현아)(2019), “새 옷을 입고 살짝 뛰어보자 팔찌! 미도파 양장점”, 『제주 시골 할머니 패션』, 254-273쪽.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부와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던 오빠가 실종되었다. 또 둘째 오빠의 건강이 악화하는 등 가세가 기울었다. 이 때문에 8남매 중 여섯째였던 신희자는 혼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옆에서 도와주어야 했다. 이 때문에 신희자는 초등학교를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신희자는 결혼 후 제주 시내에 살고 있던 둘째 언니 덕분에 1955년에 제주 최초의 양재학원에 1년 정도 다녔다. 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집에서 지내다가 1957년에 서울의 제품집에 취직했다. 그러나 '제품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일 년이 채 되기 전에 제주 출신의 친구들이 방직공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대구로 내려갔다. 신희자는 대구에 위치한 양장점에서 시다와 미싱사로 일하며 양재기술을 배웠다.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양장점을 운영했지만 도둑이 들어 옷감을 모두 훔쳐가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 때문에 오빠가 제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해 고향으로 돌아와 한림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림성당에 다녔던 신희자는 성당의 신자였던 시어머니를 통해 소개를 받아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양장점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 양장점의 인기가 쇠퇴하면서 보험사의 소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1990년대에 다시 한복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희자는 양장점을 그만둔 뒤 홍국생명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한복기술을 배워 한복집을 운영했으며, 그 외에도 시인으로 화가로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현재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신희자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신희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신이 결혼하면 무척 고생한다고 반대했던 이야기를 했다. 여성은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며, 칠십 세가 넘어서부터는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신희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젊은 연구자에게 어른의 지혜로서 말하기를 원했다. 신희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관심도 많고 의지가 강했는데, 카카오톡, 유튜브 보기 등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전자 기기의 사용에 능숙했다. 자신의 친구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자신을 보통의 다른 노인과 구별 지으며 설명했다. 신희자의 생애 전환적 사건으로는 아버지와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학업 중단, 양장점 및 한복집 운영, 그리고 결혼이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장성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신희자는 자신의 딸이 제주시에서 한복 대여업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ㅅ. 박부대(1941년생): 뭐든지 열심히 했고 모든 게 다 잘 풀린 양장점

박부대의 구술자료는 여성 관련 연구기관에서 수집했다³⁷⁾³⁸⁾.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경제

적으로 성취한 측면이 주목받은 구술자라는 점에서 논의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여겨져 포함했다. 박부대는 1941년 대구 출생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1959년에 19살의 나이로 양재학원에 다니며 양재기술을 익힌 후 양장점에 취업했다. 이후 독립해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해 1995년까지 양장점을 운영했다. 1965년에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양장점의 이름은 상화의상실, 상파뉴의상실, 미가의상실 등이었다. 박부대의 구술인터뷰에는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미스코리아대회에 여성들을 진출시킨 것, 그리고 현재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부대의 구술에는 일하는 여성이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데서 오는 당당함이 잘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들이 사회적 성공을 하여 여유 있고 활기찬 노년을 보낸다고 말했다.

○. 박혜영(1951년생)³⁹⁾ : 양장점 불황으로 아쉬움이 크지만, 여전히 나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

박혜영은 인천지역의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인터뷰하게 된 사례이다. 논문이 주로 다루는 시기는 전후 1950~60년대이기 때문에 양장점을 운영했던 구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박혜영은 1951년생이지만 1970년대 양장점을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양장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화 시기 이후 양장점 운영에 관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술자 중 유일하게 양장점을 운영 중이다.

박혜영은 1951년생으로 인천이 고향이다. 박혜영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했다. 이에 박혜영은 동일방직공장에 취직하려고 했으나 키가 1cm가 모자라 원하던 공장의 취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37) 박부대의 구술인터뷰 자료는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구술사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구술자의 연보와 사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수록된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 인터뷰가 수록된 것이 아니라 편집된 상태의 결과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2018), “박부대: 드레스 만들어주면서,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미가의상실 운영”, 『2018 패션·미용』, 대구여성가족재단, 115~137쪽.

38) 지역에 있는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는 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하는 구술사 작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지역에서 사는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이 구술을 통해 채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채록된 구술자료가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 여성연구기관에서 구술을 비롯한 여성 역사문화 관련 연구 성과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것. 고지영·문순덕·이연화·홍선영(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9)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⑦ 인천 동구 금곡동 박 의상실 : 백합, 르네, 하이누스...]” 40년 전 ‘미스 박’은 지금”, 《오마이뉴스》, 2016.12.15.; “[배다리 통신 6] 미스 박 의상실, 박혜영님 이야기 배다리는 내 인생. 다른 건 상상도 못 했지”, 《인천in》, 2017.8.10.

이후 양장점에 취업한 친구를 따라 박혜영도 양장점에 취직했다. 박혜영은 양장점에서 근무하면서 양재기술을 익혔다. 당시 남동생과 어머니가 계셨는데, 박혜영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 개인 교습 형태로 재단기술을 배웠으며, 양복점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박혜영은 1977년에 26살의 나이로 양장점을 독립 운영했으며, 도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박혜영은 1978년에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양장점의 이름은 미스박의상실에서 박의상실로 바꾸었는데,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나 이후 결혼을 하면서 양장점의 이름도 변경하였다. 박혜영은 인천 배다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배다리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

구술 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상처가 크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그녀가 사는 배다리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참여 캠페인 동영상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 사회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마을 활동으로 지역의 젊은 활동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혜영은 현재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성 자영업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편이었는데, 구술자 중 유일했다. 박혜영의 생애에서 전환적 사건은 양장점의 독립적인 운영과 결혼이다.

D.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방법론, 연구 참여자 소개, 논문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밝히고 기존 연구가 가진 시각과 인식론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본 논문의 연구 시각과 관점을 밝힌다. 이어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론, 연구 참여자의 구술생애사 사례들을 소개한다.

2장은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적 기술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 지형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힌다.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에 관한 준거로 소상품 생산 양식과 여성의 자영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과 여성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고 양장점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어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진출하게 된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양장점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구성된 과정을 탐색한다. 끝으로 양장점에 진출한 여성들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가졌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의 위치성이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양장점 운영을 위해 마련한 생산요소가 무엇이며 어떠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끝으로,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성별규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인 양장점이라는 장소를 둘러싸고 전개된 공간의 성별정치학의 의미를 탐색한다.

5장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로서 양장점 운영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후 여성이 주도한 양장점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본문의 연구 내용을 정리한 뒤, 전후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함으로써 구성된 ‘여성의 경제’가 갖는 특징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어서 본 논문이 갖는 이론적 함의와 양장점이라는 경험 사례연구가 갖는 의의 등을 제시한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자원

이 장은 2개의 절로 구성된다. 우선 1950년대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전후 경제, 기술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기반 위에서 본 논문의 질문과 방향을 설정한다. 이어서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소상공인 생산과 자영업을 살펴본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를 해석하는 이론적 자원과 맥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분석틀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논의 방향과 분석 내용을 구체화한다.

A.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적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1950년대 경제에 관한 기존 논의

가. 1950년대 전후 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은 20세기 한국여성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기이다.⁴⁰⁾ 이에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여성주의 연구가 얻은 결실과 동시에 놓쳤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대한 논의의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전쟁과 여성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관심⁴¹⁾은 남성의 부재로 인해 여성 자신은 물론

40)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정치경제는 물론 일상적 심리적 차원까지 걸쳐 매우 강력한 것이었기에 많은 학자의 관심을 받았다. 한국전쟁에 관한 초기 연구(커밍스, 1986; 김학준, 1989; 박명림, 1996; 와다하루키, 2000)는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김은경, 2013). 전쟁이라는 것은 ‘남성’들의 사건이자 역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 군사, 그리고 국제외교의 차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남성에 의해 기획되고 남성에 의해 수행되며 남성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전쟁과 관련된 공식역사였다(이임하, 2004; 2005). 한국전쟁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였다. 1990년대 식민지 시대의 ‘일본군 위안부’와 신여성 등 여성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가 일정한 궤도에 접어들면서 한국전쟁과 여성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41) 그동안 한국전쟁과 여성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은 물론 문학과 영화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영화나 소설과 같은 텍스트 및 재현분석을 제외하고,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에서 전개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여기서는 공사영역에서의 여성 노동과 경

살아남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실천한 다양한 노동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한국 전쟁과 여성에 관한 연구의 포문을 연 역사학자 이임하(2004)는 남성 부재의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으로 영세상업 및 서비스업, 가사노동의 연장, 방직공장의 여공, 성매매 등에 종사하는 등 박힘으로써 여성 노동의 양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전후 여성의 노동 양상에 관한 관심은 전후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자, 한국전쟁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에 균열을 가하며 여성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의 시대였음을 의미화하였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이뤄지는 가운데, 직업여성과 공장노동자 등 특정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직업 경험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전문직을 비롯한 서비스직 분야에 진출한 직업여성에게 대한 지배 담론에 주목한 연구들(이상화, 2008; 김현선, 2009)은 전후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직업여성을 둘러싼 언설의 재편을 분석한다. 특히 직업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다루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상화(2008)는 여성지 《여원》에 실린 직업여성 담론분석을 통해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은 문화교양계층의 아비투스¹가 형성되었지만, 하층계급의 직업여성은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여겨졌음을 지적했다. 같은 여성이지만 계급과 직업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는 같은 직업여성이지만 계급과 계층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김현선(2009)은 직업여성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부장적인 인식이 담론적 차원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노동의 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다루었다. 그런데도 여성의 노동을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체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만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당시 직업여성에게 관한 시대상을 과잉 단순화하는 여지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전후 직업여성에게 대한 지배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가시화하는 등 다양한 관점과 인식이 비균질적으로 존재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역시 양장점이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양장점의 진출과정은 물론 운영 방식 등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사회는 여성이라는 범주가 구성되는 가운데, 여성 내부의 차이가 구성 및 확대되는 시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후 여성 노동과 관련하여 변화된 삶을 주목하기 위해 문헌 자료에 기반을 둔 담론연구가 지배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기반한 구술사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여성의 노동에 주목한 구술사연구는 공장노동에 실천했던 여성 노동자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희영(2009)은 여성 공장노동자들의 공장노동을 통한 욕망과 노동의

제활동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를 주목하였다. 1950년대 공장은 여성들에게 가능성의 공간이었음을 밝히고, 공장노동은 1960~70년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폄하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한정훈(2018)은 광주 지역의 방직공장에서 근무한 여성노동자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가족 부양과 결혼 준비 등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이 있었지만, 가부장적인 차별적 담론 속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여성들은 현실과 담론 사이의 충돌 속에서도 공장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자기 의미화를 통해 자신의 노동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박현정(2020) 역시 강화 지역의 직물생산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억압적인 노동조건과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기술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주체적인 여성이었다고 강조한다. 구술사를 통해 여성 공장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은 성차별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노동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였음을 강조한다. 구술사연구는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와 여성 개인의 자기 정체성 구성의 측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특정한 분야의 노동에 진출하게 되는 경제 문화적·사회적 맥락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전쟁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균열을 가하며 여성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의 시대였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전후 사회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특징과 속성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전쟁으로 새롭게 부상한 여성의 경제활동인 ‘장사’를 주목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장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진출했던 경제활동의 한 분야이자, 전후 여성의 노동이 전후 산업구조와 도시화의 관계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란(2007)은 한국전쟁으로 서울지역에 정착한 타 지역 출신 여성들의 구술자료를 분석하고, 피난을 위해 월남한 여성들은 여성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장사에 나서는 것으로 남성 가족의 부재, 남성과 가족의 무능력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뛰어든 장사는 가정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식품업과 의류업이 위주였다고 한다. 장사에 나선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시선과 차별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여성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후 사회에서 급격하게 부상한 여성의 ‘장사’를 전후 산업구조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지 못하였다. ‘장사’는 일종의 자영업에 해당하며, 전후 급부상한 산업 분류의 상업과 긴밀하게 연관된 여성 노동의 한 형태이다. 전후 여성의 노동을 주목한 많은 연구는 여성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여성 개인의 노동 경험이 전후 한국 사회, 즉 초기 자본주의라는 국면, 산업화 이전 시기라는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금융활동 일환으로 전개된 계(契)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안순덕, 2002; 유숙란, 2006; 이명휘, 2015). 계(契)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장사하면서 손에 화폐

를 만지는 것이 빈번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활동의 하나이다. 안순덕(2002)과 이명희(2015)는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신용조직인 여성들의 계(契)를 통해 여성들의 금융활동이 부녀자 조직으로써 여성의 자본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위치 지어진 현상에 대해서 문제시하였다. 비공식적인 신용조직인 여성들의 계(契)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과 함께 자본을 운용하여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신용조직인 계(契)를 통해 경제적인 감각을 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경험이다. 전후 사회에서 부상한 계(契)가 여성 중심 경제활동의 장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1950년대 여성주의 연구 중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와 이로 인한 변화가 갖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전통/근대의 틀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 한국전쟁이 구성한 여성의 새로운 경험을 부각시키기 위해 ‘근대’와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과 담론의 통제에서 ‘전통’이라는 이론적 접근을 제시한 것이다. 전통과 근대의 분석틀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후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실천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가족의 생계 부양이 여성 정체성의 변화는 물론 전후 여성의 지위와 의식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함인희, 2006; 윤택림, 2013; 이재경, 2013; 김효정·박언주, 2018). 함인희(2006)는 여성의 한국전쟁 경험을 여성의 근대와 어떤 관계인지 주목함으로써, 여성에게 ‘다중적 근대성’ 형성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지만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젠더이데올로기를 보수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여성 지위의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역할에 관한 전통적 분업구조와 성역할의 구도는 깨지지 않았으며 젠더인식의 근본적 변화도 전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택림(2013)은 여성들은 근대적 범주의 일 중심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며, 사적 영역에 한정된 여성의 활동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아내, 어머니 그리고 직업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근대적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졌으나 여성의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전통/근대라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경제활동이 전후 여성에게 초래한 변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젠더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성별화된 여성 주체로 구성되었음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그리고 전후 여성의 소비 활동을 주목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전후 여성의 소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배경에는 미국화의 맥락과 소비하는 전후 여성에 대한 기부장적인 여성 혐오와 타자화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국전쟁은 전후 사회에서 미국화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의 소비라는 경제적 행위가 확대됨으로써, 여성의 근대화가 전개되었음을 주목하였다. 이는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여성의 소비가 미국을 통해서 유입된 다양한 근대적인 것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여성의 소비문화

를 분석한 연구들(강소연, 2006; 이선미, 2006; 장미영, 2008; 조재한, 2009; 이선미, 2009; 김미혜·정혜경, 2010)은 주로 전후에 발간된 여성 잡지와 미국영화, GI와 PX문화, 댄스홀 등을 주목하고 여성의 미국문화 수용 양상과 소비문화에 대한 당대의 재현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후 여성의 소비문화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새로운 여성 주체를 구성해낸 것으로 보았다.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후 여성을 소비 주체에서 생산 주체로의 이동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산업화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류경동(2015)은 생산 없는 소비에 대한 자각과 소비 주체에서 생산하는 주체로 이동하고 소비에의 욕망을 계몽적 담론으로 대체하고 생산 주체에 관한 이슈가 부상했음을 조명한다. 전후 여성의 소비 활동을 주목한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부장적인 질서에 의해 타자화된 것을 문제시하면서도, 욕망에 충실한 새로운 여성 주체가 구성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앞서 여성의 노동 경험을 주목한 전통/근대 논의에서는 여성 정체성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지만, 여성의 소비문화를 주목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여성 주체가 구성되었음을 언급한다. 이는 노동 경험과 소비 경험에 대한 접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은 불가피한 상황임이 강조됐지만, 소비는 여성의 욕망 때문에 전개된 것임을 주목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과 소비의 경험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양장점은 여성의 노동과 소비가 동시에 전개되는 대표적인 전후 여성의 공간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전후 사회에서 여성에게 직업은 물론 소비문화가 여성의 정체성과 욕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시대적 맥락과 조건 속에서 구성되었다. 더욱이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미국문화를 기반으로 전개된 소비문화를 향유하였으며,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주체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을 집(home), 즉 가족 관계에 제한되는 것을 넘어 여성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도록 하며 새로운 여성의 문화를 생산할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후 여성에 대한 여성혐오적 담론은 새로운 여성들을 끊임없이 타자화함으로써, 여성의 특정한 경험이 비가시화되거나 성별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여성주의 연구들은 국가 및 지배 담론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비가시화하였음을 문제시하면서 전후 여성이 실천한 다양한 노동을 가시화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이 가족을 생계 부양하고 여성 개인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소생산 방식, 즉 자영업으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자본주의 과정에서 ‘이행과정’이 아닌 ‘독자적인’ 성격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전후 여성들은 양장점과 같은 자영업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였으며, 작업장인 양장점은 여성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면서 여성의 특별한 세계를 구성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음을 주목한다.⁴²⁾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별규범의 강력한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의 성별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후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해석하고 의미화하기 위해서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젠더이데올로기와 젠더규범 등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문화경제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주목함으로써 전후 1950년대에는 자본주의적 경제는 물론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경제 모델이 전개된 시기라는 점을 살피고자 한다.

끝으로 전후 여성의 노동 경험 구성 과정에서 공사영역의 유동적인 경계와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주목하고자 한다(김은경, 2014; 김은경, 2020). 김은경(2014)은 전후 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을 분석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에게 모성의 실천은 돌봄과 생계노동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공사영역의 경계를 넘나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은경(2020)은 한국전쟁과 여성의 노동에 관한 연구들이 ‘국가/가부장제-여성’의 관계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주체를 권력의 자장 밖에 있는 자율적 존재로 이해하거나, 개인적인 고난 극복과 도전을 강조하면서 자녀와 시집 식구에 집중한 나머지 가족, 이웃, 일터의 동료 등 일상적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관계의 다층성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235~238). 전쟁미망인의 노동 경험과 주체화 양상을 다루면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예속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공사영역이 분리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마을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성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가족의 부양을 담당했던 취약성은 이웃과 연대를 통해 공고히 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공사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었음을 주목한다.

나. 1950년대 전후 경제에 관한 연구

그 동안 1950년대 전후 경제의 회복에 관한 관심은 산업화 시기의 산업화에 비해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적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0년대

42) 산업화 시기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어머니인 동시에 일하는 여성이 되어 공/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에 관한 연구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진 여성의 활동은 여성 노동자 연구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가족의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은 가족 관계나 ‘도구적 모성’의 틀에서 국한되어 이뤄졌다(배은경, 2008: 71~72). 박혜경(2013)은 산업화 시기 여성에 관한 구술사연구가 근대적 모성의 실천이나 핵가족화, 주부의 형성 등 가정영역의 근대성과의 관련된 연구의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383). 가족의 돌봄 노동을 책임진 채로 집 밖에서 노동에 참여해야 했던 여성들 노동의 복합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김혜경, 2006: 61). 이러한 비판은 전후 여성에 관한 연구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후 경제를 주목한 연구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체제의 해명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밝히려는 관심 속에서 전개되었다(강영경 외, 2017: 209).

무엇보다 전후 1950년대는 탈식민 분단국가의 정치적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전개된 시기로 이해되었다. 1950년대를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자본 형성의 토대를 이루는 귀속기업체의 불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농지개혁 등을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제체제와 미국과의 관계성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으며, 원조물자를 중심으로 미국에 의한 경제정책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이 면방, 제당, 제분 등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주목한 연구가 전개되었다(김양화, 1990). 전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는 연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이라는 패권과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전후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질서가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전후 경제에 관한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 모델만이 전개된 것으로 접근한다.

전후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구성된 모순을 밝히기 위한 관심에서 전개된 1950년대 연구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를 조명하는 것에서 미국의 대한경제정책으로 논의의 중심을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원조⁴³⁾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진행 과정에 나타난 양상을 부각시켰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미국의 냉전정책에 따른 한국의 일방적·종속적 경제라는 관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예로 1950년대 경제정책을 주목한 이현진(2009)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기구와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원조가 진행되는 절차와 방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대한경제원조정책은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는 과정이었으나, 이 과정이 일방적이기보다는 경합과 협상의 과정이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하에서 행해진 경제정책 중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한 정진아(2007)는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이 원조 자금으로 경공업과 기간산업 위주의 경제부흥을 도모했으며 수입을 대체하고자 공업화를 추진했음을 밝혔다.⁴⁴⁾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이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는 것이자, 산업화 시기의 경제정책이 수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승만 정부 하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수립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을 주목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의 원형과 변용을 주목한 박태균

43) 한봉석(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동원(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군사원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44) 정진아(2007), “제1공화국(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1950년대 중소기업개발계획에 관한 연구(박광명, 2020) 등이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정책에 관한 관심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 수립된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와 함께, 자본가와 기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경제성장을 주목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공제욱(2000)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의 주체가 된 자본가들이 1950년대에 대부분 형성되었음을 주목하였다. 한국전쟁 시 귀속기업체의 특허 불하 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⁴⁵⁾, 지주계급이 해체된 가운데 자본가가 육성되었음을 밝혔다. 즉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한국의 자본가, 즉 재벌체제의 기초가 형성되었음을 문제시하였다. 그리고 면방직공업(서문석, 2009), 제약 산업(신규환, 2015), 나일론 생산(이정은, 2021)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주목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1950년대 전후 경제를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전개되었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나 기업을 통해 전후 국가 경제를 주목하였다. 이로써 지역 기반의 지역경제⁴⁶⁾ 혹은 지역사회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구의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능했는지를 알기 어렵다. 더욱이 1950년대 경제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에서 발간한 경제 관련 자료 및 국가통계를 토대로 연구를 전개한다. 이는 국가에서 주목하는 공식경제나 국가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경제에서 전개된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관점으로는 여성에 의한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은 물론 자본주의 논리와는 다른 경제 양식을 전개한 경제활동을 주목할 수 없다.

2. ‘여성적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전후 1950~60년대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은 양재기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술’⁴⁷⁾로 접근해왔다. 양재기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 ‘여성은 기술이 있어야 한

45) 귀속재산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이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국가 소유 기업체를 사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적 자본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46) 최근 들어 전후 1950년대 대구와 부산 등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박진영(2018),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대구 공업에 관한 연구”, 『대구사학』, 제130집, 179~204쪽; 류상윤(2019), “1950년대 원조와 부산 기업”, 『지역과 역사』, 제45집, 341~363쪽; 김대래(2019), “경제개발 초기 부산제조업에 관한 미시적 분석”, 『항도부산』, 제37집, 463~505쪽.

47) 기술의 한자어는 技術이며, 영어는 skill과 technology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skill은 기능으

다'라는 전제하에 양재기술의 보유를 자랑스러워하고 기술 전수(傳受)를 위해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술교육자가 되기를 욕망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에 관한 여성주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술의 남성 중심적인 기술 개념을 문제시하는 연구가 전개되었다. 산업화 시기 중화학 공업 위주로 남성적 기술 중심의 기술정책이 전개되었음을 밝혔다.⁴⁸⁾⁴⁹⁾ 또한 기술 교육의 대상자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과 노동정책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해왔다(심영희, 1988; 김춘수, 2003; 류제철, 2004; 이지연, 2015). 심영희(1988)는 어떤 종류의 일은 기술로 규정이 되고 그 많은 여성의 일은 기술로 분류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문제시하였는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상호작용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기술정책이 전개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이지연(2015)은 산업화 시기 실업교육 정책과 기술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인력양성정책에서 젠더 불평등한 효과가 발생했는데, 성별화된 기술교육은 일자리의 성별 분리로 이어지고 성별 임금 격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이후 본격화된 직업훈련정책은 여성적 기술은 경공업에 필요하고 남성적 기술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되었다. 산업화 시기 여성과 기술의 관계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으로 성별화되었음을 문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 중심의 실업교육정책이 일자리와 연결됨으로써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산업화 시기의 공장노동을 중심으로 여성과 기술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⁵⁰⁾ 그리고 산업화 시기를

로, technology는 기술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 기술 개념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성근(2019), “근대 일본에서 ‘기술(技術)’개념의 변천”, 『동서철학연구』, 149~172쪽.

48) 산업화 시기 여성기술인력의 현황과 기술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한자영(1976), “여성기술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병숙(1999), “여성의 기술·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제4집, 111~136쪽.

49)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숙련 노동(skilled labor)과 반숙련 노동(un-skilled labor)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육체노동은 manual labor로, manual이라는 용어가 갖는 ‘손’의 의미는 감퇴한 경향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기술이라는 개념은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그리고 광업 등 흔히 중공업 분야, 즉 남성적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과 형성 과정 그리고 산업에서의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근배(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이병례(2011),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진성(2016), “1960년대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정책 : 기능공 양성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0권3호, 321~365쪽 ; 안홍선(2017), 『식민지 중등교육체제 형성과 실업교육』, 교육과학사; 송성수(2021),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발전』, 들녘.

50) 산업화 시기 숙련된 여성 노동자가 인정 투쟁을 위해서 작업장의 질서를 전복하는 등 행위자로서의 여성 노동자를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장미현(2016),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숙련과 ‘작업장 질서’의 전복”, 『역사문제연구』, 제20권2호, 59~102쪽.

지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이 여성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한 연구가 전개되었다(백월순, 1989; 장필화, 1991; 장경선, 1996). 이러한 연구들은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전산편집직의 등장, 그리고 정보사회 등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의 노동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였다.⁵¹⁾⁵²⁾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들이 기술을 활용한 일 혹은 노동, 경제활동이 전개되거나 기술을 개발한 측면은 간과한다. 그 대신에 국가의 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 수동적인 위치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적 기술(feminine skill)’⁵³⁾로 이해되었던 기술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너무나 쉽게 기술을 남성 활동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여성영역’의 기술들이 어떠한 발전 과정과 기원을 가졌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주디 와츠만, 2005). 이러한 이유로, 공장노동과는 다른 맥락에 놓인 여성의 기술을 주목하는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 장인에 관한 연구가 드물게 존재한다(전명숙, 2013; 전명숙·임상훈, 2014). 전명숙(2013)은 섬유와 공예부문의 여성들이 남성과는 달리 명장이 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숙련 및 경력개발의 메커니즘을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가족 영역에서 기술을 익혀 숙련의 과정을 거쳐 장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 제품 생산의 전 공정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의류 및 섬유산업의 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이들은 오히려 장인적 수준으로 숙련을 향상시켰으며 작품 활동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 여성 명장은 ‘기업근무형’ 남성 명장과는 달리 ‘자기사업형’ 명장이 됨으로써 명장이 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여성이 숙련된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여성과 남성 명장 사이의 성차가 발생하게 되는 권력과 구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숙련기술을 익히는 과정의 성별 차이가 성별에 따른 속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51) 기술의 발전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것. 루쓰 코완(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일이 더 많아진 주부』, 학지사. 김덕호(2020), 『세탁기의 배신: 왜 가전제품은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는가』, 뿌리와 이파리.

52) 20세기 영국의 컴퓨터산업에서 여성기술인의 배제 과정을 분석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할 것. 마리 힉스(2019), 『계획된 불평등: 여성기술인 배제가 불러온 20세기 영국 컴퓨터 산업의 몰락』, 이김.

53) 본 논문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기술로 여겨진 기술을 여성적 기술(feminine skill)로, 남성에게 적합한 기술로 여겨진 기술을 남성적 기술(masculine skill)로 표현한다.

최근에는 여성적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이경숙, 2015; 문예은, 2018a; 2019). 이때 여성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혹은 일을 ‘손작업’이나 ‘수공예’ 등의 용어로 정의한다.⁵⁴⁾ 이경숙(2015)은 손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여성의 창의적인 일(work)을 ‘손작업’으로 개념화하고, 여기에는 여성들이 비공식영역에서 해오던 다양한 종류의 부분 노동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문예은(2018a; 2019)은 여성들이 직업 주체로 성장하는 데 활용된 손바느질인 침선, 매듭, 자수, 재봉틀을 활용한 양재와 편물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수공예’를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적 기술 자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성과 기술의 관계를 신체 부위의 일부인 ‘손’과의 관계에 제한함으로써 여성이 지닌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 몸의 경험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⁵⁵⁾ 또한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기술(technology)’과 ‘기능(skill)’의 구분 기준을 문제시하지 않는다.⁵⁶⁾

이러한 가운데 여성의 기술을 ‘기예’나 ‘수공예’ 등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희원(2014)은 전통적으로 옷감을 만들었던 여성들의 직조를 수공예(handcraft)나 기예 혹은 단순노동으로 치부해온 역사를 비판하고 기술로 의미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기계 중심의 기술 개념에서 몸의 기술과 손의 기술로서의 기술 개념에 주목하였으며, 기존의 기술관이 남성중심주의와 남성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된 여성영역의 기술을 ‘기술’로서 의미화한다. 그리고 남성이 만든 기계 중심의 기술이 아닌 여성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들의 가능성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연희원, 2014: 495). 여성의 삶과 경험 속에서 기술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기술이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54) 일반적으로 여성적 기술에 기반한 여성의 다양한 행위는 공예, 예술, 노동 그리고 기술 등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되어왔다. 여성의 ‘손기술’을 활용한 행위는 여성의 예술로 여겨지면서 ‘기예’나 ‘수공예’ 등으로 불리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성의 기술을 저평가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 여성의 살림 공예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공력, 협력, 소통, 재활용을 평가의 기준으로 재해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주현(2012), “살림 공예와 미적 평가론 : 직조, 염색, 바느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7권, 123~157쪽.

55) 문예은(2018)은 손바느질인 침선, 매듭, 자수부터 시작하여 재봉틀을 활용한 기술인 편물, 양장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가시적 직업 주체로 성장하는 방편이 된 것들을 총칭하는 말로 ‘수공예’를 사용한다(382). 수공예라는 표현으로는 가부장적인 비판은 물론 기술과 노동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포함되기에는 한계적이다.

56) 흔히 기술자는 ‘과학기술자’, ‘기술자’, ‘기술공’ 등으로, 기능자는 ‘기능자’, ‘기능공’, ‘숙련공’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기술인력에 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과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engineer)이자 ‘기술’로 구분되고,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여 기술자 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기술자는 ‘기능’으로 구분되고 기능인(technician)으로 불린다(서문석, 2014: 122).

끝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과학기술과 여성의 관계를 통사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김영희·김수진·이꽃메·이순구·하정옥, 2020). 조선시대와 근대이행기에서 여성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활동에 주목했다. 역사 속에서 전개된 여성의 과학기술을 기술적 지식과 기술적 실천⁵⁷⁾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성의 기술을 기술적 실천과 기술적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여성의 기술적 실천이 여성의 몸을 기반으로 기술, 지식, 경험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더욱이 여성의 기술 중에서 여성적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닌 ‘기능’으로 폄하되어왔던 과정에 대한 논의나 비판 없이 여성의 기술 및 과학기술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험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재맥락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성의 삶과 성별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이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기술(technology)’로 접근하며 기술을 자신을 정체화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 주목한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는 데 여성들에게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에게 양재기술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전후 사회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가진 양재기술이 산업화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technology)’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능(skill)’이 되고 고유한 직업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본 연구는 전후 1950~60년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여성적 기술을 매개로 생산 과정에 참여한 방식, 양재기술이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서 담당할 역할,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이해한 방식과 지식과의 관계, 그리고 여성적 기술이 경제적 실천에서 갖는 의미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57) 여성의 기술적 실천(technological practices)은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행해진 실천을 뜻한다.

B. 이론적 자원 검토

1. 소상품 생산양식과 여성의 자영업⁵⁸⁾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자영업으로 접근하며 이를 통해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이 구성되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맥락과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자영업이 주목될 수 없었던 맥락과 이유를 살펴보고, 자영업이 갖는 의미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영업을 통한 소상품 생산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소생산 양식과 자영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정치경제 지리학자인 JK 김슨-그레엄의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의 자영업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있었다. 여성노동사가인 킬리와 스콧(2008[1987])은 산업화 시기의 연구가 공장 여성노동에 집중된 것을 문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전통사회에서 산업화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이 근대적인 산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 구조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킬리와 스콧은 여성들이 공장이 아닌 비공식영역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해왔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산업적 생산양식의 환경에서는 재생산 활동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이 어려웠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여성 노동연구에 주력했던 조순경(2007) 역시 취업한 여성 중에는 시장노동이나 전통적인 노동과는 달리,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영업이나 무급가족노동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종류의 여성의 노동 양식을 간과하는 것은 여성 다수의 현실과 괴리된 연구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문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산업화가 더딘 분야에 진출하여 일과 작업장 사이의 분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기존의 여성노동연구는 맑스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전개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임금노동을,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두었다.⁵⁹⁾ 이로써 여성의 자영업은 주목될 수 없었다.

58)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임금노동 수행)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되며,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뉜다. 자영업주는 고용원이 있는 경우인 고용주(사업가, 기업가, 경제인 등)와 없는 경우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자영업주는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 고용을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59) 여성 노동연구는 공적 영역에서 행해진 임금노동과 사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으로 이원화된 구분 속에서 여성 노동의 종속과 억압을 문제시해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공·사 영역은 여성과 사적 영역의 결합, 그리고 남성과 공적 영역의 결합으로 성별화되어왔다. 자유주의 국가 출현 이후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점차 배제되었으며 공적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 되었다(김은실,

다만, 1990년대 이전 시기에 제3세계와 도시의 비공식부문에 관한 학술적 관심 속에서 도시 비공식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자영업이 주목을 받았다(조형, 1985; 조미진, 1986). 조형(1985)은 비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을 분석하면서 노점이나 행상 등 영세상업의 실태를 논의하였으며, 조미진(1986)은 도시빈민여성의 경제활동 중 영세 자영상업을 다루면서, 기혼 여성들의 영세상업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가족의 생계유지의 필요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영세자본이나 동네의 신용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김정화(2005) 역시 1960년대 도시 빈민 중 기혼여성의 ‘임시’노동에 주목하고, 가사서비스, 부업, 영세상업(행상과 노점)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자영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심에서 본격화된 논의라기보다는 도시 비공식부문에서 여성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맑스주의에서 ‘쁘띠부르주아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부르주아의 일종이고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양극분해가 되면 사라지는 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장귀연, 2020).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⁰⁾ 모리스 돕, 폴 스위지, 로버트 브레너 등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유럽에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기원을 찾았다. 이들이 밝힌 자본주의 이행의 과정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원찾기’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세의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출현한 ‘소생산 양식(혹은 소상품 생산양식)’이 존재했으며, 이 ‘소생산 양식’은 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시기로, 자본(주의)의 ‘전사(前史)로서의 이행기’로 이해되었다. 과도기로서의 ‘소생산 양식’의 시기를 지나면, 후사(後史)(?)로서의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역사는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 낮은 발전 수준의 봉건적 생산양식이 부정되고(제1부정), 이 부정을 통해 출현한 소생산양식/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다시 부정되어(제2부정), 가장 발달한 생산양식인 자본주의가 출현하는 연속적인 지양의 과정 혹은 ‘선형적인 연속’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는 역사 과정, 즉 진보의 단일한 역사 과정에 위치한다는 역사주의 사관이다. 자본주의 전사는 지양되어야 하거나 결국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외부’가 된다는 것이다(김택현, 2014: 299~302). 이러한 점에서 소상품 생산은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없어져야 하는 이행기일 뿐으로 이해되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개발’과 ‘발전’ 등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물론 헤게모니적 자본주의 담론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생산 위주에서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으로의 논의 전환을

1996).

60) 자본주의 이행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택현(2014), “자본주의 이행을 다시 생각함: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의 이행론”, 『영국연구』, 제32호, 289~318쪽.

통해 사회를 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비자본주의 경제활동을 새롭게 주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 지리학자인 JK 김슨-그레엄에서 얻었다. 즉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전후 여성들이 참여하고 창출해내는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 생산 체제를 자본주의 이행의 과정에 있는 전이(轉移)적 혹은 이행(移行)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급 관점’의 문화경제양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JK 김슨-그레엄의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천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과 맥락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JK 김슨 그레엄(2013[1996])은 개발과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자본주의를 문제시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담론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비판한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자본주의를 거대한 헤게모니를 가진 것으로, 혹은 하나의 완결된 체제로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균열과 내파 가능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시한 JK 김슨-그레엄은 자본주의적 헤게모니 담론의 해체를 시도하기 위해 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경제학을 디딤돌로 놓고 대문자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대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를 본질화-통일성, 단수성, 총체성-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그 어떠한 저항도 모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⁶¹⁾ 대문자 자본주의는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자본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담론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가시화하여 새로운 담론공간을 개척하고 비자본주의적 경제 공간, 경제형식, 경제활동에 주목한다.

이러한 JK 김슨-그레엄의 정치경제학은 여성의 재생산노동뿐 아니라 자본 중심적 경제 이론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비-자본주의적인 경제형태들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경제들, 다양성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차이의 경제들을 담론화할 수 있게 한다(이현재, 2017: 95). 자본주의 경제가 고정되고 단일한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곧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해체하는 과정의 일환이 된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 즉 자본주의적 활동을 논의하면서도 비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비자본주의적 활동의 흔적에 주목하도록 한다. JK 김슨-그레엄의 문제제기는 자본주의 내부의 가장 주변적인 존재로서 비가시화되고 평가절하된 여성들의 일과 노동, 경제활동은 물론 자본주의 바깥으로 떠밀려온 여성노동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신경아, 2014: 207).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의 비판적 논의는 여성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은 물론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가시화하고 재평가 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자원

61) JK 김슨-그레엄은 한쪽에는 헤게모니적인 경제담론,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화된 지배를, 다른 한쪽에는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 비자본주의적 경제공간, 공동체적 경제, 비자본주의적 주체, 대항 담론, 대안적인 경제사상, 대안 경제 등을 제시한다.

이 된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인 JK 김순-그레엄은 헤게모니적 자본주의적 담론을 문제시하면서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 주목한다. 그리고 사회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사회적 재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바탕으로,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2013[1997])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경제로 제시한 ‘자급 관점’을 제시한다. 두 페미니스트 학자는 경제를 지배경제체제으로써 끊임없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자본축적, 산업의 확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경제활동의 중심을 삶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목표를 둔 체제인 자급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자급 관점은 하나의 경제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자 세계관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급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넘어서 인식론적인 전환을 통한 ‘다른’ 경제를 제안한다. 자영업과 소상공 생산 방식이 바로 ‘자급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자영업은 자기 고용을 실현한 사업체의 운영방식으로, 규모의 제약 속에서 대량생산이 아닌 소상공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자영업과 소상공 생산 체제가 자본주의 이행의 과정에 있는 전이(轉移)적 이거나 이행(移行)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전후 사회의 ‘자급경제’의 일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전후 여성에 의한 양장점 운영을 ‘소생산 양식’의 일환으로 접근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실천 경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의 경제활동이 어떠한 경제문화적 관계 속에 위치했으며 어떠한 경제행위 양식을 구성해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경제적 맥락과 경제 외적인 맥락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전후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역사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헤게모니적 자본주의 담론의 비판과 자본주의 이행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1950~60년대 여성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주목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생산 양식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국가통계 등 관련 자료에서 자영업은 자신이 자기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뜻하며, 자영업주는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사업가, 기업가, 경제인)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흔히 구분된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은 혼자 하는 경우는 드물고 직원이 2~3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고용주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영업이며,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비임금노동을 수행하는 자영업주로 소상공 생산 방식, 즉 소생산 양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주목하고 이들의 경제적 실천이 갖는 특정한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라는 용어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라는 용어는 미국의 여성사학자인 Gamber(1997)가 근대 미국에서 양장점에서 모자와 드레스를 만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여기서 ‘여성의 경제’의 의미는 여성 사업가, 여성 노동자, 여성 소비자로 구성되고 자본(capital), 신용(credit) 그리고 이윤(profits)을 낳는 여성 사업가와 고객 사이의 네트워크를 이끌어낸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여성의 경제’는 기존의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이 주인이고 직원이며 고객이라는 점과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기존의 의미를 수용하면서도, ‘여성의 경제’를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의 특징을 주목하는 개념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여성의 경제’는 전통사회에서 가구(household) 단위의 가족경제나 가내노동 혹은 농촌에서 마을 단위로 전개된 여성의 노동이나 경제활동과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전통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 가장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가구 단위의 경제에 속해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소상품 생산 양식과 자영업은 남성 중심의 가구 경제에서 분리되어 여성 주도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여성의 경제’는 가구 경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여성이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등장한 자영업에 참가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써, 생산, 소비, 유통 있어서 여성 중심의 경제 네트워크 혹은 여성의 관계망으로 기반하여 구성된 경제적 조직, 영역, 구조, 체계를 뜻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는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여성이 주도하는 경제활동을 주목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이익의 분배와 문화자본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계급화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를 ‘여성 경제(women's economy)’와 ‘여성적 경제(feminine economy)’와는 그 의미를 구분한다. ‘여성 경제(women's economy)’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여성이 실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소비행위에 기반한 소비경제, 특히 가정경제 운영을 위한 소비행위 등을 포함한다. 여성적 경제(feminine economy)는 ‘여자다운’ 혹은 ‘여성스러운’을 의미하는 ‘여성적(feminine)’이라는 용어와 결합되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성, 여성다움, 여성적 역할이나 가치로 의미화되는 경제를 뜻한다.⁶²⁾

62) Burggraf(1997)는 ‘feminine economy’를 여성의 ‘진실로 비가시화된 손’에 기반하여 전개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제’는 전후(戰後)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부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경제’는 전후 1950년대 여성의 상황과 가부장적 젠더체계와의 관계에서 구성되었음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제’가 구성된 배경에는 전후 공적영역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젠더이데올로기와 성별규범에 의한 통제와 배제의 논리가 작동했다. 김은실(2010)은 1950년대는 공적영역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규범과 가치가 재편되고 또 시험되었던 문화적 과도기이자, 여성들이 가족의 규범과 질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린 시대라고 보았다. 그리고 1950년대 공사영역이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영역은 남성의 영역에서 분할되어 젠더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한다. 이로써, 전후 사회에서 여성에게 허용되고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여성의 영역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축되었으며, 전후의 젠더 체계 내에서 의미화되었던 여성성은 성별정치학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전개되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특정한 영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구축된 여성의 자영업인 양장점을 여성의 경제영역⁶³⁾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전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성 역할과 성별규범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관행이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와 남녀관계가 여성의 경제행위를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가 특정한 성격을 지닌 여성 중심의 경제적 관계 혹은 체계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여성의 경제’의 형성 계기와 형성 과정,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주목한다. 첫째,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어떠한 직업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들이 경제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것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지를 다룬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성이 속한 다양한 관계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주목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갖는 특성과 성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가 구성된 성별 정치의 결과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경제’라는 개념들은 여성 중심 경제활동의 장이자 영역, 구조, 체계를 뜻하는 것이자, 경제영역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특정한 방식의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성별정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거가 된다. 이를 통해 1950-60년대 자영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영역이 구성되는 메커니즘과 여성의 경제행위의 성별규범화가 어떻게 구조

되는 재생산노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63) 공적 영역의 구성은 사적인 것으로 불리는 사회적 공간을 경계 지우고 여성의 경험은 비정치적이고 비사회적인 영역으로 주변화되거나 해체되기 시작한다.

화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전후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여성의 경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성별규범에 의한 젠더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행위가 구성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가 경제영역에서 성별 권력 관계의 산물임을 드러내고 어떻게 재생산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변화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Scott, 1998). ‘여성의 경제’라는 개념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가 부정되는 성차별적인 경제체제가 제도화(프레이저 재인용, 박이은실, 2014: 19)되는 문화경제적 실천임을 드러내고 그것의 성별 정치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3. 여성 ‘직업인’(women in profession)

본 논문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제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경제적 여성 주체를 여성 ‘직업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일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직업여성(부인)’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시대에 등장하였다. 당시에는 ‘직업부인’이라는 용어가 좀 더 자주 사용되었다. ‘직업부인’은 ‘여공’이나 ‘노동부인’ 등 일하는 여성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이들을 배제하고 간호부나 교원 등의 전문직이나 기타 사무·서비스직과 같은 신종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강이수, 2004). ‘부인’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직업여성’이 공적영역에서의 직업활동은 물론 가정과 연관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당시 직업 여성의 의미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여성’을 지칭하였으며, 직업여성의 범주에는 여점원, 교사, 전환교환수, 간호부, 여의사, 산과, 여기자, 여배우, 타이피스트, 카페걸, 버스걸 등이 포함되었다(이행화, 이경규, 2017). 식민지 시대 ‘직업여성’의 등장을 계기로, 여성 취업의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만큼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 논란이 되었던 ‘직업여성’의 존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안착하였다.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는 국가의 재건 담론이 크게 차지하였다. 1950년에 발간된 여성지 《職業女性》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 여성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촉구되었다.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수행할 것을 여전히 강조했으며, 직업여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직업으로서 여성 공장노동자를 제시하였다(김미선, 2020). 여성 공장노동자가 직업여성의 범주에 안착함에 따라, ‘직업여성’의 범주에서 내부의 분화는 확대되었다. 이상화(2008)에 따르면, 1950~60년대 직업여성 담론은 여성을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으로 구분하고 신흥중간계급 직업여성은 사무직 직장여성으로 의미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결혼 전에 잠시 일하는

여성으로 의미화되었다. 반면에 여성 공장노동자는 직업여성의 하층계급으로 구분되고 국가재건을 위해 진출이 독려하면서도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재건을 위해 사회적으로 여성의 직업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여성으로서 외모관리,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서 직업여성의 성별화와 계층화 현상이 강화되었다. 전후 1950~60년대 ‘직업여성’에는 사무원, 여비서, 은행원, 기자, 간호원 등은 물론 영구적인 직장생활로 여교사, 의사, 피아노, 양재 등 기술력을 지닌 직업이 포함되었다. ‘직업여성’이라는 표현은 공적영역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문제화하는 말이 되면서 의미의 혼동이 발생했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는 ‘양공주’와 같은 성매매여성을 ‘특수직업여성’⁶⁴⁾으로 호명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크게 증가한 성매매 여성을 사회적 문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직업여성’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사용은, ‘직업여성’의 의미를 일하는 여성, 즉 커리어우먼의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직업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재기술을 바탕으로 양장점을 운영하는 전후의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설명한다. 양재사들은 기술에 기반한 ‘직업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성 직업인이란 기술에 기반한 일하는 여성을 지칭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 직업여성의 의미였던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집 밖에서 일하고 특히 기술을 통해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적 승인을 받는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직업인’의 의미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전후 사회의 직업여성을 의미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여성‘직업인’이라는 개념들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 ‘여성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와 같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특별한 양상을 주목하기 위함이다. 여성‘직업인’개념은 기술직 직업여성이면서도 자영업주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양장점 운영이라는 직업을 통해 여성‘직업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직업이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를 살핀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성 역할이 여성의 직업 선택 과정과 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여성에게 직업은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사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성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직업인’의 의미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와 양장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양재사(洋裁師) 혹은 양재기술자 등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양장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로서 ‘여주인’ 혹은 ‘자영업주’로 지칭하며, 양재기술을 가진 ‘양재사’, ‘양재기술자’ 등은 여성‘직업인’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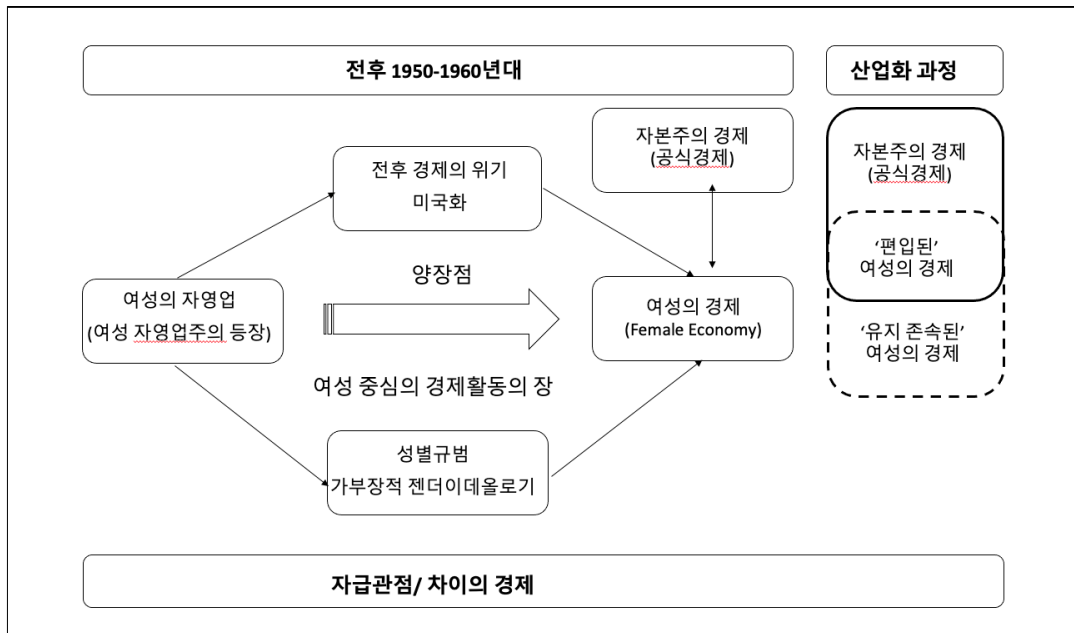
64) “전국특수직업여성 10만명 내외로 추산”, 《조선일보》, 1954. 7.20; “특수직업여성 1월통계 적령기층이 수위, 최저 15세부터”, 《경향신문》, 1955. 2. 16

본 논문에서 개념틀로 삼고자 하는 여성‘직업인’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독립적인 물적 공간을 구성하며 기술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경제적 실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식의 형성 과정은 전후라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전개된 성별 권력 관계와 기술직에 근거한 자영업이라는 여성들의 독특한 직업의 경험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직업인’이라는 개념은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 운영이라는 자영업에 진출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위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

4. 분석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여성의 경제’를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여성의 경제’가 산업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2-1>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 분석틀 : 전후사회에서 여성자영업주의 등장과 ‘여성의 경제’의 형성 및 재편



본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자영업이라는 여성의 경제적 실천이 갖는 내용과 성격에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된 ‘여성의 경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여성의 경제’는 전후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개한 새로운 경제적 실천인 여성의 자영업과 이를 기반으로 전개된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을 의미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전후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부재하였지만, 국가는 민족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담론을 통해 여성을 타자화하면서 전후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피폐해진 전후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제주체로서 여성 자영업주가 등장하였다.

양장점은 여성 자영업주가 운영한 대표적인 사업체 중의 하나였다. 무엇보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의 부상은 전후 195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장점은 여성의 양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성과 매우 밀접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장점은 여성의 상품과 관련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화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 전후의 새로운 가치와 상상력을 통해서 구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착용하는 양장은 전후 사회에서 미국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양장의 착용은 전후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함께 전후 사회에서 의류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여성들이 양장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양장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로써 양장점은 여성에 대한 사치와 허영이라는 비난을 넘어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장점은 맞춤양장을 생산함으로써 소상품 생산 양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양재기술과 감각을 기반으로 고객의 취향과 최신 유행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구성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양장점은 새로운 여성과 관련한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양장점과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주’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가경제의 상황 속에서 등장하였다.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경제의 위기로 인해 공장이나 기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 대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후 사회에서 등장한 ‘여성 자영업주’는 사업체 운영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실천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고객과의 면대면 방식을 통해서 맞춤양장의 생산 및 판매를 한다는 점이다. 즉 소상품 생산 양식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양장점이 제조업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고 소규모 사업체이자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경제였다. 이러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본축적보다는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목적을 가졌다. 이로써 ‘자급관점’, 즉 자급경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 자영업주의 경제적 실천을 통해서 구성된 ‘여성의 경제’는 전후 한국에서 경제적 생산은 물론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는 산업화에 편입 혹은 동원되거나 주변화된 위치에서 유지 및 존속되어왔다.

즉 본 연구는 전후 1950년대라는 역사적 시간성 속에서 전개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경제적 실천의 등장은 전후 국가경제의 위기와 미국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주로서 등장한 여성은 가족의 생계부양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가경제의 위기로 인해 여성 자영업주는 공식경제가 아닌 비공식경제에서 비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구성된 ‘여성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논리와는 다른 작동원리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을 통해서 구성한 ‘여성의 경제’가 가부장적 자본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성격을 가진 경제모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Ⅲ. 전후 여성의 직업으로서 양장점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행상 및 점포 운영 등 자영업 운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식민지 시대만 해도 식민통치와 전시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노동 동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⁶⁵⁾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전후 한국경제의 상황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전개되었는지를 살피고 전후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여성의 직업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여성이 운영하는 자영업인 양장점이 부상하게 된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양장업의 여성화’가 전개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의 직업이나 경제활동을 선택함에 있어 젠더규범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A. 전후 여성의 직업 실태와 양장점의 부상

1. 전후 피폐한 경제 상황과 여성의 직업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미군정기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산업기반이나 생활기반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 달러로 추산되었다(이대근, 1987). 산업시설의 피해는 제조업의 경우 원상과 비교하면 평균 40%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섬유공업은 시설의 60%가 파괴되었으며 전력업의 경우 발전시설이 80%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피해내역을 보면 건물이 44.6%, 시설이 19.7%며, 서울과 경기도 전체 피해의 52.8%를 차지하였다(이대근, 2002). 산업시설의 파괴는 실업자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월남한 피난민까지 더해 실업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1952년 말 실업자의 수는 126만여명으로 노동

65) 식민지 시대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통해 근대적인 직업에 진출하였으며 서비스직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했다.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여성의 직업으로는 공장노동자를 비롯하여 카페 여급 등 근대적인 서비스업 등이 있었다. 여성의 노동은 직원 혹은 종업원으로서 임금노동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대다수 여성은 농업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구 단위 중심의 가내노동이 위주였다. 일제에 의한 여성 노동의 통제, 특히 전시체제기 여성 노동의 동원이 강화됨으로써 여성 노동은 일제의 통치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에 의한 여성노동력 동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미정(2015),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미정(2019), “일제강점기 조선여성에 대한 노동력 동원 양상: 1937~1945년을 중심으로”, 『亞細亞研究』, Vol.62 No.3, 9~42쪽.

력 인구의 15%나 되었다. 한국전쟁 시 유엔군 대여금(貸與金)문제로 악화된 인플레이션 문제는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였다. 군정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사회 안정을 위해 의류, 식료품, 의약품 등 최종 소비재 중심의 구호원조가 이루어졌으나 휴전이 되면서는 재건을 목표로 경제부흥원조로 전환되었다.⁶⁶⁾ 1950년대 한국경제는 ‘원조경제’로 불릴 만큼 미국의 대한원조에 의존했다(김대환, 1991; 박태균, 2007; 이현진, 2009). 전후 사회에서 농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국내 자본축적의 실패와 불안정한 사회조건과 실업자의 만연,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한 정부 세입의 감소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 정부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었다(박태균, 2007).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계의 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특정 기업인에 의한 독점자본이 형성되었으며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공제욱, 1993). 195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한 제조업으로는 소비재공업인 섬유공업(의류 포함), 식료·음료품 공업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섬유, 제당, 제분 등의 삼백(三白) 산업 위주로 경제성장이 전개되었다(김양화).⁶⁷⁾⁶⁸⁾ 그리고 전후 한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대체공업화⁶⁹⁾ 방식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식경제는 국가와 자본이 정경유착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단독적인 정부 수립 후 경제정책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까지 집행하지는 못하였다(박태균, 2007; 정진아, 2007; 이현진, 2009).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산업화가 없는 도시화가 전개되었다.

66) 1954년부터 경제부흥을 위한 원조가 본격화되었으며, 1957년 최대 금액인 3억8천만 달러가 원조되었다. 그 이듬해부터 감소되어 1964년이 되면 1억4천만 달러로 1/3 가까이 감소했다(류상운, 2017: 7~9).

67) 원조물자가 이들 산업과 관련된 원료 및 반제품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원조경제가 특정 분야의 기업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양화(1990), “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면방, 소모방, 제분공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희(2018), 『설탕, 근대의 혁명: 한국 설탕산업과 소비의 역사』, 지식산업사. 그리고 기업에 관한 경제원조 관련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면방직업체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원조자금을 배분받아 성장했음을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류상운(2017),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경영사학』, 제32집 제3호, 5~23쪽.

68)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점숙(2000),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1945~1950년) 물자수급정책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상오(2003),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업화 전략”, 『경제사학』, 제35호, 135~165쪽; 정진아(2007),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박태균(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현진(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서울: 해안.

69)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이란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공산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그리고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란 공산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이상철, 2001: 450).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가 경제의 재건을 위해 경제정책을 구상하였다. 전후 한국의 경제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제는 국민의 경제적 빈곤을 책임지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전후 재건을 위해 남성 관료로 구성된 '재건기획팀'은 전후 생산력 증대의 기본 방향으로 공업화로 설정하였으며, 기간산업은 물론 공업 발전과 생산력 증대 등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정진아, 2007). 전후 정부는 여러 차례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판유리공장, 철강공장, 석탄, 전력 및 운송시설 등과 같이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재건계획을 수립하였다. 전후 정부가 재건을 위해서 수립한 경제계획은 남성 중심의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산업구조 중심이었다. 정부에 의한 노동정책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국가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가의 재건(再建)담론은 반공주의적, 민족주의적, 가부장적 성격을 띠며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전후 한국 사회가 복구 및 재건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질서의 재편과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남성성의 복귀 등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담론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로써 전후 1950년대는 전후 공통감각으로서의 '여성혐오의 시대'로 말해졌다. 허윤(2016)은 양공주, 자유부인,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특정한 범주의 여성들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면서 1950년대를 여성혐오적 시대로 의미화한 바 있다. 이처럼 1950년대가 여성혐오의 시대로 서술되는 데에는 당대 공론장에서 전개된 언설과 대중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에서 기인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지배담론 분석은 담론의 틈새와 균열 그리고 다성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과는 일정한 거리를 초래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른 맥락에 위치한 전후 여성의 경험은 가시화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 소비는 부정적으로 언설화되었다. 다음의 「여인양장 유행의 소감」(1959년 6월 20일자)이라는 제목의 1959년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은 양장 착용을 여성의 허영으로 의미화하였다.

양장이란 말을 자의(字意)만으로 본다면 신사(紳士)에 대해서 사용해도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을 터인데 숙녀들의 서양식 의장(衣裝)에만 독점된 것은 아마 양장이란 장(裝)자(字)가 남자들의 양복과 같이 실용면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장절면(裝飾面)에 치중되는 때문일지 모른다. (...) 여인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활동분야가 넓어졌으니까 활동에 편한 양장이 불어난 것은 당연한 일일게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말하지만 가정부인들까지 양장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간다. 아마 실제활동에 편해서 뿐 아니라 신기(新奇)를 쫓고 허영(虛榮)을 찾는 여인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식모에서 장관 부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바야흐로 여인양장의 시대가 되는

듯 하다. 「헛손·쇼」에서 여왕선출, 은막의 배우 등을 통해서 보급되고 정화되어 그야말로 개성이 잘 살아난 양장여인도 많아진다. 그러나 팔 다리 목덜미를 마구 노출하는 양장은 옷감이 얼마 안들것인데 도리어 한복보다는 엄청나게 고가인 모양이고 게다가 각종 악세사리까지 어색치않게 차리자면 보통 가정주부로서는 흉내도 못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장은 늘어간다. 밀수품의 과반은 사치품이고 그 사치품의 과반은 여인장식에 쓰이는 물건들이다.

위의 칼럼은 여성의 양장 착용이 확대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남성이 양복을 입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지만 여성은 미적인 측면에서 멋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더욱이 사회활동조차 하지 않는 가정부인들까지 양장을 착용하는 것은 “신기를 쫓고 허영을 찾는 여인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비난한다. 그리고 여성이 착용하는 양장은 옷감의 가격이 비싸고, 밀수품의 과반이 사치품이고 그 사치품의 과반이 여성의 양장 착용에 사용된다고 문제시한다. 이처럼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 착용은 사치와 허영으로 의미화되면서 양장을 입은 여성은 문제적 여성으로 타자화되었다. 더욱이 여성의 양장이 ‘사치’로 간주하면서 비판을 받게 된 데에는 양장을 만드는 옷감이 국산품이 아니라는 이유였지만, 남성과 비교해 여성이 더 사치스러웠다고 보기는 힘들다(김수진, 2007: 305). 여성의 양장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은 양장을 생산했던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가시화하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 담론은 가족 내에서 가정주부로서 여성의 성역할인 모성과 현모양처 등을 강조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남성 부재로 인한 가부장제의 위기 상황은 근대적 현모양처에 ‘전통성’을 부여하고 이를 찬양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젠더이데올로기적 규율을 강화하는 대응을 낳았다.

전후 국가 경제의 부재와 가부장적인 지배 담론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여성들은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생존권의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삶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전쟁의 피해자인 전쟁미망인을 위해 원호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장(授産場)과 모자원을 수립하였으나 정부의 무성의와 관리소홀로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이임하, 2004: 51~64). 그리고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대도시와 기지촌 등 도시로 몰려들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 3-1>는 1958년에 내무부의 통계국에서 조사한 성별에 따른 산업별 인구종사율이다. 남성의 산업별 인구종사율은 농·어업을 제외하고 상업 7.18%, 공무봉사업 6.92%로, 남성은 상업과 관공소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수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인구의 75%에 가까운 비율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농·어업 다음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전체의 4.45%로 가장 많이 종사하였다. 즉 여성은 농·어업을 제외하고 상업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을 통해 발생한 많은 피난민들이 도시에서 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2차 산업의 성장 이전에 도시화와 3차산업의 비정상적 비대화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박태균, 2007: 75).

<표 3-1> 1958년 산업별 인구종사율

(단위 : %)

구분	농·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상업	운수 통신업	공무 봉사업	기타
남자	64.68	0.44	1.14	1.87	7.18	1.48	6.92	11.7
여자	74.45	0.06	0.10	0.84	4.45	0.09	1.68	10.86

자료 출처 : 내무부 통계국(1958), 『대한민국통계연감』

다음의 <표 3-2>의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남녀노동자수>를 통해 당시 여성의 임금노동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데 총 37,642명이며 76.6%를 차지한다. 이 표에 따르면, ‘기타’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수는 총 58,033명으로,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전체 여성 중에 단지 1%에 해당한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국가의 경제정책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나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후 경제의 제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성 노동 인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5인 이상 제조업체의 남녀노동자수(1957년)

(단위 : 명)

	연초제조업		방직업		혁류, 의복및 장식품제조업		고무공업		기타		합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남	2,853	46.3	11,499	23.4	552	33.7	2,200	42.7	61,593	82.5	78,697
여	3,303	53.7	37,642	76.6	1,085	66.3	2,950	57.3	13,053	17.5	58,033

자료 : 보건사회부 노동국, 「노동실태조사 통계표」, 1957년, 4~7쪽

이와 같이 제조업보다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데는 기업이나 공장 등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시

장에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였기 때문이다⁷⁰⁾. 즉 비공식경제인 장사를 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한 것은 제조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물물교환이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만들어진 음식이나 물건들을 팔고 사는 형태는 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이다(안태운, 2011: 266).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약간의 자금이라도 융통할 수 있는 여성들은 다방, 양품점, 화장품가게, 담배장사, 달러 장사, 행상, 음식점 등을 운영했다(이임하, 2004).⁷¹⁾⁷²⁾⁷³⁾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여성들은 장사하면서 사람들로 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였다.⁷⁴⁾ 여성들은 일정한 금액의 사업 밑천이나 자본금을 마련하는 경우 점포를 얻었다.

2. 양장 제작의 전문화로서 양장점

전후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의 양장점 진출이 두드러졌다.⁷⁵⁾ 여성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비가 증가한 양장을 생산 및 유통하는 경제영역에 직업의 일환으로써 진출하였다. 특히 양장점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운영한 자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 여성의 장사 진출과 관련해서 북부 지방 여성들의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해방 전까지 남부 지방에서는 시장에 출입하는 여성이 흔치 않았다(허영란, 2007: 29). 여성들의 시장 출입이나 장사가 빈번해진 것은 한국전쟁 때로,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판매자, 장사하는 행위자로서 출입하는 여성이 증가했다(이임하, 2010: 146).

71) 최초의 부인상점을 연 여성은 이일정으로, 1907년 서울 안현동(지금 안국동 일대) 11통 16호 길가집에 ‘안현부인상점’을 개업했다. 간판을 걸고 부엌살림, 방살림에 빠지지 않는 일상생활 필수품의 일용잡화를 판매했다. 여성들만이 고객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10년 뒤에 서울 인사동에 동아부인상회가 문을 열었다. 관리와 감독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봉 교사인 김희열이 담당했으나 경영권은 최남이라는 남성이 갖고 있었다(최은희, 2003: 95~105).

72) 도시의 팽창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다방, 요정, 미장원 등이 무수히 생겨났으며 이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후 도시에는 만두나 국수를 파는 음식점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무허가 다방, 요정, 미장원, 음식점 등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증가했다(이임하, 2004: 106).

73)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사에 나선 여성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윤정란(2007),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서울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7집, 87~122쪽; 안태운(2011), “후방의 ‘생계전사’가 된 여성들: 한국전쟁과 여성의 경제활동”, 『중앙사론』, 제33집, 257~295쪽.

74) 장사하면서 남자와 대화라도 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노점에 대한 단속 그리고 남성의 사기를 죽인다는 비난까지 난무했기 때문이다(윤정란, 24~30).

75) 식민지 시대 남성들이 양복점을 주로 운영하거나 취직해서 양복을 만들었다면, 여성들은 한복을 만드는 ‘재봉소’를 운영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 명의 직공을 두고 마치 작은 공장처럼 운영하는 재봉소도 있었다. 상점을 차리기 어려운 부인들은 집에 재봉소를 차렸다(조민영, 2021, 34~35쪽). 이는 ‘내재봉소’라고 불리었다.

양장점은 산업분류체계의 분류에서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식민지 시대 양장점은 상업으로 분류되었다. 양장점은 맞춤복을 제작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을 판매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양장점은 여성의 맞춤 양장을 만드는 공간으로 전문화되면서 의류 상품을 생산하는 성격이 강화되었다.⁷⁶⁾ 양장점은 산업 분류 체계에서 ‘제조업’ 중 ‘의복제조업’⁷⁷⁾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양장점은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장점은 국가가 생산하는 자료인 산업분류체계에서는 제조업에 포함되었으나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업종의 성격상 상업의 ‘소매업’과 비슷하다.⁷⁸⁾⁷⁹⁾

양장점과 관련한 산업분류체계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양장점은 1954년에는 ‘화류의복

76) 해방 공간에서 양장점은 운영되었지만, 그 수가 그리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46년부터 발간된 여성지 《부인》에는 1949년 4-6호에 처음으로 목차 다음에 양장점 광고가 실렸다. 명동2가에 있는 무궁화양장점은 “귀여(귀여)의 미는 양장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실렸으며, 같은 지역에 있는 광명양장점은 “양복계의 원조, 신식숙녀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였다. 광고에는 문구 이외에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77) 1959년 한국산업은행이 조사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에 따르면, 양장점의 산업 분류 체계는 ‘섬유공업’으로 설정되었다.

78) 해방 이후 제조업체에 대한 폭넓은 전수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55년이었으며, 이후 조사 주체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어 1958년, 1960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경제기획원(이후 통계청)이 ‘광공업 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이들 조사는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의 통계 시계열을 만들어냈다. 조사 단위인 ‘사업체’로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무소 등과 같이 그 곳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가르킨다. 그리고 각 사업체는 조직형태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개인은 “단일 世帶 또는 단일인 소유의” 것을 말한다(류상윤, 2019: 48~49).

79) 다음의 <표 3-3>는 1950년대 후반 양장점이 포함된 제조업체 명부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3> 1950~60년대 제조업체 명부 목록

명칭	작성기관	조사시점	발간시점	수록기준
全國製造業要覽	대한상공회의소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4288) 및 부록	한국은행	1955년 10월말	1956년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4291)	한국산업은행	1959년 3월말	1959년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60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1960년 12월말	1961년	상시종업원수 3인 이상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사업체 명부 '63	경제기획원	1964년 3월말	1964년	종업원수 5인 이상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사업체 명부 '66	경제기획원	1966년 3월말	1967년	종업원수 5인 이상

주 : 1)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부록)에는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인 업체도 일부 수록돼 있음.

출처 : 한국은행(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 한국은행(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부록); 한국산업은행(1959),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 상공부-한국산업은행(1961),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60,

류제조업(靴類衣服類製造業)’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분류는 화류(靴類), 피복, 기타 직물제품, 양복·양장으로 구분되었다. 1955년에는 산업분류체계의 제조업 중 ‘화류, 의복 및 장신품제조업’(24)의 ‘의복류제조업(화류제외)(243)’-‘성인·소년 및 소녀용 외의 및 외투제품업(2431)’으로 바뀌었다. 당시 사업체 조사에서 피복공장을 비롯해 양복점과 양장점이 모두 통합되어 전개되었다.⁸⁰⁾ 양장점은 ‘의복류제조업’에 포함된 사업체이므로 공식경제에 포함되지만,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5인 이하 혹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양장점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비공식경제로서의 성격이 크다.

전후 사회에서 발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장점의 수가 195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56년에는 27개⁸¹⁾였으며, 1959년에는 82개로 늘어났다. 3년 사이에 3배 정도로 늘어났다. 1956년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4288』에는 상시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양장점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숙녀복’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양장점의 실질적인 수는 이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1959년에 발간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명부》에 따르면, 1958년의 양장점의 수는 총 82개였다. 양장점의 지역별 위치를 살펴보면, 경기 20개, 서울 17개, 충청남도 6개, 충청북도 9개, 경상남도 8개, 경상북도 8개, 전라남도 13개, 강원도 1개였다. 양장점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반면 강원도나 전라북도, 제주도 등지에는 양장점의 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분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말을 지나면서 양장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분포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면서 양장점의 규모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963년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 事業體 名簿』에 따르면, 여자용 의의를 만드는 사업체 수는 1963년 12월 현재 총 293개였다. 여기에는 한복을 만드는 한복점 5개, 운동복을 만드는 피복사가 1개 포함되어 있다. 한복점과 운동복을 뺀 여성의 양장을 만드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서의 양장점은 287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부에는 양장점의 이름, 대표자, 주소, 전화, 상시고용원의 수, 그리고 제작하는 품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양장점의 대표자 이름에는 성별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업체의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양장점의 수를 살펴보면, 서울 89개, 부산 41개, 경기도 16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15개, 충청남도 32개, 전라북도 24개, 전라남도 33

80) 2017년 제10차 산업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양장’과 관련된 현재의 산업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C 제조업) > 중분류(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소분류 141 봉제 의복제조업 > 세분류 1411 겉옷 제조업 > 세세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10차 개정에서 ‘정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겉옷’으로 변경되었다. 자료 출처: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

81) 한국은행조사부(1956),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명부』. 이 조사 명부에는 양장점 이름이 아닌 상태로 여성복이나 부인복 등을 제작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 경상북도 21개, 경상남도 12개가 각각 있었다. 서울이 89개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서울에는 종로구(예지동), 중구(명동), 서대문구(대현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부산시에는 중구에, 충남 대전시에는 원동에, 전남 전주시에는 중앙동에, 전남 광주시에는 충장으로, 경북 대구시에는 포정동 등 특정한 지역에 양장점이 몰려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장점은 함께 군집(群集)을 이뤄 ‘양장점거리’를 만듦으로써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66년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 事業體 名簿』에 따르면, 1966년에는 5인 이상의 양장점의 수는 총 653개로, 여기에는 양복 수선 1개, 세탁점 1개, 한복점 9개, 자수의상점 1개, 편물점 1개, 수예점 3개가 포함되어 있다. 1963년과 비교해 양장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²⁾ 대다수 양장점의 규모는 종업원의 수가 5~9인에 해당했다. 대표자의 이름은 한자로 표기되었는데, 남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했다. 이는 남자가 직접 양장점 운영을 담당하는 때도 있지만 아내가 하는 양장점에 남편의 이름을 대표자로 등록했던 때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69년에는 서울 시내에만 양장점이 2천여 개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렸다.⁸³⁾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양장점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산되었으며, 양장점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양장점이 더 빨리 등장했으며, 점차 내륙 지역과 도서 산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계는 양장점이 전후 1950년대를 지나면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지만, 소규모 양장점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는 양장점 운영의 전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장점이 부상한 사실⁸⁴⁾⁸⁵⁾은 해방기와 한국전쟁 동안에 양장점을 운영했던 구술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에서 해방 이후부터 양장점을 운영했던 이종수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양장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기억한다.

(양장점이) 많이 생겼지. 생겼어. 차차 차차 가면서 많이 늘었지요. 모두, 인자 남이 하니

82) 양장점은 서울에 232개가 소재했으며, 전라남도 73개, 충청남도 59개, 경상북도 58개, 경기도 47개, 부산시 35개, 전라북도 41개, 경상남도 33개, 충청북도 32개, 강원도 30개, 제주도 1개가 위치했다.

83) “기능있는 양재협회”, 《매일경제》, 1969. 9. 27.

84) 미장원 광고는 양장점 광고와는 달리 해방 이후에 발간된 여성지인 《부인》과 《신여원》등에 지속적으로 실렸다.

85) 1946년부터 발간된 여성지 《부인》에는 1949년 4-6호에 처음으로 목차 다음에 양장점 광고를 게재하였다. 명동2가에 위치한 무궁화양장점은 “귀여의 미는 양장에서!”라는 문구를, 역시 같은 명동2가에 위치한 광명양장점은 “양복계의 원조, 신식숙녀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러한 광고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양장점과 달리, 미장원 광고는 해방 이후에 발간된 여성지인 《부인》과 《신여원》 등에 지속적으로 실렸다.

까, 잘 되니까 말이지 또 시작하고 그랬지 싶어요. 음 그거는 차츰차츰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이야. 음, 늘어난 거는 사실이야. <이중수>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김경옥 역시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양장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양장점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양장점을 운영한 구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욱이 구술자들은 전후 사회에서는 여성이 양장점을 주로 운영했다고 기억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장점의 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후 한국에서 원조경제와 미국적 가치를 대표하는 양장문화가 미국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의복 생산이 중단되고 한복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복은 더욱 귀해졌다. 외국의 의복이 구호물자로 유입되었는데, <UN 구호물자의 배정>(통계청)에 따르면 의류는 1951년에 67,572B/L, 1952년에는 74,879B/L이 전국에 배포되었다고 한다. 구호물자로 전후 한국에 양장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이 양장의 착용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생산된 양장은 기성품으로 ‘구제품’이 대량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으로 물자가 매우 귀한 상황에서, 양장을 비롯해 초콜렛, 밀가루와 같은 ‘양품(洋品)’이 전후 한국인들의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양장문화는 근대적이고 미국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양장 착용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역시 확대되었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한 한국에 확산된 미국의 대중문화는 여성의 양장에 대한 소비 욕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 미국화의 전개는 미국식 소비문화, 특히 양장문화를 지배적인 패션문화로 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김덕호·원용진, 2008). 전후에 발간된 영화잡지와 여성지를 비롯한 대중매체에는 양장을 착용하는 법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영화에 대한 소개가 끊이지를 않았는데 양장을 입은 미국 여성의 사진이 여성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영화관은 해방 이후 전후 사회에서 미국영화가 독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미국영화는 양장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 노릇을 하였다.⁸⁶⁾ 미국 헐리우드 영화 <분홍신>, <애수>는 트렌치 코트를, <무덤고 긴 여름밤>은 허리 들어간 원피스를, <로마의 휴일>은 더블 스포츠칼라(八字형)에 더블 투버튼 상의와 폭넓은 플레어스커트를 유행시켰다(김수진, 2007: 300). 전후의 대중매체는 양장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여성에

86) 여성들이 미국영화를 즐겨 본 이유는 “외국영화의 다양성, 낭만적인 사랑으로 감싸인 멜로드라마가 여성관객들을 당시 현실에서는 요원했던 꿈의 세계로 안내했으며 전후의 궁핍한 세계, 남녀의 애정표현이 쉽지 않던 시절에 외국영화를 보는 체험은 산뜻하고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외국 영화라는 이름으로 마주치는 서구 근대의 풍경은 여성들에게 황홀한 매혹의 대상이었다”(변재란, 2000: 153~166). 미국영화 관람은 여성들이 미국식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이었다.

게 양장을 착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장점의 확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미군의 주둔과 함께 등장한 ‘양공주’이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의 등장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면서 양장을 입는 미국 여성들이 등장하였으며, 댄스홀과 같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양장을 입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들은 양장 착용을 선호하였다. 양장을 착용한 양공주의 존재는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촌은 물론 대도시에서 양장문화의 시각적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양공주’들은 눈에 띄고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호함으로써 여성의 시선을 끌면서 양장문화와 양장점의 대중적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⁸⁷⁾

이와 함께 양장이 기성복이 아닌 맞춤형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점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양장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옷에 대한 완성도 혹은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그 결과 양장 제작의 고도화 혹은 전문화가 전개되었다.

우선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의복 원조물자의 보급은 ‘수선문화’를 낳았다. 구제품을 수선해 입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수선점’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선점의 번성이 양장점의 부상과 관련이 된다.⁸⁸⁾ 구술자 김경옥은 맨 처음에는 양장점이라기보다는 수선점의 성격에 더 가까운 점포를 운영하였다고 한다. 구제품을 가져와 수선을 해달라는 고객이 많았다고 한다. 구제품의 옷감 질은 좋지만 사이즈가 한국인의 몸에 맞지 않아 여성들이 수선점에 갖고 와서 수선해 입는 경우가 많았다.

(50년대 양장점 하실 때 미국에서 원조된 구제옷 같은 거 있었나요?) 그래, 그런 거 뜯어

87) 문학에 재현된 양장문화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최성희(2005); “자유부인, 불량쉬를 만나다: 전후 한국여성의 정체성과 미국 드라마의 수용”, 『미국학논집』, 제37권3호, 191~216쪽; 김현숙(2006); “GI와 PX문화를 통해 본 미국문화: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8권, 137~162쪽; 권보드래(2009),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아프레걸사상계를 읽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이선미(2011),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커니즘: 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54호, 45~87쪽; 류경동(2017),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연애와 새로운 소비주체”,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8권1호, 159~180쪽.

88) 미국에서 원조된 구제품의 수선은 한국전쟁 이후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해방과 전후 사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서양식 의복이 원조물자로 시중에서 거래되었다. 한국에서 심각한 의복부족현상으로 미국에서 유입된 양장이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 양장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대로 입을 수가 없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옷감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조로 들어온 구제품을 수선해서 입었으며, 구제품을 수선하는 수선점은 인기를 끌었다. 한국 여성들은 전쟁으로 옷을 만드는 노동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주로 한복을 만들어 입던 한국의 의생활은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의복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고치는 것도 많이 했어. (사람들이 구제옷을 어디서 구해서 와요?) 구제품을 파는 동네가 있어, 목포도. YCWA 건너편에서 파는, 길게 좌판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난 전. 옷감이 좋으니까 뜯어 갖고 다른 걸로 재생하기도 하고 (...) 왜 그러냐하면 옷감이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크지 않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일론 해서 갖고 오면은 그 옷감을 갖고 애기들 옷 같은 것도 만들고 어른 옷도 만들고. <김경옥>

김경옥은 손님들이 목포 시내에 좌판을 깔고 구제품을 파는 사람로부터 구제품을 사 갖고 와서 수선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양장지를 비롯해 옷감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이 입던 한복을 개조하여 양장으로 만들거나 한복 옷감을 갖고 와서 양장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당시 여성들이 양장을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제품을 수선해 입거나 양장점에 가서 맞춰 입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구호품을 수선해서 입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양장점이 증가하였다.

수선문화가 확장되면서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몸에 맞는 양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종수는 일제 시대 만주 안동에서 고모와 작은 규모의 양장점을 운영하던 당시만 해도 여성의 몸에 맞는 치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둘이서 인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내까지 못하니까. 손님이라고, 손님이 아이라 막 한 두 사람 와서 그날 밤에 해서 주고 뭐 그렇지. 지금처럼 가게라고 그런 분위기는 조금도 느낌이 없어. 겨우 한 두 사람 와 가지고 (주문하는 정도지). 고모는 옷 보고 아이구, 이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입어 보던지 그러면은 품(몸통의 크기)만 사이즈를 재 가지고 넓게 한다든지. <이종수>

구술자 이종수는 일제 시대 양장을 만들 때만 해도 박시하게, 즉 병병하게 자신의 몸 보다 크게 만들었다. 해방 이후 양장문화가 발전하면서 여성 고객들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양장을 착용하기를 원했으며 최신 유행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양장을 맞춰 입는 여성 고객들은 좋은 옷감, 꼼꼼한 바느질,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치수 등을 양장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양장점은 여성 고객의 몸에 맞게 치수를 재어 양장을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수월했지만 양장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양재기술은 물론 양장 제작에 필요한 옷감, 실, 재봉틀 등 여러 종류의 재료와 도구를 갖춰야 만들 수 있었다. 양재기술을 익혔다고 해도 집에서 제대로 된 양장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양장에 관해 까다로운 감각과 자신만의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양장점의 등장이 필요했다. 양장을 만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

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양장을 생산하는 양장점이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즉 양장점에서의 양장 생산은 집에서 만든 것과는 달리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우수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혼자서 양장을 만들며 오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양장점에 가서 맞추는 것을 선호했다. 양재기술을 가진 여성들은 직원을 채용하여 양장을 만드는 과정을 분업화하고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등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였다. 고객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여성이 제작한 양장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소비행위가 될 수 있었다. 양장점은 양장의 질을 담보하고 양장 제작의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양장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양장을 입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역시 절약할 필요가 생겼다. 양장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집밖에 나가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양장을 제작할 시간이 부족했다. 전후 195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정도의 기술로는 제대로 된 양장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의 대중화는 양복점과 비교하여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양복점⁸⁹⁾은 식민지 시대부터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를 위해서 양복을 착용하는 남성 인구가 많아 일찍부터 대중화되었다. 식민지 시대 여성이 주로 입는 의복은 한복으로, 한복 바느질을 하는 ‘내재봉소’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양복이 조선에 유입되었던 초기에는 양복점⁹⁰⁾에서 남성이 입는 양복은 물론 여성이 입는 양장까지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양복점에서 여성의 양장을 다루는 부서는 ‘부인양복부’로 불리웠다.⁹¹⁾⁹²⁾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부터 부인

89) 식민지 시대 남성의 경우 양복 착용이 대안으로 빨리 정착함에 따라, 남성 한복은 개량 논의가 여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빨리 종로되었다. 1920년대 남성을 위한 양복점은 이미 많아졌으며 서울 충무로 일대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양복점이 100여개, 종로 일대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양복점이 50여개나 되었다(고부자, 2001: 131). 1930년대가 되면 엘리트 남성이나 상류층 남성이 아닌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남성들도 양복을 대부분 입었다. 1900년대만 해도 양복을 입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1920년대가 되면 남성이 양복을 입는 것이 선망이 되었으며 양복은 신분의 상징이자 계층의 지표가 되었다(공제욱, 2019: 145-146).

90) 양복점의 점주가 여성인 경우도 있었다(김순영, 2017: 94). 개화기 ‘양복재단사’를 직업으로 가진 여성이 있었다. 1910년 일본 동경 여자화양복학교(女子和洋服學校)를 졸업하고 귀국한 부인인 설옥선(薛玉善)이 강습소를 설립해 여학생을 모집했다고 한다(김경훈, 1994: 193).

91)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백화점인 <정자옥>의 부인복부는 부인이나 여학생의 외출용 모직 방한복인 케-프를 만들어 판매했다. 또 일제 강점기 유명했던 미나카이 백화점에도 양장부가 있어 양장을 만들어 판매했다. 식민지 시대 일본인이 운영했던 양장점에 관해서는 양장점의 재봉사로 근무했던 남성인 이종정의 구술자료를 참조할 것. 박경용(2017), 『양장계 명장 40년, 대학원 강당에 서다 : 이종정 구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복 전용의 맞춤형양복점(혹은 양복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여성이 입는 양장인 ‘부인복’을 제작 및 판매하는 양장점이 양복점과 분리되었다. 양장점의 명칭도 초기에는 ‘부인양복점’ 혹은 ‘부인아동양장점’으로 불리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양장점’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김순영, 2017: 90~92). 양장점 광고는 식민지 시대 신문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고 여성지에만 드물게 실렸다.⁹³⁾⁹⁴⁾ 양장점을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1930년대 말에 등장했지만⁹⁵⁾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집에서 양장을 만들어 입던 양재기술을 가진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92) 1922년 당시 정자옥에는 기성양복부와 주문양복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1927년까지 기성복은 정자옥의 독점판매로 전개되었다. 1928년부터는 다른 양복점에서도 기성복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김순영, 2017: 96).

93) 1937년에 발간된 여성잡지인 『여성』에는 종로에 위치한 미야꼬(ミヤコ)복장점 광고가 실렸다. 니트와 스커트 그리고 위에 긴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모자를 든 양장 입은 여성 이미지와 함께 “37년의 봄양장은 미야코로”라는 문구와 함께 실려 있다. 이것이 여성지에 실린 첫 번째 양장점 광고이다.

94) 조선인이 운영한 최초의 양장점으로는 최경자가 일본유학에서 돌아와 고향인 함흥에 1937년에 문을 연 <은좌옥양장점>으로 패션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당시 최경자는 일본에서 다니던 양재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양장을 한 트럭 분량을 일본서 배로 실어 와서 팔면서 양장점을 시작했다. 최경자에 따르면, 일본의 양재학교 측에서 조선에 가지고 가서 팔고 일정한 금액만 큼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최경자가 가져온 양장의 종류는 블라우스, 스커트, 슬랙스(바지), 수트(정장) 그리고 몸빼 등이었다. 최경자는 가게를 열고 <은좌옥>이라 이름을 붙이고 가게에 양장을 진열하니 엄청 잘 팔려서 상점이 순식간에 커졌다고 한다.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양장도 함께 팔기 시작했다. 당시 최경자는 미혼의 26살의 나이였다. 박은하(2004), “패션디자이너 최경자”, 『한국여성인물사 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87~347쪽.

95) 1930년대 후반에는 양장점을 소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1938년에 실은 동아일보의 ‘상공 쇼윈도 순례’라는 기획 시리즈는 로스테일러 부인양장점을 소매상으로, 부인 양장을 다루는 점포로 소개했다.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고객이 쇼윈도에 세워진 양장을 입은 마네킹과 옷감 등을 구경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기사에는 상점 경영법 안내를 통해 양장점 운영자들이 전시체제기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부인의 양장은 안해도 무관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시체제기 여성의 양장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경감하는 것이자, 양장의 착용이 선택적이고 특수한 여성들에게 제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공 쇼윈도 순례 (10) 로스테일러”, 《동아일보》, 1938.4.12; “상공 쇼윈도 순례 (11) 미야고양장”, 《동아일보》, 1938.4.13.

B. 여성 직업으로서의 양재사(洋裁師)

1.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경제행위로서 양장(洋裝) 일

여성들은 해방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가족과 자신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생계부양과 직업적 성격 때문이었다. 양장점 운영을 처음부터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성격이 컸던 사례는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 인순옥, 박부대 등이다. 양장점 운영을 하기 이전에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졌던 사례는 송용순, 김경옥의 경우이다.⁹⁶⁾ 송용순과 김경옥은 가족 부양을 위한 성격의 양장점 운영을 하기 이전의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 여성의 직업으로 시작했다가 결혼 후 가족의 생계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된 사례는곽정희, 신희자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구술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해방과 전후라는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술자들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해방 이후 해외로부터의 귀환(歸還),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뤄진 월남(越南)⁹⁷⁾,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 구성원의 부재와 이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 단위의 이주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우선 식민지 시대 해외로 떠났던 동포들이 1945년 해방과 함께 귀환하였다. 이러한 귀환의 행렬에 구술자 이종수도 포함되었다. 경남 김해가 고향인 이종수는 1930년대에 가족 전체가 만주 안동으로 이주를 했다가 해방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왔다.⁹⁸⁾ 이종수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우에노음악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96) 구술자들 중에는 양장점 운영을 하거나 양장점에 취업하기 이전에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있다. 송용순은 식민지 시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김경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지역의 세무서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97) 해방 후 귀환과 월남 등 대규모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식민지 시기 해외로 이주했던 조선인은 한반도로 귀환했다. 해방 후 1948년까지 남한으로 들어온 귀환민은 일본, 만주, 중국의 순이었다. 또한 분단은 한반도 내에서 남북 간의 이동을 초래했다. 남한으로 들어온 월남민은 46만에서 74만 명으로 추산된다. 1945~1948년 사이 남한에 들어온 귀환민과 월남민은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귀환민과 월남민의 이주 배경 및 동기와 이주 과정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이들을 전재민, 전재동포, 피난민으로 통칭했다(김아람, 2017: 20).

98) 식민 지배로 인해 해외로 흩어졌던 조선인들은 해방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만주 등 해외에서 돌아오는 행렬은 해방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식민지 시대 조국을 떠났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했다. 조국을 떠났던 조선인들은 돌아갈 고향과 땅이 사라진 자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

만주 안동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다. 이종수의 아버지는 부산 광복동에 적산가옥 두 채를 구입한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동생들은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했지만은 해방이 되니까 혼란 속이에요. 학교도 문제가 아니고 이기 말이지, 완전히 뒤바뀌니까 혼란 속이지! 혼란 속이라서 모두들 정신 차리기에 바쁘지. 정신 좀 차려야 뭘 하던지 어짜던지. 예? 아, 지금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정신없이 지냈지, 혼란 속이야. 해방이 돼서 기뻐하고 떠들고, 길이고 집이고 뭐, 집에 오면 모두들 떠들고. 하이구! (아버지의) 제자들이 와서 떠드는 데 아주 정신이 빠졌어, 내가 (웃음) 낮이 빠졌어, 내가! 이래가 되는가 싶고 하이구, 이래 가 되는가 싶고, 하이구! 우리는 막 그냥 만주에서 와 놓으니까 뭐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혼란 속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도 떠들어 싸니까, 정신을 못차렸어. 뭐가 앞뒤가 없어. 뭐, 앞뒤가 없어. <이종수>

귀국한 이종수의 집에는 교직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끝도 없이 찾아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해방 후 어수선했던 정국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지인들과 해방된 조국의 정치와 미래를 논하며 가족의 생계는 뒷전이였다고 한다.⁹⁹⁾ 이종수는 가족의 생계부양을 방관하는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졌다. 이종수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원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했다. 이종수는 부모가 말이로서 자신에게 경제활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진학 문제 등을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종수는 만주 안동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멀리 가서 부족한 식량을 구해오는 등 가족을 보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그녀의 역할이 귀국 후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등한시 하면서 더욱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종수의 가족은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하였지만 해방 이후의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화폐소득을 올릴 만한 직업을 갖기는 어려웠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하한 월남인들 역시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해

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식민지 시대 수많은 조선인들은 고향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귀국 이후 농촌이 아닌 도시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 행렬에는 당연히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과 함께 고국을 떠났던 여성들은 가족과 함께 돌아왔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도시 여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99) 이종수의 아버지는 식민지 시대 오랜 세월 교직생활을 했다. 이종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으며 만주 안동으로 이주를 한 계기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기억하였다. 이주하기 전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소동이 있었고 아버지가 보시던 책을 아궁이에 태운 기억을 말했다. 특히 이종수의 아버지는 무궁화와 관련된 노래를 제작하였다고 말한다.

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 이념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분단된 국가의 수립은 월남민의 수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월남민들은 북한에 삶의 터전을 그대로 두고 옷가지와 간단한 짐을 들고 내려와 남한의 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월남한 여성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송용순은 남편과 두 명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월남했다. 서울에 정착한 뒤 송용순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을 제안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중시 여김에 따라 남편을 대신해 돈벌이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고향은 황해도니까 월남을 했어. 그때는 월남을 하고 나니까 집도 마련을 해야 하는 데 마련하기 어렵고, 삼팔선을 넘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세를 얻어서 살았어. 그러면서 인제 착안을 한 거지. (일본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내직을 해야겠다. 우리 이북에서 온 사람들 동기생 멋쟁이들이 있었다. 그때도 집에서 해서 쫓아.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점포는 내지는 안했지만 이층 쪽방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오래 사는 거는 하루도 쉬지 않았기 때문이야. <송용순>

송용순은 월남한 이후 남편이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직접 가족의 생계부양자 노릇을 시작하였다. 송용순처럼 월남한 여성들은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송용순은 한국전쟁 동안에도 피난지 부산에서 양장을 만들어 길가에서 팔거나 사범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¹⁰⁰⁾

이종수와 송용순의 사례는 해외로부터의 귀환과 월남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혹은 남편이 집안의 가장(家長)으로써 가족의 생계부양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안의 남성들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1950년부터 3년 동안 벌어진 한국전쟁은 여성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다. 한국전쟁은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 등 남성 구성원이 가족 내 부재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한국전쟁 동안 정치적 이념으로 남성 가족구성원이 북한으로 떠나거나 전쟁에 참여하여 사망을 하거나 상이용사가 되었다. 때로는 피난길에서 죽음에 내

100) 한국전쟁 당시 부산 지역 중심의 여성 피난민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송희(2009),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 『항도부산』, 제25호, 1~52쪽; 차철욱(2015), “부산지역 피란민 유입과 피란민 공간만들기: 우암동 피란여성을 중심으로”, 『석당논집』, 229~269쪽.

몰리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은 남성의 부재와 가족의 해체를 초래했으며, 삶의 터전의 파괴와 피난은 가족을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상황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이었던 김경옥은 목포세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의 발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¹⁰¹⁾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김경옥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계기는 교사였던 형부가 한국전쟁으로 ‘빨갱이’로 몰리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일(渡日)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네 명의 자녀를 데리고 혼자가 된 언니를 돌보기 위해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언니, 언니 애기 넷에다가 언니에다가. 그러니까 언니가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망막하니까. (형부도 없고?) 형부도 없고 (오빠도 없고?) 오빠도 없고. 그러고 인자 어, 형부는 가불고(가버리고) 하니까. 아버지는 인자 각시를 얻어 왔어. 각시를 인제 제주도에서 데려왔는 데. 그렇게 사는 데, 언니가 어떻게 거기서 눈치 보면서 애기 넷 델고 다섯 식구가 얻어먹고 살 것는가. 그런게 나왔지. 나와 갖고 인자 (...) 언니네 식구랑 먹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촌 언니네집 옆에다가 저 저 바느질을 시작 했지. <김경옥>

비록 한국전쟁 당시 김경옥은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였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 재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와 애들이 넷이나 딸린 언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남성 가족구성원이 부재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남성의 부재 속에서 여러 명의 자식은 물론 친정 혹은 시집의 부모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김경옥은 미혼의 상태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언니 그리고 조카를 함께 돌봐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김경옥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다가 바느질을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었다. 구술자 중에서 한국전쟁 중 혹은 끝난 뒤 계속해서 일을 하며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은 이종수, 김경옥, 인순옥, 신희자 등이다. 남편이 직업을 가졌지만 넉넉하지 못한 수입으로 맞벌이를 한 사례는 송용순, 곽정희, 박부대가 해당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경제활동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성의 부재가 지속되거나 결혼을 하여 남편이 생겼지만 가족의 생계를 등한시하거나 무능력한 남편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101) 김경옥은 목포에서 여학교를 다니던 도중 여순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전쟁 시 신변의 위험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산업의 제반 시설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남성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시 전후 실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¹⁰²⁾ 그리고 남편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들까지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벌지는 못했다. 송용순은 남편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였지만 수입이 부족해 가족이 생활하는 데 빠듯했다. 인순옥 역시 남편은 한국전쟁으로 고향 땅이 비무장지대로 묶이면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한다. 남편만의 수입으로는 대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혼한 남성들은 비록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지만 집에 돈을 갖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김경옥은 남편이 사업을 했지만 별달리 돈을 갖고 오지 않았으며, 신회자의 남편 역시 사업을 하면서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등한시했다고 한다. 전후 사회에서 결혼한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무이자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수입을 자기 사업을 위한 교제와 유흥을 하는 데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종수의 남편 역시 사회활동과 같은 외부활동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의 생계는 아내의 몫으로 돌아왔다.¹⁰³⁾ 근대화 과정에서 ‘스위트홈’은 근대 남성이 남편으로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여성이 가구경제를 책임지는 아내로서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이상적인 성역할로 담론화되었다.¹⁰⁴⁾ 현실에서 남성들이 생계부양자 노릇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혹은 수행하였던 정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로써 여성에 의한 생계부양자 역할은 절대적인 필요와 남성의 가족의 생계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무력하거나 혹은 무책임한 시

102) 1950년대 실업의 원인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늘어난 인구로 인한 압박, 전쟁으로 산업시설거의 파괴되어 고용수준이 낮아진 점, 부흥재건사업의 부진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의 불안정, 농촌경제의 압박에 의한 농민들의 이농 등이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며, 소비산업인 삼백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공업문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로 산업은 침체되고 실업율은 계속 높아졌다. 1958년 실업자는 42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실업은 빈곤문제로 직결되어 자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당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했다. 1950년대 후반 경제 성장과는 달리 실업자 수는 점점 증가했다(이주실, 2011: 8~21쪽). 1961년에는 완전실업자가 250만 명, 농어촌 잠재실업자가 200만 명 등으로 총노동인구가 1천만 명으로 산정되던 시기에 45%나 되는 사람이 완전실업자이거나 잠재실업자였다. 더욱이 1960년대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농촌의 피폐화 속에서 이농한 도시 빈민층과 농촌의 빈곤층이 빈곤으로 가족동반자살을 하게 되었다(정승화, 2011: 190~196)

103) 이종수를 인터뷰하게 된 계기는 이종수의 남편 때문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종수의 남편 선일구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의 공로를 기록하고자 구술작업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의 담당자는 선일구의 아내 이종수가 양재전문가로서 가진 이력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술이 진행될 수 있었다.

104) 김혜경(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경기도 : 창비.

기에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사례가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을 위한 개인의 직업으로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한 여성들이 있다. 제주도 한림이 고향인 신희자의 남성 가족구성원 역시 해방 이후 역사적 사건으로 부재하게 되었지만, 그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첫째 형부가 ‘제주4.3’으로, 아버지는 한국전쟁 동안에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승만 정권의 ‘좌익 척결’로 사망하였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던 큰오빠는 전쟁 중에 인민군에 의해 끌려간 뒤로 생사를 알지 못했다. 해방 이후 벌어진 남북 간의 이념갈등과 남한 내에서 좌익척결은 가족 내 남성의 부재를 낳았다. 신희자의 부모는 제주도 한림에서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다고 한다. 신희자가 10살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와 두 오빠가 살림을 꾸려나갔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구단위의 경제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신희자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지자 신희자를 학교에 대신에 양재학원에 보냈다.

대구도 많이 가고 부산도 많이 가구. 그렇더라구. 그러디. 우리 또래들 거의 방직에 갔는데, 나는 못갔어. 왜냐하면 어무니가 불쌍해가지고. 막 그냥 농사 혼자만 짓고 언니가 (시집을) 가버렸지. 오빠들은 학교 가지. 동생은 어리지. 어무니가 맨날 울면서 허는 걸 나가 같이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선생님두 방직공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김 메다가 어무니한테 “친구들은 중학교 다니는디, 엄마 나도 중학교 가면 안돼?” 했더니 어무니는 아이구, 큰 오빠만 있어도 난 니 대학교꺼징 보내줄라고 했지. 큰 오빠도 없고 하니까 어무니가 할 수 없이 날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더라구, 우리 어무니가, 친정 어무니가. 그래서 열다섯 나니 까(나이 먹으니까) 제주시 양재학원에 보냈지. <신희자>

신희자는 또래의 친구들이 대구와 부산 등 물으로 방직공장에 취직을 하러 떠났지만 혼자 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민 학교를 졸업한 뒤 몇 년 동안 집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다가 양재학원을 다녔다. 신희자가 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에 위치한 ‘제품집’에 취직을 하고 다시금 대구로 내려가 ‘양장점’에 취업을 하는 양재기술을 배우기 위한 머나먼 여정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교육을 유지할 수 없던 상황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학업 대신에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신희자는 십대 시절에 어머니가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 등을 잃고 힘들게 살면서 자신에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것을 권했다고 말한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다.

그리고 도시의 확장¹⁰⁵⁾과 가구단위의 경제활동의 해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개별적인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서울이 고향인 곽정희는 한국전쟁으로 피난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귀환한 뒤 집안 살림을 도우며 지내다가, 이웃의 소개로 우연한 기회에 양장점에 취직할 기회를 가졌다. 해방 이후 직업여성이 급증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생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정 밖에서 일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이배용, 2000: 274).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여성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였다.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농촌과 달리, 도시생활에는 현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화폐수입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곽정희 역시 처음에는 집에서 엄마의 살림을 도우며 집에서 지냈지만, 결혼 전에 화폐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장경제의 확대 속에서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을 배우고 결혼을 준비하기 보다는 직업을 갖고 화폐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곽정희는 아버지가 자신을 서울여상에 진학시킨 이유가 자신을 은행원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버지 역시 딸이 결혼하기 전에 직업을 갖는 것을 이상적인 여성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적 직업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확대된 것은 물론 부모 역시 딸이 직업을 갖고 화폐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점차 도시여성들은 결혼 전에 직업을 갖고 직업여성으로 일하는 것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여성 가족구성원이 직업을 갖고 화폐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이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 가족구성원이 돈을 버는 것은 사적인 의미가 아닌 공적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달리, 여성 가족구성원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가족을 구성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딸이라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틀로 수렴되었다. 남성에게 사회는 공적영역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성에게 사회는 ‘가정’이며 여성이 하는 일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결국 남성이 하는 일은 사회적 성격을 지닌 직업을 의미하였지만, 여성이 하는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자 성역할의 측면에서만 의미화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은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일하는 여성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성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105)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강수연(2015), “1950~60년대 농촌 마을 부녀회의 조직과 성격”, 국민대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작동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정경제를 위해 여성이 주도하는 자영업 운영이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진출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가족 부양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졌으며, 자신의 양장점 운영을 가족의 생존을 위한 틀 속에 위치시키며 서사화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때로는 구술자에 따라서 가족부양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결혼을 하고나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구술자 송용순은 다른 구술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활동을 남편을 위한 아내의 ‘내조(內助)’라고 설명한다. 즉 자신의 양장점 운영은 가족의 부양을 위한 것이었지만, 아내로서 가족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내가 우리 영감 입지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주었지.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지.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대신에 바느질을 했지. 방도 제대로 없었으니까. 근데 후회가 돼. 교직을 하지 못한 것이. 내가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양장점을 했지.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송용순>

송용순은 양장점 운영으로 남편의 사회적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양장점 운영이 곧 남편을 위한 뒷바라지로서 의미화되었다. 송용순의 서사화는 자신의 수입이 박봉의 월급을 받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고 여겼다. 남편은 자신의 경제적 실천이 없었다면 자녀 교육을 비롯해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의미화는 근대가족을 구성하는 아내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남편을 위한 아내의 역할인 내조로서 의미화하는 것이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족의 틀 내에서 의미부여하면서도,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 자신이 의미부여하는 정체성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술자들에게 양장점 운영의 의미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준거는 가족과의 관계 안에 위치하였다.

2. 양장점 운영 :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

여성인 양장점 운영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양재기술을 습득한 것은 특별한 자원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었다. 양재기술은 근대적인 기술로 교육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 운영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진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가. 양장점의 위상을 둘러싼 언설들

전후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구축되는 시기였다. 그 가운데 양장점이 여성지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전후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의 하나로 담론화되었다. 양장점에 관한 언설은 식민지 시대만 해도 거의 부재했지만 전후 1950~60년대가 되면서 부상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지 시대만 해도 양장점은 대중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성의 의복인 한복과 양장을 둘러싼 언설이 지배적이었다. 여성의 양장이 도입되면서 양장을 착용한 여성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들은 한복을 착용하였다. 신여성의 상징이 된 의복 역시 개량한복이었다.¹⁰⁶⁾ 여성의 의복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전개되는 가운데, 식민지 시기 여성의 의복담론은 ‘한복개량’¹⁰⁷⁾¹⁰⁸⁾이 화두였다(김지혜, 2018:51).¹⁰⁹⁾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여성의 한복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지만, 한복 개량 논의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그 대신에 여성들에게 양장 착용법, 양장 제작법, 양장점 광고,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양장점 운영을 촉구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에게 양장 소비를 촉구하는 가운데 양재기술의 습득 역시 촉구되었다. 여성들에게 가정의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양장을 집에서 자급자족할 것을 권하면서도, 양장점 운영을 여성의 직업으로 제안하였다. 즉 식민지 시대 여성의 한복 개량 논의와 양장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복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양장의 소비와 여성의 직업으로서 양장점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장점에 관한 언설은 양장점 운영을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소개하

106) 신여성의 의복과 관련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임옥희(2004), “복장의 정치학과 식민지 여성의 소비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서울: 여이연.

107) 여성의 전통 의복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양장이 아닌 개량 한복을 입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한복은 저고리가 너무 짧고 치마 길이는 너무 길고 치마끈으로 가슴을 동여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복 개량은 여학교에서 시작되어, 여학교 교복은 흰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로 구성된 개량 한복이 자리를 잡았다(공제옥, 2019: 137~144). 여성의 한복 개량은 시간절약, 위생관념, 경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김지혜, 2018:52). 1920년대에는 나혜석과 김활란 등이 “여자의복” 개량이나 세탁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조선옷이 양장보다는 더 낫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물론 여성의 의복 논의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식민지 시기 한복 개량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홍나영(1990),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15집, 141~148쪽; 공제옥(2019), “한말, 일제시기 의복의 변화와 생활양식: 양복의 도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22집, 117~158쪽.

108) 일본에서는 일본의복의 개량을 포기하고 양장화를 진행했다(조우현·하세가와 리사, 2006: 11).

109) 식민지 시대 한복 개량 논의는 착용과 소비의 측면에서 전개되었다면, 해방 이후 양장점 담론은 여성의 직업의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였다. 다음은 전후의 대표적인 여성지로 손꼽히는 《여원》의 1956년 8월에 실린 “직장경영안내, 본사 박기자 조사”¹¹⁰⁾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는 미장원 및 다방과 함께 양장점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여성이 “양장점을 경영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직업 중에서는 가급적 점잖고 편한 직업”이며, “적은 자본으로 자기 자신이 ‘테자인’, 재단, 재봉까지 하는 경우”에는 “큰 노력”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가급적 점잖고 편한 직업”이라는 표현은 양장점 운영이 여성의 성별, 즉 여성다움과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것으로 의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장점을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면서 양장점 운영은 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직업임을 강조한다. 그 이유로는 미용업과 다방과의 비교우위를 통해서 설명된다. 미용업은 여성의 직업 중에서 “중노동에 가까운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동 강도가 강하고, 다방 운영은 남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늑늑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 운영이 미용실이나 다방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직업임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장점 운영이 사업 경영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다른 직업과의 비교 속에서 의미가 구성되었다.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의미화되는 과정에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1957년 8월에 여성지 《여원》에는 명동에서 양장점인 ‘국제양장사’를 운영하는 최경자가 쓴 “양재점” 운영을 권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양재를 내직으로 가질 경우”와 상점인 양장점을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운영 비결, 비용, 설비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최경자는 양장점 운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늘날 양재는 우리 여성의 제일 적당한 직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녀시절이나 결혼 후나 자녀를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의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단 기술만 잘 습득해 놓으면 선택할만한 직업의 하나.

이 기사는 양장점 운영이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 자녀가 있어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자녀양육과 살림 등 가정 내 여성의 성역할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의미화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성역할은 자녀양육과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우선이지만,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직업에 한해서 여성의 직업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 운영이 결혼과 무관하며 여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점잖은” 직업이자 여성 고객을 주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직업

110) “직장경영안내, 본사 박기자 조사”, 《여원》, 1956년 8월, 224~225쪽.

으로 적합하다고 여성지를 통해서 의미화되었다.

여성지의 기사가 “양장점 경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신문 기사는 여성 대상으로 양재기술의 습득과 양재학원에 대한 소개 위주였다.¹¹¹⁾ 양재학원 광고는 여성지와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는데, 집에서 양장의 자급자족에 그치지 않고 양장점 운영이나 취업을 촉구하였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가장 강조하였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으로 의미화되었다. 양장점을 둘러싼 언설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의 범주가 제한하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특정한 분야에 제한하였으며, 직업의 선택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별분업과 성역할 등 성별규범에 틀 속에서 직업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며 촉구하였다.

여성지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담론화되는 가운데, 구술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양장점 운영을 선택했다. 구술자들 역시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차이가 있다. 구술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구술자들은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 자체가 ‘여성적 기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구술자들은 양재기술은 서구에서 유입되었지만 여성이 전통적으로 하던 바느질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미싱이라고 이렇게 흠질 하고, 이런 거를 교장선생님 부인이 4학년 때 딱~ 가르키더라고. (일본인학교 다닐 때) 흠질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애네들은 골무를 끼고 바늘을 여기 꼽아서 이렇게 흠질을 합디다. 운싱이라고 해, 그거를. 운싱(흠질, 바늘). 누이. 운싱누이(바느질을 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이’라고 하는 거는 이래 바느질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재봉을 가르킨다고 하는 거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어. <이종수>

경남 통영에서 일본인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의 안동에서 여학교를 다녔던 이종수는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바느질과 재봉을 배웠다. 이종수는 교육과정에서 “바느질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바느질을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이종수가 제도권 교육을 통해 성별규범에 적합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여학교를 다닌 송용순과 김경옥도 마찬가지이다.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닌 구술자들은 한복이든 양장이든 의복을 만드는 일은 여성의 성역할로 여겼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양장점 운영은 여

111) “여성과 기술 (6)양재”, 《동아일보》 1958.12.18. ; “부업으로서의 양재편물 각 학원 강습내용과 학비안내”, 《경향신문》, 1962.9.1.; “양재 차차 지망자 늘어 진학 못하니 직업의 방편”, 《경향신문》, 1964.6.1.

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하였다.¹¹²⁾ 송용순은 조선 사회에서도 바느질을 하는 여성의 직업으로 침모와 침선가¹¹³⁾가 있었다며, 양장점 운영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의미화하였다. 사실 근대적인 양재기술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수행하던 조선 여성의 바느질¹¹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구술자들은 양재기술 역시 바느질의 일환으로 여기며 여성의 성역할이라고 여겼다.

둘째, 구술자들은 양장점이 여성 고객을 주로 상대한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경옥은 양장점이 “남자를 상대 안한게 남자한테 놀림도 안받고”라고 말한다. 이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남성 고객에 의한 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 등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역시 자신이 양재를 선택한 이유로 “힘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힘한 일은 아니고”라는 표현의 의미에는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거나 노점을 하는 직업은 노동의 환경이 나쁘고 일이 고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거리에서 남성을 상대해야만 하는 것을 포함한 말이다.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이 남성과 분리되어 여성 고객을 상대하면서 성적인 위협에서 안전함을 강조한다.

셋째는 구술자들이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박정희는 양장점 운영은 자녀를 낳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의미화하였다.

넷째,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이 기술직의 하나로서, 결혼을 해서도 지속할 수 있으며

112) 근대화 시기에 여성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에서 현모양처 교육으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데, 최초의 수업용 교재로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가 있었다. 이로써 근대에도 바느질은 여자의 덕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나나, 2009: 3).

113) 침모(針母)는 남의 집에 고용되어 바느질을 도맡아 하는 여인을 말하며, 신분은 대개 양민 이상이였다. 양반집의 침모는 솜씨가 뛰어나야 했기 때문에 몰락한 양반집 독신녀이거나 과부, 혹은 중인 계급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침모는 반가의 고용인이었지만 기술 때문에 찬모(饌母)나 안잠자기와 같은 고용인 보다 우위에 있었다. 침선가(針線家)는 자신의 집에서 샅바느질을 하는 민간 여인을 뜻한다. 조선 시대 벼슬아치의 관복이나 제복은 침선가에게 맡겼다. 그리고 궁궐안의 상의원(尙衣院)에는 침선장(針線匠)을 두어 왕과 왕실 가족의 침선을 맡도록 했다(조효순, 2006: 117-118).

114) 전통적으로, 바느질 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자 도리로 여겨졌다. 바늘과 실로 바느질하는 행위를 침선(針線)이라고 하는 데, 조선시대는 예의의 표현인 의복 제작에 필수적인 침선 활동을 중요시여겼다. 여성의 도리를 가르치는 『내훈』과 『여사서(女四書)』와 같은 각종 문헌은 침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에게 침선은 여성에게 뗄 수 없는 중요한 교육으로, 결혼 후에도 부녀자들이 갖춰야 하는 일이었으며 여성의 덕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이 때문에 침선은 양반집 여인들도 익혀서 의복을 다루는 일은 손수 할 수 있어야만 했다(조효순, 2006: 116-118). 조선 시대 바느질, 옷을 만들고 수선하고 관리하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었다. 전통적인 인식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부덕(婦德)을 쌓고 부공(婦功)에 힘쓸 것을 강요받았는데, 부공이란 부녀자들이 길쌈과 바느질로 옷을 마련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김유경, 2008: 6~7).

“나이 먹어도 다닐 수가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양장점 운영을 양재기술 기반의 ‘기술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광정희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할 만 한 직업이 없었던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재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갖는 것은 특별한 것임을 의미화하였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다 하잖아, 여자들이. 그때는 여자들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래도 양장점에 가서 옷을 해 입고 미장원에는 가고 그렇게들 했다고 어, 아주 없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여자들이 그렇게 활동은 많이 안 했지. 지금은 뭐 아무데고 들어가잖아, 여자들이. 아무 일이나 하지.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지. 그때는 남자들이 다 그냥 직장 가지고 다 하지, 여자들은 그렇게 못 다니지. (집을) 나가서 못 다녔지.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다녔지. 기술. 기술 있는 거는 뭐 처녀 때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그 전에는 다 집에서 애 기르고 살림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많지. <광정희>

양장점에 취업해 양재기술을 배운 뒤 한참 후에 양장점을 개업한 광정희는 당시만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었음을 강조한다. 광정희는 여성들이 지금처럼 “활동을 많이 안했지”라거나 “그때는 여자들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라며, 자신이 직업을 가진 특별한 여성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했지만 자신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녔다고 강조한다. 또한 남성들은 무슨 직업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자신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비록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을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차별화된 직업이었음을 강조했다.

광정희의 설명 이면에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가진 중산층 여성이 진출할 만한 ‘수준있는’ 혹은 ‘적합한’ 직업이 별로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이 여성의 성역할과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에 따른 젠더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서사화하였다. 사회적 성별규범에 적합한 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재구획, 재발명했으며, 사회적 규범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은 경제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성별규범을 벗어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구술자들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서의 양장점 운영을 여성의 다른 직업과 비교우위와 위계화를 통해 정당화하였다. 송용순은 이러한 비교우위의 과정에서 양장점 운영은 다

른 종류의 직업과 비교해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한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교사나 타이피스트와 같은 사무직의 월급과 비교해 수입이 높다고 강조한다. 송용순은 양재로 일본 유학을 다녀와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교직원 활과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었다. 양장점 대신에서 교직을 할 수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교사 보다 수입이 더 나은 양장점을 선택하였다.

이종수는 만주 안동에서 타이피스트 학원을 다니면서 타이프 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녀의 친구처럼 부산에 위치한 도청이나 관공서 등에 타이피스트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종수는 남들 보기에 괜찮은 타이피스트라는 사무직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타이피스트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양장점 운영을 직업으로 선택하였다고 강조한다. 구술자 송용순과 이종수는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교사나 타이피스트와 같은 사무직을 여성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양장점 운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구술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포기하고 수입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양장점 운영을 선택하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 보다 더 적합한 혹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조차 양장점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양장점이 항상 여성에게 만족한 직업은 아니었다. 송용순은 비록 소득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양장점 운영이지만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다. 송용순은 전통적으로 바느질은 사대부 양반가의 여성들도 하는 일이었던 만큼, 양장점 운영이 여성의 성역할과 계급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의미화했다. 그리고 송용순은 양장점 운영이 미용사에 비해서는 훨씬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면서도 교사¹¹⁵⁾를 평생의 직업으로 갖지 못한 것을 강하게 후회하였다. 그 이유로 양장점 운영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 보다 ‘못한’ 직업으로 인식하였다.¹¹⁶⁾

즉 구술자들은 양장점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최고의 직업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김경옥과 이종수는 다방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는데, 남성 고객을 상대로 ‘웃음’을 팔거나 성적으로 위험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에

115) 당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고 여성이 남성과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초중등 교원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이배용, 2000: 277).

116) 초전섬유·컬트박물관을 운영했던 김순희 관장은 1957년에 편물점을 차렸을 때, 문중과 집안에서 “가문의 체통이 있지, 장사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한다. 김순희는 이화여대 사범과를 졸업한 여성으로, 배운 여성이자 중상류층의 여성들은 사노공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처했다. “59년 바느질 한길 “실 엉키면 끊지 말고 풀어야: 만남 김순희 초전 섬유·컬트박물관장- 2000년 편물명장 1호로 지정, 학비 마련 위해 57년 제일편물 설립, “바느질엔 삶의 지혜 오롯이 담겨”, 덕혜옹주 의복 환수에 결정적 역할”, 《여성신문》, 2016.1.6.

비해 양장점은 훨씬 위계가 높은 직업이었다.

모든 구술자들이 양장점을 동일하게 “적합한” 직업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사이에 양장점 운영의 여성 직업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양장점 운영이 적합한 여성의 직업이라고 서사화되는 가운데, 양장점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며 ‘여공’이나 미용사를 더 나은 직업으로 여기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구술자들이 있다. 신희자는 양장점 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 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1950년대 후반에 제주도에 최초로 생긴 양재학원에서 양장기술을 배운 뒤, 서울의 ‘제품집’을 거쳐 대구에 위치한 양장점에서 ‘시다’와 미싱사로 일을 하며 양재기술을 익혔다. 대구의 양장점에서 일하는 동안 방직공장에서 여성노동자로 근무하는 고향 친구들을 상당히 부러워했다.

막 활옷을 두르고 그렇게 그때는 이 양산을 돌루는 것도 멋쟁이나 들렀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양산도 없었어. 그래 파라솔 들리고 그 빼딱 구도 신고 브라우스 입고 치마 치마 그때는 막 퍼지게 잘 입더라고이. 그래서 나 부러워 했어. 공장 다니는 애들을. (아 진 짜?) 방직공장 아이들을 부러워했다니까. 오빠한테 편지 써 가지고 오빠 나 방직공장에 다니면 안돼? 막 여행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좋은데니까.(오빠 뭐래요?) 오빠는 안된데. 기술이 나중에 얼마나 너한테 큰 도움이 될 줄 아느냐고. (...)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최고 멋들 부렸지. 방직 처녀들이. 어, 그때는 방직처녀 따라 갈 사람들이 없었다야. (그래요?) 그렇게 부러웠어. 방직 다닐, 봉급 받으니까 지네 뭐 어디 가서 아이스케끼도 먹고. 아이스케끼. ㅎㅎㅎ. 아이스케끼 먹어보는게 소원이었는 데 그때 다. (방직공장 여성노동자가) 최고 최고. 그랬어. 막 부러워했어, 우리. 나두 부러워해가지고 오빠한테 편지 써서 나 방직공장 다니면 친구들도 많고 여행도 다녀지고 좋을 것 같다고. 또 학교도 다녀주고. 야간학교도 다녀지고 좋다고 하니까 안된데. 기냥 기술 기냥 가래. <신희자>

신희자는 방직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을 자신이 부러워한 이유로 교대로 근무하고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도 가고 월급을 받으면 먹고 싶은 음식도 사먹고 새로운 양장도 맞춰 입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이 가고 싶었던 야간학교도 다녔기 때문이었다. 즉 신희자는 양장점의 ‘시다’로 근무하는 자신 보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방직공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집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신희자의 오빠는 “기술이 얼마나 좋냐”며 양장점에서 계속해서 양재기술을 익힐 것을 권하였다. ‘시다’ 생활을 하던 당시의 신희자에게 양장점 운영은 여성 적합성의 측면에서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양재기술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 문산에서 서울 명동의 양재학원까지 다녔던 인순옥에게 양장점 운영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서 의미를 갖기 보다는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

임했다는 점에서 의미화된다. 양장점 운영보다 오히려 미용사가 더 나은 직업이라고 여겼다. 미용사는 퇴근과 동시에 일이 끝나지만 양장점은 주문을 받은 일감이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양장점 문을 닫아도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희자와 인순옥은 공통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여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했다. 사회적 규범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구술자들의 양장점의 여성 적합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여성들 내부의 기술의 정도와 계층적·계급적 조건에서 기인하였다. 즉 여성들 사이의 차이, 구체적으로는 계층 혹은 계급, 기술의 정도, 학교 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서 여성의 직업에 대한 비교우위의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위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직업의 적합성은 경합의 과정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구술자들이 양장점의 여성 적합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는 데, 이는 교육과정과 사회적 배경으로 사회적 성별규범에 대한 내면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구술자들은 여성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작동함으로써, 양장점 운영에 대한 양가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양장점 운영을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서사화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을 합리화 하며 의미부여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직업의 위계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술자들의 양장점 운영에 대한 “적합성”은 여성의 직업으로서 양장점 운영에 대한 언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전개되었지만, 여성들 내부에서는 적합성에 대한 경합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돈을 번다는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의미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네. “여자가 돈 벌러 간다고 하면 서방질하러 간다고 하지”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못갔어. <강복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방문판매여성』, 41쪽)

경북 상주가 고향인 강복순은 1934년생으로, 결혼 후 남편이 가정 살림에 등한시하여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동서를 따라 가서 같은 일을 하고자 했다. 강복순의 친정엄마는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은 서방질 하는 것”이라며 말렸다고 기억한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집을 떠나거나 혹은 집밖에 나가 일하는 것이 여성의 성적인 일탈로 이해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구술자들이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전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가부장적 차별담론이 작동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양장점 운영을 여성의 직업에 적합하다고 의미화한 배경에는 직업여성이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한 협상의 결과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을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하는 직업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다.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구술자들의 주장은 전후 사회에서 직업여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정당화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여성이 집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남녀유별이라는 성별질서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한 소외가 존재하였다(이희영, 2011).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직업을 갖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거나 미망인의 일로 여기는 분위기기가 팽배하였다. 고등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는 일은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이배용, 2000: 277).

나.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양재기술과 기술주체의 차이들

구술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기술주체로 인식하고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하며 양장점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구술자 이종수와 송용순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양장을 만들거나 양장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종수는 만주 안동에서 해방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작은 규모이지만 점포를 얻어 고모와 함께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구술자 중에서는 가장 일찍부터 양장점을 운영한 사례에 해당된다. 만주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부산 광복동에 위치한 집에 양장점을 차리고 양장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종수는 해방기에 양장 수요가 증가한 이유로 전시체제기에 몸빼¹¹⁷⁾입기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외출복으로 양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식민지 시대 양장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여성은 상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종수의 식민지 시대 양장점 운영 경험은 해방 이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이 드물던 상황에서 집에서 만든 양장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노점을 하며 판매를 하며 양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한 경우도 있다. 구술자 송용순은 월남하기 전까지 일본 유학에서 배워온 양재기술을 가지고 양장을 만들어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양장을 직접 만들어 입거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만들어주는 정도로 그쳤다. 황해도 해주에서 서울로 월남한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집에서 양장을 만들어 내다 팔았

117) 몸빼는 바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몸빼는 바지이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편해 여자들이 널리 입기 시작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몸빼는 거리나 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즐겨 입는 의상이었다(안태운, 2007). 몸빼의 착용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안태운(2007), “일제말 전시체제기 여성에 대한 복장 통제: 몸빼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 『사회와 역사』, 제74집, 5~33쪽; 윤주리(2011), “몸빼의 보급과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에 가서는 길가에 재봉틀을 내놓고 양장을 만들어 팔았으며, 우연한 기회에 경찰 제복을 납품하는 바람에 상당한 수입을 벌기도 했다. 송용순은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이 양장을 만들어 파는 경험을 통해 양장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가족과 함께 월남한 송용순은 남편이 실업 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이전까지 직업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양장점 운영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신의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였다.

여성들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경우도 있지만, 유통되는 구제품을 직접 수선하여 착용함으로써 양재기술의 ‘힘’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의복 구호물자가 피난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배포되었다. 구호물자를 담당하는 군속 등 관계자들에 의해 뒷거래되어 대도시의 암시장이나 도깨비시장(혹은 양끼시장)으로도 팔려나갔다.¹¹⁸⁾ 시장에서 미군을 통해서 흘러나온 각종 양품은 옷돈을 받고 팔려나갔는데, 구제 의류는 양품 중에서도 최고 인기품목이었다. 한국인보다 서양인의 체격이 크기 때문에 구제품은 수선을 필요로 하였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양재기술이 없으므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구제품을 그대로 걸치고 다녔다. 양재학원을 다니며 양재기술을 배운 신희자는 성당을 통해 구호물자로 얻은 구제품인 바바리코트를 자기 나름대로 수선해서 “멋지게” 입고 다닐 수 있었다.¹¹⁹⁾ 양재학원 졸업 후 양재기술을 가지고 곧바로 직업을 구하지는 못하였지만, 구제품을 수선해 입은 경험은 자신이 가진 양재기술의 가치와 양장시장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송용순, 김경옥, 곽정희와 같은 구술자들은 양재기술을 배우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양장을 직접 만들어 입거나 가족의 의복, 특히 교복을 만드는 등 자급자족을 위한 목적이었다.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옷 만드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도 취미가 있어 자기 양장을 만든 경험, 그리고 옷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강조한다. 송용순은 “워낙 옷에 관심이 많았”으며, “내가 일본애들 보다 더 훌륭했어”라고 할만큼 감각과 기술면에서 자신이 우수했음을 강조한다. 김경옥 역시 “학교 때부터 양재를 잘 했어. 동생, 친구, 내 교복 모두 만들었어”라며 자신의 재능을 자랑했다. 이는 곽정희도 마찬가지다. 박부대는 “엄마손 솜씨가 좋아”라며 자신 역시 엄마를 닮아 재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양장 만들기는 여성들의 취미, 여가, 자급자족 등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전후 양장의 대중화 과정에서 양재기술의 경

118) 한국전쟁을 계기로 양끼시장으로 이름을 날린 곳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위치한다.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시장, 인천의 중앙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춘천 중앙시장 등이 그 예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미군부대가 위치한 대도시인 경우에 양끼시장이 들어서는 경향이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의 뒤편에 위치한 자유시장에서도 파는 구제품은 명동을 비롯한 인근에 위치한 수선집과 양장점에서 수선되어 팔려나갔다.

119) 구제품을 다 뜯어서 옷감을 뒤집어서 만드는 것을 ‘우라카이’라고 한다.

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였다. 즉, 양재기술을 지녔던 여성들은 자급자족에 그쳤던 양재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생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양재기술을 배웠던 곽정희, 인순옥, 박부대, 그리고 박태선 등은 양장의 대중화로 인해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한 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가진 양재기술이 자급자족을 위한 역할은 물론 현금 소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구슬자들은 집에서 양장점 운영, 양장의 노점, 그리고 구제품의 수선 등 서로 다른 경험을 하였지만 양장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수지가 맞는 일이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서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기술주체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을 기술주체로서 인식하고 양재기술을 경제적 자원으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양재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자신을 기술주체로 인식한 방식의 차이는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배운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양재기술의 습득 시기와 방식의 차이는 양장점에 진출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양장점의 운영 방식과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이 된다.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배운 시기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양장이 대중화되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한국전쟁 이전에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이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복을 만드는 바느질은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었지만,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은 집밖의 학교나 강습회 등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²⁰⁾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니면서 양재기술을 배운 구슬자로는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 등이지만, 이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송용순은 양재를 전공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이종수와 김경옥은 여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양재기술을 배웠다. 송용순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의 옷은 모두 양장으로 만들어 입을 만큼 능숙했으며 감각도 있었다. 송용순처럼 일본에 가서 양재를 배웠던 여성 중에는 한국 패션계의 대모로 활약했던 최경자가 있다. 송용순이나 최경자처럼 양재를 전문적으로 배운 여성들이 있었지만 양재를 전공한 여성 유학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¹²¹⁾ 당시 일본을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은 수예나 가정학 전

120) 대중매체에는 양장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121) 식민지 시대 일본유학을 가서 양재를 전문적으로 배운 여성들은 전공을 살렸다고 하더라도 최경자처럼 양장점 운영이나 양재학원 운영에 참여했던 여성은 매우 드물었다. 오히려 양재를 배운 여성들은 여학교에서 양재를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했다. 양장의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성도 없었지만, 여성들이 교사라는 직업이 더 나은 직업으로 보았다. 조선 최초의 양장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정희(이정희)는 1922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공립 학교를 졸업하고 동덕 여학교에서 양재교사로 근무하면서 남녀양복과 아동복을 만드는 양재기

공을 선호했기 때문이다.¹²²⁾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여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었다. 여학생들의 양재기술 습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이종수와 김경옥은 여학교에서 양재 혹은 재봉 시간에 양재기술을 배웠다. 이종수는 일본인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바느질을 배웠으며, 1940년대 초반 만주에서 안동여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인 양재교사로부터 1년이 넘게 본격적으로 양재기술을 배웠다. 김경옥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양재를 배운 것이 전부인데, 대다수의 여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내가 육고녀에 입던 교복과 달라, 인제 목녀중 오니까. 그러니까 그 교복을 내가 맨들어 입었어, 교복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나도 나도 해서 교복 또 맨들어 노나(나뉘) 입고. 그때가 내가 16살 때 해방됐으니깁. 17살 때지. 4학년 때인데. 친구들 것도 맨들어주고. 일제 시대에 육고녀에서 일본인 여선생이 양장을 가르켰는 데 재밌게 잘 가르켰어. 그래서 그걸 내가 추(취)미가 있으니까 양장을 똑똑히 배웠지, 재단하는 거, 제도하는 것도 배웠고. 우리가 여학교 막 1학년 들어가니까, 속치마 슬립. 그것을 만들어서 모두 다 맨들어 입고잉. 또 우리는 여학교 당길 적에 속에다가 꼭 고무줄 끼운 구루마를 이렇게 했어, 속에다가. 여기도 고무줄이 있고 허리에도. 구루마 만드는 거 배우고 선생한테. <김경옥>

김경옥은 광주옥(旭)공립고등여학교¹²³⁾를 다니는 동안 일본인 여교사로부터 양재기술을 배웠으며, 남들과 달리 옷 만드는 데 취미가 있어서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 양재시간에 흙질, 박음질, 감침질 등의 여러 종류의 바느질 하는 법을 익혔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단추 구멍 내는 법이나 블라우스 만드는 법도 배웠다고 한다. 양장과 함께 보선이나 한복저고리 등 한복 만드는 법도 배웠다. 김경옥이 다니던 학교에는 재봉틀이 10대 정도가 구비된 재봉실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¹²⁴⁾ 김경옥은 학교에서 배운 양재기술을 활용해 남동생의 교복을 만들기 위해 목포에서 광주까지 옷감을 사러 다녀온 적이 있었다. 교복을 만들면서 양재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여학교를 다니는 동안 양재를 배우지만 혼자서 제대로 된 양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가지는 경우는 일부에 그쳤으며,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교복집에 가서 교복을 맞춰 입었다고 한

술을 가르쳤다(최은수, 2006: 358).

122) 박선미(2007),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 경기도: 창비.

123) 현재 전남여자고등학교로, 광주시에 위치해있다.

124) 식민지 시대 여학교에서는 교과과정으로 양재과목을 가르쳐서 서양복을 보급시켰다(권혜영·이경자, 1983: 23). 이화학당에서는 1910년 대학 초창기에 교과과정으로 양재과목을 가르쳤다(김춘선, 1977:29). 식민지 시대 여학교에서 재봉교육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다¹²⁵⁾. 다른 아이들과 달리 김경옥은 학교에서 배운 양재기술로 자신의 교복¹²⁶⁾은 물론 동생이나 친구들의 교복까지 만들어주었다. 김경옥이 학교서 배운 양재기술로 자신의 교복을 만들어 입는 행위는 자신을 다른 여학생들과 구별짓는 것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 제대로 된 의복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식민지 시대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여성적 기술인 수예나 양재로 자신의 재능과 우수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여학교에서 우수한 여학생은 학문적인 지식 보다는 우수한 실력의 여성적 기술을 갖춘 학생을 뜻했다. 당시 여학교에서 수업시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학교마다 ‘빠사대회’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작품에 상을 수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¹²⁷⁾ 이러한 행사는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며 여학교 간 경쟁을 자극하며 여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여성적 기술’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김경옥의 경우 목여중을 다니는 동안 해방 후 목포부(府)에서 개최한 ‘새교육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목포 유달초등학교에서 열린 출품작 전시에는 서예, 그림, 자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김경옥은 흰 동백을 수놓아 특상을 수상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경옥은 도 본선에까지 진출하는 등 대회에 출품해 수상했던 작품을 현재도 간직하고 있다. 여학교에서 기술을 배웠던 이종수와 김경옥의 양재기술의 수준은 송용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겠지

125)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니며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양장식 교복을 입은 세대였다. 신식문물로써 여겨진 양장을 교복으로 입었던 이 여성들은 양장을 입는 것에 익숙했으며, 한복보다 양장이 갖는 편리함과 편의성을 이미 경험했다. 1930년대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한복에서 거의 양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40년대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상의는 블라우스, 하의는 몸빼 바지로 입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근대여성교육이 초기만 해도 한복이나 개량한복을 입었으나 이후 양장교복으로 확연히 변했다. 여성의 양장 보급은 여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부자, 2003:134). 1940년대의 목포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10대 시절을 보낸 김경옥은 여학생들의 교복을 만들어주는 교복집이 간판을 걸고 따로 운영이 되었다고 기억한다.

126) 여학생의 교복은 주로 세일러복이 많았는데, 블라우스와 플리츠스커트, 수우트 상의로 보통 구성되었다(김춘선, 1977: 32-33). 여학교 양장교복으로부터 블라우스, 쉐터, 스커트, 세일러복, 스포츠웨어, 넥타이, 모자 등이 일반 여성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다(조효순, 1998:160). 1930년대는 각종 코트가 등장하는 등 양장의 르네상스시대였다.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의 교복은 조선 여성의 양복의 패션을 주도한 최초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여학교의 교복은 여성의 양장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일제에 의한 여학생 교복의 양장화와 1940년대 간단복과 몸빼의 착용은 여성의 의복을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김춘선, 1977: 28-32)

127) 1920년대 후반부터 여학교가 참여해 개최된 연합빠사대회가 신문에 해마다 소개되었다. 이 대회는 중앙기독교청년회와 조선일보사가 공동 개최한 것으로 1회 대회에는 경성여고보, 근화여학교, 정신여학교, 동덕여학교, 이화여고보, 배화여고보, 숙명여고보, 진명여고보 등이 참여하였으며, 침공품, 자수, 편물, 기타 여자수예품 각종이 전시되며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 회관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27. 1. 13. “연합빠사대회와 참가학교의 소식”에 따르면, 자수품, 편물품, 재봉품 등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만 양재기술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근대여성교육의 수혜자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양재기술의 습득은 여학교를 다닌 여성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시대 근대여성교육은 성별분업체제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재기술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여학생 교육은 어학과 가사, 재봉, 수예 등에 집중되었다. 여학교는 개화기에는 한복 중심으로 재봉과 손바느질은 물론 재봉틀을 다루는 법도 가르쳤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을 가르쳤다.¹²⁸⁾ 여학생들은 여성의 성역할로 요구되는 한복과 양장 의복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교육은 자급자족과 가정경제의 절약으로 의미화되었다.¹²⁹⁾¹³⁰⁾ 그 결과 교육 내용의 성별 차이가 발생했으며 근대적 교육의 체계화는 남녀의 차이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소영현, 2019: 82).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성역할에 필요한 것을 여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화된 근대여성교육이 전개되었다. 제도화된 교육은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별에 한해 양재기술을 가르쳤다. 자급자족과 가정경제를 위한 목적으로 여학교에서 전개된 양재기술교육을 포함한 근대여성교육이 해방 이후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일본유학이나 여학교 교육을 통해 양재기술을 배웠던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은 양장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한국전쟁 이전 혹은 전시 중에 양장점을 개업하였다.

여학교를 중심으로 제도권 내에서 여성들에게 가르쳤던 양재기술은 해방이 된 이후에는 양재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¹³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여성들은 여

128) 당시 보통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에게 가사와 재봉교육은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졌으며, 여교원의 채용을 통해 가사와 재봉 수업을 가르쳤다(정운지, 2018: 10).

129) 남성을 대상으로는 그러한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남성들에게는 양재기술을 취업과 직업을 얻기 위한 노동의 성격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성역할로 설명되고 있다. 남성이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양복점이나 강습회에 참여해야지만 가능하다. 양복을 만드는 남성의 양복기술을 대중화가 아닌 전문화를 초기부터 만들어갔다. 동일한 여성과 남성의 양복이지만 남성의 양복은 만드는 기술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재봉틀은 남성의 기계로 여겨지며 남성이 입는 양복은 남성이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양복을 만드는 양재기술을 가르쳐진 대상은 남성들이었다.

130) 식민지 시대 남성의 양장 착용은 공적영역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의복이 양복화되고 있어서 일찍부터 양복점에서 맞춰 입거나 만들어진 양복을 구입하여 입는 등 양복 중심의 의생활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남성의 양복 착용과 달리, 여성의 양장 착용의 대중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전개되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비율도 저조한 편이었다. 물론 가격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다.

131) 식민지 시대 다양한 형태의 강습회가 전개되었지만, 강습 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의 수준은 상당히 미흡했다. 1930년대에는 태화여자관(泰華女子館)을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양재와 편물강습을 자주 개최했다(권혜영·이경자, 1983: 23).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 강습회가 있었다. 또한 대구에는 1930년대에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이 종교단체의 산하에 설립되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 양재강습회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전문적으로 양재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보통학교 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여전히 낮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진학 대신에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양재학원을 다녔다. 인순옥, 신희자, 박부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 외곽인 파주에서 서울에 위치한 서라벌양재학원¹³²⁾을 다녔던 인순옥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양재학원을 다녔다. 인순옥은 아침 일찍 첫차를 타고 오전 9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며, 필요한 수업료는 물론 교통비, 식대, 그리고 실습을 위한 옷감까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었다. 인순옥은 학원에서 ‘문산’으로 불리웠는데, 집에서 서울까지 양재학원을 다니는 여성은 자신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희자는 제주에 최초로 생긴 양재학원을 다녔는데, 아버지가 4.3사건으로 사망하면서 가정 형편이 기울자, 상급학교 진학대신에 양재학원을 다녔다.

아이고 제주시에 양재학원 생겼다고 하는 데 가보라고 해서 그 때 15살에 갔어. 하하. (...) 이제 그 밭에 가서 김 메다가 어무니한테 “친구들은 중학교 다니는디, 엄마 나도 중학교 가면 안돼?” 했더니 어무니는 아이구, 큰 오빠만 있어도 난 니 대학교 꺼징 보내줄 텐데. 큰 오빠도 없고 집에 어무니가 할 수 없이 날 데리고 나니면이 경에 살더라구, 우리 친정 어무니가. 그래서 인제 열다섯 나니까(되니까) 제주시 양재학원에 보냈지. 버스로 가니까 버스도 아이고 말마라. 버스도 흐흐흐. 띠엄 띠엄 있기 때문에 겨우 몸 비비면서 겨우 들어가서 탄 거고 그래. 포장도로도 아니니까. 지금은 차가 많아서 죽 달리면이 한 30분 이면 가는 데. 그 때는이 와당탕 와당탕이라. 포장도로 안되니까. 그래서 거의 한 시간 걸렸지. <신희자>

신희자는 1950년대에 양재학원에 가서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양재학원에서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은 “뭔가 깨는 거야”라며 남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재봉틀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재봉틀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를 통해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이 양장점을 운영한 사례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료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강습회는 몇 회 정도의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교육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 양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기 어려웠다.

132) 서라벌양재전문학원은 피난수도 부산에서 1952년에 대한복장연구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서상국이 학원 설립의 대표였다. 서상국(1920~1989)은 남성 맞춤복 테일러 1세대로, 식민지 시대부터 양복업계에 진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복 제작을 담당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노동청 위촉 기능검정위원 및 정부의 위촉으로 1969년에 재단사를 위해 작업지도서를 편찬했다. 1970년대에 각 직업훈련소의 양복 부문의 교재가 되었다. 그는 업적에 힘입어 복장업계(맞춤양복업계)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익장을 수여받았다(류용현, 2018: 33~34).

신희자는 제주도에서 가장 변화한 칠성통에 들어선 제주 최초의 양재학원을 다녔는데, 집에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교통비, 학원비 등 제반 비용이 필요했으며,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다니기 어려웠다고 강조한다.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다니는 여성들은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상당수였으며, ‘수준있는’ 여성들이 다녔다고 말한다.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중·고등학교 보다 수준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양재학원 강사는 일본에서 온 여성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다닌 것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인순옥과 신희자의 사례는 1950년대에 양재학원을 다니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신희자와 인순옥처럼, 해방 이후 양재학원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양재기술을 배우는 여성들이 증가했지만 대도시 위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여성은 다니기 어려웠다. 더욱이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수강생으로 많이 다녔다고 구술자들이 기억함으로써, 전후 사회에서 양재학원의 수준은 꽤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1년 정도 다녔지만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제품집’에 ‘시다’로 취직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양재학원을 졸업하더라도 양재기술의 수준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여성들의 학교 진학률이 증가했다고 해도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신희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순옥은 엄마와 결혼한 언니의 지원으로 양재학원을 다닌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다. 이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에 양재학원을 다니는 것 역시 여전히 쉽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양재학원에서 양재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에도 양재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공장에 취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950~60년대 전반기에 양재학원을 다니며 양재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여성들은 비록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녔던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정한 혜택을 받은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여성들과는 달리 인순옥과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 양장점에 취업해 기술의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야 자신의 양장점을 개업할 수 있었으며, 박부대 역시 고등학교를 대신해 양재학원을 다닌 뒤 언니의 소개로 양장점에 취업한 뒤 이후에 개업하였다. 양재학원의 설립은 양재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확대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자, 그만큼 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가 양재기술을 배운 사례들로는곽정희와 박태선이 있다. 곽정희는 서울여상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양재를 배워 자신과 남동생의 교복을 직접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양장점에 취업해 ‘시다’로 근무하면서 양재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다. 양장점에서 양재기술을 익힌 곽정희는 양장점에서는 양재학원을 나

은 기술자를 선호하지 않았는데, 양장점에 취업해 기술을 다시 익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양재학원에서 현장기술을 배우는 데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양장점에 바로 취업해 기술을 배운 여성과 양재학원 출신의 여성들 사이에서 양재기술의 전문성을 두고 갈등이나 알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구술자들은 동일한 양재기술을 배웠지만 배운 시기와 교육기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양장점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발생함을 뜻한다. 식민지 시대 일본 유학이나 여학교를 다니며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은 근대교육을 받은 근대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가진 여성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은 양재기술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목적이나 취업을 위해서 배운 곳은 아니었다. 양재학원을 다닌 여성들은 자신이 양재학원을 다닌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며, 쉽게 다닐 수 없는 곳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재학원을 다닌 여성들 중에는 학교 개념을 대신해 다닌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적 목적을 위해 양재학원을 다닌 여성들이 있다. 즉 양재학원을 다닌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재학원을 다닌 시기는 신희자는 1950년대 중반 제주에서이고, 인순옥은 1960년경 서울이다. 1950년대 제주에서 양재기술을 배워도 경제적 자원화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적 조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며, 인순옥은 양장점이 가장 빨리 번성한 서울에서 배웠다는 점에서 양재학원을 다니는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여성들이 양장점의 여성 적합성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들 간의 경합적 국면의 발생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양재기술을 배운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 간의 사회적 배경의 차이는 양장점 운영이라는 직업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초래했다. 전후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직업 경험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직업을 두고 젠더와 계급의 결합은 특정한 계급에 속한 여성들의 경험의 가시화를 방해하였다.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니거나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배경을 가진 여성은 양장점 운영 경험을 숨기거나 말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혹은 말할 수 없는 경험으로 여겼다. 전후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혹은 부재,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가난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직업여성에 대한 부정적 지배담론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을 여성성에서 벗어난 여성이자 계층적으로 가난한 여성이며 가정 내에서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의미화되었다. 이에 자신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남편과 자식에게 ‘부끄러움’이라고 여겼다.¹³³⁾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침묵시킨 것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성별규범의 작동의

133) 구술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술인터뷰를 거절하면서 당사자 여성들로부터 들었던 고백이다.

효과이다. 여학교를 다녔던 여성들은 근대여성교육을 통해 성별규범을 더욱 강하게 규범화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여성 적합성으로 구성된 여성 직업으로서의 양장점 운영이지만, 특정한 여성들에게 양장점 경험은 성별규범과 계급을 위반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했다. 가부장적인 통제와 규범에 의해 비가시화된 여성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지배적인 계급적 통제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C. ‘여성집중업종’의 형성과 여성 자영업주화(自營業主化)

1. 여성화된 양장업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전후 사회에서 양장업의 여성화 현상이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양장업 초기만 해도 양장을 만드는 재봉사(혹은 미싱사)는 남성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양장점에 취업한 재봉사(미싱사)와 시다의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근데, 인제 남자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양장기술을. (양장점에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미싱사는 다 남자야. 여자는 그때만 해두 여자미싱사는 하나 둘 밖에 없어, 명동에. 다 남자야. 그 사람들이 일본시대 때 배운 사람들이라 자기네가 그렇게 배웠다구. 막 때를 맞아가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남자애들은 막 때리구. 그러구 가리키는 데. 잘못하면. (...) 그랬다가 나중에 여자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이 늘어나고 남자들은 줄어들고 <곽정희>

1950년대 중반부터 명동의 양장점에서 근무한 곽정희는 당시만 해도 여성 미싱사가 별로 없었다고 기억한다. 여성 미싱사는 한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라고 기억될 만큼 여성의 수가 적었다고 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양복점의 대중화로 양복기술이나 재봉을 배워 양복기술자 혹은 미싱사로 근무했던 남성들의 수가 많았다.¹³⁴⁾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 인력 시장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장점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기술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노라노 역시 1940년대 말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때 여성 재봉사가 없어 남성 기술자들을 데려와 양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들이 양재학원을 다니거나 양장점에 취업해 양재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성 미싱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양장점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바뀌어 갔다. 김정옥은 목포에서 양장점은 “거의 여자들이 했다”고 기억한다. 양재기술을 배우는 여성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여성들이 양장점에서 재단을 담당하면서, 여성 양재기술자가

134) 식민지 시대 남성 중심의 양재기술 인력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장점 초기에는 남성기술자들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여성 대상의 양재기술교육이 전개되었지만 여성은 취업이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성격이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의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지배적이었다.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양장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으로 양재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 수준은 초보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양재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여성들은 양장을 만드는 양장점을 운영하기 보다는 여학교나 기관에서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양장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¹³⁵⁾. 신회자는 대구에서 재단학원을 다녔는데, 여성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다고 설명한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의복을 만드는 분야에서 성별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4>은 <부인및소녀용외의제조업 혹은 여자용외의제조업(2432) 종업원 수>에서 여성용 정장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현황을 보여준다.¹³⁶⁾ 우선 여성 종업원의 수는 남성 보다 항상 더 많은 수치임을 보여준다. 1950년대 말경에는 남성과 여성 종업원의 수가 이후 시기와 비교해 성별 차이가 가장 작은 규모이다. 여성 종업원의 수는 1960년을 지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966년에는 여성이 남성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⁷⁾ 양장점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담론화 되는 가운데, 국가의 노동정책은 중공업 기술교육을 통해 소비재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남성인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남성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후 1950~60년대는 양재학원을 중심으로 여성 대상의 양재기술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여성의 진출이 확대되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업원 수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이 더 많다. 전반적으로 양장업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서 2~3배 가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에 취업한 여성은 물론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135) 패션디자이너로 유명한 노라노 역시 1940년대 말에 미국에서 패션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여성 양재기술자가 별로 없어서 양복점에서 일하던 기술자를 스카우트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노라노, 2012) 식민지 시대 양복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있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던 박원희(박원희(朴元熙, 1899~1927)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와 부설 사범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오빠를 통해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결혼후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과 양복직공일을 병행했다. 이걸 계기로 일본에서 양복기술을 배웠다. 귀국후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의 발기인이자 집행위원으로 그리고 경성여자청년회의 대표로 활동했다(안미경, 2011).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던 박원희는 자흥양복점을 운영하면서 경성여자청년회의 사무실을 자신의 양복점에 두었다. “경성에서 활동하는 여자단체(4) 경성여자청년회.《조선일보》, 1925. 12. 20.

136) 1958년 통계와 1960년 통계자료는 통합적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성별을 파악할 수 없다.

137)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통계표가 양장점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 양복점은 물론 같은 디자인을 치수만 다르게 제작하는 서울 청계천 등지에 위치한 피복공장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표 3-4> 부인및소녀용외의제조업 혹은 여자용외의제조업(2432) 종업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1962년	1963년	1966년
종업원수	남	75	939	1,821
	여	226	1,889	5,066
	계	301	2,828	6,887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업원 수	남	24	219	433
	여	38	181	436
	계	62	400	869

1)주 : <1958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의 경우 '성인, 소년 및 소녀 외의 및 외투(2431)'로 그리고 <1960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역시 '외의 및 외투 제조업'으로 남성용과 여성용 정장에 관한 자료가 통합된 상태로 보고되었음.

2)주 : 양장점의 규모가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한정해 조사한 것이다.

자료: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와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1958년, 1962년, 1963년, 1966년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는 5인 이상, 혹은 10인 이상 규모의 양장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주로 운영했던 소규모 양장점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소규모 양장점일수록 여성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실제로 양장점을 운영하거나 근무했던 여성의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양장업은 여성의 직종으로써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업의 여성화'가 전개되었다.¹³⁸⁾ 식민지 시대 양복업은 남성

138) 식민지 시대 양복점은 남성의 직업이었으며 남성들은 양복기술을 배워 직업으로서 양복점을 운영했다. 여성들이 양복점을 운영하거나 양복점에 취업하기도 했지만, 남성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양복점은 여성 보다는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양장점은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아 여성들은 내재봉소를 운영하면서 한복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양재기술을 배워 자급자족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을 가르치거나 가정에서 여성이 양장을 만들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며 양재기술교육자 역할을 주로 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전문성이 미흡했고 양재기술을 배워 일상에서 필요한 양장을 만드는 수준이었다. 남성은 양복 기술을 배워 상품을 만들어 화폐소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여성은 양재기술을 배워 양장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이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민지 시대 양재기술을 익힌 여성들의 기술적 수준은 판매용 상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양재기술자는 남자들이었으며, 남성들은 주로 양복점이나 피복공장에서 근무했다. 식민지 시대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기술 교육을 했지만,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성역할로서 전개되었다. 이 때문에, 양재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남성들은 양복기술을 배우거나 재봉을 배워 양복기술자로 혹은 미싱사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초중

위주의 업종이었다. 전후(戰後) 직업화(professionalization) 과정에서 양장업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양복업과 양장업은 성별분리되었다. 즉 의류산업은 양장업이 여성의 영역으로, 양복업은 남성의 영역으로 성별분리됨으로써 성별업종분리 현상이 나타났다.¹³⁹⁾ 전후 1950~60년대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가부장적인 담론과 양장점에 대한 언설을 기반으로 양장업은 여성의 업종이라는 성별직종분리에 관한 통념이 구성되었다.¹⁴⁰⁾ 이는 통념으로 그치지 않고 성별직종분리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정착되었다.

끝으로, 전후 1950~60년대 양장업은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산업자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¹⁾ 이승만 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에 유리하면서도 정권의 의도에 맞는 산업을 선별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물업은 주요한 산업으로 고려되었지만 양장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양장업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성들의 양장업 진출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보다는 미국화와 새로운 여성성과 성별규범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지는 양장업과 같은 업종에 진출하도록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의 제약을 받았다. 이로써 여성들은 양복점 운영과 같이 남성 중심의 사업체에 진출해 남성과 경쟁하기보다는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양장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¹⁴²⁾ 전후 1950~60년대 여성들은 한국 의류산업의 지형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양장업을 주도하였으며, 양장의 생산과 유통 등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여성의 경제영역을 구축하였다.

반만 해도 양재기술을 가진 여성이 많지 않아 남성기술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139) 성별집중업종은 성별업종(직종)분리에 따라 구성되는 데, 여성들은 주로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였다. 오늘날 대표적인 여성집중업종으로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등이 있다.

140) 산업화 시기 섬유·의류산업은 대표적인 여성의 업종이었다.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기술인 재단은 남성의 일이었으며, 미싱과 시다는 여성의 일이었다. 전후 1950~60년대 양복점과 양장점의 업종성별분리가 전개되었다면, 산업화 시기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성별직무분리가 세분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성별직무분리(Job Segregation by Sex)를 산업특수적,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루스 밀크먼(2001[1987]), 『젠더와 노동: 제2차 세계 대전기 성별 직무 분리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가 있다.

141) 산업화 시기 이전의 의류산업은 세계 자본주의의 신국제분업에 진입하기 이전이었다.

142) 노라노는 연극은 물론 영화, 드라마 의상을 제작하면서 전후 패션의 유행을 주도했다. 이에 관해서 박신미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박신미(2014), “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4권2호, 89~109쪽; 박신미(2016),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1) -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노라노 관련 영화 의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6권4호, 89~107쪽; 박신미(2017),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2)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2호, 89~109쪽.

2.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등장

전후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며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주’가 되었다는 점이다.¹⁴³⁾¹⁴⁴⁾ 이러한 여성의 고용 형태의 변화는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에 관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5>는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에 관한 자료이다. 1957년부터 자영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6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자영업주는 1959년에 여성 취업자 중 61만1천명으로 18.2%까지 차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1961년에는 46만1천명으로 11.9%로 증가하였다. 물론 남성과 비교해 자영업주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수치이지만, 여성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인 자영업주가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표 3-5> 종업상의 지위별 취업자(1957~1961)

(단위 : 천명)

항목	취업자 지위별	1957	1958	1959	1960	1961
계	계	-	-	8,768	8,521	9,787
	자영업주	3,448	3,712	4,070	3,651	3,820
	가족종업자	3,630	4,039	3,726	3,882	4,818
	고용자	998	996	973	989	1,149
	상고	606	561	614	658	771
	일고	392	436	358	331	375

143) 한국의 경우 1990년대가 지나서부터 임금노동이 비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넘어섰다. 1990년대 이전까지 여성들은 비임금노동에 해당하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지배적인 노동형태였다.

144) 김태일(2017)에 따르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은 자영업자의 수를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 이전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은 임금노동자로 취업하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행상, 좌판, 노점상, 각종 가내 수공업자, 소규모 점포 운영자 등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가 되었다. 도시화의 결과가 영세 자영업자의 수를 확대시켰다. 1차 산업을 제외하고 2·3차 산업종사자만 따지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했다(35~49). 해방 이후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도 자영업자가 되었다(36~37).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월남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등도 한국의 자영업이 확대되는 데 포함되었던 존재들이다.

남자	계	5,061	5,200	5,419	5,272	5,910
	자영업주	3,085	3,227	3,459	3,182	3,358
	가족종업자	1,156	1,124	1,143	1,236	1,591
	고용자	821	850	817	853	961
	상고	550	513	523	580	661
	일고	271	337	294	273	300
여자	계	3,015	3,547	3,349	3,250	3,877
	자영업주	365	486	611	469	461
	가족종업자	2,475	2,915	2,583	2,646	3,228
	고용자	175	146	156	136	188
	상고	56	48	91	78	113
	일고	120	99	65	59	75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국

그리고 직업별로 여성이 자영업자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3-6>는 <1955년 직업 (대분류) 종업 상의 지위 및 14세 이상 취업자> 중에서 업주의 수치만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의 직업 종업 상의 지위를 확인한 결과,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업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판매종사자’ 분야, 즉 상업에서 15.5%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분야의 ‘특수기능공·생산공정종업자 및 단순노무자’ 분야에서 7.8%를 차지했다.

<표 3-6> 직업 (대분류) 종업 상의 지위 및 14세 이상 취업자 : 업주(1955년)
(단위 : 명, %)

직업별	계	남자	여자
계	3,237,900	2,795,700	442,200(100)
전문적 기술직업	23,900	20,800	3,100(0.7)
관리적 직업	18,500	17,300	1,200(0.3)
사무적 직업	8,000	7,200	800(0.2)
판매종사자	282,200	213,800	68,400(15.5)
농부, 벌목부, 업사, 어부 및 유사종사자	2,510,200	2,185,100	325,100(73.5)
채광 채석적 직업	2,000	1,900	100(0.02)
운수적 직업	14,600	14,300	300(0.07)
특수기능공, 생산공정종업자 및 단순노무자	355,100	320,600	34,500(7.8)
특수기능공, 생산공업자 및 유사종사자	106,800	98,100	8,700(2.0)
단순노무자(농장, 광산제외)	248,300	222,500	25,800(5.8)

서비스 직업	23,400	14,700	8,700(2.0)
--------	--------	--------	------------

자료 : 내무부

그리고 다음의 <표 3-7>은 <직업 (대분류) 종업상의 지위 및 취업자>를 살펴보면, 1960년과 1966년에는 자영업주의 수가 남성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자영업주가 증가한 직업은 광업, 제조업, 상업 등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물론 광업, 제조업, 상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서비스업 등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업주로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차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이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자영업주는 상업이 158,5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업 62,010명, 그 다음이 제조업이 47,600명 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상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의 여성 자영업주는 1960년에 25,690명에서 1966년 47,600명으로 6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중에서 여성이 자영업주로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의 양장을 제작하는 양장점이므로, 이러한 수치는 자영업주로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3-7> 직업 (대분류) 종업상의 지위 및 취업자 : 자영업주(1960, 1966년)

(단위 : 명)

구분	직업별	1960	1966
	합계	3,285,885	3,224,750
합계	농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	2,331,710	2,213,080
	광업	3,620	5,920
	제조업	135,925	202,130
	건설업	44,210	25,410
	전기,가스, 수도 및 위생시설 서비스업	2,795	1,170
	상업	456,630	578,180
	운수,보관 및 통신업	37,395	18,150
	서비스업	272,425	180,260
	분류불능산업	40	360
	미상	1,135	90
남자	계	2,839,065	2,677,300
	농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	2,097,305	1,934,760
	광업	3,505	5,740
	제조업	110,235	154,530
	건설업	43,870	25,170
	전기,가스, 수도 및 위생시설 서비스업	2,710	1,160
	상업	318,180	419,650

	운수,보관 및 통신업	37,090	17,800
	서비스업	225,290	118,250
	분류불능산업	35	170
	미상	845	70
여자	계	446,820	547,450
	농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	234,405	278,320
	광업	115	180
	제조업	25,690	47,600
	건설업	340	240
	전기,가스, 수도 및 위생시설 서비스업	85	10
	상업	138,450	158,530
	운수,보관 및 통신업	305	350
	서비스업	47,135	62,010
	분류불능산업	5	19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표본조사: 인구총조사 : 10%)

*1960년 자료는 13세 이상, 1966년 자료는 14세 이상 조사

정부가 실시한 광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통계는 지역경제,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국가의 통계는 남성 중심의 경제재건을 담론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영업주로 운영한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중에서 여성적 기술이 매개된 자영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전후 사회의 회복과정에서 여성이 실천한 자영업은 비공식경제에 속한 비공식 노동으로 비가시화되었다. 다만 여성이 하는 자영업 중에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¹⁴⁵⁾는 물론, 의복을 만드는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역할로 여겨지는 분야가 주요하게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전후 여성들은 자수, 편물, 바느질, 양재와 같이 여성에게 친숙하고 여성적 기술을 매개로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예점, 편물점, 내재봉소, 한복점 그리고 양장점 등의 소규모 사업체 운영에 진출하였다.

D. 소결

이 장에서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

145) 음식 및 음료(주류 포함) 만들거나 판매하는 식당, 다방, 다양한 종류의 술집은 여성의 진출이 식민지 시대에도 이미 이뤄졌다.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전후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별규범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여성들은 국가의 산업 구조가 불안정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진출하였으며, 자영업주로서 경제활동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장점은 여성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의 참여가 불가피하였으며, 가구단위의 경제활동의 해체와 함께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직업을 가졌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족의 생계라는 틀에서 의미화함으로써 생계부양자로서 자신의 경제활동을 의미화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성별규범의 통제 속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가족의 관계 속에 제한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경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둘러싼 지배적인 언설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의미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장점에 진출한 여성들 역시 양장점이 여성 고객을 상대하며 남성과 분리된 공간을 갖고 있어 성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점, 여성적 기술인 바느질을 사용하는 점, 그리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수입이 괜찮은 점을 들어 여성의 직업으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양장점은 다른 여성의 직업과 비교우위의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위치되었다. 이런 언설화는 여성 직업의 위계화를 반영하고 구성하는 담론이기도 하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중에는 양장점 운영 보다 교사 등 다른 직업이 더 나은 직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로써 양장점 운영은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른 경합의 과정 속에서 여성의 직업의 위계화 과정에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양장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입어본 경험, 거리에서 양장을 판매하거나 구제품을 수선해 입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양재기술을 지닌 기술주체로서 인식하였다. 여성들 간에는 양재기술을 배운 시기와 방식이 달랐는데, 일본유학, 여학교, 양재학원, 양장점 등으로 구분되었다.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배운 방식의 차이는 여성들 내부에서 양장점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이유였다. 양장점 운영이 여성들 사이의 경합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여성은 양장점 운영을, 남성은 양복점 운영을 하는 것이 성별에 적합한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류산업의 태동기에 ‘여성집중업종’이라는 성별화된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여성 자영업주화의 전개 속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증가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전후 경제영역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분할되어 젠더화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성 중심으로 구획되고 분리된 경제영역인 이는 여성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양장업을 주도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성별규범에 대한 여성들의 내면화는 여성의 양장점 진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 즉 여성 자영업주가 등장함에 따라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성 자영업주가 구성한 ‘여성의 경제’는 한국전쟁이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경제적 역할이 요청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생계경제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구성된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IV. 여성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양장점과 자영업의 생산요소

전후 여성의 직업으로서 부상한 양장점은 여성의 자영업 진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이 양장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생산요소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을 가르킨다.¹⁴⁶⁾ 생산요소는 흔히 토지, 노동을 생산요소로 보았으나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자본이 추가되었다. 양장점 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토지를 제하고 노동과 함께 자본재로, 원료와 같은 유동자본과 기계와 설비 등은 고정자본이다. 본 장은 여성들이 자영업주로서 양장점 운영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여성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본다.

A. 양장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작업장이자 점포¹⁴⁷⁾

1. 생산을 위한 작업장(作業場)

양장점은 양장 생산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여러 가지의 생산수단을 구비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는 구술자들이 마련한 점포와 재봉틀 그리고 양장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46) 맑스주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력(생산수단과 노동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된다. 생산관계는 생산과 관련된 경제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뜻한다. 생산력의 생산수단으로는 물질적 재화 즉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노동, 노동대상, 노동 수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노동'은 인간이 자연물이나 자연력에 변화를 주어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합목적적인 활동을 뜻한다. '노동 대상'은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는 모든 대상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것과 이미 가공된 것(원료)이 있다. '노동 수단'은 노동 대상에 인간이 노동을 가하여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으로, 도구나 시계와 같은 생산 도구 외에, 토지, 건물, 교통수단, 통신기관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이란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합한 것이며, 이 생산수단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급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생산관계의 성격이 결정된다.

147) 양장점 운영에 적용해보면, '노동'은 자영업주의 노동, '노동대상'은 양장지, 구제품 옷감 등, '노동 수단'은 재봉틀, 재단대, 작업장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생산의 3요소가 흔히 토지, 노동, 자본인데, 여기에 경영이 추가되어 생산의 4요소로 불리기도 한다. 양장점 운영자는 자영업주로서, 일종의 '경영'과 같다.

가. 공간의 마련 : 입지의 중요성

양장점의 기본적인 역할이 양장을 생산하고 고객을 상대로 직접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양장점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였다. 구술자들이 양장점이라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집에서 시작하는 것과 양장점을 위한 점포를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양장점을 위한 점포를 독립적으로 마련하였지만 이를 위한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장점을 집에서 시작한 구술자들은 송용순과 이종수였다. 송용순은 양장점 운영을 ‘내직(內職)’으로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내직은 여성이 집에서 하는 직업을 뜻하는 것으로, 살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상황에서 여성들이 쉽게 선택했던 직업의 방식을 뜻한다. 송용순은 집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따로 점포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월남을 해서 서울에 정착한 상황에서 점포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송용순은 살림을 하는 집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종수 역시 송용순과 마찬가지로 양장점의 시작은 집이었다. 해방되던 해 만주 안동에서 부산으로 귀국한 이종수는 맏딸로서 부모와 동생의 생계부양을 위해서 집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종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산 광복동에 구입한 2층짜리 적산가옥의 건물 1층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인이 버리고 간 재봉틀이 집에 있어 양장을 만들어 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종수는 만주 안동에서 고모와 함께 작은 규모의 양장점 운영을 한 적이 있지만, 양장점을 따로 마련할 만큼의 자본이 없던 차에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송용순과 이종수가 집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집이 위치한 곳은 도시의 변화가였기 때문이다. 송용순의 집은 서울 충무로 3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종수의 집은 부산 광복동에 위치했었다. 비록 집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사가 될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종수는 자신의 집이 변화한 광복동 “모서리”에 위치한 “오지”에 있어 장사에 유리하다고 여겼다고 했다.

우연적으로 가게가 있었지. 뭐 어째 이렇게 끼어 맞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산다고 산 집이 모서리인데도 요지더라고. 부평 쪼끔 올라가서 중턱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광복동에. 인자 생각이 나네, 광복동이. 그런데 하이구 그레가지고 광복동 가까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구 거기서 시장도 가깝고 국제시장인가, 지금은. 우선 가깝고 이래놓으니까 물건 사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졌어, 거기가. 아이구 아버지, 좀 해볼까요? 영 좋다 하고는 저기에 미싱도 있고. <이종수>

이종수는 아버지가 얻은 광복동 집에서 시작하였다. 마침 이전에 살던 일본인이 버리고 간 재봉틀이 집에 있어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종수는 처음에 문을 연 양장점이 간판이나 고객을 위한 의자도 없이 “허허벌판에다가 양장점을 차린 것”처럼 “단조”롭게 시작하였다. 비록 허름한 양장점이었지만 양장을 맞추려는 고객들이 몰려들어,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주고 순서대로 주문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여성들이 집에서 양장점을 운영할 경우 크게 자본이 들지 않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다. 집을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양장을 만드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집 안에서 양장을 만드는 데 제약이 따랐다. 외부 손님을 지속적으로 맞이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송용순과 이종수는 양장 수요가 증가하고 밀천을 마련한 뒤에는 집과 분리된 점포를 얻었다. 집에서 하다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점포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집과 직장을 분리하였다. 구술자들은 독립된 점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점포의 위치를 어디에 정할 것인지 그리고 양장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우선 구술자들이 양장점의 입지와 규모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것은 자본금이다. 또한 어떠한 여성을 상대로 양장을 판매할 것인지와도 직결된다. 물론 이는 양장점의 수입과도 직접 관계된 사항이었다. 양장점을 처음에 선택한 입지와 규모는 구술자들마다 차이가 있었다. 우선 시기와 지역을 살펴보면, 이종수는 1946년에 부산 광복동¹⁴⁸⁾, 송용순은 1954년에 서울 충무로¹⁴⁹⁾, 김경옥은 1955년 전남 목포, 신희자는 1960년에 대구에, 박부대는 1960년에 대구에, 인순옥은 1963년에 경기도 파주, 곽정희는 1960년대 서울 약수동에, 그리고 박혜영은 1976년에 인천에 각각 양장점을 처음으로 개업하였다. 그리고 구술자들의 양장점이 위치한 입지는 크게 도시의 변화가 혹은 상점가/상업가, 주택가, 방직공장, 기지촌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도시의 가장 변화한 곳에서 시작한 구술자는 이종수였으며, 도시의 상점가/상업가에 양장점을 둔 구술자는 송용순, 박부대, 박혜영 등이었다. 주택가 혹은 동네는 곽정희, 김경옥, 방직공장은 신희자, 기지촌은 인순옥이었다.

그렇다면 양장점을 도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송용순은 남편이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신 역시 황해도 해주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오는 등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비록 첫 시작은 집에서 했지만 서울 명동과 바로 가까운 충무로에 첫 양장점을 열었다. 송용순이 상대하는 고객 중에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 많았다고 한다. 송용순은 양장점 운영

148) 이종수가 부산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광복동은 부산의 중심 상점가이기도 했다.

149) 서울 충무로 3가에 위치한 극동빌딩 뒤편에 ‘스타싸롱’이라는 간판을 달고 양장점을 운영했다.

을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에 문 단을 때까지 충무로를 떠나지 않았다. 송용순은 양재 전 공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일본 여자보다 더 뛰어났다고 자부할 만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구술자 이종수는 부산 광복동의 변화가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다가 서울 혜화동으로 이사를 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혜화동에서 양장점을 수차례 옮겨다니기는 했지만 이곳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좋은 교육기관이 많은 혜화동에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 대학을 보내려는 교육 목적이 컸다. 이와 함께 한 지역에 있음으로써 양장점의 단골 고객을 계속 유치하려는 전략이기도 했다. 이종수는 혜화동 지역이 장·차관 부인들이 자신의 양장점을 방문하는 등 부유하고 수준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종수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부산에서 양재학원을 운영하고 사범대학교에 나가 양재를 가르치는 등 양재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송용순과 이종수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준있는’ 여성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들을 상대로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김경옥은 목포에서 양장점의 위치를 여러 차례 이전하였는 데, 경제적 여력의 부침에 따라 양장점의 위치에도 변화가 컸다. 처음에는 양장점의 위치를 사촌 언니가 운영하는 빵집 옆에 자리를 잡았다. 변화가는 아니었고 뒷골목에 해당하였다. 처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샅바느질과 구제품 수선을 하면서 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하여 점포를 마련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여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양재기술로 양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양재기술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증가하고 단체복 납품을 여러 차례 하면서 실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김경옥은 외진 골목에서 운영하다가 밀천을 마련한 뒤 좀 더 변화한 거리로 규모를 확장하여 진출하였다.

(그러면은 샅바느질 하던 데하고는 다른 곳인가요?) 다른데. 샅바느질 하는 데 보담 쪼끔 더 시내로 들어간 거지. 시내로 들어갔어도 그렇게 활발하게 예, (사람들이) 댕기는 도로가 아니라, 목포 그 동네가 큰 길이라고 하면 거기 뒷길, 나중에 내가 인자 거기서 양장점을 시작하니까, 아까 (말한) 장해문¹⁵⁰⁾이가 시작을 하고, 그 골목이 양장 골목이 되어버렸지. (선생님이 처음 시작했던 위치가?) 죽동. (선생님이 처음에 죽동으로 가서 가게를

150) 장해문은 남성으로 아내와 함께 양장점을 운영했다. 구술자 김경옥 보다 늦게 양장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양재학원을 운영하는 등 사업적 수완을 발휘했다. 장해문의 스타일 양장점 운영과 뉴스타일 양재학원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2018), “제3장 개인소장자료 제12절 장해문 소장 자료”, 『목포시사 다섯마당 기록목포』, 450~455쪽.

열고나서부터 그 골목이 양장 골목으로 인제 쪽?) 양장, 양장. 그러고 내가 거기 가기 전에는 목포에 부속가게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양장점이 생기면서는 인자 목포에 부속 가게가 세 군데가 생겼지. <김경옥>

김경옥은 차차 손님이 늘어나고 밀천이 생기자 좀 더 변화한 곳인 죽동으로 양장점을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양장점의 이전 시 단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단골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김경옥은 자신이 이전한 골목에 다른 양장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으며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속품 및 부자재를 파는 부속가게까지 들어서면서, 그 거리가 “양장 골목이 되버렸”다고 강조한다. 김경옥은 자신이 목포에서 양장점을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자신이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그 골목이 양장점 거리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김경옥이 양장점을 이전한 위치는 죽동으로, 식민지 시대부터 가장 변화했던 목포시의 원도심 거리였다.¹⁵¹⁾ 김경옥의 경우 밀천을 마련하고 기술실력을 쌓으면서 차츰 차츰 변화가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떠안게 되자 시장으로 들어가 한복집 옆에 자리를 잡기도 했다. 이는 박부대 역시 동일한 패턴이다.

상화(의상실)에서 돈을 좀 벌어서 어디로 나갔냐고 하면 제일은행 있죠? 거기서 동아백화점 가는 중간에 상파뉴의상실을 했어요. 상파뉴에는 고급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옷 하러 와도 직업은 못 묻잖아요. 그래도 보면 좀 부티 나는 사람. 생활 수준이 중류층 이상 되는 사람, 아주 상류층은 아니더라도. 그때는 빈부 차이가 확실하잖아요. 요즘은 있으나 없으나 외관상에 표가 안나잖아요. 차가 있고 다 있으니까. 그때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수입품 사러 가는 사람, 애들 수입 우유 사 먹이러 가는 사람들은 꼭 들러요. 수준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죠. <박부대, 126쪽>

양재학원을 졸업하고 양장점에 취업했다가 독립한 박부대는 점차 도심의 변화한 지역으로 진출해나갔다. 박부대는 양장을 팔아서 밀천이 모이자 좀 더 변화한 시내로 진출을 하였다. 변화가에 진출한 이유는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술자들 중 송용순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업이 번창하여 이전한 경우도 있지만 고향으로의 귀향, 양장점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전, 자녀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양장점의 위치를 이전하였다.

양장점이 항상 도심이나 도시에 가장 변화한 거리에만 위치한 것은 아니었다.¹⁵²⁾ 양장을

151) 죽동은 현재 죽동교회 등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거리로도 유명하다.

152) 김성도(1998)에 따르면, 양장점을 비롯한 상점의 입지는 ‘가로’와 접하는 ‘접도수’가 중요하다고 한다. 2면접도형의 경우 세 개의 가로와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한 모서리형과 이면도로에

주로 입는 여성들이 몰려 있는 곳에 자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방직공장과 기지촌이 해당된다. 구술자 신희자는 서울의 제복집에서 ‘시다’로 근무하다가 고향 친구들이 공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대구로 내려온 뒤 취업을 했던 양장점도, 자신이 개업한 양장점도 모두 방직공장 근처였다. 신희자는 1960년경에 대구에서 양장점을 삼호방직공장¹⁵³⁾ 앞에 열고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상대로 양장을 만들어 팔았다. 삼호방직공장은 대구에 위치한 3대 방직공장 중의 하나일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1957년에는 직기 300대와 방기 3만1천600추의 대규모 섬유업체로 성장했으며, 당시 방직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는 2천여명이었다.¹⁵⁴⁾ 신희자는 여성노동자들이 양장을 맞추기 위해 양장점을 방문했으며, 월급날이 되면 많은 손님이 방문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장사가 잘 되어 대구 ‘원대시장’에 옷감을 사러 다니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이희영(2010)은 1950년대 여성공장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노동자들이 편하를 받던 산업화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장여성노동자들은 공장노동을 통한 정기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었던 드문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양장점에서 양장을 맞춰 입으며 소비주체로 합류할 수 있었다. 물론 공장여성노동자를 상대로 했던 만큼 양장점에서 생산하는 양장의 수준은 도심지 변화가의 양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공장여성노동자들이 한복이 아닌 양장을 갖춰 입었다는 점에서 1950년대 부상하는 다른 직업여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에 제작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에서도 잘 나타난다.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인 조경희(엄앵란 분)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맞춰 입은 양장을 갈아입고 직업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영화적 재현은 현실의 공장여성노동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양장점은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나 미군기지가 들어선 기지촌에도 들어섰다. 신희자는 대구에서 가장 좋고 비싼 양장점이 위치한 곳은 미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곳에 위치한 양장점은 양장을 일상복으로 이미 입었던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속이나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주된 고객이었기 때문에 양장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미군부대가 들어선 기지촌에는 미군을 상대하는 미군

의해서 접하는 이면도로형이 있다. 입지 유형을 고찰할 때 도로의 위계 역시 중요한데, 최외곽 도로인 대로, 대로로부터 주거지 내부를 통과하는 중로, 다시 이 중로로부터 가지처럼 뻗어 나온 소로로 구분할 수 있다(67~73). 1950년대 상점 건축에 관한 특성과 입지 및 배치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성도(1998), “1920~50년대 서울지역 상점건축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53) 삼호방직공장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과 침산동 일대에 위치했다.

154) “이한구의 한국재벌사 26, 삼호방직 1 삼호막대소 운영”, 《경인일보》, 2017.9.5. ; “이한구의 한국재벌사 27, 삼호방직 2 본격적인 도약”, 《경인일보》, 2017.9.12.; “이한구의 한국재벌사 28, 삼호방직 3 삼호그룹으로 도약”, 《경인일보》, 2017.9.19.

‘위안부’인 ‘양공주’들이 직업적 필요에 의해서 양장을 주로 입었다. 구술자 인순옥은 1961년에 서울 명동에 위치한 라사라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에 위치한 양장점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뒤 기지촌에서 개업을 하였다. 인순옥은 서울에서 양장점을 개업하고 싶었지만 계약금까지 주고 자본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파평면의 기지촌 근처에 위치한 인순옥의 양장점은 주 고객이 기지촌의 ‘양색시’와 미군이었다. 미군부대가 떠날 때까지 같은 마을에서 양장점을 운영했으며, 양장점은 마을 안에서 비슷한 규모로 이전하였다. 한편 광정희는 ‘살롱’의 형태로 고급 양장점을 가정집에서 운영하면서, 정해진 일부의 상류층 고객만을 상대로 양장을 만들었다. 살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단골 고객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광정희가 살롱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상류층의 단골 고객이 있기 때문이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의 입지를 정함에 있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자신이 보유한 기술 실력과 양장문화에 대한 감각, 자본금, 고객층이나 단골 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따라 양장점의 위치를 다르게 설정했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상점과 양장을 만드는 작업실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명동과 같이 변화한 지역에 위치한 양장점은 지대(地代)가 비싸 양장점의 규모가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실인 공장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광정희는 1950~60년대 명동의 이름난 양장점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런 일만 하는 공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설비가?) 미싱 밖에 없지. (재단대같은 거랑?) 그거랑. 응. 재단대 큰 거 하나지. (그럼 그거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쓰지. 그리고 인제 인원이 많은 데는 두 개 정도 놓고 공장들이 명동에 집값이 비싸니까, 공장들이 넓지 않아. 그렇게 넓지가 않아. <광정희>

광정희에 따르면, 그녀가 다닌 양장점 중에는 가게와 공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건물에 있거나 층이나 공간을 달리 하였다고 한다. 구술자 김경옥은 목포에서 양장점 운영이 변창하면서 주상복합의 2층집을 짓고, 1층은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로 사용하고, 2층은 직원들이 양장을 만드는 작업실과 주거 기능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규모가 크지 않거나 자본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게와 공장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양장점 공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살림이 가능한 방이나 집과 나란히 두는 경우가 있었다. 송용순과 이종수는 양장점을 살림집과 나란히 두었다. 이는 살림을 병행하면서 양장점을 운영해야 했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집과 양장점을 나란히 둬으로써 일과 가정을 동시에 병행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점포인 공간의 입지와 구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양

장점의 규모는 구술자마다 다양하였는 데, 작은 경우에는 2~3명을 데리고 하며 10명에서 40명까지 규모가 다양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을 개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양장점 업주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컸다. 다만, 신문에 실린 양재학원의 기사에 따르면, 1959년에는 약 2~3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양장점을 개업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다.¹⁵⁵⁾¹⁵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양장점 운영을 위한 공간인 점포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은 구술자들이 자신을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필수 생산 수단인 재봉틀 : 양장점 규모

재봉기, 미싱으로도 불리는 재봉틀은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생산수단이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마련한 것이 재봉틀¹⁵⁷⁾¹⁵⁸⁾이었다. 재봉틀을 사용하면 손바느질 보다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할

155) “양재 9개월이면 전 과목을”, 《경향신문》, 1959. 3. 16.

156) 해방 이후 화폐개혁은 세 차례에 전개되었다. 1차 화폐개혁은 1950년 8월 28일에 단행되었다.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으로 등가교환(等價交換)하였다. 2차 화폐개혁은 1953년 2월 17일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30호>에 따라 거래단위의 1/100로 인하를 단행하였다. 즉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100원(圓)을 1환(圓)으로 변경하였다. 3차 화폐개혁은 쿠데타 이후 정부는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1962년 2월 10일을 기점으로 단행했는데, 환(圓)표시의 화폐를 원(圓)표시로 변경하여 10환(圓)이 1원(圓)으로 바뀌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화폐개혁.

157) 식민지 시대만 해도 재봉틀은 미국에서 제조한 싱거미싱을 비롯하여 독일제 재봉틀, 영국산 재봉틀 등 수입품이 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다. 재봉틀은 미싱제조 회사의 대리점에서 판매되었으며, 재봉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조선의 신문사의 각 지국과 협력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재봉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회는 재봉틀 사용법을 알려줌으로써 손바느질 대신 재봉틀로 의복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재봉틀은 한복과 양장을 만드는 데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봉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가정은 재봉틀을 반드시 마련했다. 손바느질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재봉틀이라는 기계가 대신하면서 바느질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으며 편리함 역시 더해졌다. 식민지 시대 조선에 도입된 재봉기계는 가정은 물론, 피복을 만드는 공장이나 내재봉소 그리고 양복점 등에서도 이용되었다. 식민지 시대 재봉틀의 보급과 의생활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조민영(2021), “근대 재봉틀의 보급과 생활경제의 변화”,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58)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의복을 만드는 일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업화 과정에 따른 산업과 전문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근대적인 기계의 발명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실을 뽑는 방적, 옷감을 짜는 직조를 담당하는 방직기계, 손으로 바느질 하던 것에서 재봉틀의 발명을 통한 기계 재봉으로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도록

수 있었기 때문에 양장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했다. 구슬자들은 최소 한 대 이상의 재봉틀을 갖추고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집에서 양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재봉틀이 있으며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봉틀¹⁵⁹⁾¹⁶⁰⁾은 개발된 초기만 해도 남성용 기계로 알려졌다. 재봉틀 제조회사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이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데 적합한 기계로 제품광고를 하면서 재봉틀은 여성의 기계로 의미화되어 정착되었다.¹⁶¹⁾ 이로써 19세기 말에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재봉틀은 여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근대적인 기계이자 상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¹⁶²⁾ 재봉틀의 문제는 가격이 매우 고가라는 점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재봉틀은 재산 품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쟁 동안 피난민들이 갑작스럽게 피난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챙긴 재산 중의 하나도 재봉틀이었다. 1960년대까지도 재봉틀은 부의 상징이었으며 1970~80년대는 혼수품 1호였다. 재봉틀의 가격이 비쌌지만, 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였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렇게 비싼 재봉틀을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여성들이 재봉틀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는데,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쓰거나, 빌리거나, 중고를 사거나, 할부로 신제품을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 부산의 이종수가 만주 안동에서 귀국하자마자 양장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버지가 구한 광복동 적산가옥에 일본인이 버리고 간 재봉틀 한 대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재봉틀이 없었다면 양장을 만들어 팔 생각을 미처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목포의 김경옥은 집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던 재봉틀을 가지고 나와서 의복 수선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대구 방직공장 앞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한 신회자는 양장점을 차린 점포의 집주인이 갖고 있던 재봉틀을 빌려서

하며 세탁에도 영향을 미쳤다.

159) 재봉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식민지 시대 혹은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본어인 미싱과 한국말인 재봉기, 재봉틀 등이 있다. 여성들은 흔히 재봉틀 혹은 미싱이라고 부르며, 재봉기는 좀 더 공업이나 산업영역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봉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160) 우리나라에 재봉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77년부터였다(유희경, 1972: 248쪽)

161) 재봉틀이 보급되었던 초기에는 공장으로 납품되는 것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남녀노동자가 모두 사용하여 성별구분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19세기 중반의 광고에는 재봉틀에 앉아 군복을 만드는 애국적인 캐릭터인 남성이 등장했으나 가정용 재봉틀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이 재봉틀을 사용하는 이미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세기말 서구에서는 재봉틀 앞에 앉은 남성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재봉틀은 여성의 기계라는 것이 자리매김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여성이 재봉틀을 사용하면 성적 흥분(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채 페달을 밟는 행동은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는 생각), 월경 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여성이 재봉틀을 사용할 경우 생식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계의 사용은 여성의 능력 밖이라는 담론이 전파되기도 했다(설혜심, 2017: 131~133).

162) 1980년대를 지나면서 값싼 기성복 공급의 과잉으로,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 직접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이 거의 사라져갔다. 이에 혼수품 중의 하나로 인기를 끌었던 재봉틀은 더 이상 혼수품의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하였다. 신회자는 아침마다 재봉틀을 주인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밤에는 되돌려 주었는데, 비싼 재봉틀의 분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재봉틀의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재봉틀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았다. 이종수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양장점을 운영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낸 적이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돈 대신에 재봉틀 머리를 들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양장점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재봉틀은 아들 친구의 부모가 도움을 줘서 되찾아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집에서 쓰던 재봉틀을 갖고 나오거나 주변에서 빌리거나 중고재봉틀을 구해 사용함으로써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양장점을 열 수 있었다.

재봉틀을 가정에서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여성들은 남들보다 쉽게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봉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고 재봉틀을 구입하였다. 인순옥, 박태선은 중고 재봉틀을 구입하였다. 재봉틀은 수리를 하고 잘 관리를 하면 20~30년 넘게 사용할 수 있고 중고로 되팔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한다. 재봉틀의 가격은 1958년 당시 국산이 4~5만원 정도, 그리고 외국산이 7~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국산에 비해서 외국산이 2배 정도 더 비쌌다.¹⁶³⁾ 1962년에는 재봉틀 중고 한 대 가격은 3천원에서 3천3백원 정도였다.¹⁶⁴⁾

양장점이 보유한 재봉틀의 수는 양장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이유는 양장점에서 재봉틀을 이용해 양장을 만드는 재봉사 혹은 미싱사를 채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재봉틀 1대를 재봉사 한 명이 사용하고, 재봉사를 도와주는 재봉 보조가 2명~3명 혹은 4명 정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양장점의 재봉틀 보유 대수는 양장점의 규모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보고서>에는 의류제조업을 하는 양복점 및 양장점에서 보유한 재봉틀의 수를 조사하여 수록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 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종업원의 수를 '5~9인', '10~19인', '20~29인', '30~49인', '50~99인', '100~199인', '200~499인', '5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4명이 한 팀으로 계산할 경우 '5~9인' 규모의 사업체에는 재봉틀이 1~2대를 보유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양장점은 '5~9인'과 '10~19인' 규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재봉틀의 대수는 2대에서 5대 정도였다. 재봉틀의 수는 양장점의 규모의 부침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술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봉틀을 보유한 구술자는 박부대이다. 박부대는 재봉틀이 10대로, 직원은 40~50명에 이르렀다. 이에 박부대는 공장도 따로 둘 정도였다. 양장점이 상당수가 규모가 작지만, 꽤 큰 규모의 사업체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3) “샅바느질”, 《경향신문》, 1958. 9. 9

164) “5천원 짜리 생업 소자본으로 사는 사람들(4)”, 《경향신문》, 1962. 12. 3.

당시 양장점에서 사용한 재봉틀의 종류는 식민지 시대 인기가 있던 싱어재봉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산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양장 만드는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발틀보다는 모터가 돌아가는 공업용 재봉틀을 일찍부터 사용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사회에서도 부유층에서나 가질 수 있었던 재봉틀이 1950년대 말에 그나마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하였다.¹⁶⁵⁾¹⁶⁶⁾ 한국전쟁이 끝난 뒤 가정용 재봉틀은 물론 모터가 달린 공업용 재봉기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 4-1>을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재봉기는 한 해에 2만7천대가 생산되었다. 195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거의 2~3만대의 재봉틀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봉틀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해 여전히 재봉틀이 수입되었다. 재봉틀을 만드는 제조업은 전후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전반기를 거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¹⁶⁷⁾

<표 4-1> 주요 제조업 제품생산량 : 재봉기

(단위 : 대)

구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재봉기	25,000	25,000	25,000	27,000	27,000	30,600	23,347	23,622	42,977
년도	1959년	1960년	1961년						
재봉기	28,779	22,888	-						

자료 : 상공부(1950~1957년); 농림부·상공부(1954~1961년)

주1) 1956년도에는 재봉기의 생산 대수가 23,347대와 23,388로 40여대 정도의 차이가 난다. 상공부에서 생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960년을 시작으로 1961년과 1962년에는 재봉틀 광고가 엄청난 비중으로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재봉틀의 국내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쿠테타로 들어선

165) 재봉틀은 여성이 가정에서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로 여겨졌으며, 여성의 혼수품 중의 최고 품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재봉틀의 가격은 꽤 비쌌기 때문에 1970년대에 접어들어야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학교에서 가르친 양재교육은 재봉틀 보다는 손바느질과 양장 재봉 위주이었다.

166) 상공부 총무과에서 제작한 ‘기계금속 생산량’에 따르면, 1959년에는 재봉틀이 28,779대가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며, 1960년에는 22,888대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7) 한국에서는 미국산 싱거는 물론 일본산 재봉틀도 많이 사용했다. 일본산 재봉틀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식민지 시기는 자노메(제국미싱주식회사), 브라더(일본미싱주식회사), 미츠비시 등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자노메미싱, 브라더공업, 주키 등이 있다. 일본의 재봉틀 제조기업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고조 시온(2007), “일본 미싱 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형성: 창업자의 인맥과 정보 공유 시스템 형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자본주의 형성사 II: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박정희 정권은 국가의 재건과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산업으로 섬유제조업(혹은 섬유공업)과 재봉틀 제조업에 주력하였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군사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¹⁶⁸⁾ 관련 제작한 홍보물에는 다양한 재봉틀 회사의 제품 광고가 실렸다. ‘아이디알 미싱’의 광고는 “언제나 가정주부의 명랑한 벗입니다!”가, ‘드레스미싱’의 광고에는 “기쁨주고 칭찬받는”이라는 문구가 실렸다. 이외에도 선만미싱제조원에서 생산한 선만미싱이 있다. 이러한 재봉틀 광고는 재봉틀 주 소비자로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2년 재봉틀 광고지에는 “기쁨주고 웃음주고 행복을 주는.....”이라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재봉틀로는 신한미싱주식회사의 아이디알 미싱¹⁶⁹⁾¹⁷⁰⁾, 동양미싱제조주식회사의 드레스 미싱¹⁷¹⁾, 부라더상사주식회사의 브라더 미싱¹⁷²⁾, 선만미싱제조원의 선만미싱 등이 있었다.¹⁷³⁾ 이와 같이 전후 재봉틀 제조의 국산화는 재봉틀 사용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재봉틀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여성들이 양장점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봉틀의 판매방식도 할부 판매가 많았는데, 재봉틀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이자가 더해져

168) 군사정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개최한 산업박람회는 한국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150여동의 건물에 16만5천여 점의 국내 생산품이 진열되었는데, 앞면에 각 재봉틀 회사의 제품을 크게 광고하고 있어 당시 경제정책이 섬유공업과 긴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박물관, 2019: 10).

169) 아이디알 미싱은 1957년 4월에 설립된 아이디알공업(주)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1963년 10월 송내동(당시 부천군 소사읍 구지리, 현재 부천시)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주부9단 필수품 ‘아이디알 미싱’을 아시나요?”, 《생생부천》, 2013. 5. 20.

170) 1959년 5월과 12월에 《동아일보》에 광고가 실렸다. 1960년과 1961년에는 재봉틀 광고의 수가 이전 년도와 비교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1961년에는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회수가 거의 100회를 넘어선다.

171) 1960년부터 동아일보 광고에 실린 <드레스 미싱>은 동양미싱제조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아이디알 미싱과 경쟁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172) 부라더 미싱은 1960년대 생산되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 재봉틀을 생산하고 있다. 1961년 부라더상사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65년에 가정용 재봉틀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에는 한국 최초로 서독에 재봉틀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9년에는 혼수품 1위 품목이 되었으며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했다. <http://www.brother.co.kr/content/content.php?cont=history> (검색 날짜 : 2020년 4월 25일)

173)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재봉틀은 싱거 미싱이었다. 미국의 싱거제조회사에서 제작한 재봉틀인 싱거는 식민지 시대 조선에 가장 먼저 수입되었으며, 우수한 제품으로 인해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독차지했다.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1937년에 싱거재봉틀은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그 대신에 일본산 상품으로 대체되었다. 당시 수입된 일본산 재봉틀은 일본의 재봉틀 업계를 이끄는 자노메를 만드는 제국미싱주식회사와 브라더를 만드는 일본미싱주식회사 그리고 미츠비시였다. 그리고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재봉틀은 군수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재봉틀은 품귀현상을 빚었다(조민영, 2021: 49~50).

작게는 15%, 많게는 30%까지 비쌌지만 상당수의 재봉틀이 팔려나갔다(청계천박물관, 2019: 65).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에 필수적인 생산수단인 재봉틀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국산화가 확대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장점의 역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봉틀은 양장점은 물론 한복 만들기, 샅바느질, 수선 등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의복 관련 일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계였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를 비롯한 원조 국가들은 전쟁미망인에게 재봉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정부 산하의 수많은 여성 관련 기관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봉틀 사용법을 가르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⁷⁴⁾ 재봉틀제조업의 발전은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발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양장지¹⁷⁵⁾의 구비(具備) 방식과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재봉틀 다음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옷감이었다. 양장점 초기만 해도 옷감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옷감은 질이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옷감을 직접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의류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방직공업이 붕괴됨으로써 국내산 직물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고 질 좋은 직물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함께 옷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김수진, 2007: 296~298).

이종수는 자신이 부산 광복동에서 양장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고객들이 옷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김정옥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양장점의 고객들은 시장에서 옷감을 직접 사오기도 하고¹⁷⁶⁾ 선물로 받은 옷감을 갖고 왔다고 한다. 때로는 입던 한복을 뜯어서 양장을 만드는 옷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구제품은 옷감의 질이 좋았기 때문에 구제품을 사서 뜯은 것을 가지고 양장을 만들어 입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장점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구술자들이 양장지 구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여성들도 옷감을 구비하지 않은 채 재봉틀만 가지고서도 양장

174) 재봉틀은 의류 생산이 가정 내의 영역에서 가정 밖의 영역으로 전문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조민영, 2021, 35쪽). 식민지 시대 양복점, 양장점, 재봉소(내재봉소) 등의 등장이 잘 보여준다.

175) 흔히 한복을 만드는 옷감은 포목이라고 칭하며 이를 판매하는 점포를 포목점이라 칭한다. 서양식 의복을 만드는 옷감은 양복지 혹은 양장지라 부르며 통합해 직물이라고 부른다.

176) 옷감을 직접 사서 양장점에 갖고 가서 의복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옷감 광고는 1950~60년대까지도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점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양장점에 옷감을 가지고 가서 맞춰 입었던 구술자 안경숙의 이야기이다.

(양장점은 그때 송옥 다니셨다고 그러셨죠?) 응, 송옥. (왜 송옥만 다니셨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어요?) 소개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데, 송옥 주인이 함경도 여자로 아는 데. 아까 거기 나왔지만, 그 김성흠이라는 친구. 그 저기 또 이은경이라는 친구. 다 거기 가서 해 입었네요, 옷을. 왜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나요. 옷감 내가 주로 그 ‘캐달록(카달로그)’에 미팔군에 ‘캐달록’이 있었어요. 피엑스에서. 양장점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캐달록’은 딴 데서 해 가지고 옷감을 ‘피엑스’에 주문을 하면 그때 돈으로 유에스 달러 한 20불 정도 한 거 같애. 근데 고거 한 20불 정도에 양복 한 벌 값이 되었던 것 같은 기억인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 옷감을 가져오면 그걸 주문을 해서, 인제 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아는 이 통해서 사가지고 오면 그 옷감 가져가서 맡겨 입었지. 그 집 옷감으로 별로 해 입은 기억은 별로 없어. 내가 옷감을 가져가서 해 입었어. (그럼 디자인만 거기서 해 준 거예요?) 공임 받고 디자인만 해줘? 자기네 공임 받지. (디자인은 양장점에서 소개를 해줘요?) 거기서 또 다 책이 있잖아. 그럼 ‘카달록’을 보구서 이런 디자인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덕수궁에서 찍은 내 사진들이 있잖아. 그 거 다 거기서 꼬매 입은 옷이에요. 그거 감은 울이야 그거 다 피엑스 통해서. <안경숙>

안경숙은 옷감을 주로 피엑스를 통해 주문해서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양장점에 가지고 가서 디자인을 고른 뒤 공임을 주고 맞춰 입었다. 안경숙은 일제 시대 태어나 양반 집안 출신으로 이화여고를 다녔으며, 한국전쟁 이후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해 직장생활을 하였다. 당시 피엑스를 통해 옷감을 주문하고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송옥양장점에서 양장을 맞춰 입을 만큼 상당히 멋쟁이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양장점은 고객이 옷감을 갖고 오던 시기에는 옷감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고객들은 양장을 만드는 옷감으로 국산 옷감 보다 외국의 옷감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옷감을 구비하는 것이 양장점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양장지 밀수 단속 기사가 빈번하게 신문에 등장할 정도로 정부의 단속이 엄격하였다. 이러한 단속을 피해 양장점에서는 밀수로 들여온 양장지를 가지고 몰래 양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구술자들 중에서는 밀수로 들여온 양장지를 사용했다고 밝힌 경우는 없었다. 외국 옷감의 유통은 불법거래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1950~60년대 대구에서 밀수로 들여온 양장지를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김옥순은 대구는 물론 부산과 서울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양장점에 양장지를 납품하여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때는 부산 여자들은 미제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가져가. 명품이라고 하면 보따

리 채로 가져가. 부산, 서울, 마산, 대전 다 다녀왔는 데 부산 사람들이 제일 통이 커. 그리고 인정이 가장 많고. 좋은 물건 가져가고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많이 가져가. 서울 사람들은 외상 안하고 그 자리에서 돈 주고. 대구 사람은 수표 없으면 자기 손으로 써주는 개인 수표 써주고 저거 물건 다 팔리면 돈 주고. (...) 부산에서 나오는 물건을 서울에 가져가고 서울에서 샀는 물건은 부산에 갖다 팔고. 부산 뉴테라 거기도 장사 잘 되는 집이 거든. 서울 동대문에서 여기 물건 좋은 거 있다하면 “당신 눈은 멋진 눈인데 그 눈으로 뭘 못 살까. 다 사라.” 그래. 사서 부치고 그 이 내가 부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큰 짐이 들어오는 거야. 거기 일하는 애들이 “아무도 이런 거 할 사람 없다. 대구 사모님 밖에 없다.” 그래. 저거가 다 계산하고 (옷감 길이를) 재고 나는 장사해도 한 번도 (옷)감 길이 재 준 적 없어. 대구는 가기 싫어. 물건 사면서 사람을 무시해. 기분 나빠서 못해. 부산 사람들은 인정스럽지. (김옥순, 『대구방문판매』, 129~130쪽)

1928년생인 김옥순은 해방 이후 대구에 정착한 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수입 옷감을 파는 ‘포목 보파리장사’로 상당한 수익을 남겼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양장지를 “파는 것도 가만히, 사는 것도 가만히”했다고 기억한다. 김옥순에 따르면 부산이나 마산을 통해서 들어온 밀수품이 상설시장이나 양장점과 양복점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¹⁷⁷⁾ 김옥순이 1960년대 초반 전국의 주요 도시를 누비며 옷감 장사를 하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산 양장지의 질이 나쁘고 부유층의 여성들이 수입 양장지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수입된 질 좋은 양장지¹⁷⁸⁾를 갖는 것이 양장점 운영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¹⁷⁹⁾ 김옥순은 양장점이 밀수로 수입된 옷감에 관심을 가진 이유로 흔하지 않은 옷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에 서울에도 물건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 가져간 물건이 그렇게 팔렸어요?) 팔렸지. 서울에 가면은 나까마 하는 집이 있어요. 나까마 하는 집에 가져가면은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팔아. 그러니까 그런 집으로 가야지. 시장으로는 못가지. 빈 살롱은 자기가 감을 귀한 걸 사가지고 비싸게 받을라고 좋은 감을, 다른 데 없는 걸

177) 해방 이후 및 전후 사회에서의 밀수 외래 사치품의 유통과 단속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권미경(2017), “차이와 차별: 한국 근현대 사치 소비의 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78) 양장지는 여성용 양장을 만드는 옷감을 뜻한다.

179) 국가에서는 국내 섬유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기승을 부리는 양장지 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기도 했다. 비싼 수입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비난과 마카오와 일본을 통해서 유입되는 밀수는 국가에 의해서 감독과 처벌을 받았다. 당시 신문에는 경찰이 양장점에 들이닥쳐 밀수입된 양장지를 수거했다는 기사가 꾸준히 실리곤 했다. 국가에서 밀수된 수입 양장지의 관리감독이 심했기 때문에 양장지를 파는 여성들은 경찰의 연행으로 구류를 살지 않기 위해 묘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흔하지 않은 걸 사는 거야. 양장점은 다 그래요. (김옥순, 『대구방문판매』, 151쪽)

김옥순은 부산에 가서 밀수 옷감을 구입한 뒤 양장점에 직접 옷감을 가지고 가거나 거간꾼 혹은 중간 상인인 ‘나까마(なかま)’에게 가져다주었다. 양장점은 다른 양장점에 없는 차별화된 좋은 옷감을 갖고 있어야 고객을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옷감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김옥순은 양장점의 양장지와 관련한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장점마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옷감을 구해주고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김옥순이 언급했던 것처럼, 양장점에 나까마나 김옥순과 같이 옷감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옷감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양장점 운영자가 ‘나까마(거간꾼)’나 옷감 장사가 가진 옷감에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좋은 옷감을 가져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다.

섬유공업이 전후 경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다양한 국산 옷감이 생산됨에 따라 양장점 운영자들은 최신 유행하는 양장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옷감을 구입해 벽에 걸어놓고 고객에게 자신이 원하는 옷감을 골라 양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양장점 운영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 즉 섬유공업의 발전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옷감이 양장점의 실내와 쇼윈도에 걸리기 시작하였다.¹⁸⁰⁾ 섬유산업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에서 대규모의 직물이 원조물자로 들어왔으며 무역은 물론 밀수를 통해서도 수입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여 동대문의 광장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했던 최광원은 전후 1950년대만 해도 섬유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직물시장의 수준은 형편없었다고 강조하였다.¹⁸¹⁾ 가공법이 떨어져 세탁을 하면 옷감이 줄어드는 등 품질이 상당히 나빴다고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옷감의 질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산 옷감의 소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¹⁸²⁾ 섬유산업은 재건기를 거치면서 성장세로 돌아섬에 따라 직물생산이 본격화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직물이 유통되기 시작했다.¹⁸³⁾ 이로써 1950년대 말

180) 섬유산업은 식민지 시대부터 일제에 의해서 공업화되어 대량생산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떠나면서 면방직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한국전쟁으로 방직공업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181) 상공부에서 제작한 <제조공업 생산량>에 따르면, 나일론은 1954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며, 1956년과 1957년에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4년에 나일론직물은 591,124야드였으나, 1956년에는 1,195,521야드로 증가했으며, 1957년에는 4,642,990야드로 1954년과 비교해 8배 가까이가 증가했다. 그리고 1950년대 나일론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정은(2020), “한국전쟁 이후의 나일론 유행과 기업의 행보”, 『전쟁의 유산과 전쟁 이후 경제상』, 한국사학회 학술회의, 2020.12.29.

182) 전후 생산되기 시작한 옷감의 종류로는 면직물(조포, 천도표, 내광목), 인조견, 견직물(본격직, 문호박단, 뉴똥), 모직물, 나일론, 메리야스 등이 생산되었다(고부자, 2003: 245~251)

183) 해방 이후 섬유공업(면방직공업) 혹은 섬유산업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최세양

이 되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생산량을 넘어서고 수출을 하기에 이른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섬유산업의 빠른 재건과 발전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섬유산업은 원조와 정부의 융자 등으로 생산설비를 증설해 전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다. 1956년에는 외국산 면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면방직업의 성장을 도왔다. 그 결과 1963년부터 면방직 상품의 수출 비중이 급증했으며, 1964년에는 50%에 육박했다. 섬유산업은 1950년대 전후 부흥을 이끌었으며, 196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조영준·류상운·홍제환, 2019: 476). 의복을 만드는 옷감을 생산하는 섬유산업의 급성장은 의류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양장점에서는 최신 유행의 옷감을 양장점의 벽에 걸어놓고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장점은 디자인이 좋은 양질의 옷감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다른 양장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차별화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구술자들은 자신이 직접 옷감을 사서 양장점에 걸어놓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옷감으로 여성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옷감의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어떤 옷감을 구비하느냐가 양장점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함에 따라, 구술자들은 시장에 방문하여 옷감을 구입하는 것이 양장점 운영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양장점 운영에서 옷감의 비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구술자들은 고객이 좋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옷감을 구입하러 다녔다. 송용순은 충무로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감과 부자재를 사오고는 했다.

옷감이나 부자재는 내가 직접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사왔어. 직접 구입해서 했지.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었어. 그때는 유행되는 옷감을 그때그때 사왔지. 원단을 잘 골라야 해. 내가 보는 눈이 특수하니까. 어려서부터 옷감을 보는 눈이 특수했다고. 내가 잘 고르고. <송용순>

구술자 송용순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유행하는 옷감을 고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한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가서 양재를 배운 만큼 옷감인 원단을 보는 눈은 남들에 비해서 상당히 탁월했다고 자부하

(1993), “1950년대 한국섬유산업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양화(1995), “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면방, 소모방, 제분고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문석(1997), “귀속 면방직기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은(2006), “1950년대 대한방직협회의 활동과 성격: 원조경제하 조직을 통한 대자본가의 이윤추구 방식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상운(2009), “고도성장기 이전 한국 중소직물업 전개과정, 1910~196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였다. 양장은 옷감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만큼 옷감의 선택이 양장 제작의 성공과 만족에 결정적인 요소를 차지하였다. 지역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구슬자들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지로 옷감을 사러 다녔다.¹⁸⁴⁾ 대구에서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한 뒤 한림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신희자는 옷감을 사러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고는 하였다고 한다. 대구에는 직물공장이 많아 저렴한 옷감을 구입할 수 있어서 방문하였으며, 서울에는 특수 가공처리된 질 좋은 옷감들이 있어 방문했다고 한다. 신희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196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옷감을 구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한다. 이는 전후 1950~60년대 서울, 대구, 부산과 같은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옷감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김경옥 역시 옷감을 구하러 서울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종수는 서울에 이전하여 양장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감을 사왔다고 한다. 김경옥과 인순옥은 지역에 양장점이 있다 보니 매번 옷감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힘들어 남편을 대신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남편이 가져온 옷감은 자신들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졌다고 한다. 구슬자들이 최신 유행하는 옷감을 양장점에 구비해 놓는 것이 양장점 운영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역에 있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옷감을 사러 먼 거리를 다니고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구슬자 박부대는 자신이 옷감을 납품하는 거래처와의 신용 관계로 장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양장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신을 독립하라고 옷감집에서 지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옷감의 값도 말일 결제로 해줬다고 한다.

그 당시에 신화직물 사장님이 밀어줬어요. 요즘은 현금 부쳐줘야 원단을 보내주지만, 그 때는 원단을 막 내가 쓰고 싶은 많은 갖다 썼어요. 그럼 한 달 결재를 말일에 하지. 혹시나 사정이 안 좋으면, 나는 신용이 좋으니까 한 달 더 봐주기도 하고. 그때는 원단가가게가 무슨 직물이라고 해서 몇 군데 댔어요. 다들 내가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남 밑에 있냐, 독립해라.”고 해줬어요. 원단을 밀어줬죠. 나는 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문을 열었어요. 그게 상화의상실이에요. 상화를 몇 년 더 했죠. <박부대, 122~124쪽>

박부대의 사례는 옷감을 취급하는 직물점과의 관계가 양장점의 개업과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부대가 양장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84) 양장점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직접 옷감을 사러 서울 동대문 시장이나 대구, 부산 등지를 다녔다. 그러다가 ‘원단 샘플’인 ‘원단 스와치(swatch, 천 조각, 샘플)북’이 발간되면서 전화로 주문을 해서 받기 시작했다.

1962년에 독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직물점에서 옷감을 지원해주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직물점에서는 양장점이 호황기였으며 박부대가 가진 양재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부대는 직물점의 신용과 지원으로 양장점의 개업과 운영에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추진할 수 있었다. 옷감 역시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술자들이 옷감을 직접 사러 다녔기 때문에 최신 유행과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서 옷감에 대한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 그리고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신희자는 옷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동대문시장에서 옷감장사를 수년간 했던 최광원과 비슷할 정도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행한 옷감의 변화상을 꿰고 있었다.

이게 면인데, 면 종류야. 이게 그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짠 거 같애. 어, 이게. 목면을 짜다가 이거 인조가 나오더라고. 인조가 굉장히 시원해. 그 때는 이거를 가지고 겹옷인 블라우스를 만들었어, 인조로. 인조로 블라우스를 처음 만들고. (그러면 인조가 5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옷감인가요?) 그렇지, 없었던 거지. 그 후에 기계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이거는 손으로 못 만들어. 이거는 육지에서 방직기계로 만든 거지. 대구 어디에 그런 공장들이 생겼잖아,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이게 생산되면서, 요걸로 갖다가 블라우스도 하고 엄청 많이 했어 이거. 하하. 그 다음에 나일론 블라우스가 나와. 나일론, 곰보 나일론이라고 있어. 그 거는이 불에 넣으면 확~ 타버려. 이거는이 서서히 타지만 그거는 나일론이라서 불을 부치게 하면 확 타부러. 그것이 또 신기해가지고이 그 때 당시는 요거는 때 묻으면 삶아야 되고 비누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나이롱은 물에 닿으면 저 더러운 게 기냥 분해되더라구. 비누, 비누 그 때는 비누도 흔하지를 안했지. (...) 60년대 중반. 중반 이후에는 육지서 내통(왕래)하게 되니까, 좀 편리했지. 이제는 우리가 (사러) 나가지. (육지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옷감들이, 처음에는 인조라고 그래, 강화인조가 있어. 여기 이런 거. 요게 그때부터 나온 거야. 이게. <신희자>

신희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옷감의 순서를 목면이 제일 먼저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인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일론이 생산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옷감에 따른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신희자에 따르면, 인조는 불에 서서히 타지만, 곰보 나일론은 불에 매우 잘 타고 물에 빨아도 오염물이 상당히 잘 씻겨나갔으며 옷감의 성질 차이를 잘 설명하였다. 그만큼 신희자는 옷감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양장점의 여주인이었던 구술자들은 양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재료인 옷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옷감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용도에 적합한 양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양장점 운영자들은 옷감 품목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원단, 가공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옷감은 물론 옷감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섬유공업이 발전하면서 옷감의 건

본이 붙은 책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좀 더 쉽게 옷감을 구입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인천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한 박태선은 옷감을 판매하는 포목점에 전화해서 옷감 번호를 대면 해당 옷감을 양장점으로 발송해주었다고 한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옷감을 사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변화했다.

2. 여성 대상의 마케팅을 위한 점포(店鋪)

양장점은 고객이 양장을 주문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성의 소비를 촉구하는 상점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했다. 양장점 운영자는 가능한 많은 여성 고객들이 양장점에 방문하도록 하여 양장을 주문하도록 하기 위한 공간적·시각적 장치를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자들은 양장점이 위치한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시선을 끌고 양장 소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자신의 상점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양장점의 외부와 내부를 마케팅의 요소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가. 양장점을 상징하는 이름과 광고 간판

양장점 간판은 양장점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양장점 운영을 정식으로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양장점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양장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 하나의 양장점이라는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양장점의 이름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의 취향, 성향, 때로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양장점 속에서 자신의 양장점을 다른 양장점과 차별화하는 기본적인 요소였다. 충무로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송용순은 ‘스타싸롱’으로 양장점의 이름을 지었다. 1970년대 중반에 양장점을 닫을 때까지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다. 가게의 위치를 옮기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양장점 이름을 변경할 필요도 없었지만, 양장점의 이름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목포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양장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김경옥은 양장점의 이름을 ‘미미양장점’이라고 직접 지었다고 한다.

(그때 이름은 왜 미미양장점이라고 지으셨어요?) 아름다울 미미가 ‘미’자가 좋더라고. 그래서 미미, 그러니까 에 이렇게 한글로 ‘미미’ 적고 한문으로 또 그 밑에다가 또 이 ‘美美’하고 적고. 그때는 간판쟁이들이 간판을 밑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달아놓고 잉 적더라고. <김경옥>

김경옥은 자신이 운영하는 양장점의 이름을 미미양장점이라고 지은 이유가 양장은 여성의 의복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美)’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판에는 ‘미미’라는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였다고 한다. 김경옥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동안 고객들이 그녀를 ‘김경옥’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양장점의 이름인 ‘미미’를 라고 불렀다고 한다. 양장점의 이름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여주인’을 지칭하기도 했다. 김경옥은 몸이 아파 목포 시내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데 그 일을 양장점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였다. 김경옥에 따르면, 병원장이 수많은 “목포 사람들이” 병원에 전화해서 김경옥의 건강을 걱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전화를 건 사람들이 그녀 이름 대신에 ‘미미’라는 양장점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미미 살았소? 미미 죽었소?”라며 김경옥의 안부를 물었다. 김경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녀를 부르는 호칭의 역할을 하였다. 즉 양장점의 이름이 양장점 주인인 김경옥을 뜻하였다.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양장점으로 이직한 직원들 중에는 ‘미미양장점’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양재기술의 실력을 따지지도 않고 채용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양장점의 이름은 그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어, 양재기술자가 이전에 근무한 양장점의 이름만 듣고도 양재기술자의 실력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장점의 이름이 단순히 양장점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양장점에서 양장을 만드는 기술자의 수준이나 양장의 수준을 포함한 것으로 의 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 ‘주인’을 상징하기도 하는 양장점의 이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어졌다. 구술자 중에는 양장점 주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 등을 담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던 이종수는 첫 번째 양장점의 이름을 ‘연화양장점’이라고 지었으며, 새롭게 이전한 양장점은 영어 단어인 ‘호프(hope)’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글로 이름을 지었다. 이종수는 ‘호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바로 결혼 전요? 이건 이름을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데 그때 남편이 총각 때 우리 집에 왔다가 저 피복할 때 도와줬다고 안해. 도와주는 바람에. (50년도네요?) 음, 그 정돈가? 49년 50년. 육이오 바로 직후니까. (그러면 오십년 한 여름에서 가을 정도 되나보네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 양반이 와 가지고 이 선생 호프 호프가 더 좋다. 호프하면 좋겠네 ‘희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켜주더라고, 니를. 음. <이종수>

이종수는 ‘호프’라는 단어는 남편이 될 사람이 준 아이디어였다고 밝히면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갈등과 한국전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바램을 양장점 이름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전의 ‘연화양장점’이라는 한글 이름에서 영어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미군정기 미군을 통해 부산에 확산되는 미국문화 등 해방 후 조선의 흐름을 파악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종수의 양장점 이름은 양장점 주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바램, 그리고 양장점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 이름을 지은 이종수의 양장점에는 부산에 주둔한 미군부대의 미국인 여성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파주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인순옥은 자신의 양장점 이름을 서라벌양장점이라고 지었는데, 그녀가 서울에서 다닌 양재학원의 이름을 따다. 인순옥의 양장점 이름은 그녀 자신이 서울에서 양재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실력있는 양재기술자임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신희자는 대구에서 운영한 양장점 이름은 꽃 이름을 따서 ‘코스모스양장점’이라고 지었다. 양장점은 여성의 의복을 맞춰주는 곳으로, 여성의 외모관리와 단적으로 관련된 상업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아름다움, 즉 여성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꽃 이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에 돌아온 신희자는 제주도를 지칭하는 옛말인 ‘탐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탐라양장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양장점의 이름으로 자신의 양장점이 위치한 곳이나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제주가 고향인 고객들에게 거리감을 없애고 친숙하게 하는 효과를 냈다.¹⁸⁵⁾ 상업용 간판에 쓰여진 양장점의 이름은 단순한 상호로 그치지 않고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즉 양장점 운영자의 정체성은 양장점의 명칭, 즉 간판에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의 이름은 구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한편 박부대는 대구에서 운영한 양장점인 ‘상화’, ‘상파뉴’, ‘미가’양장점 등 전부 작명소에 가서 지어온 이름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작명이 양장점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에서 행해졌다. 이외에도 양장점의 이름은 구술자에 따라 동일한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점포 이전과 함께 양장점의 이름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양장점의 이름이나 상호는 보통 2자에서 5자 정도로 길이가 짧아 부르기 간단하였다. 누구든지 부르기 쉽고 양장과 관련된 의미를 지님으로써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용어를 선호했다.¹⁸⁶⁾

185) 전후 1950~60년대는 양장점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후 의상실로도 지칭했다. 한복을 만드는 집은 ‘고전의상실’로 불리기도 했다. 양장점의 이름을 통해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결혼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했다. 1977년에 인천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한 박혜영은 ‘미스박 의상실’로 하다가 결혼 뒤 ‘박의상실’로 이름을 변경했다.

186) 다음은 1959년에 운영된 양장점 목록에서 확인한 양장점의 이름이다. 양장점의 이름은 크게 한국어, 한자어 그리고 외국어(영어 혹은 불어)등을 사용하였다. 한국어로 된 상점 이름으로는 나도나, 송이, 우리, 서울, 비둘기(비둘기), 모나미, 진달래, 보리수, 장미, 청포도 등 십여 개 정도이다. 한자어로는 경일, 국제, 고려, 현미, 미림, 백합, 백양, 미진, 신미, 미림, 미려, 중앙, 신신, 신세기, 백화, 은하, 무명, 미원, 호수, 청실, 남성, 동화, 일흥 등 아름다움과 꽃을 칭하는 용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영어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쓴 경우에는 크로바, 바바라, 라

마지막으로 양장점의 이름은 여주인이 생산하는 양장의 상표 혹은 브랜드를 의미했다. 라벨¹⁸⁷⁾이 등장하기 전까지 양장점의 이름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장점의 대중화가 더욱 확산되면서 양장점의 이름으로 만든 라벨을 양장에 부착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양장에 부착된 라벨은 양장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였다. 양장에 라벨을 붙였다고 밝힌 구술자는 박태선이 유일하는데, 1980년대부터 양장에 라벨을 부착하였다.

이 옷은, 이제 우리집에 내가 옷감을 더러 사놔요. 사놓는 데 이거는 이거 두개네요. 근데 어떤 거 하나는 하얀 라벨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한 15년 20년. (근데 옷이 하나도 안상했네요. 이게 맞춤 옷이 옷감이 좋아서 그런건가요?) 옷감도 좋고. 곱게 입고. <박혜영>

박혜영은 자신이 만든 양장에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옷이라는 증표를 남겼다. 라벨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생산한 상품인 양장을 보증하는 것으로, 라벨 자체가 자신의 이름이자 자신이 만든 옷이라는 징표이며 양재사로서의 자부심을 내포했다. 양장에 부착된 라벨은 상품을 제작한 상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양장점의 의미와 질을 나타냈다. 박혜영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오래 전에 맞춰간 고객에게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 데, 라벨이 붙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이 섞여있다고 했다. 이때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옷이면 자신이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구술자 중에는 신문에 양장점 광고를 게재한 경우는 없었다. 당시 규모가 큰 양장점은 신문이나 여성지에 양장점 광고를 실었다. 1945년 이후의 해방기에는 드물었지만 1950~60년대 신문이나 잡지 등 대중매체에는 양장점 광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광고를 통해서 양장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송옥양장점 등 유명 양장점들은 중앙 일간지의 신문에 광고를 냈다. 그리고 지역에 위치한 양장점들은 지역신문에 양장점 광고를 게재하였다. 전후 1950~60년대는 여성들이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 입던 때로,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하도록 양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고가 많았다. 1970년대가 되면 양장점의 정착과 함께 기성복에 밀리면서 광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나. 옷감과 양장을 홍보하는 쇼윈도 혹은 진열창

모드, 보구, 오-케, 파리, 로즈, 시카고, 스마트, 나포리, 스타테라, 뉴스타일, 레디(레이디), OK, 쏘니아, 나이스, 디올, 허리운 등이다. 국내의 지명을 딴 상점명으로는 인천, 서울, 충주, 수원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187) 언제부터 양장에 라벨이 부착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60~70년대인 것으로 예측되는 정도이다.

고객의 시선을 끄는 양장점의 또 하나 중요한 외부 요소는 바로 쇼윈도였다.¹⁸⁸⁾¹⁸⁹⁾ 쇼윈도는 양장점을 집에서 운영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상점으로 독립된 공간에 자리를 잡으면서 나타난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이다. 구술자들은 양장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상점이 가진 옷감과 양장의 진열 방식을 고심하였다. 이종수는 양장 판매를 위한 장치를 구성하는 데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다. 이종수가 쇼윈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부산에서 자신의 첫 번째 양장점인 ‘연화양장점’을 열었을 때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광복동에 위치한 이종수의 양장점 앞을 지나가던 미국여성들은 이종수가 운영하는 양장점 쇼윈도에 걸린 양장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여성들은 쇼윈도에 걸린 양장을 보고 “참말로 좋다”며 그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양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미군부대의 여성들은 이종수의 단골 고객이 되었으며, 자기 부대에 근무하는 다른 미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이종수는 쇼윈도를 통해 가장 자신있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자신의 양재기술 실력과 감각을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부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수는 서울에 와서도 쇼윈도를 꾸미고는 했다.

윈도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윈도우가 있는 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윈도우가 쓰그만하게, 윈도우가 여기서 여 요만치 삼각으로 조그만 해도 옷을 하나 걸어놓는 다던지 옷감을 한두 개 걸어봐도 손님의 눈을 끄는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있던 양장점이 일층이고 아래층인데, 병원은 이층이고 고기에다가 건무주인 의사나 아이는 많아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윈도우를 하나 해주더라고. 이래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바지 같은 걸 걸어두었는데 병원에서 직원 준다고 사 갔어. 그 반바지 같은 거를 해서 좀 모양 있는 거를 걸면은 금방 그 간호원들 활동복이라고 맞추러. 그래서 그걸 보고 댄 병원에서 사 가고 그런 기억도 나고. 아무튼 음, 차츰 차츰 차츰 차츰 좀 어 저 가게가 들어가더라고. <이종수>

서울 혜화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이종수는 쇼윈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양장 판매에

188) 식민지 시기 1920년대 후반부터 신문 잡지에 상점의 진열장을 다룬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쇼윈도’가 일상의 외래어로 완전히 정착했다. 쇼윈도는 1930년대 도시의 가두문화와 상품문화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박은영, 2018: 72). 식민지 시대 경성의 쇼윈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박은영(2018), “1920~30년대 경성의 쇼윈도”,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 CAS한국미술연구소, 71~97쪽.

189) 쇼윈도는 상품을 가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치한 상점의 유리창 혹은 진열장을 말한다. 양장점의 쇼윈도는 주로 새롭게 마련한 최신 유행하는 양장지를 내걸거나 새롭게 유행하는 양장을 입은 마네킹이 세워져있었다. 양장점의 여주인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혹은 유행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옷감과 맞춤 양장을 전시했다. 쇼윈도는 소비문화의 광고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박은영, 2018: 72~73).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옷감이나 양장 샘플 한 두 벌을 걸어놓음으로써 손님의 시선을 끄는 데 확실히 유리했다. 이종수는 양장점의 쇼윈도우에 반바지를 걸어두었는데, 병원장이 직원들인 간호원들의 근무복으로 입히겠다며 구입해갔다. 그 덕분에 다른 병원에서도 이를 보고 따라 사갔다고 한다. 쇼윈도에 걸린 양장 샘플은 양장점 안으로 고객이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장치였으며 이는 곧 화폐 소득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구술자들은 새롭게 유행하는 옷감이나 자신이 새롭게 구상한 디자인의 양장을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쇼윈도에 걸어두었다.

양장점에는 쇼윈도에 전시된 옷감과 양장 샘플과 함께 마네킹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0)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쇼윈도에 양장을 입은 마네킹을 세워 놓음으로써 양장점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시선을 붙잡고자 하였다. 김경옥은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쇼윈도에 세 개 정도의 마네킹을 놓았다고 하며, 박부대는 두 벌 정도의 양장을 만들어서 마네킹에 입혀놓았다고 한다. 쇼윈도에 걸어둔 옷감이나 마네킹이 여성들의 시선을 끌지만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구술자도 있었다. 쇼윈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장점을 방문한 여성 고객들의 입소문이라고 강조한다.

시장 안에서 할 때는 그냥 지금처럼 옷 짝 걸어놔요. 지금처럼 윈도우에다가 두 개 정도 샘플로 내놓으면 그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중적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이 많았지. 그래서 예쁘게 해주면은, 그때는 구전(口傳)이 먹히지. “너희 그거 이쁘다. 야야 거기서 했다.” 그러면서 막 (손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하이틴 인기가 있었어. <박부대, 122쪽>

박부대는 쇼윈도에 양장을 걸어놓으면 그거 보고 손님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옷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결국은 구전(口傳)인 입소문이 장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장점에 왔던 고객이 자신이 맞춰 입은 양장을 맘에 들어 하는 주변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의 여성들을 데려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⁹¹⁾ 한편 이종수는 쇼윈도나 진열장을 통해서 양장의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른 양장점에도 가보고 패션쇼에도 참석하였다. 이종수는 패션계의 대모로 알려진 최경자의 양장점과 양재학원에 가서 최경자가 만든 양장도 구경하고 직접 최경자와 대화를 해보았다.

190) 마네킹은 실제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리얼하게 모방한 것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감각을 자극하며 실제와 환상을 교묘하게 오가는 경험을 제공한다(박은영, 2018: 91).

191) 전후 1950~60년대 양장점의 쇼윈도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물론 신문 잡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 쇼윈도는 옷감이나 양장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진기사로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진기사에는 양장점 실내에 걸린 옷감이나 마네킹이 입고 있는 양장을 구경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다. 양장점 실내의 시각적 배치 방식과 구성

양장점의 내부는 양장을 맞추러 온 여성의 취향과 감각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장점이 1930년대 등장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전후 1950년대 중반에도 양장을 맞춰 입어본 경험을 가진 여성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은 여성이라는 성별에 한해 근대적이고 미국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서울 명동의 유명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곽정희는 양장점 내부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양장점 실내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설비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 당시 양장점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양장점 뭐, 진열장이 있어서 인제 옷감이 짝 진열해 놓고. 진열장을 짝 해 놓고 그 다음에 인제 윈도우 해놓고. 그러고 그 뒤쪽으로 인제 재단사가 재단하게끔 해 놔지. (양재점이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많았죠?) 책 놓는 거는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다가 놓고. (테이블위에 놓고?) 응. (고객 오는 거, 상담하는 점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여자들도 양장점에 많이 있었어요?) 응. 있었어. <곽정희>

곽정희의 기억을 따라가 보면, 양장점에는 실내 진열장에 옷감이 진열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재단대를 두어서 재단사가 옷감을 펼쳐 놓고 재단을 할 수 있었다. 가게와 작업실이 같이 있는 일체형 양장점의 경우 옷감인 양장지를 펼쳐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다이)를 기본으로 재봉틀과 실, 가위, 자 등 각종 부자재가 있었다.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설비가 실내에 갖추어져 있다.

양장점이 여성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었던 것은 고객이 앉아서 디자인을 고르고 쉴 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양장 디자인이 담긴 스타일북 책자였다. 곽정희는 스타일북이 미국의 것도 있었지만 일본서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 신희자와 김경옥은 동대문시장에 옷감을 사러 가면 거기서 스타일북 책자를 함께 사왔다고 한다. 이로써 양장점을 방문한 여성들은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이용하며 양장을 맞추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즉 양장점의 실내에는 고객이 원하는 양장 디자인과 옷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 안으로 여성 고객이 들어서면 우선 최신 유행하는 옷감이 가득 걸린 벽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을 반기는 주인이나 직원의 안내로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양장 디자인이 담긴 스타일북을 구경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고른 디자인에 적합한 옷감을 선택하기 위해 벽에 걸린 옷감을 구경하거나 때로는 옷감을 먼저 고른 뒤 옷감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르기

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피팅룸’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양장은 맞춤 복이기 때문에 고객의 몸 치수를 재거나 가봉한 양장을 착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양장점을 방문해 양장을 맞추려는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성들이 양장을 맞추는 과정은 전후 사회에서 제작된 영화에서도 접할 수 있다. 전후 영화에는 여성들이 양장점을 방문하여 양장을 맞춰 입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데, 영화를 구경하는 여성 관객에게 대리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었다. 영화 《육체의 고백》(1964년, 조궁하 감독)에는 엄마가 운영하는 양장점에 세 명의 딸이 방문해 양장을 맞추는 장면이 나온다. 딸들은 양장점에 들어서자 자신의 몸에 옷감을 대보면서 옷감의 디자인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는 책자에서 양장 디자인을 고른 뒤 ‘피팅룸’으로 들어가 몸 치수를 재는 모습이 이어졌다. 양장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전후 여성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전후 1950년대에 양장점에 가서 양장을 맞춰 입었던 여성들은 당시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화의전을 다니다가 결혼으로 중퇴한 김영지는 당시 양장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양장점에서 취급하는 양장은 가격이 비쌌으며, 서구적인 혹은 미국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 이상은 쉽게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고 말한다. 양장점을 방문해서 양장을 입는 것은 다른 여성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행위이자, 새로운 최신의 유행을 따르며 앞서가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방문해 양장을 맞춰 입는 것이 새롭고 근대적이었던 것처럼,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양장점의 입구 쪽은 주로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양장점의 실내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양장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양장점의 쇼윈도를 통해서 옷감과 마네킹이 입은 양장 샘플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실내에서 양장을 만들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영화 <미망인> (1955년, 박남옥 감독)에는 여주인공은 변화가에 위치한 양장점에서 창가에 놓인 재봉틀을 돌리며 양장을 만드는 모습이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자세히 담겨있다. 이 장면을 통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양장점에 들어가지 않고도 최신 유행하는 옷감과 양장 디자인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장을 만드는 여성의 모습을 양장점 밖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모습 그 자체가 전후 여성의 양장 소비를 촉구하도록 시각적 장치를 배치한 공간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장점은 젠더화된 응시와 신체의 경관화가 이루어졌다. 상점 안에서 양장을 만드는 작업 과정이 노출되는 방식은 여성들의 시선을 끌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일하는 장면은 시각적으로 여성의 노동과 양장이라는 상품을 긴밀히 연결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¹⁹²⁾ 구술자들 중에는 꼼꼼한 바느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면서 상품의 이미지와 브랜딩,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상대

192) 일하는 장면은 움직임에 대한 주목은 물론 생산의 ‘즉각성’과 상품의 ‘신선도’를 보증하여 제품에 신뢰도를 증가시킨다(박은영, 2018: 93).

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양장점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새롭고 근대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양장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양장점은 양장을 만드는 작업장이자 고객을 맞이하고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점포라라는 점에서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공간적, 시각적으로 충족시켰던 공간이었다. 이는 양장을 구입하는 여성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욕망에 준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장점의 내부와 외부가 배치되고 여성들의 새로운 경제활동과 양장문화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B. 자영업주로서 직업적 능력 발휘

1. 여성 주도의 양장점 운영

여성들은 양장을 생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작업장이자 상점으로서 양장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양장점의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장점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특정한 종류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관계망을 활용해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생산수단을 구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가. 독립적·자율적 운영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남성에게 통제를 받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 가족구성원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놓여있었다. 가족은 하나의 생산 단위로서,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가내생산에 참여해야만 했다.¹⁹³⁾ 공장과 같은 산업영역에 진출해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남성 가족구성원과 분리되었지만 공장이나 회사 등 대규모의 사업체에서 대부분이 남성인 사장이자 관리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았다. 여성들은 자본가가 운영하는 공장에 종속된 공장노동자의 위치로서 존재하였다. 여성노동자의 상품가치는 자본가가 원하는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와 달리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여성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사업의 성격을 지녔다. 집에서부터 양장점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나감으로써 여성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관계¹⁹⁴⁾를 통해서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즉 여성은 주도적으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은 양장점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남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에 기반해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구술자들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구술자 중에서 이종수, 김경옥, 신희자, 박부대, 박혜영은 결혼 전부터 양장점을 운영하

193) 가장의 강력한 통제 아래 생산활동이 이뤄졌는데, 생산활동 자체가 남성지배의 기반이 되었다(장정순, 재인용, 14).

194) 그 동안 여성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관심은 남성중심의 조직인 기업에서의 조직문화, 여성의 연결망,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박기남, 2002; 장덕진·황정미, 2003; 이성은, 2005; 황정미, 2010; 김혜선, 2019).

였는데 가족들이 양장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신희자는 고향인 제주를 떠나 대구에서 양장점 개업을 함으로써 가족과는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운영하였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본업의 성격을 갖고 양장점 운영에 참여한 사례는 구술자의 경우에는 없었다.¹⁹⁵⁾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양장점 운영은 여성이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술자들이 양장점을 개업하거나 운영한 시기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가족 내 남성이 부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존재가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구술자들이 결혼을 한 뒤에도 남편들은 아내와는 다른 종류의 직업이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술자들의 경우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통제로부터 일정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과 아버지 등 남성들로부터 공간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주도했다. 여기서 여성 방식으로 운영하는 양장점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짐에 따라 가족노동에서 분리되어 여성의 ‘개별’적인 사업이었다. 구술자 신희자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러한 여성노동의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신희자의 부모는 제주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방앗간을 운영하였으며, 자녀들이 부족한 일손을 보태었다. 신희자가 운영한 양장점은 원가족과는 무관하게 운영하였다. 양장점은 신희자라는 개인 여성의 주도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었다. 여성들은 이전과 같은 남성의 관리와 지배에서 벗어나서 양장점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으로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었다.

구술자들의 남성 가족구성원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구술자들이 남성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였다. 남편들은 양장점에서 필요로 하는 옷감을 비롯해 시설이나 자재 등을 대신 구입해줌으로써 ‘뒷일’을 봐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김경옥과 인순옥의 남편은 옷감을 구입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김경옥은 양장점 운영이 바쁜 가운데 자녀를 출산해 양육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 서울의 옷감 시장에 가서 옷감을 사왔다. 이는 김경옥의 특정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일시적인 지원이었다. 김경옥의 남편은 아내가 주인으로 운영하는 양장점이 자신의 일이 아닌 여성의 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옥의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양장점을 함께 하기보다는 남자로서

195) 남편이 양재기술을 가진 경우에 부부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가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은 1960~70년대에 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복을 만드는 재단과 재봉을 배운 남성 기술인력이 특정한 시기에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양장점에서 재단을 배웠던 남성들은 재봉을 하는 여성과 결혼하거나 전문성은 없지만 아내가 양장점 운영에 일손을 보태는 등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

자신이 하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아내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양장점 운영을 부부나 가족의 사업으로 여기지 않았다. 즉 양장점 운영은 아내의 일로 부부 사이에서도 이해되었다.

남편들은 양장점을 아내인 여성의 공간으로 여겼다. 신희자는 남편이 여성들이 주로 드나드는 양장점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다고 설명한다.

(양장점은 여자가 남편하고 분리되어서 자기 공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다른 거 같아요.) 어. 남자일은 틀려. 근데 자상한 남자들은 여자(아내) 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우리 남자(남편)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웃음) (양장점 운영하실 때 도와준 게 별로 없으셨어요?) 없어, 전혀 없어. 사람(여성 고객)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래. 여자들이 있으면 밥도 잘 못 먹어 (양장점이라는 공간이 여자들이 주로 일하고, 여자들이 손님이고) 그러니까. (여자 손님들이) 있으면 가고 그러더라고. 여자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말하고, 유머스럽게 그렇게 안하더라고.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 그지? 친분있게, 이렇게 다정하게, 근데 우리 애기아빠가 그걸 못하더라고. <신희자>

신희자의 남편은 여성 양재기술자들과 여성 고객들이 주로 있는 양장점에 출입하거나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낮설어했다.¹⁹⁶⁾ 남녀유별이 뚜렷한 전후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몰려있는 양장점은 남성들이 편히 드나들만한 곳은 아니다.

여성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남성이 직원으로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양장점은 여성이 주로 일하는 공간이었지만 때로는 남성 직원이 근무하기도 했다. 구술자 송용순은 남성 재단사나 재봉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있다.

왜 우리 가게에 김복남, 앙드레김도 일하고 그랬잖아. 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집에 왔었어. 취직해서 일 했지. 잘 생겼어. 집안도 좋구. 그렇게 예술을 하라고 하니깐, 그렇게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가 됐잖아. 고생스럽게 일은 해도 그렇게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송용순>

송용순은 나중에 앙드레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남성 패션디자이너 김복남이 자신의 양장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 양재학원을 졸업한 뒤 자신의 양장점에 와서 근무를 한 적이

196) 양장점은 면대면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이다.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대부분 여성으로, 동성(同性)인 여성이 훨씬 더 유리했다. 양장점 운영자는 면대면으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학력을 가진 여성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있다고 한다. 김경옥 역시 건강이 나빠 양장점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서울에서 남성 재단사를 데려온 적이 있다. 양장점에서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직원인 관계가 구성됨으로써,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위계적인 성별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여성이 양장점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의 성 역할 혹은 여성성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혼란스런 경계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구조는 전후 사회에서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여사장>(1959년, 한형모 감독)에서 여주인공인 요안나(조미령 역)는 ‘신여성’이라는 여성 잡지사를 운영하는 ‘여사장’으로 등장한다. 그녀가 운영하는 사무실에는 결혼 안한 젊은 여성들이 관리직에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남성들은 평직원으로 근무한다. 평직원인 남성들은 ‘미혼’의 ‘여사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무실 장면은 여성이 운영자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는 전후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데, 여주인공인 요안나는 주로 사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사장의 역할이 재현된다. 영화 초기에는 잡지사의 사장이었던 여주인공은 남성 직원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사장 자리는 남편에게 넘겨주고, 집에서 양장 대신 한복을 갈아입고 살림을 하는 여성으로 변화한다. 이 영화는 전후 사회에서 사업주체로서 여성의 등장이 남성 부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 남성의 귀환에 따른 여성의 위치는 사무실이 아닌 집이라는 가부장적 지배담론을 생산한다. 영화와 달리 현실 속에서의 구슬자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의 존재가 등장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생업으로서 양장점 운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양장점의 운영 주체로서 ‘여주인’은 양장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였으며 운영하고 관리하였다. 여성들은 양장점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재봉틀과 같은 생산수단을 마련하고 재료인 옷감 구입부터 실이나 가위, 부자재를 구비하였다. 또한 양장의 생산과 판매, 고객 응대 및 관리, 상품 홍보,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양장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점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공장에서는 분업을 하지. 어, 그것은 뭐라고 할까? 기업이 되가지고 주인이 있어서 사람들을 따로 따로 이렇게 시키는 거고. 우리 이런 것(양장점 운영)은 자유업이니까, 자기 자신, 자기가 다 하는 거지. <김경옥>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 운영은 “자유업”으로, “자기가 다 하는 거.”라고 설명하였다. 규모가 큰 공장이나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사장과 직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장은 직원에게 시키는 역할, 즉 관리감독에 제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자신은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스스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본가에 속한 노동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자본가에

게 팔지도 않는다. 자신이 직접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 가치를 직접 증명하는 방식이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자기만의 운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기 고용을 스스로 실현한 사례이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 운영자는 흔히 ‘주인’ 혹은 ‘사장’으로 자신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당시 통계에서 종사상의 지위에 ‘업주’가 있었다. 한편 양장점의 주인은 때로는 ‘마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구술자들은 자신을 ‘주인’, ‘업주’ 등의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종수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채봉틀 머리를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박부대는 양장점의 규모가 커서 세금도 꽤 많이 납부했다고 자부하였다.

종업원이 30명 정도 됐으니까. 미싱이 한 열대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옷을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 뭐. 세금도 많이 냈다 마. 왜냐하면 미싱 한 대에 시다, 마도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있어야 해요. 요새는 미싱 한 대에 하니잖아요. 그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시다 해주는 애 있어야 하고, 꼬매주는 아이 있어야 하고. 최하로 두 사람. 일 욕심 많은 이는 셋. 그러니까 서른 명이 돼죠. 작업장이 한 스무평 정도 됐나. 아래층이 매장이고 작업실은 4층인가 3층인가 모르겠네. 한 번 올라가면 (힘들어서) 혼나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옷 설명해주러 뛰어갔지. 그때는 좋았죠. <박부대, 128쪽>

박부대는 종업원이 30명이나 되는 규모의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하루에 만드는 양장의 수도 많아 세금도 많이 냈다고 강조한다.

영화 <미망인>의 한 장면에는 양장점을 연 여주인공 ‘신’(이민자 분)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던 죽은 남편의 친구인 이성진 사장이 “사업은 잘 되십니까”라고 묻는다. 이 장면은 여성이 양장점 운영하는 것을 두고 ‘사업’이라 칭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상당히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은 흑심을 가지고 말을 건네는 장면이다. 여성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면서도 별것 아니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것으로 여성의 사업에 대한 전후 남성의 이중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집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양장점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다. 양장점은 남성중심적 권력과 분리된 채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의 공간이었다.

나. 사회적 관계¹⁹⁷⁾의 자원화

197)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을 활용한 다. 사회적 관계는 여성이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혹은

여성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조적인 인력으로, 금전적인 자원을 벌리기 위해서, 고객으로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한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지위는 물론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점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원도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지원 대상은 전후 사회에서 국가의 지원 부재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자원은 사회적 관계, 즉 인맥이었다.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즉 양장점 운영에서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¹⁹⁸⁾으로서 활용되었다.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이미 알고 지내는 여성들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았다. 혼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성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구술자들은 가까운 친인척이나 여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양장을 만들었다. 이종수는 고모와 이모의 도움을 받았으며, 김정옥은 언니와 함께, 신희자는 여동생과 함께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이들과는 동업자 성격이라기 보다는 보조적인 지원의 성격이 컸다. 구술자들이 여성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들로부터 보조적인 인력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장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일로 여겨짐으로써, 쉽게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술자들이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초기부터 양장점 운영이 순탈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양장점 운영의 규모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장점이 막 부상하는 시기에 구술자들은 전문적으로 양장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인력을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술자들은 비용 면에서 큰 부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새롭게 맺는 직원, 고객, 거래처, 동료 양장점 운영자와의 관계 역시 주목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 친인척(혈연)을 넘어선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웃, 동창회, 마을, 동네, 지역, 동향 그리고 공동체 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관계는 여성들이 맺는 관계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 사회적 자본처럼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자본으로 활용되는지를 드러낼 때 주로 활용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98) 사회적 자본은 피에르 부르디외가 개념화한 용어로, 문화적 자본이 부모와 그 부모의 관계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자식 세대로 전승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하고 있다(김상준, 2004: 69).

없이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에 놓인 여성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구술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지도 될 수 있었다. 여성들은 여성 가족구성원과 친인척 등 친숙한 관계를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동원하였다.

양장점 운영을 하며 필요로 하는 금전적인 자원을 융통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였다. 구술자 인순옥은 서울에 위치한 서라벌양재학원을 졸업하고 경기도 파주의 기지촌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점포를 마련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 결혼한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특히 구술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은 물론 동성(同性)의 친구들에게 돈을 융통하기도 하였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김경옥은 양장점을 외진 곳에서 변화한 시내로 이전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양장을 만들어 팔아 모은 돈과 같은 여학교를 졸업한 후배에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마련한 밑천을 가지고 좀 더 변화한 위치에 양장점을 장만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부족한 자원을 충원시켜주고 양장점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여성 자영업자의 경제적 실천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 이외에도 여학교를 다니면서 맺은 학연을 자신의 사업에 동원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초기 손님을 양장점으로 불러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때 이미 알고 지내던 친구, 친인척, 그리고 동네 사람들 등 이미 안면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주된 고객으로 설정하여 상점을 운영하였다. 양장점 운영 초기 혹은 양장착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여성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친분과 함께 여성이기 때문에 양장점을 쉽게 방문할 수 있었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자신이 자랐던 마을에서 부모와 알고 지내는 이웃을 중요한 고객으로 삼았다.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지냈던 만큼 가족 관계나 가정형편을 잘 아는 이웃들이 양장점을 쉽게 방문할 수 있었다. 제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포로 전학해 초등학교를 다녔던 김경옥의 양장점은 동네 주민들이 주된 고객층이었다.

조그만 바닥에서 양장점을 하면 다 오지. 그리고 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렇게 다 오지. 그냥 옷을 안말거도 들려서 잘 되나하고 들여다보고. (친구들이라던가 뭐, 학교 다니던, 여학교 다닐 때 알던 분들도 좀 오셨나요?) 다 오지, 왔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똑같이 학교 땡겼는디, 너는 양장점을 해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고, 우리는 너한테 맏기고. 정말로 우리는 뭐했을까 그런 말 이어. 그때만, 그때만 해도이 명절이 닥치면은 애기들도 고운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지 않애? 그러면은 옷 (주문이) 많이 들어와. <김경옥>

김경옥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다 오지”라며, 양장점의 고객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 왔다고 말한다. 김경옥은 “조그만” 목포 바닥에서 양장점을 하다 보니 자신의 집에는 다 아는 고객들이 오게 됐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맡길 옷이 없어도 양장점 운영이 잘 되는지 구경하러 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역의 양장점은 이웃들의 만남의 장이었다는 의미이다.¹⁹⁹⁾

구술자들에게 지역주민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관계망은 동향(同鄕)이었다. 신희자가 대구에서 처음 양장점을 개업하면서 주 고객층을 방직공장의 여성노동자로 정하였다.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주된 고객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제주 출신의 많은 고향 친구들이 방직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고향 마을을 떠나 유동적이고 낯선 도시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하나로서 출신지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희자는 서울로 가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출세하는 것이라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 친구들이 주로 직장생활을 하던 대구의 방직공장 근처에 양장점의 자리를 잡았다. 한편 한국전쟁으로 국민학교를 다니다 중단했던 인순옥은 자금 부족으로 서울에서 양장점 개업하는 것이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양장점 운영을 개업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 혈연관계를 비롯해 동향 출신의 지인,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마을사람,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통해 맺어진 학연 등을 양장점 운영에 자원화하였다. 여성들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느냐가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과 범주를 규정할 수 있었다.

끝으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여학교를 다니며 맺은 동창이나 동문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닌 구술자 송용순과 김경옥은 동성(同性)관계를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송용순은 학교 동문을 양장점의 주요한 고객으로 포함하였다.

고객은 하이 레벨(high level)이지. 우리 친구들은 다 수준이 높지. 그때 친구들이 와서 내 것 좀 해줘. 그러면 나는 명동으로 가라고 그랬지. 근데 하도 졸라서 해줬지. (...) 나는 억지로 해줬다고 하하하(웃음). 레벨이 정말 최고야. 친구들이 의사 부인, 약사 부인, 자기도 약사인 친구. 동창 중에 의사도 있고 다들 최고 레벨들이야. 우리 학교 다. 황해도에 여학교가 여러 있는 데 우리 학교가 최고야. 서울 경기여고하고 맞먹어. 평양 서문고녀하고 우리 학교가 최고지. 해주여고라고 하면 이거야, 이거. 알아주거든. <송용순>

송용순은 자신이 운영하던 양장점에 친구들이 많이 방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해도에서 여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전쟁으로 월남했던 송용순은 타향인 서울에서 양장점을 운

199)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범위였기 때문이다. 친족 관계에 있는 이웃은 매우 돈독했다(김주희, 1992).

영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가진 관계 중에서도 학연을 적극 활용하여 양장점이 자리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송용순은 친구들이 찾아와 해달라고 졸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용순의 말 그대로 그녀의 양재기술의 재능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같은 여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이점이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완전히 낯선 곳에서 양장을 만들어 판매하던 송용순은 동향 출신의 친구들이 그녀의 양장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서로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고객들은 송용순의 양장점 운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여성들은 지역의 명문여학교를 졸업한 후 동창회 모임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곽정희는 한국전쟁으로 피난지에서 공부하고 서울여상을 졸업함으로써, 학교를 다니면서 끈끈한 친구관계를 맺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장점 운영에 학교를 통해서 맺어진 친구들이 고객으로 방문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곽정희가 1950년대 중반부터 명동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면서 양재기술을 익혔지만 특수층을 상대하는 고급 양장점인 ‘살롱’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살롱은 이미 정해진 상류층의 고객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술자들의 서사는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 여성 중심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크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여성의 우정이나 자매애는 공적영역에서 의미 부여와 의미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영화나 소설 등 대중적인 재현물은 여성이 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남성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얻는 것으로 빈번하게 재현된다. 영화 <미망인>에서는 여주인공이 죽은 남편의 친구인 사장으로부터 양장점 사업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오며, 돈을 빌려준 사장은 끊임없이 여주인공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나온다.

구술자들은 자신이 가진 인맥인 사회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이라는 ‘공적 세계’에 진입했다. 양장점에서는 주문형 맞춤 양장을 생산함으로써 면대면의 관계가 전개되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구성된 관계는 양장점 운영에 필요한 자원으로 다시금 동원될 수 있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형성과 재편은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지속적인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여성들은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는 관계에 전통적으로 제한되었던 것에서 양장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고객들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에게 정보와 자본 등을 제공해주었다.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 관계는 양장점 운영을 하는 데 필요불가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2. 숙련된 양재기술의 보유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양장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양재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자신이 가진 양재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 하면서 의미화 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여성 고객이 원하는 양장을 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에는 무엇이 강조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지속적인 양재기술의 개발과 훈련

양재기술은 양장점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였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 중에는 양재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었지만²⁰⁰⁾, 구술자 중에서 양재기술을 갖지 않고 운영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양재기술의 습득은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능력 중의 하나였다. 구술자들이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결심했던 계기도 자신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양재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성이 양장점의 운영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양재기술이 위치한다. 그리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양재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양장을 만들거나 양장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속적인 혹은 통제를 받는 방식의 노동을 수행할 필요도 없었다. 구술자들이 전문적인 양재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해야만 했다.

우선 양장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자 만들면은 일단은 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가봉을 하거든 입혀 보고, 원칙은 광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입혀보는 게 원칙인데. 이중 삼중이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광목을 가지고 만드는 게 원칙, 학교는 그렇게 가르켜. 일단 모형을 한 번 만들어서 (몸에 한 번) 걸쳐 보고 그것에 의해서 재단을 하는 데 그 단계를 좀 빼버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지(옷감)에다가 바로 그리지. 우리는 익숙하니까, 본질을 그려서, 그 사람의 사이즈를 재서는 본질을 그려서, 그 다음에 본질을 그린 거를 (옷감에) 대 가지고, 기지에다가 바로 재단을 해서, 재단 한 거를 실표를 하지. 울(모직) 같은 거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인) 감은 초크로 그리고 (···) 가봉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시침실로 갖고 시쳐 가지고 (한 번) 입혀 보고 그 다음에 박아서 중간 가봉을 하고, 세 번째 완성해. 그렇

200) 식민지 시대부터 성장한 양복점은 운영자와 기술자의 구분 정도가 컸다. 이에 양복점을 운영하는 경영자와 기술자의 모임이 분리되었다. 이와 달리, 양장점은 운영자와 기술자의 분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게 꼼꼼하게 했어. 중간 가봉은 그거를 시침질을 해서 감을 재단한 거를 한 번 입혀 보고, 대충 인자 마 되겠다 하는 거를 관찰한 후에 재봉을 해 가지고, 중간 가봉이라고 해요. 중간 가봉을 한 번 더 하거든. 그래가지고 완성을 시키면은 딱 맞아 떨어져. 두 번은 저 미싱질을 해도, 처음에 한 번은 손으로 시침질을 해 가지고 가봉을 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마무리지. 마무리. 완성,마무리. <이중수>

구술자 이중수는 양장을 만드는 일련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양장을 만드는 순서는 꽤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요한다. 우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옷감을 고르면, 고객의 몸 치수를 잰다. 그리고 옷본을 만든 뒤 옷감에 초크로 표시를 해서 재단을 하고 이를 자른다. 그리고 손바느질로 시침질을 해서 1차 가봉을 한다. 고객이 입어보고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치수를 다시 조정하고 미싱으로 옷감을 박음질한 뒤 2차 가봉을 한다. 두 차례의 가봉을 거쳐서 양장을 완성하기 때문에 양장의 제작 기간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전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장점 역시 분업화된 구조로 양장을 제작한다. 구술자곽정희에 따르면, 양장의 제작 과정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재단사가 재단을 하고 나면, 미싱사가 재단한 옷감을 받아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서 완성한다고 설명한다. 양장점마다 제작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혼자서 양장을 만들면 완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싱사와 시다를 두고 분업화된 방식으로 양장을 만들었다. 양장을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완성된 양장을 찾아갈 수 있었다.

양재기술은 양장을 만들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뜻하는 데, 주로 재단(裁斷)과 봉제(縫製)으로 구성된다. 양장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자 중요한 단계는 재단이다. 재단은 양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기술로, 양장점의 분업 구조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전후 사회에서 양재기술 중에서도 재단기술을 가진 여성들이 주로 양장점 운영을 시작할 정도로, 재단은 양재기술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 때문에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주로 재단을 맡았으며 바느질이나 봉제, 밀일은 재봉사와 시다를 채용해서 분업화된 방식으로 양장을 제작했다. 곽정희는 처음 들어간 양장점에서 주인은 미싱은 전혀 하지 않고 재단만 했다고 한다. 주인이 재단만 했다는 것은 양장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도의 기술임을 뜻한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 제작 과정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양장점 주인이 도맡아 하는 단계는 재단이다. 양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마름질’이라고도 부르는 재단(裁斷)의 단계는 고객의 몸에 맞춰 그린 옷본을 옷감에 표시하고 가위로 옷감을 자르는 기술을 뜻한다. 재단은 흔히 양장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도의 기술로 알려져 있다. 양장점에서 주인이 재단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사를 별도

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았다. 재단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하고 고객의 몸 치수에 맞게 옷본을 그려 옷감에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양재기술 중에서 재단기술이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옷감에 옷본을 표시하고 옷감을 잘라내는 과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옷감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재단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단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완성된 옷이 고객의 몸에 맞지 않아 다시 수선을 하거나 옷감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단사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은 옷감의 가격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옷감의 손실을 막고 남은 옷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재봉은 잘못 박으면 뜯어서 다시 할 수 있지만 한번 자른 옷감은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의 과정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재단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구상하고 옷감을 재단에 맞게 정확히 자르고 옷감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장점 주인이 재단을 담당했다.

곽정희는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가 재봉틀로 봉제기술을 배웠으며 가장 나중에 재단기술을 익혔다고 한다. 재단기술까지 배우고 난 뒤에 양장점 개업을 했다고 말한다. 개업한 뒤로는 자신 역시 재단만을 주도적으로 했으며 나머지 일은 직원들이 맡아서 했다고 한다.²⁰¹⁾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다녔지만 양장점에 시다로 들어가서 재봉을 배웠고, 재단학원을 졸업한 뒤 양장점을 차렸다. 그 때부터는 직접 재단을 도맡아서 했다. 양장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재단을 배우면 양장을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익히는 것이 된다. 재단기술을 익혔는지의 여부가 여성이 양장점을 개업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된다.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봉틀을 사용해 재봉하는 기술까지는 배울 수 있지만, 재단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구술자들이 재단기술을 배운 방식을 살펴보면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은 일본유학이나 여학교를 다니면서 재단하는 법을 배웠으며, 곽정희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복을 직접 만들어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장점에서 재단기술을 배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인순옥은 서울 라사라양재학원을 다니면서 기초를 배우고 학원에 초빙된 명동의 유명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재단사들로부터 재단기술을 직접 배웠다. 신희자는 대구에 위치한 양장점에서 일하는 동안 재단학원을 등록해 재단기술을 배웠다. 박혜영 역시 재단사로부터 재단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구술자 중에서 재단을 양장점에서 배운

201) 당시 테일러의 맞춤양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양복점에서 무보수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6~7년 정도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유일했다. 심부름 과정을 거쳐 하의 기술자가 되는 데 3~4년, 상의 기술자가 되는 데 3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신의 노하우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양복업계 분위기로 테일러들 간에 기술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간에 기술격차가 심했다. 그리고 1960년대 양복점들은 양복기술이 없는 경영인들이 기술자를 고용해 경영하는 곳이 다수였으며 월급제로 다른 업종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다. 이후 1970년대 테일러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복점의 수가 증가했다(류웅현, 2018).

사례는 없다.

또 하나 양장점의 여주인이 재단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재봉이나 밑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재단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여주인들이 직원들보다 높은 양재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양장점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자에 대한 존중과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공간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재단기술을 가진 기술자는 자신의 숙련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 숙련된 양재기술을 가진 양장점 주인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양장점 운영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구술자들이 자신의 양재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양재기술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닐뿐더러 기술을 습득하여 숙련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장점을 바로 개업한 구술자와 달리, 양장점에 취업해 기술을 익힌 뒤 양장점 개업을 했던 구술자들이 기술 숙련을 하는 데 들인 시간을 보면 양재기술의 습득이 긴 시간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손, 발, 눈 등 몸의 감각을 동원하며 오랜 시간 양재기술을 익혀왔다. 구술자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몸으로 습득한 양재기술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다.

곽정희는 19살이면 숙련이 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모든 양재기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 1961년에 양재학원을 졸업한 인순옥이 양장점 개업을 한 것은 3~4년 뒤였다. 신희자는 양재학원을 1955년에 들어가 1년 정도를 마친 후, 2년 후인 17살에 서울 ‘제품집’에 ‘시다’로 취직했다. 다시 대구 양장점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재봉사로 올라가서 재단학원을 다녀 양재기술 전체를 배웠다. 신희자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22살인 1962년이었다. 곽정희는 6~7년 가까이 양재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물’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박혜영도 십대 중반에 양장점에 취업한 뒤 1976년에 개업을 하였으니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재기술을 익혔다. 양재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모든 종류의 양장을 만들 수 있어야만 했다. 기본적으로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바지, 코트와 그밖에 수영복이나 임신복 등도 만들 수 있어야 했다. 양복을 배우는 기술자들은 와이셔츠, 조끼, 자켓으로 구성된 상의와 하의를 만들면 되었는데, 하의인 바지를 만드는 기술만을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남성의 양복은 유행에 덜 민감하지만 여성의 양장은 디자인이 다양하고 유행의 변화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 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디자인의 변화도 급변했다. 이는 양장을 만드는 기술자들도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장 맞춤복을 주문한 여성 고객이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완성된 양장이 자신의 몸에 잘 맞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맞춤복인 양장의 치수의 기준은 여성의 몸이었다. 여성 고객의 몸에 딱 맞는 양장을 만드는 것이 양장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양재기술

중의 하나였다. 광정희는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몸에 딱 맞는 양장을 선호하였으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장에 주름이 잡혀서는 안되었다고 기억한다.

지금은 조금 뭐 울어도 괜찮고 그냥 뭐 혈령하게 해 가지고. 그때는 딱 맞고 이러니까. 이런 데 조금이라도 주름이 가거나 그러면 안된다고. (웃음) 옷을 해 놓으면, 딱 걸어놓으면 카라가 쫘 이 짹하고 짹짹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 보면 짹짹이야. 그래서 애들이, 아줌마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데. 나는 보면은 벌써, 내가 딱 잡거든.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데, 날 보고. 카라가 여자들이 이쪽, 이거를 이렇게 단추를 채우니까. 이쪽 카라하고, 이쪽 카라를 좀 작게 해야 돼요. 카라를 뒤집어 가지고 좀 찢라내야 돼요. 그래야 이쪽 카라하고 이 넘어가는 게 똑같이 보이지. 똑같이 해가지고 달아 놓으면 한쪽이 찢그러진다고 그 이치를 모르는 거야. 우리 할 적에는 벌써 그게 다 그게 다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눈에 딱 뛰지. (...) 지금은 이렇게 커두 괜찮구. 어디가 이렇게 접혀두 괜찮은데. 옛날에는 딱! 맞아야 된다고. 조금만 주름쳐도 안돼. 조금만 주름 쳐두 다 고쳐서 입어야 돼. 고쳐야 돼요. 그때는 기성복이 없으니까, 아주 몸에 딱 맞게. <광정희>

광정희는 완성된 양장이 조금이라도 안맞아 주름이 생기면 뜯어서 다시 만들 정도로, 전 후에 여성 고객은 자신의 몸에 “아주 딱 맞게” 만든 양장을 선호하였다. 광정희는 ‘짹짹’로 만들어진 옷을 빈틈없이 찾아낼 수 있었다며 남다른 자신의 능력을 강조했다. 만들어진 양장을 한 번에 보고 앞뒤좌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였다. 그만큼 옷의 균형이 잘 맞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양장을 제작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긴 기술은 바느질이었다. 양장점의 수준 차이는 옷감의 질이나 디자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느질이었다고 한다. 고급 양장점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 역시 다름 아닌 꼼꼼하고 튼튼한 바느질이었다고 한다.

양키시장 양장점을 갔어, 내가. 완전 고급이더라고. 거기 미싱사로 갔는 데, 야 거기는 미싱이 좀 확실히 수준이 있고이, 좀 까다롭더라고. 미싱을 박는 것도 정확하게, 멋지게 안 나오면 안돼. 내가 코트 하나를 완성하는 데 뜯으라고 몇 번을. 그때 경험했어. 거기는 경하더라고. 그래 거기서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우리 아픈 오빠가 와라, 오면은 내가 양장점 차려주마 해서 그때 (제주에) 돌아왔어, 22살에. <신희자>

신희자는 대구의 ‘양키시장’에 위치한 양장점에 취업을 했는 데, 자신이 완성한 코트를 두고 양장점의 주인이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바느질을 뜯으라고 해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 회상하였다. 양장점에서 양장의 바느질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옷

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한복은 품을 넉넉하게 만드는 대신에 바느질이 의복의 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구술자보다 가장 늦게 양장점을 시작한 박태선 역시 고객들이 무엇보다도 꼼꼼한 바느질을 최고로 쳤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양장 역시 손바느질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양장을 만드는 데 손바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술자들은 고객의 몸에 딱 맞고 꼼꼼한 바느질로 만든 양장을 만드는 것이 양재기술의 하나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양재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객이 입기 원하는 날짜까지 양장 제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송용순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까지 옷을 만드느라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고 강조하였다. 고객들은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 등 중요한 일정에 양장을 입기 위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송용순은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고객이 양장을 찾아가기 원하는 날짜에 맞춰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양장점 운영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게 된 이유도 고객이 원하는 날짜까지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재봉틀을 관리하는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었다. 재봉틀이 고장이 나면 전문수리기술자를 불러 수리를 하였다. 바늘이 부러져서 교체하거나 재봉틀에 낀 옷감 먼지를 제거하고 기름칠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등은 양재기술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관리였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까지 양장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재봉틀 수리기술자가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숙련된 양재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술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양재기술을 향상시켜왔다. 여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양재교육을 배웠던 김정옥이나 이종수는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양재기술이 부족함을 느끼곤 했다. 양장점을 운영하던 초기만 해도 양재학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연습을 하여 숙련된 양재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뭐꼬? 중간에 학교를 다녀서 그거 한 보다, 상당히 내가, 그러니까 독학이야, 완전 독학이야. 예,, 독학이지. 독학이지. 이거는 뭐 전문학교를 갔나? 어디를 갔나? 다만 선생이, 일본 선생이 그 기초를 배와 준(가르쳐준) 그거를 쪼금, 기초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에 그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종수>

이종수는 식민지 시대 만주 안동에서 일본인 여교사에게 기초를 배웠지만, 자신의 숙련된 양재기술은 ‘독학’으로 익혔다고 강조한다. 김정옥은 양장점을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만 해도 경험이 많지 않아 자신감이 없었지만, 단체복 납품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양재기술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양장점을 시작한 뒤 한참 뒤에도 서울에 있는 양재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최신의 양재기술을 배우고 숙련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종수는 1980년대에 일본의 문화복장학원에 등록해서 기술을 더 익히고자 하였다. 구술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의 뒷받침 속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될 수 있었으며, 몸에 체현된 양재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구술자들이 양재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의복이 무척 귀한 시절에 양장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나. 디자이너로서 유행 감각의 창조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 고객들이 최신 유행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양재기술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감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앞서 살펴본 ‘기술적 능력’ 못지않게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최신 유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감각적 능력’이 필요하였다. 남성의 양복²⁰²⁾이 정해진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몸에 얼마나 잘 맞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면, 여성의 양장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이 때문에 구술자 박혜영은 양장점은 디자인을, 양복점은 기술을 더 중시함으로써, 양복을 만드는 테일러의 양복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여성의 양장에서 디자인이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양장의 대중화가 확대되면서 최신 유행의 디자인을 입으려는 여성 고객들의 욕망이 더욱 확대되었다. 당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재단과 재봉은 물론 디자인까지 양장 제작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변화하는 유행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었다. 구술자들은 최신 유행의 디자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서 수입된 패션서적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 데, 언제쯤 어디에서 보신 건가요? 양장점에서 일하실 때 보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양장점 운영할 적에도 사다가 했지. (동대문시장에 가세요?) 응. 책을 사 왔지. (그때는 동대문 말고 이런 패션 책을 살 데가 없었나요?) 주로 거기서 팔어. 거기 있지. 옷감 끊으러 가면 거기에 책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도 많아. <곽정희>

202) 양복점에서 테일러들은 양복 전체를 손으로 해서 입체감을 주는 수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이 좋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측면이 장인 정신을 구성한다. 장인은 고숙련, 고수입, 경력이 풍부한 경우를 뜻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최근에 수입된 외국의 스타일북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스타일북은 디자인과 함께 재단법이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유행의 양장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스타일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객들도 많았기 때문에, 최신의 스타일북을 양장점에서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고객들이 항상 스타일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스타일북에 나와 있는 디자인에서 변형을 원하거나 잡지에서 본 사진을 가져와 그대로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 제목을 말하며 그 영화에 나온 여배우 누구의 양장처럼 해달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구술자들은 스타일북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다음의 사례는 양장을 만드느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디자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다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어무니, 나중에 왜 내가 그 YWCA 옆에 있을 때는 어무니가 밤에 낮에 고단하게 서서 일 하고 밤에는 자라 자라 하면 예 그래놓고, 어머니 눈 속여 갖고 그 앞에 이 저 병원이 있었어. 그 병원 간호사하고 모르게 저 영화관에 가 갔고 그 간호사가 지금 일본에 가서 살아. (그 당시에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나 한국 영화 보면은 양장 옷을 입은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나오지. (그게 옷 만드실 때 도움이 되요?) 도움이 돼. 언제 누가 입은 거,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 그러고 (그럼 영화를 필요에 의해서라도 보셔야겠네요?) 거기 저 해당하고 목포에는 목포극장이 있고 평화관이 있고 저그 나가든 시민극장 있고 원진 극장이 있고 꽤 많아. <김경옥>

김경옥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고단하지만 어머니 눈까지 속여 가며 친구와 영화를 보러 다녔다. 영화를 보러 다니는 것은 고객이 방문해서 영화에서 어느 배우가 입는 양장처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옥은 목포시내에 위치한 목포극장, 시민극장 등 영화관의 이름을 지금도 잘 기억할 만큼 영화구경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몸에 딱 맞고 꼼꼼한 바느질은 물론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을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에 얼마나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시대에 맞는 여성 고객의 욕망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했다. 이는 곧 당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어떠한 외모 혹은 아름다움을 갖기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전후 1950~60년대 양장점에서 제작한 양장의 종류로는 블라우스, 스커트, 자켓, 원피스, 코트 등이었다.

그 대신에 바느질이 밀렸어. 그래놓으니까, 재봉틀로 해도 옷을 맞추러 엄청 많이 왔어, 그때는. 제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옷을 해 입었어요?) 블라우스, 바지, 치마,

블라우스, 거의 블라우스야, 위에 블라우스. 원피스도 하고. 그런데 주봉(바지)은이 쓰봉(바지)은이 나중이라야 나중에 판티롱 나오지, 맘보바지다 요렇게 거냥해서 입었지, 거의 치마 입고 원피스 입었어. <신희자>

제주의 신희자는 양장점의 인기가 많아 일거리가 쌓여있었는데, 주로 블라우스, 치마, 원피스 그리고 나중에 바지가 인기를 얻어 주문이 늘어났다고 한다.

(주로 어떤 옷을 만들었어요?) 뭐 그때는 단조롭게. 원피스를 주로 많이 입을 때고 블라우스, 스카프(스커트) 그리고 외출복은 어데 근무하던지 하면은 슈츠 투피스지. (주로 고객은 어떤 여성들인가요?) (부산에서는) 직장 가진 여성이 많았고. 가정주부들은 대개 서울에서 온 부자들, 서울에서 온 부자들이 많았고. 음 역시 서울에서 온 부자들은 음 역시 돈을 쓰더라고 응. <이종수>

이종수는 부산에 있을 때는 블라우스, 스커트, 슈츠(정장), 원피스 등을 주로 만들었으며, 서울로 양장점을 이전한 뒤에는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를 많이 만들었으며, 외출복으로 입는 투피스 등을 주로 만들었으며, 목포의 김경옥은 치마, 블라우스, 코트를 위주로 만들었다. 1944년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복과 같이 딱딱한 남성적인 스타일이 유행하였지만, 전후 1950~60년대는 여성다움을 강조한 디자인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유행은 한국에도 들어와 여성들 사이에서 블라우스와 스커트, 원피스와 같은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양장이 인기가 많았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들이 원하는 양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양장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구성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하는 감각적 능력은 양장을 통한 여성 적합성을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능력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사회적 배경과 양장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은 식민지 시대 여학교를 다니며 좋은 집안 배경에서 근대를 경험하고 일정한 문화자본을 가진 여성들이었다.²⁰³⁾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구술자들은 자신을 기술자로서 정체화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이외에도 예술적 감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송용순과 이종수는 양장을 만드는 것을 ‘예술’이라고 의미화하며, 양장 제작은 곧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송용순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혼 전부터 옷감을 사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보는 눈이 남달랐으며,

203) 김옥순의 경우 식민지 시대 만주에서 넉넉한 가정환경으로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옷감을 사서 직접 옷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옷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고급’ 옷감은 양장점의 차별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이은정, 2019: 26~27).

일본에서 양재를 공부하는 동안에도 일본 여자애들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송용순의 자신의 양재기술에 대한 설명 방식은 자신은 이미 남들과 다른 조건에서 교육과 많은 경험을 가짐으로써 양장을 만드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종수 역시 어린 시절 일찍부터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일본인 초등학교를 다녔다. 만주 안동에서 일본인 여교사에게 양재를 배웠으며 부산에서 양재학원을 설립하고 사범대에서 양재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만큼 양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 수 있었다. 이종수는 변화하는 유행과 양재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최경자의 문화복장학원을 방문해서 최경자와 대화를 나누고, 노라노의 패션쇼도 구경하러 다녔다. 이와 달리 인순옥과 신희자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재봉틀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한복을 입으며 근대경험과 거리가 있었던 삶의 과정은 구술자들 사이의 차이를 낳는다.²⁰⁴⁾ 이와 같이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 제작과 관련한 기술, 유행, 지식을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서울이나 대도시의 양장점 거리, 양재학원, 패션쇼, 영화,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써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재 관련 지식을 자기 스스로 습득하고 상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양재관련 지식 생산에 참여하였다.

여성 고객들은 양장점에서 외출복을 위한 최신 유행의 양장만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양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중에는 자녀에게 필요한 의복도 있었다. 김경옥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객이 어린 자녀의 하체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에 적합한 속옷으로 자신들이 여학교를 다니며 입었던 ‘구르마’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적이 있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이 말로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했다. 양장점은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복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양장점은 이러한 역할은 와이셔츠, 상의(조끼를 포함한), 하의 등만을 제작하는 양장점과는 그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양장점을 운영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양재기술은 물론 창의적인 감각²⁰⁵⁾과 고객응대 등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다. 구술자들은 양재기술에 기반해 재봉틀을 사용하

204)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 생산과 양장점 운영 전반을 익히는 것은 물론, ‘손끝기술’의 습득, 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 경험적 지식, 사회적 숙련, 이론적 지식 기반, 문제해결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다(전명숙(2013), “제7장 섬유와 공예부문 여성명장 사례”,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13~454쪽).

205) 구술자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 등은 양재기술을 배운 상태에서 양장점 운영을 시작했으며, 여성 양장의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야 했다. 이와 달리 양복은 양복기술자 수요가 많았던 만큼 하의기술자와 상의기술자로 나뉘었다.

는 기술적 실천과 최신 패션 유행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등 기술적 지식을 함께 활용하는 존재였다. 도구나 기계를 활용한 여성의 손 중심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노동과정에서 실천하는 기술자의 기술개발, 지식생산, 그리고 유행 및 디자인 생산 등을 수행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기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양재기술에 대한 정보과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

그림 같은 거는 내가 가르키면서 그렸지.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몰라. (일본인 선생한테 배우진 않으셨어요?) 안했어. 그 후에 내가 가르키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양장점을 하면서 스타일북이 있잖아. 북(책)을 보고 그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배우지도 안했어 우리는.... 옷이 있어. 옷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입은 거. 옷 보고 요렇게 해달라고 하지. 무슨 스타일북이(웃음). 옷을 보고 내가 입었잖아 아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지(웃음). 지금 주먹구구식이지. 그때는 주먹구구식이지, 뭐가 스타일북 이런 거는 전연. 우리가 개척자와 한 가지야. <이종수>

이종수는 비록 일제 강점기 양재기술을 배웠지만 디자인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스타일북을 보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는 스타일북도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한다. 양장을 만드는 방법과 디자인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고객의 취향과 욕구를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 개인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양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익혔다.

3. 직원과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능력

양장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들은 양장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양장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해서 양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했으며, 양장점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면대면으로 양장을 판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 운영은 상품이 양장을 만드는 것이지만, 직원과 고객 등 사람을 상대해야만 했다.

가. 고용주로서 분업화된 방식의 노동 구성

양장점이 번성하던 시절인 1950~60년대는 양재기술자를 채용하여 양장을 생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양장점이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임금을 주고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뜻한다. 양장을 만들기 위해서 채용하는 기술자는 옷을 만드는 전 단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분업화된 단계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양장점 문 앞에 ‘사람 구함’을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구하기도 하였다.

이종수는 양장점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양장점 밖의 윈도우에 종이에 써서 붙였다.

(혼자 하셨어요?) 아니지요. 인자 그래 되면은 인자 붙이니까 사람이 오데! 유리창에다 붙였지요. 고용한다고 붙이니까 사람이 오더라고. 기술자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온 사람들한테, 아니 그 주문 받을 때, 여유를 주세요. 많으니까. 차례차례는 해 드리지만 여유를 안 주시면 이거 좋은 작품이 안 됩니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여유를, 날짜를 여유를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써 가지고, 저도 물론 하지요, 재단은 저가 하고, 재봉은 딴 사람 시키지요. 그런데 무엇이 될라고 하니까 수월케 잘되더라고. 안될 때는 고생을 많이 하는 데. <이종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장점이 위치한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내문을 보고 필요에 의해서 지원했다. 채용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 미싱 기술을 익혔거나 양재기술을 배운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양재나 미싱을 전혀 모르고 바느질만 할 줄 아는 여성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양장점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는 사람에게 양장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직원을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장점이 날로 인기를 더해 가면서 양재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양재학원에 연락하여 기술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양재학원은 양재기술을 배워 양장점을 개업하거나 취업하려는 여성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쉽게 소개받을 수 있었다.

양재학원에 부탁을 했어. 충무로에 김필중이라고 남자가 하는 학원이 있었어. 남자가 원장이야. 일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 졸업생을 거기서 데리고 와서 일을 했지. (중략) 양재학원을 다니는 여성들은 보통 여학교 정도는 나왔지. 재단을 하니까. 오늘날 대학원? 데림질 하는 애들은 보통학교 정도 나온 것이고. <송용순>

서울 충무로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송용순은 뉴스타일양재학원의 김필중 원장에게 부탁

하여 졸업생을 데려왔다. 양재학원을 다닌 여성들은 여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재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곽정희는 1950년대 국제양장사에 근무할 때는 4팀 정도가 있었다. 곽정희는 미싱사들은 “오래 있는 데는 오래 있고, 또 마음에 안들어서 싫으면 또 옮기고”했다고 한다고 한다. 곽정희 역시 남대문, 명동, 용산구 후암동, 신촌 이대 앞 그리고 이태원 등 7~8개가 넘는 양장점을 이동하며 일을 했다.

김경옥은 미싱 일을 배우러 온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일을 했다. 때문에 초기에는 미싱도 아닌 손바느질을 하는 아이를 하나 두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2층으로 양장점의 규모가 커지면서 목포에는 실력 있는 재봉사가 없어서 광주에서 데려왔다.

(혼자서 계속 일하셨어요?) 아니. 이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처녀 아이들이 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바느, 바느질을 했어, 둘이. 그리고 손바느질을 하는 아이 하나 있었고. 그러고 인제 나중에 2층 지스 후에는 인자 에 목포에서 마땅한 그 재봉사가 없어서 광주에서 데려왔지. 광주가 더 나서. 재봉사하고 시다라고 밑에 일하는 아이 하고 둘을 데리고 왔지. 내가 재단을 하는 거지. 박음질은 미싱사가 하고. 그 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박음질 이 저 하는 사람 밑에서 밑이라고. 밑일 하고 또 마도메 하는 사람은 단추 달고 시침 하고 모두 그러는 사람이 하고 있고. <김경옥>

김경옥은 재봉사를 광주에서 데려오면서 밑에서 일하는 시다 2명도 함께 데려왔다. 보통 미싱사는 자신을 도와주는 시다를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에도 시다를 데리고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인이 미싱사에게 돈을 주면 미싱사가 다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시다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임금 지급 방식 때문이었다. 이에 미싱사와 잘 맞는 시다는 미싱사가 다른 양장점으로 옮겨갈 때 같이 이동을 하였다. 여성들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쉽게 이동하였으며, 이는 여성 주인이 직원 관리를 잘 해내는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분업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양장점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장점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양장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직원을 다루는 능력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했다. 직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직원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는 반복하며 질 좋은 양장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장점 마다 옷을 만드는 방식이나 양장 제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장점 운영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원칙을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송용순은 양장점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나는 아침부터 애국가를 부르고 일을 하자. 그러면서 나는 직원들한테 강조를 했다. 일을 빨리 하지 말고 약간의 미스나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이야. 단지 돈 받고 하는 바느질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왜 우리 가게에 김봉남, 앙드레김도 일하고 그랬잖아. 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집에 왔었어. 취직해서 일 했지. 잘 생겼어. 집안도 좋구. 그렇게 예술을 하라고 하니깐, 그렇게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가 됐잖아. 고생스럽게 일은 해도 그렇게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송용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직원들이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양장점에서 근무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송용순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송용순은 또한 직원들에게 빨리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옷을 만들어 만드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장점의 운영 원칙은 직원들이 송용순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양장점으로 이직을 했을 때 무조건 양장을 빨리 만들어 돈 버는 데 치중하는 다른 양장점에서는 적응을 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송용순은 직원들에게 항상 즐겁고 웃으면서 일 할 것을 강조했으며, “옷을 백번을 빨아도 원형이 망가지지 않는 가치 있는 옷을 만들자”고 할 만큼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옷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양장점의 주인으로 직원들에게 자신의 운영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으로써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출근하는 날인데 이유 없이 빠지는 직원이 있거나 갑자기 양장점을 그만두고 다른 양장점으로 가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용순은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줘도 “환경이 나쁘면 심정이 좋지가 못해”라며, 자신의 대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른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양장점의 운영주체로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12명 정도가 직원으로 있었어. 양재사지. 재단, 꼬매는 거, 시다, 데림질 등. 한 조가 8명이야. 양재사는 처음 오래 양장점에서 일을 했어. 급사로 승진을 하지. 환경이 나쁘면 심정이 좋지가 못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인이 좋은 대우를 해줘도 그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을 몰라. 그래 처음에는 혼났지. 나가고 들어오고. <송용순>

송용순은 직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남달랐다. 잠시나마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었던

만큼 직원을 양장을 만드는 존재로 보기 보다는, 직원이 양장점이라는 직장에서의 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송용순이 직원 관리와 관련해 “처음에는 혼났지. 나가고 들어오고”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직원 관리에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곽정희 역시 일하는 직원들이 결근을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속상했다고 말한다. 양장점의 운영이 재단사, 미싱사, 시다 등으로 분업화된 방식으로 양장을 만들다 보니 이 중에서 한 명이 빠지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은 좋은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양재기술자의 근무 기간은 주 6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쉬지 않았다. 곽정희는 명동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을 쉬었다. 박부대는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근무했으며 늦게까지 남아 일을 했다고 기억한다.

종업원들도 늦게 까지 일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열심히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그런 종업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죠. 요새 같으면 돈 못 번다. 어찌 벌까. 토요일 놀이하제. (퇴근시간이면) 총알같이 간다고 하데. 종업원이 30명 정도 됐으니까 미싱이 한 열 대 정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옷을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 뭐. 세금도 많이 냈다 마. 왜냐하면 미싱 한 대에 시다 마도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있어야 해요. 요새는 미싱 한 대에 하나잖아요. 그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시다 해주는 아 있어야 하고, 꼬매주는 아 있어야 하고. 최하로 두사람 일 욕심 많은 아는 서이. 그러니까 서른 명이 돼죠. 작업장이 한 스무 평 정도 됐나. 아래층이 매장이고 작업실은 4층인가 3층인가 모르겠네. 한 번 올라가면 (힘들어서) 혼나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옷 설명해주러 뛰어갔지. 그때는 좋았죠. 식사는 각자가다 준비해가 와요. 내가 사업 잘되고 신바람 나고 그러면 간식 좀 사가고, 주로 과일, 비스킷 같은 야식. 그것밖에 없어요. 간식도 많이 안 사다 준 거같아. 우리 집은 종업원이 들어왔다 하면 나가지를 않아요. 종업원들이 지금도 연락오고. 서울에 있는 데 “언니보고 싶다.”고 놀러오라고 하고. 이제는 내 늙었다고 지가 밥 사주고. 그때 직원들은 일거리가 많아도 간식 사다 주고 하면 일을 다 해줬어요. 바쁠때는 밤도 새워서 해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밤샘도 해주고 했지. 내가 잘해주니까 재단사도 30년 이상 있었어요. 직원들이 거의 이동을 안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박부대, 128-129쪽>

박부대는 자신의 양장점에 취업한 직원들은 오랜 세월 근무하며 지금도 연락이 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신과 직원이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직원이 자신의 양장점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등 직장을 거의 옮기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한다. 이는 양장점 주인에게 직원들이 직장을 옮기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이 자신이 주인으로서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직원 관리

양장점 운영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이자,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는 것은 자신이 운영자로서 직원관리를 잘 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운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다.

나. 지역사회 기반의 고객망 구성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자신만의 단골 확보를 위한 요령을 발휘하였다. 물론 제주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신희자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고객을 끌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양장점이 봄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들이 와서 해달라고 사정할 때였다고 강조한다.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관리하거나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양장점은 양장을 만드는 노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하느라 바빠서 고객들이 와도 차를 대접하거나 하는 문화도 없었다고 말한다.

(양장점 하실 때 양장점에서 손님들이 약간 사랑방처럼 약간 많이 놀러오고 그랬어요?)
저 방해된다고 놀러 오지는 안했어. 놀러오지는 안하고 아는 사람 들려서 잠깐 있다 가고 옷 맞추려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했고. 그냥 막 노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일을 해야 되니까. 노는 장소는 아니고. 오면은 조금 그때는 차 문화도 없었고. 오면 차 대접 하잖아. 옛날은 물 한잔도 없었어. 하하. 물을 얻어먹을려고 하지도 안하고 줄려고도 하지도 않고. 물 먹고 싶으면 지네 집에 가서 먹고 그랬어. 그 문화가 그랬어 그때는. <신희자>

글쎄 비결은 없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 때는 서비스 잘 하는 것도 몰랐어요. 너무 바쁘니까 서비스 할 겨를도 없고 차 한 잔 대접할 겨를도 없어. <박부대, 126쪽>

신희자는 당시만 해도 음료를 대접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손님을 상대로 대접을 하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송용순은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해달라고 하면 원하는 일정에 맞춰주느라 최선을 다하는 정도였으며, 고객들을 상대할 때 잘 대해줬다고 말한다. 이는 양장점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솜씨가 좋아서 오는 데, 안해주면 안된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주니까. 그리고 내가 안해줘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인간 대우도 잘 해줘야 되고 기분을 맞춰주고 고객들한테. 웃도 예쁘게 만들고. 쉽지 않지. <송용순>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옷이 자신의 원하던 대로, 혹은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키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고객이 떠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들의 행동과 표정을 주목하게 된다. 양장점의 인기가 높았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은 자기만의 고객 관리 요령을 갖추게 되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주인으로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고객의 얼굴을 곧 바로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양장점을 한 번이라도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부대는 고객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강조한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손님들 오면은 이름 다 기억하고 선금 얼마 잔금 얼마 다 알았어요. 요새 생각하면 어찌 다 알았나. 종업원들이 “나는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아 잔금 얼마 받아라.”고 하고. 직원들은 이 사람 무슨 옷 했는지 주문장 봐야 하는 데, 나는 얼굴 보면은 ‘저는 무슨 옷을 찾으러 왔다, 잔금이 얼마다’ 바로 나와. 신기하지. 팽팡 돌아 갔나봐. <박부대, 131>

박부대는 자신의 양장점에 손님들이 들어오면 주문을 했던 손님의 이름은 물론 선금과 잔금까지 모두 기억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는 그만큼 손님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손님의 얼굴과 이름, 주문 내역까지도 완벽하게 알아야 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여기고 다음에는 다른 양장점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상품만을 만드는 것으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양장점 고객의 얼굴과 주문 내용 등을 기억함으로써 고객을 단골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경옥의 어머니는 덧버선을 만들어서 양장점에 오는 손님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한다.

우리 어무니는 옷감 나올 때 저지 쪼가리 모아놔다가 그걸로 덧버선 만들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덧버선 다 하나씩 줬.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러고 인제 옛날에는 떡을 시장에 가야 먹어, 떡집이 따로 없었거든. 시장 보고 가는 길에 떡 사 갖고 와서 우리 어무니한테 덧버선 줬다고 답례하고 가고 <김경옥>

김경옥처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덧버선을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면서 양장점을 드나드는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물론 김경옥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했다고 설명하지만, 덧버선을 실제로 만든 것은 김경옥이었다. 김경옥은

손님들에게 무료로 텃버선을 선물로 주는 것이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드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양장을 만드는 데 바빠서 차를 대접하는 등 고객을 관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지만, 고객의 이름과 취향 그리고 예약 관련 사항을 기억함으로써 고객이 다음에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때로는 작은 선물을 줌으로써 양장점을 방문한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C. 성별규범의 틀에서 구성되는 ‘여성’경제인의 곤경

1. 일·가정 병행에 동반되는 퇴근 없는 고된 노동

여성들은 집과 독립된 공간에서 양장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지만 일이 항상 쌓여있었기 때문에 기나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여성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양장점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신이 양장점 운영의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만 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구슬자 박부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양장점 운영에 매달렸다고 밝힌다.

나는 아침 9시까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게 문 열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갓바위 갔다 와도 9시에 문 열어요. 저녁때도 10시 돼서 손님 오면 밤 10시, 11시 까지도 있어요. 늦게까지도 (손님이) 직장 마치고 오니까. 종업원들도 늦게 까지 일했어요. 그 때는 전부 다 열심히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그런 종업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죠. 요새 같으면 돈 못 번다. 어찌 벌까. 토요일 놀아야 하제. (퇴근시간이면) 총알같이 간다고 하데. <박부대, 128쪽>

박부대는 양장점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여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간에 고객들이 양장점을 방문해서 양장을 주문하거나 완성된 양장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양장점이 생산만이 아니라 판매도 함께 하면서 고객 응대 역시 중요한 업무의 하나를 차지했다.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 편의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리고 양장점을 운영하시는 시간이 끝났다고 운영자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 일이 끝나지 않았다. 양장점에서는 고객이 양장을 찾아가기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만 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밤샘은 일상이었다. 구슬자들은 양장점 운영에 대해 주도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고생스웠다고 말한다. 항상 일이 많아 바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에만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일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일을 설명한다.

하여튼 밤새워 일한 적이 부지기수야. 일감을 덜 받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 솜씨를 보고 일을 맡기는 건데 내가 퇴짜를 놓을 수는 없잖아. (주문을) 다 받으니까. 밤 새웠지.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어, 과로를 너무 많이 해서. 거절을 못 하니까.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솜씨가 좋아서 오는 데 안해주면 안되잖아.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주니까. 그리고 내가 안해줘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인간 대우도 잘 해줘야 되고 기분도 맞춰주고, 고객들한테. 웃도 예쁘게 만들고. 쉽지 않지. <송용

순>

송용순은 “밤을 새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고생스러”웠다는 것이다. 밤에 잠도 못자고 일을 해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으며 과로는 일상적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사는 자신을 동정했다고 기억한다. 김경옥 역시 일감이 많을 때 혹은 갑작스레 맡긴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는 새벽녘까지 앉아서 일을 하여 납품 날짜를 맞추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서 재단하기 시작하든 밤에 잘 때 들어가서 자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음, 뭐 놀러다니거나 그런 것도 거의 못하고, 영화 보는 것 말고는. 그것이 전부였지. 그러고 그랬어도 YWCA에서 눈꽃모임 조직해 갖고는 그 아이들 동원해 갖고잉 설악산도 가고 저 경주도 가고. 뭐 뭐 제주도도 가고 여간 많이 돌아댱겨졌데.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 뭐, 못 돌아당기고 살았을 거라. <김경옥>

미도파 양장점에 다닐 때 방직처녀들이 여행도 가고이 막 빼딱구두 신고이 막 놀러도 잘 갔는 데, 나는 양장점에, 그때 당시는이 양장점에 아침에 가면이 밤 10시까지 일했어. 시간이 없었어, 그때는. 기냥 아침 한 9시에 가면 밤 10시 넘게 까지 일했어. 바쁘면 밤새도록 하고 그 때는이 시간, 그 뭐가 없었어. <신희자>

그때부터서는 그 옆에 양장점을 하면서 학원을 한다고 금방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판을 붙여놓고도 양장점과 학원을 모두 보고(관리하고) 다녔다고.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오전하고 나면 오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바쁘고 좀 노력했겠어요? 잠이라는 건 두 서너 시간 자고, 서너 너덧 시간 자고, 눈 비비고 나오고. 아이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좀 바쁘고 좀 노력했겠어요? 아이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요. <이종수>

송용순 이외에도 이종수, 김경옥, 신희자, 인순옥 등 구슬자들은 자신이 밤을 새워 일하고 하루 종일 너무 바빠 정신없이 일만 했다고 강조한다. 인순옥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든 이유로 양장점은 퇴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미장원은 손님 저녁에 모두 가버리면 문을 닫고 업무가 끝나지만, 양장점은 손님이 떠나도 맡겨놓은 바느질 일거리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랜 세월 양장을 만들며 몸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구슬자들은 몸에 무리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양장을 만드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했던 김경옥은 현재는 눈이 불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김경옥 이외에도 구슬자들은 양장을 하면서 옷감을 만지면서 나오는 먹지를 마실 수밖에 없었으며, 무거운 가위로 옷감을 자르느라 손에도 무리가 갔다. 송용순은 1970

년대 중반에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난로 위에서 끓던 주전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전신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운영주체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양장점 운영을 하였으며 자기 힘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이와 동시에 고된 노동을 힘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은 물론 살림과 자녀양육에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밤을 새워가며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여전히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양장점에 매달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구술자 김경옥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한 뒤 모두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엄마가 양장하실 때 일을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내가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지. 엄마를 의지하고 돈도 들어오면 그 날 얼마 들어온 지 모르고 다 (엄마에게) 맡겨 놓고 어디 물건 하러 갈 때나 엄마, 저 돈 주소 하든, 그 때 내놓고. 그래 엄마는 시장 갈 때 엄마가 나 돈 얼마 가지고 간다는 말없이, 엄마가 쓰고 싶은 데로 썼어.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랑 예, 너는 효녀다, 그러지. 엄마, 딸하고 같이 살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엄마가 엄마대로 종업원 해서 (밥) 멕이고. (결혼 후에는) 손자들 키우고.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것까지 내가 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엄마 하고 추억 보담 할머니하고 추억이 더 많데. 할머니가 뭐 맨들어 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엄마 표는 없어. 엄마는 뭐 안만들어 줬으니까. <김경옥>

김경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직원이 많을 때는 열 명 가까이로 늘면서 대가족이 되었다. 친정어머니는 식모 한 명을 데리고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살림을 도맡았다. 김경옥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김경옥의 친정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살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주었다. 김경옥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한 덕분에 양장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친정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김경옥에게 가장 큰 조력자는 친정어머니였다. 김경옥은 친정어머니가 살림을 도맡았다면, 이종수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살림과 자녀양육을 도와줬다. 이종수는 1950년에 결혼을 하고 양장점과 양재학원 운영을 하며 부산사범대에서 양재 강의까지 하고 있었다. 이종수를 도와준 것은 시어머니였다. 구술자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와 같은 여성 가족구성원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으로서 양장점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여성이 양장점을 운영하는 동안, 집안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성역할은 남성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이 대신해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⁶⁾ 이것은 여성 개인이 아닌 가정경제

를 위해 화폐 수입을 목적으로 양장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되고 또 가능할 수 있었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화폐소득을 위한 생산노동으로, 일종의 남성의 성역할이었다. 여성이 남성의 성역할로 여겨지는 생산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그녀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살림과 자녀양육은 다른 여성에 의한 성역할의 대리 수행이 이뤄졌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가장 큰 조력자로서 구술자들이 정서적으로도 지지와 안정을 받을 수 있었다. 구술자들이 양장점 운영에 집중하느라 가정에 소홀한 사이 자녀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수는 시어머니가 돌봐주던 첫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이종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성 가족 구성원 위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도움이 이뤄졌기에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다.

모든 여성들이 여성 가족 구성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 딸 혹은 며느리가 가계경제를 위해서 양장점을 운영하느라 바쁘더라도, 남성 가족구성원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았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송용순은 식모를 두거나 집안의 다른 여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감수했다. 이종수 역시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남편이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살림과 자녀양육 그리고 양장점 운영을 통한 가족의 생계부양까지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

새벽부터는 밤늦게까지, 아침은 해 주고 아이들한테. 애들 학교에 보냄과 동시에 바로 나는 나가야지. 일하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만날 허덕거리는 것이 시간이 부족해 가. 밤낮 뛰어다니면서, 오죽하면 동대문시장을 다녀와서 얼마나 뛰었으면 지금까지도 뛰어다녀.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택시를 못타면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아 정 안될 때는, 시간 맞춰야 되지요. 오늘 찾으러 올 사람이 있다든지, 내일 찾아갈 끼 있다든지. 뭐 언제 시간 맞출 사람들이, 모임에 어데 간다든지 뭐 학교에 가는 경우에 너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오지요. 택시 타고 와서 해주고 이랬지. 하여튼 겁나게 뛰

206) 이종수는 양장점 운영에 집중하는 대신에 시어머니가 자녀를 돌봤다. 시어머니가 어린 첫 아들을 돌봤다. 시어머니와 함께 엄마의 양장점을 방문하던 어린 아이는 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자신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던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이종수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이종수의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불찰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여겼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부산에 이종수가 머무르는 동안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주었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재로 자녀가 아프거나 사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건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구술자들의 양장점 운영은 중단될 수 없었다.

있어.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지금 도움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피곤해서,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 피곤해서,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 <이중수>

이중수는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어 자녀들에게 규칙에 따라 생활할 것을 강조하는 등 엄격한 엄마노릇을 하였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가정과 양장점을 혼자서 둘 다 챙겨야 했기 때문에 항상 뛰어다녔다. 동대문 시장에 옷감을 사러 가서도 항상 빠른 걸음으로 장을 보고 불일이 끝나면 뛰어서 돌아왔다고 한다. 양장점 운영할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 맨날 뛰어다녔으며 당시를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회상하였다. 이 때문에 이중수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든 빠른 걸음으로 걸어다닐 정도라고 말한다. 더욱이 여성들은 결혼을 하며 아이를 가져 입덧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수유를 해야만 했다.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바쁘니까, 서비스 할 겨를도 없고 차 한 잔 대접할 겨를도 없어. 애 키워야 하지. 형하고 나이 차가 나는 막내를 하나 낳아놓으니까 애 젖 먹여야 하제. <박부대, 126쪽>

박부대 역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큰 애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고 한다. 여성들이 도움을 받든 그렇지 않든 불가피하게 살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순간이 있었다. 여성들의 일상이 바쁘고 고단한 일상으로 전개된 데는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일·가정을 병행하면서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여성들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성역할 수행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녀를 비롯해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성역할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가정 내 여성의 성역할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행하거나 대치하거나 충돌하고 경합하며 기존의 성역할을 포섭,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2. 가족 관계로 인한 경제적 대표성의 인정 불가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자영업이라는 경제적 실천을 하면서 가족 특히 남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라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가족이나 자신을 대표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독립적인 경제인이라는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곤경을 겪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가정경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있었지만,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생계부양자로서 경제적 대표성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다. 가족 내 가부장적인 관계는 여성의 화폐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

인 자신의 현금소득과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한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²⁰⁷⁾ 아버지 혹은 남편과 같은 남성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적 권한과 발언권은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남성 가족구성원은 여성의 양장점 운영에 실질적인 참여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가족구성원에 의한 소득과 이로 인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양장점의 수입 관리를 남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김경옥은 남편이 옷감이나 부자재 등을 구입하러 서울을 다녀오는 정도로 양장점의 뒷일을 돌봐주는 정도였지만, 양장점의 수입 관리는 남편이 맡도록 했다.

기억을 다 하는 데 돈 액수를 기억을 못해 (어떻게 돈 액수를 기억해요? ㅎㅎ) 그 액수, 돈 뭐시, 그 때 오바가 얼마 였다, 그런 생각도 생각도 못하고. 뭇은 뭇였다. 무슨 웃은 만들었다 그것은 아는 데, 그거는 그 생각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돈 지출을 내가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애. 돈을 들어오른 서랍에 서랍에 다 집어 넣었다가, 어, 결혼하기 전에는 어무니가 다 알아서 챙기고. 그럼 결혼한 후에는 그 그것마저 내가 허문 남자가 안되겠다 싶어서 말 거 버리고 돈에 대한 것은 일절 몰라. <김경옥>

구술자 김경옥은 남편이 번듯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사기’를 위해 남편에게 양장점의 수입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그리고 목포에서 미미양장점을 운영하는 동안 양장점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남편의 이름으로 하였다.²⁰⁸⁾ 양장점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아내의 몫이었지만, 서류상 대표자는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는 운영상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만 이를 통한 수입에 대한 권한은 남편에게 부가된 것이다. 이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공식적인 서류에서 무급종사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과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인’이지만, 경제적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주인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아닌 이들의 남편이거나 아버지였던 것이다.

부산에서 양재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이종수 역시 학원의 재정관리를 아버지와 남편에게 맡겼다.

하이 모르겠는 데, 아이, 왜 이렇게 까매. 제법 받았어. 제법 받았기에 사무관계는 영감이 맡아 가, 누굴 하나 사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뭐 얼마가 들어왔다 하면 그런 건 그

207) 소득활동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항상 경제적 권한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경제적 기여가 경제적 권한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뜻한다(임유경, 2007: 39).

208)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1966) 자료에는 미미양장점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건 계산도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 돈을, 동생 가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을 줄도 모르고. 봉달이(주머니) 봉달이 싸가, 후스마 안에다 집어넣고, 개가 관리하고.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가르키는 데만 열심히 했어. 돈에 욕심, 돈 세고 있으면 안돼지! 안그렇습니까! 가르키는 데 신경 써야지, 돈이야 영감하고 마 맬겨 놓고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화폐개혁때 내놓으니깐 많더라. 화폐개혁때. 구간입구에서 화폐개혁이 됐는 데. 아 돈이 뭉치로 나 보따리로 나오더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나오나!. 하이구! <이종수>

이종수는 양재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와 같은 “사무관계”는 남편이 맡아서 했다. 구술자들은 양장을 만들거나 학생을 가르치면서 돈과 관련한 관리는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운영에 집중했다고 말한다. 구술자들이 남편에게 재정관리를 맡긴 것에는 돈을 관리하는 경제적 행위가 여성인 자신보다 가족 구성원인 남편에게 더 적합하다는 성별규범이 작동하고 있었다.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남편의 위신을 위한 배려이자 고려였으며, 남성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남성 가족구성원들이 양장점 운영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양장점 운영을 통한 소득의 권한과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가족 내의 가부장적인 권력관계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의 사용과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여성이 양장점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남성 가족구성원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술자 김경옥은 자신의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큰 빚이 발생했다. 그녀의 남편은 뚜렷한 자기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아내의 수입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남편이 만든 빚은 김경옥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종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종수는 결혼 전 포로북 납품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부모님에게 드렸으나 이종수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커다란 손실을 보았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양재학원까지 포기해야만 했다. 결국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수입이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 가족구성원의 사업 자금이나 빚을 갚는 데 흘러들어갔으며, 남성 가족구성원에 의한 경제적 지출은 가족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은 경제적 실천을 하지 않고서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화폐소득에 대한 통제권과 사용권을 행사했다. 남편이 통상적으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남성/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가장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임유경, 2007: 40).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경제활동을 했지만 자신의 일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혼자 통제할 수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나 남편 등 가정 내의 남성 구성원들이 경제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양장을 생산하는 운영과 판매의 과정에서는 운영주체로서 독립적이었으며 자율성과 통

제력을 발휘했지만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가족이나 자신을 대표하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을 독립적인 경제인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있었다. 여성의 사적인 가족관계가 여성의 경제적 실천에 제약을 가하는 등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성별체계 내에서 인식론적인 곤경을 겪었다. 때로는 남편이 없는 여성들도 자영업과 같은 경제적 실천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경제적인 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여성‘경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다. 김경옥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김경옥은 친구의 제언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피복공장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 여성은 경제적 실천을 하는 자영업주이지만,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 관계는 계속해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한다.

박부대 역시 친정어머니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데 제약을 가한다. 박부대는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어머니는 딸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돌봤는데 결혼을 하면 그러한 재정적 도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부대는 결혼을 하면서 양장점을 하면서 일군 자신의 재산을 일체 넘겨주고 왔다고 한다.

상화 있을 때 결혼하고 상파뉴로 이사 나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아들 겸 남편 겸 가장이잖아요. 결혼을 하니 엄마가 얼마나 시샘을 하는지. (내가) 아까워가지고. 엄마는 시집을 보내고 난 뒤부터 편히 잠을 못 잤대요. 왜냐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주죠. 음식 재료 다 사주지.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저 집은 딸 하나 잘 키웠다고. 주위에서 효녀 심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딸을 시집보내고 나니 병앓이를. (중략) 그래서 (상화)의살실 하는 거를 손가락 하나 안가져왔어요, 내가. 재단사, 일하는 사람까지 싹 동생 물려주고 나왔어요. 이제 기억이 나네. 나는 거기에 손가락 몽당이 하나 안가져오고 하다못해 재단사까지 다 붙여 주고 다 했는 데. 그런 사람이 요새 있겠어요? 결국에 오래 못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이 더 나는 거예요. <박부대, 125쪽>

박부대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여,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양재학원을 다녀 양장점을 취업을 하였다. 박부대는 자신이 일하여 벌은 수입을 친정어머니 때문에 정당하게 돈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거나 대표할 수 없었다.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는 아버지나 남편과 같이 남성 가족구성원은 물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여성의 가족관계는 독립적인 경제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실천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3.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서 ‘여성화된’ 공간인 양장점

양장점의 공간적 성격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에 의해 여성의 성역할 수행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여성은 집안에 머물면서 자녀양육과 살림을 실천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논리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내직’을 선택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집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강력한 담론적 통제가 작동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으며,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림과 자녀양육을 하는 등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병행하였다. 이로써 양장점의 공간적 성격은 양장점의 안과 밖의 경계, 집과 양장점의 관계가 여성의 성역할 수행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으로서의 양장점 운영을 서사화하는 전략에서 양장점의 실내와 밖을 집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하였다. 즉 전후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담론은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여성의 성역할을 간과하며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여성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언설화하고 양장점 운영과 업무는 선택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성차별적인 시선에 전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또 저항하고자 하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에 관한 설명에서 양장점의 내부 구성과 실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위주로 설명한다. 양장점의 내부 구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장점을 구성하는 공간적 장치로서 쇼윈도, 양장점 이름이 적힌 간판, 양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봉틀과 양장지와 함께 양장점의 실내 풍경을 중심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뤄지는 업무인 양장을 생산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양장점 운영을 양장이라는 상품만을 생산하면 되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서사화 방식은 구술자가 고객을 면대면으로 만나 양장을 판매하는 상인이거나 양장점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인 자영업자라는 인식을 주변화하거나 약화시킨다. 오히려 구술자들은 자신을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자’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존재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결과적으로 구술자의 서사화 방식은 양장점 운영자가 양장점의 실내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며 양장을 만드는 양재기술자로 이미지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여성이 주인이자 직원이며 고객인 여성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의미화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여성 직원과 여성 고객과의 면대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양장점 운영이 전개됨을 설명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에서 여성들이 서로 다른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공간으로서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즉 양장점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들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노점이나 점포를 운영할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직업인으로 혹은 사회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거나 남성들의 성적으로 노골적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후 사회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여성이 주도권을 가진 공간은 양장점 이외에도, 편물점, 한복점, 수예점, 미용실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술자들은 여성의 공간으로서 안전한 공간으로 다른 직업이나 자영업이 있음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점포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행함으로써 양장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다. 구술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외부활동을 수행했는데, 양장을 만드는 기술이나 감각을 갖추는 것 이외에도 양장점 외부에 위치한 옷감시장이나 재봉틀이나 양장지를 납품하는 거래처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구술자들은 양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포목점이나 시장을 가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자신의 양장점이 위치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대구, 부산 등지로 출장을 다녀와야만 했다. 구술자들은 재봉틀이나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물시장(원단상) 등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근’이나 ‘출장’을 다니고는 했다. 자신이 양장점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졌기 때문에 양장점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아 외근이나 장기 출장을 자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일정한 기간 마다 옷감을 구입하러 시장이나 대도시를 방문해야만 했다.

서울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송용순과 이종수는 동대문시장에 정기적으로 옷감을 사러 다녔다. 지방이나 도서지역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구술자들은 좋은 옷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신 유행 옷감을 구입하기 위해 대도시로 출장을 다니고는 했다. 신희자 역시 제주 한림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동안 대구나 서울로까지 옷감을 사러 다녔다. 출장을 간 도시에 친구가 살고 있을 때는 친구의 집에 며칠 묵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도 했다. 양장점 내부의 일이 가시화되었지만,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는 양장점 밖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 거래처나 고객 등 남성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이 밖에도 구술자들은 최신 유행을 파악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서울에 위치한 유명 양장점을 방문하거나 패션쇼를 보러 다니는 등 양장점 운영을 위해 다양한 외출을 시도했다. 실내, 혹은 정주의 느낌을 주는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여성을 양장점 밖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술자들은 양장점 안에서의 일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로 여겼지만, 양장점 밖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남성의 일로 여겼다. 남성의 일은 곧 남성적인 것을 의미하였다. 구술자들은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양장점 밖의 업무를 수행하고 양장

점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동의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 여성의 몸으로서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적영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다. 구술자들은 여성다움은 물론 남성다움을 동시에 경험하며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경험을 겪었다. 구술자 중에서 양장점 운영을 계기로 포로복 납품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던 이종수는 자신을 남성이 된 것으로 여겼다. 이종수는 한국전쟁 동안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미군부대에 포로복을 납품하였다. 이종수에 따르면, 대규모의 피복공장을 운영하는 남성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진행이 더디게 돌아가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미군부대의 포로복 담당자를 찾아가 만났다. 포로복 담당자를 앞에 세워 두고 옷감에 직접 재단을 선보이며 자신이 이윤을 지나치게 남기지 않고 포로복 납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자부한다. 이종수의 적극적인 행동은 미군부대 담당자의 신뢰를 얻어 중단된 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조방(조선방직)²⁰⁹⁾에 가서. 어, 인자 미리 교섭을 했지요. 그리고 또 아이구 가니까, 장사꾼이 아니니까. 이래 뭐 군소리는 별로이 안 해요. 내가 댁에 손해 없이 할테니까,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하는 것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우째도 이번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씨가 너무 이래가지고 내가 일등을 하고 싶다, 당신이 좀 도와라고. 그래 우째 도울까? 밤에도 염색을 해라, 낮에도 해라, 교대로 해라, 사람을 교대시켜서 해라! 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나오니까, 일이 되는 거지요. 그 대신 내가 종업원들, 밤에 일하는 사람, 낮에 있는 사람, 부식을 내가 돈을 달게. 갖다 주마. 사다 주마. 그래가 밤에도 부식을 사 가지고 싣고 가지요. 차에 싣고 가서 다 멕이고, 낮에도 멕이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 있죠. 돈을 (주인에게) 주면 안 되거든. 주인이 먹어 버리거든.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국 사회라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종업원들을 너무 험하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때부터 종업원들을, 그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내가 상당히 그랬다고, 그 어렵게 몇 폰 벌어서 가족 살리는 데 애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때도 공장에 들어 가면은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공장이 수백 명이지 뭐! 그 (...) 어우~ 그래서 차를 가지고 부산을 헤매고 다녔지. (그때 나 이가 겨우 스물) 딱 네 살이에요. (스물) 네 살! <이종수>

포로복 납품 사업은 이종수가 자신이 사업적 수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

209) 조선방직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방직공장으로서, 1917년에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 1956년에 삼호방직에 넘어갔다가 부산시에서 매입해 1969년에 해산되었다. 조선방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서문석(2014), “1950년대 전반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기술인력 연구: <紡織技術者 및 技能者 名簿>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91집, 231~256쪽.

회였다. 이종수는 포로복 납품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다고 강조한다. 이종수는 미군부대를 찾아가 미군과 담판을 짓는 등 자신의 행동이 “배짱이 좋았다”고 말하며, 여자인 자신이 해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여기서 이종수는 배짱이 좋고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는 것은 남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겼다.

이 동생들이 여럿이 되어 놓으니, 너(넛)이나 되고 이래놓으니. 그러고 또 아버지가 또 억지로 못하시고 이러니까, 장녀고 해서, 내가 만날 책임감을 느꼈어. 이걸 해야 된다! 내 아니면 안된다! 응! 나를 내가 그거를. 그러고, 뭐라고 할꼬? 죽~ 크면서 아버지를 도운다 하는 게 남성적이 되어버렸어, 여자가. 아주 남성적이. 어쨌든 이걸 해야 우리가 산다. 앞으로 내가 독립을 하고 아버지 어무니를 해놔야, 내가, 아, 그거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나 싶어요 (···) 하여튼 이 사는 게 뭐라? 생활이라 하는 게 뭐라? 어떻게 그렇게 심어줄라고 해도 못 심어 줄거야. 일선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생활력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수>

이종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를 돕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양장점과 양재학원 운영 그리고 포로복 납품 등을 통해 상당한 사업적 성과를 냈다. 이종수는 그러한 자신을 “남성적이 되어버렸어, 여자가. 아주 남성적이”었다고 말한다. 추진력있게 사업을 이끌어갔던 자신을 “남자가 다 됐어”라고 의미화하였다. 사업적 수완을 발휘한 것, 포로복 납품을 통해 금전적으로 이윤을 창출한 것, 부산 시내에서 얻은 유명세 등은 모두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겼다. 이종수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해방 이후 부산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미군부대에 속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객으로 상대했던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에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미군,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양장점 단골 고객의 남편, 식민지 시대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적극적 지원 등이 더해져 이종수가 포로복을 성공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스물네 살의 미혼인 이종수는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전후 남성 중심의 경제영역에서 자신의 양재기술, 판단력, 시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남성들과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한 자신을 남성다움이라고 의미화하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이 위치한 거리, 골목, 혹은 옆에 위치한 가게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양장점이 일정한 지역에 점포로서 위치하게 되므로, 주변의 상가나 점포와의 관계 속에서 공간적 성격이 구성된다. 구술자들이 양장점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양장점이 단독으로 공간으로서 위치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구성한다. 양장점이 다른 점포나 위치한 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점포로서의 공간성이 의미화되지 않는다. 구술자들이 양장점의 외부적 공간과 양장점 밖에서 행해지는 외부활동에 대한 언어적 서사화를 주변화하거나 비가시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양장점 밖에서 이뤄지는 여성 양장점 운

영자의 다양한 업무들이 남성을 상대하거나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전후의 가부장적인 사회는 성적인 의심과 여성의 성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기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의미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 사회의 경험 속에서 구술자들은 자신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서사화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인 비/가시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양장점이 여성이 주인이고 직원이며 고객인 것은 맞지만, 여성들만이 양장점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술자 인순옥은 서울에 위치한 양장점에 재봉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동안 양장점에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양장점의 주인 남자가 퇴근시간이 지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장점 주변을 어슬렁거렸기 때문에, 인순옥은 양장점에 딸린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의 성적인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이 양장점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고향인 파주 기지촌에서 운영하는 양장점에는 주 고객인 ‘양공주’와 함께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함께 방문했다.

(미군들이 옷을 맞춰서 보냈다면서요? 그럼 치수는 어떻게 알고요?) 그럼. 자기네들이 치수를 얘기해주지. 보통 치수래든지 좀 뚱뚱하든지. (미국) 고향에다 전화해서 알 수도 있지 뭐. 자기네 엄마거래든지 누이거래든지 뭐 식구들 거 해달라는 거지. 간혹 그러지. 그것두 쫄병은 돈이 그렇게 있어? 그 상사래든가 뭐 장교들 그런. 이제 여기있는 색시 옷 해주면서 이렇게 해달라든가 그렇게 해. (미군들이 직접 왔단 얘기네요?) 그럼 밤이면 같이 오지. <인순옥>

인순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에는 미군이 함께 와서 자신의 파트너인 ‘양공주’의 옷을 맞춰주는 것은 물론, 미국에 있는 자신의 여성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옷을 맞춰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에 부부가 방문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양장을 맞춰 준 에피소드를 말한 적이 있다. 양장점에 애인이나 남편이 여성과 함께 와서 양장을 맞춰주는 것은 예외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전후 1950~60년대에는 재봉틀과 양장지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시절인 터라, 양장점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빈번하였다. 신희자는 대구에서 여동생과 제주 출신의 여성과 함께 탐라양장점을 운영하였는 데, 여기에 밤새 도둑이 들은 적이 있다.

대구 방직 아가씨들 공부 못한 아이들 위해서 야간고등학교가 생긴 모양이라. 야간 중고등학교. (공장에 딸려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개인이. 개인이 거기 고등학교 다니는 데 어, 고등학교 야간이니까, 밤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그래 양장점도 잘되고 한 1년 했나. 그 양장점 도둑맞은 기야. 그 때는이 옷감이 귀해가지고이, 어 그 군인들이 바지 뜯어 오잖아. 그거 뜯어놓은 것도 다 가져가. 그때는 그랬어. 옷감이 그렇게. 옷감도둑. 그래 침선동이 깡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깡패도 많았어. 그러니까 그거 저 홀리당 도둑맞고 막 울면서. 이제 어, 울면서 이젠 양키시장 양장점을 갔어 내가. <신희자>

낮에는 양장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칠성동에 있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느라 피곤했던 신회자는 양장점에 밤에 도둑이 들어 옷감을 전부 훔쳐갔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다행히 재봉틀은 주인집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양장지와 맡겨 놓은 옷감만 도둑을 맡았다. 신회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양장점이 남자 도둑에 의한 취약한 공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양장점에 취업해 재봉사로 지내다가 여동생의 안전을 우려한 오빠가 제주도 집으로 돌아오라는 재촉에 육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구술자들은 주로 양장을 생산하는 것과 여성 고객을 상대로 양장을 판매하는 업무 등 양장점 안에서 이뤄지는 일을 위주로 설명한다. 양장점 경험을 설명할 때 양장점의 외부에서 경험한 것 보다는 양장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대부분 소개한다. 양장점 외부는 불안전하고 성적으로 위험한 곳이라는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 양장점 안의 세계를 위주로 설명한다. 양장점의 내부에 대한 강조는 양장점 외부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일을 주변화하거나 비가시화 하며, 양장점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존재 혹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삭제시킨다. 전후 1950년대에 양장업의 여성화 현상이 전개되기는 했지만, 양장점에 남자 직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용순이 운영한 충무로의 양장점에는 앙드레김²¹⁰⁾이 유명세를 떨치기 이전에 직원으로 취직해 근무하였다. 김경옥도 자신의 양장점에 남자 재봉사와 재단사를 채용해 운영한 적이 있었으며, 때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이라는 공간은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사화하는 방식을 택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에는 남성 고객이 방문하기도 하며 남성 직원이 근무하기도 하지만 양장점 내부에는 남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들과도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서사화하면서 구술자들은 양장점 내부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한 것처럼 말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에서 전개된 이야기 중에서 여성성에 부합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가시화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행동은 은폐시킨다. 김옥순은 옷감을 팔기 위해서 방문했던 양장점 중에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양장점에 딸린 방을 하루 종일 빌리고 유희를 즐겼다고 말한다.

양장점은 구술자에 의해서 담론적으로 여성적 영역으로 구획되면서, 양장점 밖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공격은 은폐한다. 그리고 양장점 운영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임을 언설화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이라는 여성 공간이 가부장적인 지배담론에 부합함을 드러낸다. 양장점의 내부는 안전하고 외부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여성의 성역할과

210) 앙드레김(1935~2010)은 1962년 한국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데뷔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1964년 배우 엄앵란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한 것을 시작으로 영화 배우들의 의상을 디자인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여성 직업의 적합도와 관계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집밖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성다움을 벗어난 부정적인 경제 행위로 인식되는 맥락 속에서, 여성들은 양장점 내부는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직업이 다른 여성이 하는 직업보다 갖는 우월성과 안전성을 강조한다. 양장점은 여성만을 위한 양장을 제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영토화’된 공간이지만, 양장점 운영을 위해서 여성의 성역할을 벗어난 젠더 실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의 성격 역시 갖는다. 양장점이라는 장소는 가부장적인 담론적 지배와 이에 대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행위성에 의해서 여성의 성역할을 두고 경합과 수용이 동시에 전개되는 혼종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점은 정치적으로 공간적 의미가 구성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장소였다.

D. 소결

이 장에서는 양장점이 자영업을 하는 상업적 공간으로서 어떠한 생산요소를 갖추었으며, 자영업주는 양장점 운영을 위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경제인’으로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겪는 곤경과 협상 전략을 다루었다.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들은 초기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양장점을 운영하였다. 즉 여성들은 가능한 자본을 지출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대신에 자영업주로서 직업적 능력과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우선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을 생산하는 ‘작업장’이자, 양장을 유통 및 판매하는 ‘상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적 시각적 구조를 마련하는 등 경제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생산요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주체로서 양장점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여성의 자원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양장이라는 상품 생산을 위해 양장 제작의 공정 전체를 익힌 숙련된 기술자이지만 여성 고객의 취향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감각적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여성 자영업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의미화하였다. 양장점 운영은 퇴근 없는 기나긴 노동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성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일·가정의 병행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과 같은 가부장적 가족 관계로 인한 여성 자신이 벌어들인 화폐수입에 대한 경제적 대표가 될 수 없는 독립적인 여성 ‘경제인’이 되는 데 곤경을 겪었다. 끝으로, 구술자들은 여성의 공간인 양장점 내부에서의 일을 강조하는 대신 양장점 밖에서의 업무는 비가시화하였는 데, 집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방어 전략이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자영업주로서 양장점 운영을 통해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을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성역할 수행은 항상 경합하

고 포섭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여성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밝혔다. 즉 ‘여성의 경제’는 여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자율적인 운영과 여성적 기술, 경영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성별규범에 의한 성별정치가 전개된다. 이와 함께 양장점은 여성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와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상품 생산 방식은 가내 수공업²¹¹⁾에서 매뉴팩처²¹²⁾로의 자본주의 이행 모델을 넘어선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211) 가내 수공업(家內手工業)은 집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212) 매뉴팩처(manufacture)라는 용어는 원래는 수공업 방식으로 소규모 생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V. 전후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여성의 경제’로서의 ‘양장점’

전후 사회에서 자영업주로서 여성이 운영한 양장점은 여성 중심의 경제적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는 공식경제와 분리되어 여성이 주도하지만 전후 사회의 성별규범과 공식경제의 변화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경제’는 성별정치의 정치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전후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함으로써 구성한 경제활동의 성격과 의미를 ‘여성의 경제’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고 이것이 갖는 성격과 의미는 물론 ‘여성의 경제’가 갖는 모순과 딜레마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A. 이분법적인 근대적 공사영역의 유동적 구성

근대로서 여겨지는 공사영역의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과 집이라는 공간의 성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장점이 젠더관계 속에서 어떠한 공간으로 정치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양장점은 사적공간인 집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 및 독립된 상업적 공간이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의 양장점 공간에 대한 서사화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는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이다.²¹³⁾ 그 이유는 양장점이 구술자들이 경제적 실천을 하기 위한 공적 공간이지만 사적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성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들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 넘나들기는 양장점이라는 공간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구술자에게 양장점은 양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적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성역할을 양장점에서 병행하거나 사적영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천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중에는 살림집과 양장점이 일정한 거리가 있어 출·퇴근하는 방식보다는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방이나 가정집이 딸린 점포의 구성 방식을 선호하였다.

김경옥은 양장점 운영으로 밑천을 마련한 뒤 이층짜리 집을 지었다. 새로 지은 집은 아래층에는 양장점을 두었으며 위층에는 살림집을 차렸다. 김경옥의 자녀들은 엄마가 일하는 1층 양장점 앞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김경옥은 양장점에서 일을 하면서 점

213) 근대화 과정에서 공적영역은 생산과 남성의 영역으로, 사적영역은 재생산과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관해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따른 공사영역의 이분법으로 보고 비판해왔다.

포 앞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을 쉽게 보살필 수 있었다. 신희자 역시 결혼 후 한림 읍내에 양장점을 차렸는 데, 자녀들이 양장점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

(집이 일하는 데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끝나면 가게로 오는 거지. (아, 가게로 오고. 그러면 양장점은 여자들이 애 키우면서 일하기 좋나요?) 좋아, 좋아. 어디 가서 근무하면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집에 있잖아, 바느질하면서. 그러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집에 같이 가고. 그런 점이 좋은 거 같애. 아이들만 따로 놔두거나 그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는 곳이지만 애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 요즘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여성들)이 직장에 다니잖아? 애기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골치 아프더라고. (집과 직장)이 분리되니까, 요즘 골치 아프겠더라고. <신희자>

신희자는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엄마였다. 학교를 마친 후 신희자의 자녀들은 엄마가 운영하는 양장점으로 와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었으며 공부도 하다가 엄마가 일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다. 신희자는 일 하느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교 후 시내에 위치한 양장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양장점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구술자들에게 양장점은 일터인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살핌의 공간이었다. 이는 양장점이 집에 가까이 붙어 있거나 엄마가 주인으로 일하는 양장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더욱이 살림집과 나란히 붙어있는 양장점 구조는 구술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자들은 전용 상점형 보다는 살림채²¹⁴⁾와 함께 있는 주상복합형의 점포를 선호했다. 자녀가 국민학교를 다니는 동안 송용순은 양장점을 살림집과 함께 위치한 건물에 열었다.

내가 명동이 아니라 충무로에 양장점을 차린 것이 살림집이랑 같이 해서 그랬지. 내가 힘들게 내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명동에 못 간다. 돈도 없는 데 어딜 명동으로 가. 못가. 내가 38선 넘어 오니까, 돈을 하나도 못 갖고 왔잖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고생이 많았다고. <송용순>

송용순이 양장점으로 유명한 명동으로 이전하지 않고 충무로에서 양장점을 계속 운영한 이유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양장점과 살림집이 함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송용순은 직장이나 사업장까지 출퇴근할 필요가 없었다. 때로는 김경옥은 살

214) 살림채란 살림하는 방, 부엌 따위가 있는 집채를 뜻한다.

림집이 안채에 위치하였는 데 커튼으로 실내를 가림으로써 살림집과 양장점을 구분하였다. 양장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사적인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양장점 일이 집 혹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었다. 여성들이 사적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과 양장점에서 하는 생산노동이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 구술자들은 여성 가족구성원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양장점 운영과 살림 및 자녀양육 등 일·가정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살림집에 붙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살림과 가족의 돌봄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구술자들이 사적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친밀함과 사적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뜻한다. 양장점이 살림집과 나란히 있거나 붙어있는 구조를 가졌던 구술자는 송용순, 이종수, 김경옥, 인순옥, 박태선 등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희자는 양장점이 집과 분리되었지만 자녀들이 언제든지 양장점에 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직업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담론에 대한 협상이자 저항의 방식으로써 양장점의 경계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을 병행할 수 있었다. 가족과 공장/회사가 완전히 분리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는 달리, 여성들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가족 및 사적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여성화된 장소인 ‘집’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에서의 일을 집에서 여성이 하는 일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로 인해서 ‘집’과 특정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집’은 사적영역으로서, 여성이 주로 머무르며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위계적인 젠더관계는 여성의 위치는 집, 가정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집을 벗어난다는 것은 여성의 규범적인 성역할과 성적인 통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정치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밖에 위치한 여성은 가부장적인 담론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집’과 같은 공간임을 강조한다. 즉 양장점이라는 공간이 ‘집’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의미화되었다.²¹⁵⁾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은 경제영역에 속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탈영토화되거나 경계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양장점은 공적영역인 경제영역에 속하였지만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사적영역인 집과 같은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즉 여성의 성역할과의 관계 속에서 양장점이라는 공간의 장소적 의미가 정치화되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의 공간적 특징과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사적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으며 사적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일들을 양장점에서 수행할 수 있었다. 가부장적인 지배담론은 양장점을 집밖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15)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위계적인 젠더관계가 어떻게 공간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공간구조 속에서 반영되는가를 규명하는 것’(김현미, 2008, 276)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장점을 부정적으로 의미화하지만,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집과 같은 혹은 집의 연장으로 의미화하며 양장점을 사적공간이자 여성성으로 의미화하며 양장점 운영을 정당화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여성의 돌봄 역할이 전개될 수 있는 집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집에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가내생산에 참여한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들은 가정과 분리된 작업장으로 출근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성의 공장노동 등에 주목해왔다. 집과 일터가 분리된 방식의 노동 구조에 진출할 수 있었던 여성은 가정에서 요구되는 성역할에서 자유로운 미혼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상당수의 기혼여성들은 가정에서 요구되는 성역할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약이 뒤따랐다(틸리와 스콧, 2008[1987]). 여성들은 가정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병행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도 부합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가정 내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협상’ 및 ‘조율’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다. 김은실(1996)은 공간은 공사영역이 갖는 애매성,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영역이고 성의 정치학이 성별화된 공사영역을 구성한다(김은실, 1996: 398).²¹⁶⁾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공간과 가정공간의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분리되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탈영토화된 양장점은 계속해서 남성과 가부장적인 담론에 의해서 영토화된다. 즉 양장점은 탈영토화된 여성의 공간이다. 양장점은 여성성의 이중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공간이다(김은실, 1996).²¹⁷⁾ 이러한 맥락에서 양장점 역시 탈영토화와 영토화가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양장점이라는 공간은 전후 사회에서 구술자들이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을 집과 나란히 하거나 근거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산과 재생산 노동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생산과 재생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중첩성과 유동적인 경계가 잘 드러나는 곳이다. 즉 구술자들의 행위는 공사영역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양장점은 가부장적인 성별체계에 의해서 구성된 여성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실천과 서사화 방식은 젠더질서를 수용하면서도 위반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양장점은 여성의 성역할 및 여성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의미화되는 가운데, 양장점의 장소성은 젠더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장점이라는 장소는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대외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고객들을 만나는

216) 김은실(2004), “지구화 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서울: 푸른사상.

217) 한국 산업자본주의의 형성 과정 속에서 공사영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양쪽 모두를 자기 준거로 하는 여성들의 삶을 동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김은실, 1996: 382).

곳으로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장(場)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의 양장점 운영은 특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공식경제의 일환으로 전개된 여성의 ‘장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장사’는 주로 집을 떠나서 거리에서 행해지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하였다. 장사를 하는 여성은 일·가정 병행을 할 수 없었으며 낯선 외부인, 남성과의 만남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성별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되면서 부정적으로 언설화되었다. 이와 달리 양장점 운영은 양재기술이라는 근대화된 여성적 기술이 필요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장사’는 최소한의 자본을 가진 여성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양장점 운영은 기본적으로 숙련된 양재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한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성들이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경제적 실천은 가족의 필요와 성별규범에 의해서 가족에 종속되거나 가족의 틀 안에서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넘나들면서 전개됨으로써 남성중심의 근대적 공사영역의 이분법을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경제적 실천은 가족을 넘어서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특히 여성들은 양재기술을 가진 기술직의 여성 ‘직업인’으로 정체화하면서 자신의 양장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여성기술자들과의 관계망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가족의 밖으로 확장시켜나간다. 즉 기술을 매개로 연결하는 여성의 관계망은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B. 기술보유자로서의 여성‘직업인’과 기술 전수(傳受)

1. 기술적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몸에 남겨진 고된 노동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 휘어진 손가락, 재봉과 바느질로 침침해진 눈, 아픈 어깨 등 몸에 남겨진 흔적들이 구술자들의 고된 노동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송용순은 양장점에 있던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쏟아진 물로 화상을 입었으며, 광정희는 어깨에 무리가 생겨 수술을 했다. 김경옥은 바느질을 하느라 애쓴 나머지 눈이 불편해졌다. 구술자들의 육체적인 고된 노동의 흔적은 이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징표이다.

구술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마음의 짐과 고된 노동으로 인한 자신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말한다. 구술자들은 양장점 운영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과거”로 여겼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힘든 노동에서 오랜 시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장점 운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그 결과 양장점 운영의 경험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구술자 이종수, 김경옥, 신희자는 과거의 힘든 기억도 함께 잊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가 안해서. 너무 고생스러운 세상이라. 아니 그 때, 그 때 그 시절이, 생활이.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응.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내가 어, 어디 그래 가 잊음이, 잊음이 내 사노라. 잊음이 없었으면 내 머리는 터졌을 것이다~.
<김경옥>

김경옥은 지난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경옥은 남편이 빚을 지고 일찍 사망하면서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구술자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혼자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책임감은 구술자들에게 커다란 심적 부담이었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과 짊어졌던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 무게, 그리고 부모나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구술자들에게 자신의 양장점 운영 경험을 회한의 감정으로 이해하게 만든다.²¹⁸⁾ 구술자들이 과거 자신의 경제적 실천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218) 구술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구술자를 찾아 연락이 닿았지만, 양장점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가족도 아닌 남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양장점 운영으로 인한 고된 노동은 물론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한국전쟁과 가족 등과의 사건 등을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태도는 더욱 진하게 남아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양장점 운영을 고된 노동으로 기억하는 한편으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을 기술전문직 여성으로서 정체화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자신을 가장 당당하게 서사화하는 것은 기술을 가진 여성 ‘직업인’으로 자신을 설명할 때이다. 구술자들이 자신을 양재기술자 혹은 양재전문가로서의 정체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양장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각종 물건들이다. 구술자들은 재봉틀과 가위 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송용순은 인터뷰를 하던 즈음에 자신이 운영하던 충무로3가의 양장점 점포를 리모델링을 하고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시해놓았다. 김경옥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오래된 재봉틀과 가위를 여전히 보관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곽정희 역시 옷본, 재봉틀, 가위를, 인순옥은 노트, 양재학원 졸업장, 가위, 재봉틀, 자, 쓰다가 남은 옷감을, 신희자는 노트, 재봉틀, 옷감, 가위 등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현재는 양장점을 운영하지 않지만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물건들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구술 인터뷰를 할 때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곽정희는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가위나 재봉틀을 보여줄 때만큼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으며 당당함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곽정희는 자신의 어머니가 “너는 천상 바느질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되뇌는 데, 그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김경옥은 오래된 가위를 보여주며 “에이구 이것이 내 역사여”라고 말한다. 자신이 한평생을 사용한 재봉틀과 가위가 양장점을 운영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해주었다. 재봉틀과 가위는 구술자 자신의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으로서, 숙련된 양재기술을 지닌 기술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⁹⁾ 구술자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재봉틀과 가위는 돈을 벌어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물건이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신하는 물건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양장 관련 물건들을 둘러싸고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그리고 이 물건들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양재기술을 기반으로 정체화한 기술전문직 직업인임을 보여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술자들에게 기술은 가치 있는 것으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남과 다른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이들에게 기술은 돈이자, 부가가치의 성격을 가졌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양재기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양재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 돈, 노력, 사회적 지위 등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술자들은 기술을 돈과 교육을 뜻하는

219) 미싱사는 재봉틀로 옷을 박는 일을 주로 하지만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재단과 미싱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가위는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것으로 이해했으며, 자신의 직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직으로 이해하였다. 양재기술은 구술자들에게 지속적인 배움, 공부, 지식을 뜻하였다. 신희자는 중학교 진학 대신 양재학원을 다니며 양재기술을 배운 뒤로, 지속적으로 양재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왔다. 신희자에게 학업 대신에 선택한 양재기술은 배움의 의미를 가졌다. 즉 한평생 동안 양재기술과 관련한 것들을 익히고 배움으로써 삶 자체를 배움의 과정으로서 구성해왔다.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배우고 양장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산수단을 마련하고 기술실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동’의 경험이 수반되었다.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은 이동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동반되었다. 여성의 이동이 항상 제약과 제한을 받았던 전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자들은 양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이동’이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을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노출시켰으며, 이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삶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송용순은 양재를 전공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며, 신희자는 양재기술을 익히기 위한 긴 여정이 집을 떠나 제주 시내로 그리고 서울과 대구로 이어졌다. 신희자는 서울로 가는 것이 출세하는 것 혹은 유학과 동일한 의미였다고 말한다. 그 만큼 당시 여성들에게 집을 떠나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경험을 쌓기 위한 여정으로 이해되었다. 구술자 인순옥은 파주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를 다니며 양재학원에서 양재기술을 배웠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의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의 양장점으로 귀환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인순옥이 양재학원을 다니 전에 가진 자원은 고향의 친인척 관계가 전부였지만, 양재학원을 다니고 양장점에 취직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순옥은 그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진짜 가방끈은 짧아두 내가 사회에 돌아댕기구 현 (경험이 되게 많으신가봐요?)
현 경험은, 진짜 바느질한다구 그냥 여기저기 천호동이고 어디고 뭐 가지 않을 데두 다
가구, 그래서 돌아댕긴 건 많아, 내가. 근데두 글은 안 늘어. <인순옥>

인순옥은 ‘시골’에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경험이었지만 양재기술을 배우거나 서울 양장점에 취업하면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았음을 강조한다. 비록 자신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돌아댕기구”, “어디고 가지 않을 데두 가구, 그래서 돌아댕긴 건 많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양재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해보지 않았음을 경험들이었다. 이는 기술을 매개로 인생에서 남들은 해보지 않을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기술자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양장을 만들었던 양재사는 ‘기능공’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지식이나 감각에 기반한 것이 아닌 단지 손의 숙련과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한 ‘손끝기술’을 가진 기술자로 이해되었고,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가진 ‘기능자’로 구분된 것이다. 경험 보다 과학이 더 우수하다는 이러한 기준은 기술을 남성중심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양재기술에 기반한 양장점 운영을 ‘기능’이나 ‘손끝기술’로만 의미화하는 것은, 양장을 만드는 여성의 기술을 신체의 일부인 손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며 저평가하고 주변화하는 것이다. 즉 양재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경험과 지식을 부정하는 접근 방식이다. 당사자인 여성 양장점 운영자에게 있어서 양재기술의 숙련의 형성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작업 지식과 통제 능력 등을 동시에 키움으로써 양장 생산과 양장점 운영에 능숙해지는 것을 뜻한다.

손과 머리가 하나라고 강조했던 리처드 세넷(2010)은 행동과 이론, 기술과 표현, 장인과 예술가, 제작자와 사용자 등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혹은 장인이 일하는 방식은 손과 머리를 같이 쓰는 과정이자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상상력을 자극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의 양재기술을 전후라는 시대적 맥락과 여성 개인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화되어야 한다. 양재기술은 양장점 운영자들에게 남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진 직업인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여성들은 서로의 관계망을 구축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2. 기술자를 양성하는 양재기술교육의 장(場), 양장점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의 숙련된 양재기술을 여성들에게 전수(傳受)하였다. 기술 습득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기에 전개된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기술 전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양재기술을 숙련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양재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졌다. 경제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전후 여성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자원이 없어 장사를 하는 가운데, 구술자들은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양재기술을 가짐으로써 좀 더 나은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하며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양재기술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기술교육을 시작한 것은 숙련된 양재기술을 가진 여성들을 쉽게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여성인력의 양성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주

의 필요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구술자들은 주변의 지인이나 양재기술을 배우러 양장점에 취직한 여성들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쳤다. 이로써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은 양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은 물론,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며 숙련하는 양재기술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1950년대는 양장 제작의 전 과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양재기술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 구술자들이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숙련된 기술자로 만드는 것은 양장점의 운영에도 직결된 중요한 일이었다. 이종수는 이모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쳐 양재학원을 운영할 때 강사로 채용한 적이 있으며, 신희자는 동생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쳐 함께 일하기도 했다.

양장점은 양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업적 공간이었지만, 양재기술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술교육의 공간이기도 했다. 전후 한국에서 양장점은 여성기술인력으로서의 양재기술자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양장점이 여성 대상의 기술교육을 전개한 공간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기술과 관련한 여성의 경험이 어떤 특정한 고유성으로 수렴될 수 없었던 사회적 성별체계의 제약과 통제가 있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양재기술을 배우며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김경옥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시다로 채용했으며, 일본어로 된 양재 서적을 주문하는 열의를 불태우며 재봉하는 법을 “세밀하게 가르쳤다.”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재봉사로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 집이 조카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재봉을 하는 데. 내가 어, 그 아이를 일본 재봉하는 책을 주문 해다가 재봉하는 것을 세~밀하게 가르켰어. 그래놓으니까 지금도 내가 여그 와서 살면서 재단해서 보내면 재봉해서 보내주고 그랬어. 우리 딸이 입고 땡기는 오바 같은 거, 어, 바바리 같은 거 다 지금도 만들어서 보내줘. (직원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양재하는 거를?) 양재하는 법을, 지난 번에도 만났더니 그 소리를 하더만. 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제 마, 마 종류인데. 아주 얇은 것이거든. 그것은 바늘, 바느질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스톱하든 거가 옷감이 약하고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 두꺼워져. 그러니까 그런 거 바느질을 할 때는 갔다 오기만 하고 더는 왔다갔다하지 말라고 그래. 갔다 오기만 하고 그래야 옷감이 상하지 않고 바느질이 박은 데가 두꺼워지지 않아. 그런 것을 가르키지. <김경옥>

김경옥은 구술 면담을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양장점에서 근무한 여직원을 만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그 직원에 따르면 자신이 옷감의 종류에 따라 재봉하는 법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줬으며, 바느질을 할 때 박은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는 요령도 가르쳐줬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비록 자신은 잊고 있던 기술교육이었지만 직원이 그 때를 회상하며 고마워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에피소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양장점은 주인과 직원과의 관계에서 기술교육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옥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숙련된 양재기술을 갖게 되면서 독립적인 양재기술자로 양장점이나 피복공장, 교복점을 개업했다고 한다. 자신의 직원들이 “모~두 목포에서 미미 양장에서 재봉을 했다고 하면 두 말 안하고 써줬다.”라거나 “미미양장점? 오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양재기술을 직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숙련된 양재기술자를 배출한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이다. 자신의 직원들이 ‘미미양장점’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양장점에 취업하는 것이 쉬웠다고 말했다며, 자신의 양장점 그리고 그러한 수준 있는 양재기술을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했던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는 양장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주가 본연의 역할이지만, 자신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후 사회에서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직결되었다. 양재기술을 익히면 양장점에 취직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전후 사회에서 양재기술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했다. 양장점에서 직원 대상으로 이뤄진 양재기술교육은 주인과 직원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전개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양재기술의 전수가 이루어진 맥락도 존재한다. 구술자들의 기술교육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졌음을 뜻한다. 양장점을 기반으로 한 양장점 운영자의 기술교육은 자신의 양장점 운영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아실현으로써 의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마리아 미즈가 제시한 ‘자급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들은 양재기술을 배움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전후 사회에서 저평가 받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닌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체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위였다. 배움과 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강한 열망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양장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내적, 외적 맥락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후 1950~60년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재기술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며 직원들에게 양재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여성 기술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양장점에서 직원 대상의 기술교육은 여성들이 가족을 벗어나는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며,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망을 만들게 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자신을 기술자로 정체화 하는 가운데, 기술자들의 긴밀한 관계망과 네트워크의 구성에 참여하였다. 양재기술자 중심의 여성 관계망이 형성되

었다. 양장점은 여성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근무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주인과 직원, 직원과 직원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송용순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사람을 보면 제일 기뻐, 돈보다. 그렇게 다 직원들이 성공하고. 또 한 직원은 남편이 교장인데, 아내가 내조를 잘해서 교장이 됐잖아. 출세를 한 거지. 나랑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편물하는 사람이 군수 부인인데, 전라도 출신이야. 그이도 성격이 매우 명랑해. 우리가 그렇게 세 명이서 콤비가 되어서 일을 같이 잘 했지. 그래서 같이 노래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어. <송용순>

송용순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한 두 여성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남편들이 모두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비슷한 학력을 갖고 있다 보니 서로 친해졌으며, 성격도 모두 “명랑한” 덕에 함께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일했다.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있어 주인과 직원의 관계라기보다는 동료이자 친구관계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양재학원을 다닌 여성들 중에는 여학교를 졸업하는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여성들은 남편의 직업도 사회적 지위가 있지만 박봉의 월급이다 보니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양장점에서 근무하였다. 송용순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동료의식을 가졌다.

곽정희가 양장점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시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10년 가까이 되는 시기로, 주로 20~30대 여성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주인과 직원의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곽정희는 명동의 라모드양장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재봉 일을 돕는 ‘시다’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떤 거는 옷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남는 게 있다고. 옷감이 재단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서 인제 시다가 에리(칼라)도 띠고, 속에 이거 띠고 이런 거 다 띠고 부속 다 띠고 그러고 남는 거 있다구. 그런 걸로 또 옷 해 입고. <곽정희>

곽정희가 친하게 지낸 ‘시다’는 중학교 갓 졸업하고 양장점에 취업한 십대 여성으로 야유회를 함께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녔다. 때로는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감을 구입하거나 양장점에서 남은 옷감으로 함께 양장을 만들어 입었다. 양장점은 직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양장을 만드는 노동을 하는 작업장이었다. 양장점에서 여성들은 동료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동료의식과 친분을 키워가는 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곽정희는 명동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양장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고 지냈다. 양장점이 특정한 거리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양장점에서 근무

하는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광정희는 자신의 결혼식에 온 하객은 양장점에서 근무한 친구들이 많이 왔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른 양장점의 직원들과도 “다 친하게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양장점을 매개로 친밀성을 가진 여성들은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양장점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 사람을 구하는 양장점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양장점을 개업할 때 필요한 요령이나 방법을 교환하며, 직원이 필요할 때는 서로 소개도 해주는 등 양장점 운영의 전반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인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때로는 친밀한 친구 사이가 되기도 하였다. 광정희는 양장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과 노년이 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장점에서 근무했던 여성들이 오랜 세월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양장업에 진입한 뒤 양장점에 오랜 동안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정옥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지금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낸다. 그렇다고 친분 관계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필요한 옷을 재단해서 보내면 재봉을 해서 완성된 옷을 보내준다는 것이다. 양장점을 그만둠으로써 주인과 직원 간의 관계는 끝나지만, 같은 양장업계에 종사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성들은 양장점에서 함께 일했던 것을 계기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기술자를 소개해 주는 등 ‘일감’네트워크는 물론 친목네트워크를 유지하였다. 양장점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들과의 관계가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한 것이다. 양장점 운영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양재기술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료 관계에서 시작된 관계가 친밀한 사적 관계로 전환되는 등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통한 네트워크는 다른 양장점들과 이어지면서 양장점을 운영하거나 혹은 취업한 여성 양재기술자 사이의 느슨한 공동체를 구성하였다.²²⁰⁾ 양장점은 여성 양재기술자들이 다른 여성과 관계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양장점은 전후 지역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 일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점은 규모가 다양했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인건비를 따로 주지는 않고 양재기술을 배워서 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나이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에 위치한 양장점은 일거리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집을 떠나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야 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십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직장이었다. 지역의 도시화 과정에서 양장점은 도시는 물론 농촌 출신의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며 경제활동을 하는

220) 박서영(Park, 2011; 2012)은 서울 창신동의 봉제업에 종사하는 가정공장(home-factory)과 동대문 시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및 동료 간의 친밀한 관계와 시장 생산을 위한 도구적 관계가 상호구성적임을 밝혀낸 바 있다(재인용, 한 나, 2017, 41).

공간이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을에 살고 있는 여성을 데려오기도 하고, 서울이나 대도시 등지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재봉사나 재단사를 데려오기도 하였다. 시다나 재봉 보조와 같이 초보 인력을 구할 때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주로 채용하였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알음알음 소개를 받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경제적 공간이었던 양장점은 여성을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나이 어린 여성들이 양장점에 딸린 살림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이 규모가 컸을 때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18명도 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가족’이라고 불렀다.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먹지, 2층에서. 어, 가게하고 아래층에 또 안집이 있었는데, 안집에서 인자 밥 먹어라 그러면 막 그냥 총알같이 쫓아와서 내려와서 밥을 먹어. 그런데 그 때 다른 집에서는 밥을 저 솥, 이렇게 사발에다가 설렁 설렁 찜는 갑데. 남영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왔는데, 이 밥사발을 탁! 탁! (위 아래로) 치고 거꾸로 딱 해 갖고 탁! 치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영이가 왜 이렇게 밥사발 갖고 장난을 친다냐 물어봤더니 다른 집은 설렁설렁 밥을 푸니까 그렇게 치면 밥사발에 딱 이렇게 내려간다 그거여.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 집은 그것이 아니여. 먹고 싶은 데로 먹어라, 우리 어무니는 녀의 집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픈, 먹은 데로 그런 데로 밥사발 퍼주고 옆에다가 또 밥통 갖다 놓고 퍼서 먹어라. 그런디. 벨스런(벨스런) 아이가 다 있다. 밥사발로 저렇게 장난하면 안되는데 그랬더니, 근데 그 애가 인제 저 쪽 집에서 살 때인데 나를 찾아왔어. 내가 이준마한테 은혜 갚아 놓고 가야 눈을 감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김경옥>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고 기억한다. 친정엄마가 살림을 도맡으며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는 예전부터 자신의 집에 오는 일꾼들에게는 ‘사경’을 넉넉히 주고 제대로 대접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직원들을 느슨한 의미의 ‘가족’으로 여겼다고 말한다. 김경옥은 직원을 모두 포함해 “우리 식구” 혹은 “대가족”이라고 말하며 직원을 자신의 가족과 같은 선상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족이나 식구라는 말은 자신의 자녀와 똑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보다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어려웠던 시절에 몇 푼이라도 벌어서 가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던 직원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양장점에 취직을 한 십대의 여성들이 “어렵게 몇 푼 벌어서 가족 살리는 데 애들한테 잘해야 된다.”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나이 어린 ‘시다’들을 측은한 감정으로 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인과 직원 사에서 때에 따라서는 돌봐주는 관계가 구성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농촌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도시로 옮긴 여성들은 직장을 옮기면서 농촌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도시에서 생활을 지속하였다. 양장점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새롭게 생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어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조건이 나은 양장점이나 규모가 더 큰 양장점으로 옮겨가고는 했다. 이것은 자신의 월급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했다. 양장점은 한국전쟁 이후 유휴 노동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에 위치한 양장점은 농촌의 여성인력을 도시로 유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여성 대상의 사업체였다. 전후 도시화로 농촌의 유휴여성노동력은 양장점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도시의 인구비율은 1949년 17.2%에서 1955년 24.5%, 1960년 28%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등의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조석곤·오유석, 2003)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에서의 기술교육이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자원으로서 기능하였을 보여준다.

물론 여성 양재기술자들 사이에서 학력과 기술력 등의 격차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중에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얻거나 노라노와 같이 일찍이 기성복 생산에 통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여성도 있었다. 반면에, 양장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들 중에는 양재기술을 배웠지만 독자적인 양장점을 운영할 만큼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로써 양장점 운영자와 직원 사이, 즉 여성들 간의 계층적 차이가 발생했다.

더욱이 직원의 기술 훈련과 처우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여주인들은 양재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취업한 직원들에 비해 교육의 정도나 경제적 자원, 사회적 배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양장점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기술교육을 제대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양장점에 취업한 여성들이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이 항상 수월하지는 않았다. 양장점에서 근무를 하지만 제대로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일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정희는 시다로 들어가 근무한 양장점에서 주인이 제대로 양재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깨 너머 기술을 배우거나 바로 위의 기술자한테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여기서 일하는 거는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떠셨어요?) 좀 쉽지. 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적은 데가 좀 쉽지. 근데 이렇게 다녀도 네 사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 사람이랑 일하니까 미싱사한테 다 배우는 거고. 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곽정희>

앞서 언급했듯이 양장점에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월급도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제식으로 양재기술을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주인과 직원 그리고 직원과 직원 사이의 분업화된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이 원하

는 속도로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가 없었다. 여성들 간의 위계적인 차이는 부당한 방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여성들이 양장점에 취업한 것은 기술을 배워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이었지만, 양재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기술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거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박혜영은 1970년대 양장점에서 시다로 일하면서 자신보다 실력은 떨어졌지만 양재학원을 나온 직원을 먼저 승진시키는 바람에 주인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로 양장점을 그만둔 적이 있다.곽정희 역시 양재학원을 나온 사람은 양장점에 와서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양장점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양재기술을 양재학원에서 배웠는지 아니면 양장점에서 시다부터 일을 하면서 배웠는지에 따라 긴장관계가 있었다.

양장점은 양재기술 배우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고 먹고 자는 것만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일·가정을 병행함으로써 바쁜 일과로 인해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다로 혹은 재봉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재단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양장점에 근무한다고 해서 양재기술 습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과 양장점에서 기술을 배워 양재기술자가 된 여성들의 관계는 주인과 직원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위계적인 관계로 갈등을 낳기도 했다. 양복점은 운영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파업의 수가 상당했지만,²²¹⁾ 양장점에서 부당한 임금과 처우를 문제시하며 파업을 한 경우는 드물었다.²²²⁾ 노동운동이 전후 1950년대에 활발하지 않았던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³⁾

221) 당시 양복점은 기술이 없는 주인이 경영을 하는 경향이 컸다면, 양장점은 주인이 양재기술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만큼 양복점은 경영주와 기술자로 이원화된 경향이 컸다. 양복점은 식민지 시대에 이미 대중화됨에 따라 양복점은 운영자와 기술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양복기술을 익혀 양복점을 독립해 운영하는 경우는 1960~70년대부터 등장했다. 이 때문에 기술을 직접 배우지 않은 경영에만 관심이 있는 양복점 운영자에 대해서 기술자들은 동질감을 느끼기 보다는 관리자나 사장으로서 인식이 컸다.

222) 전후 사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온 여성들 중에는 양재기술을 배워 양재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양장점에서의 양재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양장점 보다 공장이 더 나은 작업장으로 여기지기 시작했다. 공장이 좀 더 제대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담론화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의류공장은 부분 공정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 한편 의류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의류 제작 과정의 분업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결과 디자인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봉제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담당하면서 이원화되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에는 의류, 의상, 패션 관련 전공이 증가했다.

223) 1964년 3월 2일에는 전국연합노조 의류 서울지부에서는 서울 자유시장내에 위치한 16개의 양장점을 상대로 노동쟁의 신청을 했다. 노동부 산하의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 50%, 월 2회 이상 정기휴일의 일원화, 노조활동보장 및 노조활동 방해에 위한 고용증대반

기술보유자로서의 여성‘직업인’인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기술을 가진 직업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숙련된 기술을 전수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 양재서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가 여성들에게 기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내며, 양재기술을 가진 여성 중심의 기술자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써 여성 중심의 경제적 장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데 주축이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술을 배우려는 여성들의 관심은 상당히 많았다. 전후 시기는 ‘기술의 시대’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양재를 비롯해 편물, 타자,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녔다. 여성 대상의 양재학원도 전후 사회에서 가장 번창했다. 양재학원은 전후 1950~6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사설교육기관으로 정착했다.²²⁴⁾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원, 즉 자립을 뜻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은 가정경제를 위한 살림 밑천으로서의 기술습득이나 부업을 위한 목적으로 양재기술을 배웠다.²²⁵⁾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일정한 수준의 학교를 다닌 여성들은 양재학원을 다니면서 양재기술을 익히기를 원했다.²²⁶⁾ 전후 1950~60년대는 양재학원 이외에

대를 조건으로 제기한 노동쟁의에 대해 ‘적법’함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가나다양장점외26개 양장점 노동쟁의 사건적법여부 판정서, 1964). 한편 1950년대 여성노동에 관한 논의로는 제일모직노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1960년 조합원 다수가 여성이었던 제일모직노조의 활동을 지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한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 김상숙(2017), “1960년 4월 혁명기 대구지역 노동운동: 제일모직노조와 대구시노동조합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29집, 113~150쪽.

224) 일제 강점기는 사설학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강습회 혹은 학술강습소가 운영되었다. 기술계로는 1921년 개성의 반도복장실습소, 경신학교가 운영한 평안양복실습소, 1938년에 설립된 함흥양재학원(최경자 원장) 등이 있었다. 해방 이후 1948~49년에는 양복과 양장이 붐을 일으키며 서울양재학원, 동서양재학원, 양재여숙, 국제전문학원 등 관련 학원이 많이 생겨났다. 전쟁 중에는 부산에 봉재기술자를 양성하는 서라벌양재학원이 인기를 끌었다. 휴전 이후 양재, 미용, 타자 등 여성을 위한 기술계학원이 주류를 이루며 문을 열었다. 1950년대 중후반에 세워진 학원으로는 수도양재학원, 서울복장전문학원 등이 있었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설학원에 관한 감독이 본격화되었다. 1950~60년대에는 미용, 요리, 편물, 기계자수 등 여성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가정계열의 학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962년 현재 가정계가 165개로 가장 많았고, 문리계 126개, 기술계 100개, 사무계 59개, 기타 71개 순이었다. 1970년까지 가정계열의 기술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사무계, 예능계, 체육계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950년대는 행정기관의 규제나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은 자유롭게 설립 및 운영되었으며, 기술학원, 미용학원, 타자학원, 양재학원, 편물학원 등으로 전국에 300여개의 각종 학원이 운영되었다(하광호, 2004).

225) 1955년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사교육시장은 발전하기 시작했다(박명희·백일우, 2016: 29). 그 결과 사설학습강습소에 해당하는 (가정)양재학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226) 양재학원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기간을 거치면 혼자서 양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도 고등기술학교의 설립이 상당히 활발했다. 정부가 설립을 인가한 공식교육기관으로 고등기술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이상인 여성들이 입학해 양재, 미용, 편물 등을 배웠다(박준엽, 2010: 83). 당시 양재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학교 교육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졌다. 1950~60년대 양재학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기술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만큼 여성 대상의 양재기술교육이 학교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졌다. 양복기술은 양복점에서 도제식으로 주로 배웠다. 양복기술을 배우는 남성들은 상당수가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정도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양재학원 설립을 통한 기술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양재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자신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양재기술을 통해서 얻은 여성의 경제적 성취를 양재학원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확장하고자 했다.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학원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전후 사회에서 여성 대상의 양재기술교육은 자신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다른 여성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self-reliance)을 지원하고자 했다. 여성들이 양장점에서 혹은 양재학원을 설립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재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가족을 넘어서 타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장점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C.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의 경제사회의 구성

1. 양장문화를 통한 새로운 여성문화의 생산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기반으로 여성 중심의 새로운 소비문화, 즉 여성문화를 구성한다. 양장점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양장문화를 소개하며 여성 중심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신 유행의 양장을 입고 양장을 만드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의 존재는 전후 사회에서 양장에 대한 욕망과 유행의 변화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원을 치렀을 때 내 나이가 21살인데, 부산에서 좀 이름 있는 여자 분이 되신 거예요?) 아이구, 그뿐지 아이라. 내가 옷을 해 입고 나가면은 모델이야! 내가 옷을 해 입고 나가면은 모두 모델을 보고 또 하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녔어요?) 하이구, 구두만 신어요! 모양을 얼마나 냈다고! 그때부터 모자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때부터 모자를, 지금도 모자를 쓰는 사람이야! 모자를 써도 특이한 모자를 여 딱! 딱! 가려가지고 써 가 다니는 데, 우스워죽겠지. (웃음) 화장은 좀, 구찌베리까지는 안발라도 이쪽 얼굴이 깨끗하고 희었어. (...) 외국인들을 상대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멋을 부리게 되더라고. 알랑말랑 인자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겼어. <이종수>

패션 분야에서 전문모델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패션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존재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하였다. 이종수는 부산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내가 옷을 해 입고 나가면은 모델이야”라며, 부산에서 자신이 모델처럼 양장을 통한 최신 유행을 이끌었다고 의미화하였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한복을 입었지만 이종수 자신은 구두를 신고 모자를 썼으며 화장도 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최신 유행의 양장을 입고 다녔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엄청난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서사화한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양장이 여성들에게 양장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

구술자들은 자신이 만들어 입고 있던 양장을 벗어달라고 하는 고객의 성화로 벗어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고객들이 양장점 주인인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고 한다. 제주도의 신회자는 양장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처럼 그대로 해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양장점 하실 때는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블라우스 입었지, 뭐. 만들어서 치마 입고 그랬어. 의상 그 만들어도이, 그 색다르게 만들어 입은 것 같애. 그러면이 나 만든 거 입은

거 보고이, 그렇게 해달라고. 대구에 가면이 그때는 코트가 한참 유행인데. 카시미아 옷 감이라고, 코트감이 나와. 그러면 그 코트감도이 빨간색, 초록색 막 색깔별로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초록코트도 해 입고 빨간 코트도 해입고. 막 그런 (옷감의) 차투리들이 있어 이. 차투리를 놓고서 요쪽 다르게 요쪽 달르고 이렇게. 그거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쿠라. 어느 날 없어져불고, 나 이 바바리코트도이 해 입으면 어느 새 없어져. 멋지다고 그렇게 없어지더라구. 응. <신희자>

신희자는 유행하는 코트를 만들어 입었는데, 손님들이 자신이 입은 코트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신희자는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손님의 관심을 끌었다고 해석한다. 최신 유행의 양장을 입고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양장을 맞춰 입고 싶은 욕망을 구성하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전문 모델이 최신 유행하는 양장을 잡지나 텔레비전을 통해 알리기 이전, 양장점 운영자들이 대중적인 파급력을 미친 실질적인 모델이었다.

양장이 여성들의 관심을 막 끌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양장점 주인이 새롭게 만들어 입은 양장은 여성들의 시선을 끌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상화는 젊은 사람들 많이 왔죠. 상파 뉴할 때는조금 중년 30,40대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미가 가고 나니 한 40,50대. 그 나이가 한참 옷을 해 입을 때니까. 롱 드레스 많이 입고 있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최하 열 벌은 나갔다.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었어. 하루에 몇 개씩 나가. 어떤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을 뺏어가요, 맞추면 똑같이 안 나온다면서. 그러면 나도 금방 도 해 입고. 공장에 들어가면 손님 옷 해주느라고 내 옷을 안 해주네. 그럼 (직원들) 볍아가 볍아가 내 옷 해 입고. 그거 입고 있으면 또 인기가 있으면 디자인 똑같은 거를 공장에서 뺏아내는 거죠. 그때 내가 인물은 없어도 남들 보기에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디자인도 내가 천을 골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면 다 그 말을 들어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죠. (...) 기억나는 게 홈 드레스, 롱 드레스인데요. 카키색에다가 꽃무늬가 띄엄띄엄 있었어요. 고걸 입고 있으니까 제일 인기 있데. 그게 기억 나. 나는 임신복으로 만들었는데 그 분들은 홈 드레스를 평상복으로 입나봐. <박부대, 130쪽>

대구 박부대 역시 롱드레스를 입고 근무했는데 자신이 입었던 옷이 최하 열 벌 이상은 팔렸을 정도로 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어떤 고객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고객들이 양장점 주인을 모델로 여기고 그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이 맘에 들면 디자인이 동일해도 똑같이 맞춰 입었다. 여성들은 양장점 주인이 입은 양장처럼 똑같이 맞춰 입음으로써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자 했다. 이는 여성들이 문화

의 보호자 역할을 맡던 것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문화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보여준다(권혜린, 2020: 21). 이로써 양장점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이 양장을 맞춰 입을으로써 여성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었다. 전후 사회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부상한 양장점은 여성들의 욕망을 구성하는 공간이었다. 양장점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비를 통한 쾌락과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의 새로운 양장문화를 통해 소비문화를 창조하며 경제행위로서 여성들의 구체적인 소비 실천을 이끌며 여성의 소비적 실천에 기반한 여성문화를 구성해나갔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전후 사회에서 양장문화를 통한 여성 의복의 전환을 이끌어냈는데, 이를 ‘생활개선’, 즉 여성의 근대화로 의미화하였다. 해방 이후 부산과 서울에서 양장점을 운영하고 양재학원 설립은 물론 부산에 위치한 대학에서 양재강사로 지낸 이종수는 오랜 세월 양장을 만드는 경험을 통한 양장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와 자기 나름의 원칙과 철학을 가졌다. 이종수는 사람마다 개인이 가진 얼굴과 신체가 다르며 취향에 따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하지만, 동시에 조화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양장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고객의 외모, 취향, 감각 등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종수는 여성의 의복문화를 개선한 것으로 자신의 양장점 운영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생활개선을 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개선. 한복에서 생활개선이 이 편리한 복장으로 변화를 시킨 생활개선이야. 내 이 종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응. 생활개선에 일종의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뭐 사치를 떠나서. 물론 사치도 있다고. 분명히. 사치도 있는 데. 사치를 떠나서 이 우리의 그 생활개선에 예, 접하지 않았나. 또 이 양장이라는 게 쪼끔 쪼끔만 자기가 또 고쳐서 변화시켜서 입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사서 버리고. 음. 아무튼 입고 먹고 안 하면은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의식주니까. 의복 그 복장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수>

이종수는 한복이 가진 불편함 대신에 편리한 복장인 양장을 입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이종수는 양장지라는 옷감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사치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성의 몸에 맞게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양장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자평하였다. 양장은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취향에 맞게 약간씩 수선을 해서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는 그러한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황에서 양장을 생산한 사람으로서 “개척자”와 같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여성의 의복에 관한 “생활개선”을 해냈다고 보

았다. 양장을 생산하거나 양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종수는 개인의 노력과 감각을 발휘하며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여성의 의복문화와 관련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근대를 이끈 문화생산자로서 정체화하였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양장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양장을 로컬화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종수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 여자들의 체격에 맞게”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 여성의 몸과 취향에 맞지 않으며 한국적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장문화를 ‘로컬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즉 한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유행을 조정하는 것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여겼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여성과 관련하여 신문, 잡지,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외국의 유행을 접하고 여성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양재에 관한 기술과 문화 등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여성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최신식 유행과 같이 새로운 취향과 양장 중심의 패션문화를 만들었다. 자신이 양장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 이를 고객들과 공유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양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지식, 문화를 한국적 토양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 양장업계에 진출한 구술자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 지역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다. 김경옥은 자신이 목포에서 양장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신희자 역시 “내가 한림에서 최초로 했어. 양장점 운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양장문화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존재한다. 이종수는 “나는 앞선 사람이야. 붐을 일으켰어. 새로운 거 중요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최초 혹은 첫 번째로 양장점을 운영했다는 것의 의미는 양장문화라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움, 즉 근대를 이끈 여성을 뜻한다.

그리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을 통한 지역문화의 성장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의 일원이 되어갔다.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다양한 종류의 양장을 필요로 하였다. 양장점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양장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성장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학교를 비롯해 문화예술단체, 기관, 조직, 모임 등이 다양한 곳에서 맞춤 양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나 문화예술단체 등은 미국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구화된 방식의 공연이나 문화 행사, 체육활동을 전개하였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김경옥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장을 제작했는

데, 무대 의상과 단체 유니폼 등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나중에는이 저 유치원 원복을 해 갖고 돈 벌어서 우리 애기들 가르키고 학교 합창부 옷을 만들고 또 연극할 때 연극 무대 뭐 올라가는데 거시기 하고 또 무용 발표회 한다고 하면 뭐 백조옷도 만들고 또 뿔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양재기술 없으셨으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내가 손재주가 있었던가, 괜찮았어. 내가 양장점을 일찍 시작했지. 그런데 언니가 인자 있어서 언니랑 같이 시작한 것이, 언니가 (일본으로) 가 버리니까, 나 인자 샅바느질을 하면서 유치원 원복 하면서 그 뿔이나? 합창, 학교 합창부 옷 하면서 인자 그러면서 인자 기술이 늘었지. <김경옥>

김경옥은 단체복인 유치원 원아복, 학교 합창단의 무대 의상복, 무대위에서 열리는 음악 공연을 위한 연주복,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이나 무용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무대 의상, 피아노 대회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무대의상 등을 만들었다. 문화예술 행사 이외에도 야구부 유니폼과 같은 체육 관련 유니폼이나 공공기관의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단체복 주문이 들어오면 동일한 디자인을 다량으로 제작해야했기 때문에 수입이 은 물론 양재기술을 숙련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양장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생산자였다. 즉 양장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2.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여성의 다층적 계급화

전후 사회에 급부상한 양장점은 대도시를 시작으로, 중소도시로 점차 확장되면서 여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적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양장점은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점인 소비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가 구성될 수 있는 물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양장점을 운영하고 근무하면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고객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의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여성들끼리 주로 함께 일하고, 여성 고객을 상대로 면대면으로 맞춤 양장을 판매하는 등 양장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경제적 활동은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의 장소가 되었다.

양장점은 여성 고객과의 신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여성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맞춤 양장을 제작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면대면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양장점은 독립된 물적 공간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김경옥은 목포에서 여학교를 다녔지만, ‘여순사건’의 참여로 졸업을 하지 못했다. 김경옥은 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을 하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만큼 그녀는 양장점을 운영하며 모교의 동창회장까지 맡아하며 동창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김경옥의 양장점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 사이의 커뮤니티가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그녀와 동창관계에 있던 여성들은 김경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의 주된 단골이기도 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며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구성하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즉 여성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관계로 구성되며, 그 반대도 성립이 되었다.

여성들은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만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 및 재구성된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확장은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며 이는 다시금 여성들의 경제적 실천을 특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양장점은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양장점 운영이라는 자영업을 통해 구성된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적화된 관계로 발전했다. 양장점을 매개로 맺어진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친밀한 사적 관계로 형성됨에 따라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친밀한 사적 관계로 구성된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사적인 삶에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양장점을 통해서 맺게 된 관계들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지지를 받았다. 여성들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가정이 빚을 졌을 때,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데 돈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이나 도움은 금전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의지와 지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터전과 지지 그룹을 마련해할 필요가 있었다. 여성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양장점은 새로운 여성 커뮤니티이자,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성들은 양장점을 혼자서 방문하기도 하지만 친구와 약속을 하고 함께 만나거나 엄마 혹은 자매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여성들은 비슷한 옷을 맞춰 입고 친밀감과 동류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여성 고객들은 양장점을 기반으로 동료 의식과 자매애를 구성하며 정서적 공동체 혹은 여성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갔다. 양장점은 여성 중심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며,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 중심의 사회적 영역이 되었다. 양장점은 여성 중심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 커뮤니티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양장점이라는 물적 공간을 기반으로 양장점 주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장점은 여성 고객들에게 여성들끼리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유지하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양장점은 친밀한 관계에 놓인 여성들이 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여성의 공간으로서, 여성 중심의 사교의 장이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²²⁷⁾²²⁸⁾ 즉 양장점은 여성이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자신의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들과 계(契)를 하기도 하였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들이 큰돈을 융통하거나 돈을 불리는 방법은 적당치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계모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종수는 부산에서 양장점을 하는 동안 단골 고객들과 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양장점 주인과 고객 사이의 계모임은 생산과 소비 공간인 양장점이 여성들의 또 다른 경제적 실천인 금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관계망을 구성한다. 이로써 양장점은 양장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교환 거래에 의한 화폐가 유통되는 것은 물론 계모임을 통해서도 화폐가 거래되는 공간이었다. 양장점은 여성들 사이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장점은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가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이 가족과 친족, 마을과 같은 이웃관계와는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에게 양장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여성들끼리 가족 관계를 넘어서 여성들끼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여성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의미를 가졌다. 양장점은 여성중심적인 동성(同性)사회적 공간이었다. 즉 양장점은 여성과 양장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서 여성과 여성을 연결하는 공간이었다. 김지혜(2010)는 전후 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된 성별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여성들의 성 분리 문화와 동성친화성에 대한 지향을 고양시켰다(122)고 지적한 바 있다. 양장점 역시 전후 사회에서 양장을 매개로 여성 중심의 동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여성

227) 전쟁 이후 한반도를 본다면 국가는 남성과 여성들의 군집에서 잉여 존재들, 유엔마담, 유엔 사모님, 양공주, 전쟁미망인 등의 구체적인 삶을 보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사회 재건에 미망인을 포함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그들의 노동력과 가정을 꾸려나갈 자애로운 ‘어머니’상을 요구할 뿐이다(전경옥·유숙란·신희선·김은실 외, 2011: 105-106).

228) 한국 최초의 패션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진 노라노는 당시 하루 고객이 삼십 여명 정도가 찾아왔다. 그 중에서 열 명은 디자인, 열 명은 가봉, 그리고 열 명은 대접을 하는 것인데 완성된 양장을 찾아가기 위한 방문이었다.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노라노가 손님의 방문으로 바빴지만 그것이 일반 손님보다는 여배우를 비롯하여 모델, 수필가, 작가 그리고 직업여성 그리고 외국을 방문하는 여성들 등 특별한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다. 노라노는 양장점을 찾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객들과 교류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노라노 양장점을 방문한 여성들로는 김금주, 남미리, 김은희, 조경희, 전숙희, 문혜란 등이었다. 노라노가 파리 연수시 공항에서 환송 시에 찍은 사진에 이들이 있다(노라노, 2012: 117).

경제사회를 구성해냈다.

양장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성 중심의 노동력인력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였다. 양장점은 맞춤복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 및 거래는 지역사회의 수준 혹은 범위에서 주로 이뤄졌다. 구술자 신희자는 제주에서 한림읍에 위치했으며, 고객의 대다수는 한림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이었다. 목포에서 양장점을 했던 김경옥은 목포에 사는 여성들이 주된 고객이었다. 이로써 양장점은 마을 혹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했다.

김경옥의 아버지는 목포에서 오랜 동안 장사를 하는 등 가족이 대부분 목포에서 터를 닦고 살았다. 이 때문에 목포 지역의 사람들은 김경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을 친근하게 여겼다고 한다. 마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은 양장을 맞추지 않더라도 김경옥이 운영하는 양장점에 방문해 여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맡긴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잠시 구경도 하러 방문했다고 한다.

(양장점 광고 같은 거는 안하셨어요?) 안했어. (광고 안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양장점 있는지 와요?) 조그만 바닥에서 양장점을 하면 다 오지. 그러고 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인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렇게 다 오지. 옷 안말겨도 들렸다가 잘 되나 들여다보고. (워낙 학교를 다니셨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분들이 오신 거구나.) 응. (친구들이라던가, 뭐 학교 다니던, 여학교 다닐 때 알던 분들도 좀 오시고?) 다 오지, 왔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똑같이 학교 땡겼는디 너는 양장점을 해서 옷을 맨들어 주고, 우리는 너한테 맬기고 정말로 우리는 뭐했을까 그런 말이어. <김경옥>

김경옥은 자신의 양장점이 목포라는 ‘작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들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양장점은 지역사회에 위치함으로써 지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상업적인 공간이었다. 양장점은 일종의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²²⁹⁾ 이로써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재건과 회복이 양장점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양장점을 매개로 구성된 여성 커뮤니티의 안에는 여성 내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양장점을 기반으로 구성한 여성 공동체는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

229) 미용실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이든 여성 고객들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덕적 의미의 여성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용실은 여성들이 동성사회적 문화(homosocial culture)를 형성하는 장인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핵심적인 기구(institution)로 작동함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고유정, 2015 재인용 : Furman, 1997; Willett, 2000).

다. 양장점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유학을 다녀왔던 송용순은 학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양장점을 드나드는 고객들은 자신이 졸업한 여학교 출신들이 많았다. 비슷한 조건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비슷한 취향을 향유하며 같은 양장점을 드나들었다. 양장점은 미국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의 공간으로서, 여성의 소비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였다.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매개로 구성된 여성 공동체는 양장점에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취향이라는 공통점 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경의 조건에 따른 차이 속에서 구성되는 측면이 있었다. 취향의 차이를 매개로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 계층적 차이가 구체화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여성들은 양장문화를 통해 여성문화를 생산하며 함께 향유하기도 하지만 취향과 감각의 차이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구별짓기가 확대되는 과정이 함께 발생하였다. 서울 명동의 양장점, 지역사회에 위치한 양장점, 방직공장 앞에 위치한 양장점 그리고 기지촌에 위치한 양장점 등을 다니는 여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방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공장 앞에 위치한 신회자의 양장점에서 양장을 맞춰 입었다. 방직공장 노동자라는 공통된 조건을 가진 여성들은 같은 양장점을 드나들면서 비슷한 취향의 양장을 맞춰 입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여성들끼리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여성들 사이에는 양장점을 통한 공통된 여성문화를 공유하는 동시에,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얻거나 노라노와 같이 기성복 생산에 진출해 사회적 인사가 되는 등 여러 면에서 성공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양장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여성들은 양재기술을 배우기는 했지만 양장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기술과 감각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문화자원을 가지지 못하였다. 같은 양장점 안에서도 주인과 직원의 위치에 따른 차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양장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양재기술 그리고 감각적인 능력과 사회적 자원 등이 요구되는 데, 모든 여성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은 여성문화를 통해서 여성을 동질화하면서도 여성들 사이의 취향과 감각, 계급이나 계층 등 다양한 차이가 구체화된 방식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양장점은 여성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여성들의 관계를 밀집시키면서도 이와 동시에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확대 생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장점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새로운 커뮤니티와 다양한 사회관계를 구축하면서 여성경제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²³⁰⁾

이러한 여성들 간의 차이 속에서 여성의 다층적 계급화가 전개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순-그레엄이 제시한 다층적 계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순-그레엄

230) 베로니카(1991)는 여성의 종속을 초래한 남성사회로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성 사회의 상실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333).

(2013[2006])에 따르면, 경제적 계급 과정이 자본주의적 계급과 같은 본질적인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과정(class process)이 전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계급을 하나의 통합된 사회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계급과정”들에 의해 중층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계급과정은 “잉여노동을 생산하고 전유하는(착취) 사회적 과정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잉여노동의 분배 과정(131)”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화폐 수입을 가부장적인 관계에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처분되고 이들이 가족의 경제적 대표성을 발휘함으로써 양장점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착취적 자본가가 될 수 없다.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양장점 운영자는 점포, 재봉틀, 옷감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계급화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젠더질서의 작동으로 최대의 이윤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며 자본축적을 시도하는 여성 ‘경제인’이 되는 곤경을 겪었다. 그리고 여성 양장점 운영자는 양장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양장점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은 직원과 가족에게 분배되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계급은 잉여노동의 생산과 전유는 물론 분배의 과정까지 주목함으로써, 다층적 계급화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D.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의 동원과 주변적 존속(存續)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구축과 여성‘직업인’을 구성한 양장점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전개되면서 커다란 변화와 위기를 겪었다.

산업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양장점은 문제적인 공간으로 의미화되었다. 양장점에 대한 부정적 전형화는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우선 대낮에 손님인척 가장하고 양장점에 방문한 여성들이 양장을 입은 채 도망가는 수법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기사화되곤 하였다.²³¹⁾ 여성이 운영하는 양장점에 동성(同性)인 여성 도둑이 침입함으로써 손해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함에 따라 양장점이 여성의 직업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에 균열을 가한다. 양장점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언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양장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적으로 위험한 여성으로 ‘스캔들화’하는 현상이다. ‘양장점 여점원 살해 사건’으로 불리며 양장점의 여직원이 남자와의 치정관계로 인해 살해되었다는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뤄졌다. “삼각관계가 빚은 치정살인인 듯”, “일상 남성과 교제 잦아”, “30세 청년 따라나가 시체로”²³²⁾라는 제목은 남성과의 관계에 치중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기사화는 양장점 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위험한’ 여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한 여성이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안전한 공간에 침입한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러한 서사의 등장은 여성이 양장점이 아닌 대량생산을 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진출하도록 하여 국가 경제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외에도 양장점의 잦은 화재²³³⁾는 물론 양장점이 갖고 있는 양장지와 재봉틀은 절도의 대상이 되어 신문에 오르내리는²³⁴⁾ 등 양장점이 ‘문제적인’ 공간으로 설명되었다.

둘째는 소상품 생산 방식을 취하는 양장점이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성복과 맞춤복을 비교하는 기사에는 대량생산의 시대가 도래 했는 데, 의복

231) “양장점 털기 16회”, 《경향신문》 1961. 4. 15; “4인조 여자절도”, 《조선일보》, 1961. 4. 15; “양장점에 도둑 131만원 어치 훔쳐”, 《경향신문》 1963.3.11.; “여자도 낀 강도 양장점을 털어”, 《경향신문》, 1962.1.10.; “여대생이 들치기”, 《조선일보》, 1962.8.18.; “피서에 미친 트리오 사기”, 《조선일보》, 1964.7. 26.

232) “스물세살 난 양장점 여점원 심야! 방산시장서 피살”, 《경향신문》 1961.2.14.; “여점원 살해 사건 진범은 K대의 김군?”, 《경향신문》 1961. 2. 15; “용의자 치정관계 2명을 연행”, 《경향신문》 1961. 2. 15; “묘령의 여점원 피살”, 1961. 2. 15; “여점원 살해범은 제3의 사나이?”, 《경향신문》 1961. 2. 18

233) “어제밤 시내에 두곳에 불”, 《동아일보》 1961.11.24.;

234) “양장점에 절도”, 《조선일보》, 1961. 3. 14; “양장점에 도둑 131만원 어치 훔쳐”, 《경향신문》, 1963. 3. 11 ; “좀도둑”, 《동아일보》, 1963. 3.11; “양장점에 도둑”, 《조선일보》, 1965.1.7.; “도둑에 떠는 신촌동, 양장점 “마네킹”옷도 벗겨가”, 《동아일보》, 1965.1.30.

제작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스피드와 능률을 최대의 미덕으로 삼는 시대에 살고²³⁵⁾ 있는 우리는 주문복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거나²³⁶⁾, “비싼 공전을 뜯어 연명하는 양장점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평, 양장업계에서도 기성복 바람을 일으켜 공전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봐야 할 때가 왔다”며 맞춤복 대신 기성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²³⁷⁾ 또한 “여성들의 생활이 바빠지고 맞춤복이 비싸짐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²³⁸⁾며, 시대의 주류가 전환되었음을 강조한다. 더욱이 남성 디자이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선·후배 알력과 지나친 개인주의의 불화 속에서 안일과 태만으로 흐른”다고 지적하는 반면 “남성 디자이너들은 협조와 공동노력의 의욕을 보이고”있다,²³⁹⁾ 여성이 주도한 양장점을 남성의 주도로 전환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성복의 부상이 남성 디자이너와 함께 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기사들은 기성복이 활기를 찾고 값싸고 질 좋은 기성복 시대가 도래했으며, 기성복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²⁴⁰⁾며,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도 기성복의 시대라고 서사화된다. 이로써 의복 관련 기성복이 이미 주류인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외에도 양장점이 ‘문제적’ 사업체로서 이미지화되었다. 양장점은 밀수로 들여온 양장지를 몰래 가지고 양장을 만들어 파는 불법적인 사업체로 등장했다.²⁴¹⁾ 양장점이 양장을 팔아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업체로서 신문에서 기사화되었다. 공식경제와는 달리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양장점을 둘러싼 사회적 언설이 변화하게 된 것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1954년부터 전개된 미국에 의한 대한원조가 1960년대 전반기를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했으며,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전환되었다(박태균, 2007).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내세우며 발전주의 국

235) “봄 이는 기성복 판매”, 《매일경제》, 1968.5.13.; “값싸고 질 좋은 고급 기성복 시대”, 《동아일보》, 1970.5.15.;

236) “삶의 지름길 새 주부학을 위한 공동연구시리즈(28) 기성복과 맞춤옷”, 《경향신문》 1966.3.28

237) “기성복 바람이 불어야”, 《매일경제》, 1968. 5. 7.

238) “판도 바뀐 서울의 양장가”, 《경향신문》, 1969.4.21.

239) “판도 바뀐 서울의 양장가”, 《경향신문》, 1969.4.21.

240) “활기 띠 기성복 수출”, 《매일경제》, 1969. 1. 15; “기성복 수출 호보”, 《매일경제》, 1970.10.8.; “각광받는 기성복 수출”, 《매일경제》, 1970.6.8.

241) 이러한 행위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1961년에 발효됨에 따라 문제가 된 것으로, 품질이 낮은 국산옷감 보다 수입 양장지를 선호하는 고객들로 인해 미군 피엑스를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제작된 옷감이 유출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외제 옷감 은닉 양장점 주인 구속”, 《경향신문》, 1961.10.6.; “왜래품 판금법 위반 구속제1호 PX물품 은닉한 윤씨”, 《조선일보》 1961. 10. 6; “특외품 4백점 적발”, 《경향신문》 1965.6.19.; “기쁜소리사, 송옥양장점 등 21개 업소를 적발”, 《조선일보》 1965.6.19.; “외래품 감춰둔 양장점 주인 구속”, 1961. 10. 8.

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²⁴²⁾ 국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의 산업정책을 전개하는 등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의류산업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하에서 수출주도산업으로 전환하였다(장필화, 1991: 72). 그 결과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품 생산 방식이 아니라 수출 위주의 기성복 대량생산 시스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 속에서 의류봉제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양장점의 의류시장에 대한 주도권이 대량생산을 하는 피복공장과 대규모 의류기업체로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의류봉제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1964년에 수출산업육성을 위해서 상공부에서 발표한 ‘수출진흥종합시책’을 바탕으로 수출특화산업제도가 추진되었다.²⁴³⁾²⁴⁴⁾ 정부는 수출특화산업의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 업종에 ‘봉제 의류’를 포함하였다.²⁴⁵⁾ 당시 대상 업종으로 선정되면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체 당 대출규모는 1,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10% 5년 균등 년부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하였다.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소요자금의 5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업체였다.²⁴⁶⁾ 중소기업의 규모에 일정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체만이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은 소상품 생산 방식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생계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본금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한국의 의류수출은 외국 바이어의 주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저가 격 위주의 저급품으로 판매되어왔다. 선진국의 주문에 따른 OEM방식(보세가공수출, 수탁가공수출형태)으로 수출을 하면서 국제 하청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다(전명숙, 2000: 203). 이에 의류봉제업의 노동과정은 ‘출혈적 테일러리즘(bloody Taylorism)’이라는 특징을 지녔다(김귀옥, 2004). 생산량 대부분이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한국의 10대 수출상품에서 ‘의류’(봉제품)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67년 18.4%, 1972년 27.2%, 1977년 20.5%, 1982년 17.3%였다.²⁴⁷⁾²⁴⁸⁾ 이로써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중심의 의류산업이 형성되었다(전명숙, 2000:203). 국가의 강력한 경제정책이 의류산업의 대량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극적인 생산량 증가

242)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1966년)을 시작으로, 2차(1967~1971년)와 3차(1972~1976년)가 1960~70년대에 주로 전개되었다.

243) 국무위원 상공부장관(1965), <1965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

244)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1965), <수출특화산업의 실태와 육성계획에 대한 조사보고>.

245) 공보부(1965.7.10.), 《관보 제4089호: 상공부고시 제1,955호》, 149쪽.

246) 공보부(1966.5.16.), 《관보 제4348호: 상공부공고 제3,82호》, 2198쪽.

24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67~1982년, 이영훈 재인용, 419쪽.

248) 이로써 전체 제조업의 성장이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에 230.3%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의류산업의 성장은 516.4%에 이르렀다.

에 비례하여 의류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1973년에서 1975년까지 2년 동안 52%넘게 증가해서 19만 명 정도에서 29만 명에 이르렀다(전순옥, 2004: 120~121). 이와 함께 봉제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력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구성되었다. 농촌 출신의 미혼여성들이 집을 떠나 의류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진입하여 강도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제1세계의 소비자를 위해서 한국의 의류산업이 미혼여성을 착취하는 공간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류산업은 미혼 여성을 위주로 하는 저임금의 공장노동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선도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 과정을 통한 의류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기성복을 생산하는 대자본의 대기업은 전후 사회에서 의류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양장점의 숙련된 노동력과 자원을 통합하면서 추진하였다.²⁴⁹⁾ 다시 말해 대량생산을 통한 기성복 시장의 성장은 맞춤형을 만드는 양장업에 종사하는 여성기술인적자원을 대량생산시스템으로 편입시켰다. 전명숙(2000)에 따르면, 2000년대 의류산업에서 높은 임금과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고속숙공들은 1970년대부터 주로 고가품 내수 시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숙녀복이나 남성복 분야에서 근무했던 노동력이라고 한다. 이들은 1970년대 흔하게 존재했던 양장점이나 양복점 등에서의 근무를 통해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습득하였다고 한다(212). 즉 양장점의 주변화와 함께 양장업계에 있던 기술인력이 대량생산을 하는 사업체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양장점이 양장문화의 유행을 통해 의류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의류산업의 주도권을 여성 맞춤형업계에서 대자본을 가진 대규모 기업의 기성복업체로 전환하는

249)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양장점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뤄지던 생산 공정은 대량생산 체제의 변화 의복 제작 과정이 한층 더 파편화·분업화되었다. 전후 1950~60년대 양장점은 디자인과 재단, 봉제 등 양장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으며 고객을 상대로 판매까지 하였다. 수출 주도의 기반 산업으로 의류산업이 자리매김하면서 의복의 제작 과정에서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는 ‘봉제(縫製)’의 단계가 단독으로 분리되었다. 의류산업을 구성하는 하위 업종으로서 ‘의류봉제업’은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단된 옷감을 연결하여 한 벌의 의복으로 완성하는 봉제단계에 집중된 제조업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의복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의류산업에서 기술은 디자인과 재단과 분리된 ‘봉제기술’과 같은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로 인해, 양재기술은 ‘기술(technology)’보다 하위인 것으로 전락하는 ‘기능화’가 이루어졌다. 즉 여성의 양재기술이 ‘봉제기술’로 상징화되고, 여성의 기술(technology)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skill)’으로 여겨졌다. 즉 맞춤형에서 대량생산의 기성복으로의 전환은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이 통합적으로 실천했던 디자인과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를 디자인(디자이너)과 봉제(재봉사)로 완전히 구분시켰다. 이 결과 의류봉제업은 문화적, 사회적 자본과 분리된 채 숙련된 손끝기술만으로 가능한 업종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대량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공장이나 대형 작업장에서는 남성이 재단사로, 여성이 봉제사인 위계화된 성별분업이 전개되었다(이수자, 1984). 결국 라인별 공정의 부분으로 위치지어진 여성들은 의복 공정의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결과를 낳았다. 국가가 양재기술을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양장점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가진 기술인력과 관련 분야의 자원을 차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장점의 기술인력은 수출 주도의 국가경제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양장점이 아니라 자본가와 남성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공장에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시작했다. 전후 사회에서 식모와 여공이 되기 위해 도시로 온 농촌 출신의 여성들은 양재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를 지나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장점에서 양재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 보다는 공장이 더 나은 작업장으로 담론화되었다. 1960년대는 담론적으로 헌신적이면서 생산적인 여성주체가 구성되는 시대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가족과 지역 기반의 여성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주체가 아니라, 가족에서 바로 국가와 연결되는 존재로 의미화되었다. 더욱이 여성의 공장노동은 결혼 전에 미혼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담론화되면서 여성은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즉 여성의 일은 ‘과정적/임시적’인 노동으로 의미화되고, 결혼을 통해서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과 중산층 진입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된다. 즉 똑같은 양재기술이지만 전후의 양장점은 결혼 후에도 가능한 직업이었지만, 산업화 시기 양재기술은 결혼 전에 한정된 기술로 의미화되었다.²⁵⁰⁾

대량생산 중심의 의류산업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 여성기술자들이 공장으로 진입하고 소비자들은 기성복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양장점은 점차 사라지거나 주변화되었다.²⁵¹⁾ 양장점은 여성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었지만, 외부와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취약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영업이나 고객관리 등 사업이나 경영에 주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장점의 운영 방식은 공식경제에서 전개되는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생산체제가 부상함에 따라 기성복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변화하는 의류시장에 대응해야만 했다. 전후 1950~60년대 유명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만이 맞춤복과 기성복을 겸하거나 기성복 시장의 진출하였다. 노라노는 1966년에 기성복 패션쇼를 개최하고 가정 먼저 기성복을 런칭하였다. 서수연이 운영하는 아리사양장점은 ‘이지오더부’를 개설하고 치맛

250) 산업화 시기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축을 통해 국민을 ‘산업전사’로서 구성하고 경제발주체로 명명했다. 홍태영(2019),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반공과 경제개발 주체로서 ‘국민’의 탄생”, 『문화와 정치』, 제6권제2호, 101~138쪽.

251) 신수정(2016)은 박완서의 소설인 『도시의 흉년』에서 동대문 시장에 등장한 여성 경제주체의 기원과 이후 과정을 분석한다. 여성 가장은 전시 미군의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상업자본을 마련하여 동대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여성은 ‘가장’으로서 권력을 가진 대표가 되었다. 남편이 남성성을 회복하며 밀려나는 데 청계천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여성 가장 권력을 다시 남성 가부장의 위세와 자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단이나 품 등을 가봉 단계로 두어 고객이 바로 구입해서 입고 갈 수 있도록 대량생산체제 방식을 도입하였다.²⁵²⁾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 중에는 변화하는 의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기성복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기성복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자본이 밀받침되어야 했다. 대다수의 소규모 양장점은 대량생산 위주의 의류산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포섭되는 과정을 거쳤다. 양장점에서 근무하던 숙련된 여성 인력들이 기성복을 제작하는 의류봉제업체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대규모 생산을 선호했던 기성복 제조업은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남성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은 기성복시장의 확대와 함께 양장점을 그만두거나 전업을 하였다. 구술자마다 양장점을 그만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기성복이 부상한 이후라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양장점을 그만두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송용순은 1970년대 중반 양장점 운영을 하면서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으며 양장점 운영을 그만두었으며, 이종수는 일본에 거주하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양장점을 접고 198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박정희는 1980년대에 남편과 함께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양장점을 접었다. 김경옥 역시 1980년대에 자녀들이 취직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양장점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하였다. 맞춤복시장이 활기를 잃으면서 양장점을 정리하고 공식경제로 취업한 경우도 있다. 자녀교육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현금수입이 필요했던 구술자들은 취업을 하였다. 인순옥은 1970년대 초반에 파주시의 기지촌이 철수하면서 양장점을 그만두고 신발 공장에 취업하였다. 인순옥은 양장을 만들던 손기술을 가지고 신발의 굽을 칼로 깎는 기술로 돈을 벌었다.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은 양장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장점이나 의류 관련 주변 업종에 종사하면서 ‘여성의 경제’를 유지 및 존속하며 자원을 전수해왔다. 즉 ‘여성의 경제’가 갖는 성격이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의류와 비슷한 주변 업종의 자영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신희자는 1980년대 새롭게 등장한 보험업에 진출하여 보험소장을 하다가 한복기술을 배워 현재는 한복점을 운영 중이다.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복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교복납품을 하기도 했다. 박태선 역시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양장점 운영을 접고 다른 양장점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의류산업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대량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는 의류관련 주변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선점과 교복전문점이다. 1970년대만 해도 양장점거리로 유명했던 인천의 신포동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는 김지은은 뉴스타일양재학원을 졸업하고 양장점을 운영하였지만, 기성복의 등장으로 양장업에서 수선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양장점거리에서 수선점거리로 바뀐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252) “이지오더부 아리사양장점에”, 《경향신문》, 1962. 8. 25.

기성복시장으로의 전환 속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양장점이 더 오랜 동안 유지되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양장점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면서 지역여성들의 소비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 양장점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여성들이 의복을 구입하는 방식과 취향에 좌우되었다. 서울보다 늦게 양장점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양장점에서의 소비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고객들이 좀 더 오래 존재했다. 청주시내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홍건표는 1980년대 말까지 관공소의 직원들과 교사들이 양장을 맞춰 입으러 방문했다고 한다.²⁵³⁾ 청주와 같은 중소도시는 기성복을 판매하는 매장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장점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취향과 문화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양식에 빠르게 포섭되지 않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었다.²⁵⁴⁾

끝으로, 고급화와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는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이 있었다. 명동과 같이 대도시의 변화한 곳에 위치한 유명 양장점은 고가의 의복을 제작하는 부띠끄로 전환하였다. 이와 달리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이 가졌던 성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복점과 양장점 등이 있다. 제주 한림읍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신희자는 현재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희자는 자신이 만드는 한복은 양재기술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한복보다 훨씬 더 입기 편하고 몸에 잘 맞는다고 말한다. 신희자의 한복점은 상품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녀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양장점을 운영할 때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 만든 것들을 선물을 하거나 무료로 주기도 한다. 또한 양장을 만들면서 키워왔던 패션 감각이 지금은 예술적 감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4.3사건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없었던 신희자는 노년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다.²⁵⁵⁾ 이러한 그녀에게 한복점은 자신을 위한 작업공간인 동시에 예술작업을 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희자 현재 자신을 한복기술자라기 보다는 시인이자 화가로 정체화한다.

인천에서 박의상실을 운영하는 박태선은 양장점을 찾는 고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양장점을 찾는 고객이 있기에 유지된다고 말한다. 엄마가 젊은 시절 입었던 양장을 그대로 만들어 입고 싶어 하는 딸이 방문해 주문하기도 하며, 무명 가수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의상이 필요한 고객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박태선은 양장점이 인접한 지역의 재개발 반대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활동가로서

253) 김미선(2017), “홍건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거죠.”『충북여성
과 함께한 50년 :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이정희·김미선 씀, 충북여성재단.

254) 서울에서 일찍이 기성복을 시작했던 회사에서 지역의 양장점을 대신해 기성복 점포를 오픈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255) 신희자가 발간한 시집은 다음과 같다. 신희자(2016), 『바느질 매듭 풀듯』, 파우스트.

지내고 있다. 양장점은 대량생산체제의 의류산업의 성장으로 주변화·비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과 여성 커뮤니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유지되고 있다.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들은 ‘여성의 경제’가 갖는 자급관점을 실천하면서 양장점이나 한복점과 같은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E. 소결

이 장은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의 경제적 실천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여성의 경제’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의미화했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들이 경제적 실천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낸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양장점을 집과 ‘같은’ 혹은 ‘연결된’ 작업장으로 의미화함으로써 공사영역의 경계를 유동적인 것으로 구성하였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기술보유자로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며 양장점을 기술교육의 장으로 구성하면서 양재기술을 전수하는 기술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기술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양장점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자 사이의 관계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할하였다. 즉 양장점은 여성 운영자들이 양재기술을 매개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망을 만들게 되는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여성의 경제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자원을 기능한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양장문화를 통해 새로운 여성문화를 생산한다. 또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면대면 방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양장점의 운영 방식으로 여성 고객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기도 한다. 여성들만의 물리적 공간이었던 양장점을 플랫폼으로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과의 관계를 구성한다. 다양한 사회관계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상호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돌봐주는 관계 등과 엮어진 여성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여성경제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후 사회에서 가족이나 상호호혜적인 관계, 규범적인 여성성에 기반한 관계에 구속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여성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면서 ‘여성의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여성의 경제’로서의 양장점은 산업화 과정에서 공식경제의 영향으로 주변화·비가시화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양장점은 여전히 존속되었다. 이로써 여성 자영업자들은 자급관점을 실천해오고 있다.²⁵⁶⁾²⁵⁷⁾

256) 기성복 브랜드 사업체는 1980년대 후반에 지역의 양장점 거리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여성의 경제’는 이원화된 공사영역을 유동적으로 구성하며, 기술교육을 통해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회복하면서 여성의 다층적 계급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경제에 동원되거나 자원으로 활용되면서도 주변적 위치에서 유지 및 존속해왔다.

257) 여성 주도의 자영업은 종류와 방식을 달리하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이 주도한 자영업으로 커피점, 수예점 혹은 수예공방(십자수, 프렌치 자수 등), 뜨개방, 그리고 최근에는 동네책방 등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Ⅵ. 결론 : ‘여성의 경제’로서의 전후(戰後) 양장점의 성별정치

본 논문은 전후 사회에서 여성이 양장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인 양장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후 여성은 어떠한 경제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에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했던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소상품 생산과 자급관점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 여성의 새로운 경제적 실천을 ‘여성의 경제’라는 범주로 설명해내면서 여성 중심의 경제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여성 자영업을 새로운 연구의 영역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본문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점 진출은 가족의 부양과 직업적 선택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전후 국가경제가 부채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주로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양장점 운영에 진출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가족의 부양이라는 틀 내에서 의미화하였다. 그리고 양재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여성 욕망의 구성으로 양장점이 급격하게 부상하였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 내부의 계층적 차이는 인식적 경합 속에서 여성의 직업에 대한 비교우위와 위계화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양장점 운영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장점은 ‘여성집중업종’이 되었다. 이로써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주가 등장하였다.

둘째, 전후 여성이 운영한 양장점은 자영업으로, 작업장과 마케팅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운영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양장점 운영자가 갖는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운영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양장점을 운영하였으며, 자영업주로서 필요한 직업적 능력인 기술적 능력, 감각적 능력,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등을 갖추고자 하였다. 퇴근 없는 기나긴 고된 노동과 일·가정병행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성차별로 인해 양장점 안에서 양장을 만드는 업무를 중심으로 서사화하면서, 양장점 밖에서의 업무는 선택적으로 비가시화하였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경제적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생계부양자였으며, 성별규범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여성경제인’으로서 정체화하며 성장하는 데 곤경을 겪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장점은 여성 자영업주가 주도하는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가 구성될 수 있는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여성 양장점 운영자들은 생산과 재생산 역할을 병행하면서 이원화된 근대적 공사영역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양재기술의 보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전문직 여성 ‘직업인’으로 정체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양장점은 여성 대상의 기술교육의 장으

로 역할을 하였다. 양장점 운영을 통해 여성들은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 속에서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사회를 구성하였다. 양장점은 이후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전형화되고, 국가 주도의 의류산업은 의류시장에 대한 양장점의 주도권과 자원을 편입 및 동원을 함으로써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전후 ‘여성의 경제’는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된 채 유지 및 존속되었다.

본 논문에서 전후 여성이 운영한 양장점 연구를 통해 밝힌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가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는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적 기술 기반의 자영업을 통해서 구성되며, 가족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생계부양을 위한 ‘자급경제’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는 여성 자영업주가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의 장이 구성된다. 이로써 ‘여성의 경제’는 여성이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 및 신장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는다. 셋째, ‘여성의 경제’는 근대적인 공사영역의 이분법을 유동적으로 구성하며,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여성의 문화를 생산하며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를 회복하는 등 지역사회를 회복 및 유지한다. 이로써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하였다. 넷째, ‘여성의 경제’는 여성의 다층적인 계급화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끝으로 ‘여성의 경제’는 공식경제라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재편되는 데, 특히 전후 ‘여성의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 동원 및 편입되면서도 동시에 존속 및 유지되어왔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개념화한 ‘여성의 경제’는 여성 주도적 상품교환 혹은 여성중심적 거래로서 여성이 운영주체이자 거래주체로서 상품 생산은 물론 여성들과의 거래 방식²⁵⁸⁾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가족을 넘어 여성 중심의 새로운 경제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여성의 문화를 생산하면서 여성의 경제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경제’는 성별체계의 토대위에서 구성됨에 따라 성별정치의 결과로서 등장하였음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의 경제’를 개념화한 본 연구는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을 소상품 생산과 자영업으로 접근하면서 소상품 생산양식을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 있는 전이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비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일환인 ‘차이의 경제’이자 삶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자급경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전후 사회에서 여성 자영업자가 구성한 ‘여성의 경제’가 대문자 자본주의가 아닌 비자본주의적 경제공간, 경제형식, 경제활동 중의 하나로 새롭게 제시됨으로써, ‘여성의 경제’는 ‘차이의 경제’ 일환으로 추가되는 등 독자적인 경제모델임을 밝혔다. 즉 전후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외에 다른 성격을 가진 ‘여성의 경제’가 존재했으며, 자본주의가 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외에 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경제모델이 독자

258) 게일 루빈과 린스 이리가레이와 같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남성 주도적 여성교환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왔다(이현재, 2016: 249~250).

적인 논리를 갖고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는 마리아 미즈와 벤홀트-툼젠이 제시한 ‘자급관점’을 지향한다. ‘자급관점’은 사회 및 경제활동의 중심을 삶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는 ‘자급관점’, 즉 자급경제의 성격을 지닌다. 끝으로, ‘여성의 경제’는 차이의 경제로서, 생계경제이자 자급경제이며 지역경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논리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제모델이다. 그러므로 전후 여성 자영업주에 의해서 구성된 ‘여성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와 다른 논리를 가진 경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여성주의 경제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 동안 전후 1950년대는 국가와 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로 접근되어왔으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 즉 한국의 자본주의의 형성기로 여겨졌다. 이러한 해석은 자본주의적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가부장적인 국가와 남성 중심의 경험을 위주로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전후 한국 경제를 접근해온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⁵⁹⁾ 이로써 그 동안 자본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적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²⁶⁰⁾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소상품 생산 양식을 취한 전후 여성의 자영업이 자본주의 이행과정의 하나로만 여겨짐으로써 전후 경제가 갖는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없었다. 전후 사회에서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공론화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의 경제적 실천을 주목함으로써, 국가와 기업(혹은 자본) 주도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후 1950-60년대 한국경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후 ‘여성의 경제’는 전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경제 형식 혹은 모델 중의 하나였음을 밝혔다. 이로써 전후 1950-60년대는 자본축적과 같은 자본주의적 질서와 논리만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생계경제, 자급경제, 지역경제 등 사회적 재생산 역할을 함으로써 비자본주의적 논리로 구성되는 ‘여성의 경제’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경제다양성을 주목하면서 전후 한국의 경제를 접근하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제에 대한 담론

259) 1950년대는 지배계급으로서 매판 관료적 독점 자본가층과 토착적인 중소 영세자본가층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성장에는 정부의 각종 특혜가 관여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는 재벌 계급과 정부가 유착된 형태로 성장을 꾀하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였던 셈이다(손혜민, 2015: 50). 1950년대 자본가의 형성 및 성장시킨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서울: 백산서당 참조.

260) 1950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주체가 사회의 지배적 주체 형식으로 등장 및 확산되어온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를 여전히 생산과 합리,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 패러다임의 전회의 일환으로서 '여성의 경제'를 밝힘으로써 '여성의 경제'를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독자적인 경제 모델 중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발전모델에서의 자본주의적 해계모니 담론 외부의 경제양식들을 중요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후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주도의 자영업을 가시화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제'가 전후 사회에서 전개된 성별정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학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후 여성의 양장점 운영이라는 경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여성이 항상 자본가 혹은 남성에게 종속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조건에 속해만 있다는 여성노동연구의 인식론적인 전제를 문제화하면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라는 영역을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이 전후 사회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데 활용한 자원으로서 양재기술에 주목하였다. 식민지 시대 근대여성교육과 전후 여성 대상의 기술교육이 성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전후 사회에서 양장을 생산하는 여성인력이 부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에 의한 자급자족을 위해 이용된 양재기술이 상품생산을 통한 화폐소득 목적으로 전환되면서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자원화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양재기술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하고 젠더와의 관계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여성과 기술의 관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된 결과임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술자료를 기반으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의 자기 경험에 대한 서사화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양장점 운영자의 언어화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1) 회고록 및 전기류 (구술자료)

- 김미선(2008), 「여성소비영역의 전문직여성 구술 : 임형선·이종수·양춘자」,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김미선(2008), 『모던걸, 治裝하다』,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김미선(2012), 「1950-1960년대 서울 명동(明洞)에서의 여성소비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노라노(2012), 「노라노 구술자료(총 5차)」, 서울 : 아르코 예술기록원.
- 박경용(2017), 『양장계 명장 40년, 대학원 강당에 서다 : 이종정 구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이은정(2017), 『대구 의상실, 그 역사를 풀어쓰다 : 김옥순 구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2015), 『바느질 기술로 일군 삶의 보람 : 1941년생 장순자 구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2015), 『대구 서문시장 의류도매상의 삶 : 1929년생 도인록 구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2015), 『양복인생 50년 : 1940년생 전영일 자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2017), 『양복으로 시작해서 봉사로 끝내다 : 박귀찬(1940년생) 자술생애사』,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재단.
- 대구여성재단(2015),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대구 : 대구여성재단.
- 대구여성재단(2018), 『대구여성생애구술사 5 : 대구 패션 미용 여성』, 대구 : 대구여성재단.
- 박정열(2017), 『외길인생 : 나는 대한민국 양복장이 박정열이다』, 서울 : 하움출판사.
- 최경자(1999), 『(최경자와 함께한) 패션 70년』, 서울 : 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 최경자(1996), 『날개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머니』, 서울 : 명진출판.
- 최효안(2017), 『노라노 우리 패션사의 시작』, 서울 : 마음산책.
- 현장사진연구소·문발작가협동조합(2020), 『리비교와 장마루 사람들』, 파주시도서관.

2) 의류 관련 전문 자료

김숙당(1925), 『조선재봉전서』, 경성 : 활문사서점.
 김영옥(1959), 『현대가정학 총서(1) : 양재』, 서울 : 수학사.
 김진식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1990), 『한국양복 100년사』, 서울 : 미리내.
 김필중(1964), 『婦人服 切開式裁斷法 상권』, 서울 : 뉴스타일양재학원출판부.
 노라노양재학원 출판부 편(1953), 『洋裁用語事典』, 서울 : 人文閣.
 동아일보사(1990), 『한국패션 산업연감』, 서울 : 동아일보사.
 백파(안병기), 『대구경북 패션디자인계 발전사: 3인(김양순, 서건웅, 백파)을 중심으로』, 대구 : 대구패션디자인산업연구회.
 서문당편집국편(1969), 『새생활대백과사전, 3. 의복 · 편물 · 수예 · 미용』, 서울 : 서문당.
 서상국(1984), 『개화모드백년』, 서울 : 대한복장학원.
 서상국(미상), 『하이패션제도집』, 서울 : 대한복장학원.
 손정규(1948), 『조선재봉』, 서울 : 삼중당.
 이소담(1948), 『재봉교본』, 서울 : 고려문화사.
 정명섭(2014), 『100년의 테일러 : 종로양복점』,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최경자(1989), 『양재교본』, 서울 : 국제패션문화사.
 콩메(2019), 『제주 시골 할머니 패션: 궁금한편』, 제주 : 블랭크/옥탑방책방.
 女苑社出版局 편(1959), 『現代女性生活全書 : 복장 상』, 서울 : 女苑社.
 女苑社出版局 편(1959), 『現代女性生活全書 : 복장 하』, 서울 : 女苑社.
 LG상사 50년사 편찬위원회 편(2003), 『LG상사 50년사 : 1953-2003』, 서울 : LG상사.

3) 정부 간행물, 연감, 일지

대한상공회의소(1955), 『全國製造業要覽』, 서울 : 大韓商工會議所.
 조선은행조사부(1949~1959), 『경제연감』, 서울 : 조선은행.
 조영준 · 류상운 · 홍제환 (2019),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 네이산보고』 (1954)의 재발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55), 『한국산업경제10년사』, 서울 :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조사부(1955),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서울 :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1958),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서울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1958), 『1958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서울 : 한국산업은행.
 상공부 · 한국산업은행(1960), 『1960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상공부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63), 『1962년 전국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표본조사 보고』, 한국산업은행조사부.

중소기업은행 기획조사부(1963), 『1962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보고』, 중소기업은행 기획조사부.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1964), 『1963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 품목통계편』,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1964), 『1963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 사업체명부』,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1967), 『1966 광공업센서스 보고서 : 사업체명부편』,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1992), 『피복조합 30년사』, 서울 :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4) 관련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과거중지통계(대한민국 통계연감) <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회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5) 문화적 재현물

(1) 영화

《미망인》(박남옥 감독, 1955)

《자유부인》(한형모 감독, 1956)

《지옥화》(신상옥 감독, 1958)

《여사장》(한형모 감독, 1959)

《자매의 화원》(신상옥 감독, 1959)

《하녀》(김기영 감독, 1960)

《노라노》(김성희 감독, 2013)

《또순이》(박상호 감독, 1963)

《육체의 고백》(조궁하 감독, 1964)

(2) 소설

임옥인(1973), 『젊은 설계도』, 서울 : 新女苑社.

6) 미디어 자료

(1)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2) 잡지

『女性界』, 『女苑』,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 3 복식』(국학자료원)

<2차자료>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만길(2000),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서울 : 역사비평사.
- 강이수 · 신경아(2001), 『여성과 일 : 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서울 : 동녘.
- 강이수 엮음(2009), 『일 · 가족 · 젠더 :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파주 : 한울.
- 강이수(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서울 : 문화과학사.
- 강이수 · 신경아 · 박기남(2015), 『여성과 일 :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파주 : 동녘.
- 강인순 · 이옥지(2001a),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서울: 한울.
- 강인순 · 이옥지(2001b),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2』, 서울: 한울.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2000),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고부자(2003), 『우리생활 · 옷100년』, 서울 : 현암사.
-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서울 : 백산서당.
- 권태억(1989), 『한국근대면업사 연구』, 서울 : 일조각.
- 김 원(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서울 : 이매진.
- 김정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 푸른역사.
- 김덕호 · 원용진(2008),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서울 : 푸른역사.
- 김동춘(2000), 『전쟁과 사회 :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 돌베개.
- 김미선(2008), 『모던걸, 치장(治裝)하다』,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 김미선(2012), 『명동아가씨 : 근현대 여성 공간의 탄생』, 서울 : 마음산책.
-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 신정.
- 김소연 외(2003),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 한국영화』. 서울 : 소도.

- 김수진(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서울 : 소명.
- 김 원(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서울 : 이매진.
- 김유경(2015), 『황홀한 앨범 : 옷으로 본 한국의 현대여성 1946-2015』, 서울 : 눈빛.
- 김행선(2009), 『6.25 전쟁과 한국사회 문화변동』, 서울 : 선인.
- 김혜경(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파주 : 창비.
- 또하나의문화 편집부(1999), 『여성의 일찾기, 세상바꾸기』, 서울 :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 문정인 · 김세중 편(2004),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서울 : 선인.
- 박명림(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I , 결정과 발발』, 서울 : 나남출판.
- 박명림(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 II , 기원과 원인』, 서울 : 나남출판.
- 박태균, 2013, 『원칙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사상계연구팀(2012),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서울 : 소명출판.
- 서재진(1991), 『한국의 자본가 계급』, 서울 : 도서출판 나남.
- 서중석 · 김덕련(2015), 『서중석의 현대사이야기: 2 한국전쟁과 민간인 집단 학살 편』, 파주 : 오월의 봄.
- 신순애(2014), 『열세 살 여공의 삶 :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 서울 : 한겨레출판
- 신혜순(2008), 『한국 패션 100년』, 서울 : 미술문화.
- 여원연구모임(2008), 『《여원》 연구 : 여성, 교양, 매체』, 서울 : 국학자료원.
- 오미일(2015),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서울 : 푸른역사.
- 오영숙(2007), 『1950년대 한국영화와 문화담론』, 서울 : 소명출판.
- 유경순 엮음(2011a), 『나, 여성노동자 1권 - 1970~80년대 민주노조와 함께한 삶을 말한다』, 서울 : 그린비.
- 유경순 엮음(2011b), 『나, 여성노동자 2권 - 2000년대 오늘 비정규직 삶을 말한다』, 서울 : 그린비.
- 유수경(1990), 『韓國女性洋裝變遷』, 서울 : 일지사.
-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희경(1982),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 유희경 · 김문자(2000),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 윤택림(2004),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홍천 : 아르케.
- 이경숙 외(2015),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이대근(1987),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李大根 경제평론집』, 서울 : 創作과 批評社.

- 이명은(2016), 『석주선 박사의 우리옷 나라: 1900년~1960년대 신여성 한복 best collection』, 용인 : 단국대학교출판부.
- 이옥수(1985), 『한국 근세 여성사화』, 서울 : 奎文閣.
- 이임하(2004), 『한국전쟁과 젠더 :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울 : 서해문집.
- 이임하(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구술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서울 : 책과함께.
- 이임하(2015),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서울 : 철수와영희.
- 이재경 · 윤택림 · 조영주 외 지음(2013),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홍천 : 아르케.
- 이정옥(2001), 『한국의 공업화와 여성노동』, 서울 : 솔넷.
- 이정희 · 김미선(2017),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 충북여성과 함께한 50년』, 청주 : 충북여성재단.
- 이종구 외(2004),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파주 : 한울.
- 이종구 외(2005a),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파주 : 한울.
- 이종구 외(2005b),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파주 : 한울.
- 이종구 외(2006a),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파주 : 한울.
- 이종구 외(2006b),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파주 : 한울.
- 이종구 외(2010),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 파주 : 한울.
- 이하나(2013), 『‘대한민국’, 재건의 시대(1948~1968)』, 서울 : 푸른역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1985), 『한국 여성과 일』,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현진(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서울 : 혜안.
- 임송자(2007),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서울 : 선인.
- 장세진(2012), 『상상된 아메리카 :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네이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 푸른역사.
- 전순옥(2003), *They are not machines : Korean women workers and their fight for democratic trade unionism in the 1970s*,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2004), 서울 : 한겨레신문사.
- 정현주(2009),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조순경 · 이숙진(1995), 『냉전체제와 생산의 정치』,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희진 · 양미경 · 이대화 · 주영하(2017),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 : 한국 현대 의생활사』,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주익종(2008), 『대군의 척후 : 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 김연수』, 서울 : 푸른역사.
- 차옥선(1999), 『신문으로 본 우리의 세탁문화 100년』, 서울 : 경춘사.
- 허 윤(2017),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서울 : 역락.

허 은(2008), 『미국의 해계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서울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 논문

강나영(2018), “1950년대 한국영화의 여성 노동 재현 연구”, 동국대 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강남식(2004a),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산업노동연구』, Vol.10 No.2, 315-352쪽.

강남식(2004b), “여성의 가내노동자화에 대한 여성노동운동의 전략”, 『영국연구』, No.12, 75-112쪽.

강세영 · 유가호 · 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17(3), 49-83쪽.

강소연(2006),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No.18, 107-136쪽.

강이수(1992), “일제 면방 대기업의 노동과정과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강이수(1993), “1920~60년대 한국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사적 변화: 고용과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4호, 쪽없음.

강이수(2004), “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 - 일제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No.65, 170-204쪽.

강이수(2005a), “일제하 여성의 근대 경험과 여성성 형성의 “차이””, 『社會科學研究』, Vol.13 No.2, 96-132쪽.

강이수(2005b),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No.5, 89-131쪽.

강이수(2006), “해방 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 -차별과 주변화의 지속”, 『여성과 역사』, No. 15, 43-76쪽.

강이수(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 Vol.7 No.2, 1-35쪽.

강이수(2011a),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 상태”, 『한국과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서울 : 문화과학사.

강이수(2011b),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화 I : 1920년~1960년”,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서울: 문화과학사.

강이수(2011c),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Vol.4 No.1, 43-87쪽.

- 강이수(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 여성운동, 노동, 가족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No.100, 229-250쪽.
- 공제욱(2019), “한말, 일제시기 의복의 변화와 생활양식: 양복의 도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22집, 117-158쪽.
- 곽은희(2010), “전시체제기 노동·소비 담론에 나타난 젠더정치 :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No.59, 63-98쪽.
- 곽현자(2005), “미망인과 양공주: 최은희를 통해 본 한국 근대여성의 꿈과 짐”, 『한국영화와 근대성』, 서울 : 소도.
- 권보드래(2009),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아르레겔 사상계를 읽다』,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 권은영(2018), “1950년대 여성국극의 대중극으로서의 가치”,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9 No.3, 319-349쪽.
- 권혜린(2020), “임옥인과 강신재의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정치성 : 『젊은 설계도』와 『청춘의 불문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하다, 세상을 쓰는 페미니즘》, 한국여성문학회 21주년 컨퍼런스, 14~28쪽.
- 권혜영·이경자(1983), “한국여성 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00-1945년을 중심으로”, 『복식』, 제7호, 21-37쪽.
- 권현정(2001),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사회적 재생산’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경애(1997), “여성 미세사업가(micro-business women)에 관한 기초적 연구”, 『동덕여성연구』, 제2권, 83-136쪽.
- 김경희(2006),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문화와 정체성』,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경희·강은애(2014), “한국의 여성노동연구의 여성주의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과 「경제와 사회」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Vol.15 No.2, 191-223쪽.
- 김귀옥(2002), “한국전쟁과 여성: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I』, 서울 : 사람생각.
- 김귀옥(2004a), “분단, 한국전쟁과 여성: 1950년대 한국여성의 삶”, 『한국현대여성사』, 파주 : 한울아카데미.
- 김귀옥(2004b),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 정체성』, 파주 : 한울아카데미.
- 김귀옥(2005), “1960~1970년대 의류봉제업 작업장의 성격과 여성 노동자의 실천: 반도상사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파주 : 한울

아카데미.

- 김귀옥(2006), “1960~1970년대 의류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의 문화건설과 문화의 성격과 한계”,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파주 : 한울아카데미.
- 김금녀(2000), “섹슈얼리티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 “자유부인”영화를 중심으로”, 『수선논집』, Vol. 25. 163-182쪽.
- 김대환(1991),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도훈(1998), “‘의관에서 패션으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 역사비평사.
- 김명순(1979), “한국여성의 양장변천에 관한 연구 : 개화기이후부터 1960년 전까지”,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미선(2009a), “한국전쟁 중 피난지 부산에서의 여성노동과 소비문화”, 한국여성학회, 제25차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발전의 시대, 공간의 젠더정치』자료집 (2009. 6. 13).
- 김미선(2009b), “근대적인 ‘직업여성’의 여성정체성과 직업의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1세대 미용사 임형선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Vol.10, 141-186쪽.
- 김미선(2020), “이승만 정권 초기의 직업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 여성지 『職業女性』(1950.6)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7집, 5~42쪽.
- 김미정(2015),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미혜 · 정혜경(2010), “1950년대 여성문화장(場)에서의 밀가루음식 소비담론”,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제25권 6호, 639-651쪽.
-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제38집 6호, 63~95쪽.
- 김성례(2004), “한국 여성의 구술사 : 방법론적 성찰”, 『젠더 · 경험 · 역사』, 서울: 도서출판 베개.
- 김성례(2012),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여성주의 역사쓰기 :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 : 아르케.
- 김성보(2010), “한국전쟁이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서울: 역사비평사.
- 김성조(2003), “1950년대 기간산업 공장의 건설과 자본가의 성장”,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성희(2001),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67-82쪽.
- 김성희(2010), “여성극극의 장르적 성격과 이미지로서의 역사”, 『한국연극학』 제40호, 61-96

쪽.

- 김수자(2004), “대한민국 초기 이승만의 권력기반 강화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수자(2009), “한국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 지역 차별인식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Vol. 10, 187-214쪽.
- 김수진(2006), “여성사 쓰기와 젠더/여성 범주”, 『젠더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 김귀옥·김순영·배은경 편, 서울 : 도서출판 다해.
- 김수진(2007),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페미니즘 연구』, Vol.7 No.2, 281-320쪽.
- 김순심(1991), “6·25가 우리 복식에 미친 영향 - 양장의 대중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 2, 25-31쪽.
- 김순영(2006),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와 계급정치”, 『1960~70년대 한국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순영(2009), “1950년대 한국에서 여성과 국가 : 전쟁사별여성에 대한 국가관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노동자의 생활세계』,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순영(2017),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 『服飾』, Vol.67 No.5, 89-107쪽.
- 김승경(2015), “생산성, 투쟁성 그리고 여성성 : 한국 여공의 다층적 이미지”,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 가족·노동·섹슈얼리티』, 홍천군 : 아르케.
- 김안나(2014), “1950년대 대중매체의 여성 재현 연구 : 잡지 및 신문의 만평·만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큐레이터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양화(1984), “1950년대 면방자본과 원면문제”, 『사회과학논총』 제5권 제1호, 241-278쪽.
- 김양화(1987), “서평 이대근 저,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1987』”, 『경제사학』 Vol.11, 304-309쪽.
- 김양화(1990), “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 면방, 소모방, 제분공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연숙(2003), “양공주가 재현하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연구』, 3호, 121-156쪽.
- 김연숙(2018), “1950년대 잡지 『주간희망』의 대중담론 기획과 여성표상”, 『국어국문학』, No.184, 443-474쪽.
- 김 원(2004),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1, 181-236쪽.
- 김유미(2007), “여성국극에 나타난 대중 서사극의 한 양상-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 23집, 277-304쪽.
- 김유미(2008), “1950년대 여성국극에 나타난 대중 역사극의 변화 : <서동과 공주>, <눈 우에 피는 꽃>, <백호와 여장부>의 성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Vol. 57, 261-287쪽.
- 김윤경(2009),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批評文學』, No. 34, 49-69쪽.
- 김윤지(2014), “한국영화 속의 기지춘 여성”, 『휴전과 한국영화: 휴전 60주년 기념집』, 서울 : 국학자료원.
- 김은경(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Vol.45 No.2, 7-48쪽.
- 김은경(2007a),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은경(2007b),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137-151쪽.
- 김은경(2013),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Vol.19, 105-141쪽.
- 김은경(2014), “산업화 이전 시기 한국 여성의 모성 경험과 정체성 - 194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Vol.21, 149-181쪽.
- 김은경(2016), “탈식민기 가족법에서 민주주의 의제와 여성의 국민화 - ‘처의 행위능력’을 중심으로”, 『史林』, No 57, 269-294쪽.
- 김은경(2017a), “‘포스트-식민/제국’의 아이러니와 네이션의 자기 변주”, 『한국근현대사연구』, Vol 82, 253-279쪽.
- 김은경(2017b), “탈식민기 가족법과 여성의 국민화”, 『‘성’스러운 국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파주 : 서해문집.
- 김은경(2018),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에서 처의 지위와 여성의 ‘권리’(1945~1960)”, 『여성과 역사』, Vol 29, 339-374쪽.
- 김은실(1994), “민족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권 1호, 8-52쪽.
- 김은실(1996),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 비교문화적 논쟁”, 『여성학논집』, 제13집, 379-404쪽.
- 김은실(1999),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통권 제8호, 79-100쪽.
- 김은실(2003), “식민지 근대성과 여성의 근대체험: 여성 경험의 구술과 해석에 관한 방법론적 모색”,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은실(2004), “지구화 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서울 : 푸른사상.
- 김은실·김현영(2012), “1950년대 1공화국 국가 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성학논집』 제29집 1호, 113-155쪽.
- 김은실(2016), “4·3 홀어머니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韓國文化人類學』, Vol.49 No.3, 313-359쪽.
- 김은정(2004),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여성패션 연구 - 모던 걸(개화기~1945년)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2, 331-359쪽.
- 김은정(2013), “1920~30년대 한국 여성 패션과 소비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은하(2003), “탈식민지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Vol.10, 158-179쪽.
- 김은하(2006),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Vol.16, 177-209쪽.
- 김재희(2004), “1950년대 말~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도시성과 근대성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11권11호, 47-73쪽.
- 김점숙(2000),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기 (1945~50년) 물자수급정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정화(2002),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No. 11, 81-107쪽.
- 김주현(2012), “살림 공예와 미적 평가론 : 직조, 염색, 바느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7, 123-157쪽.
- 김주희(2015), “한국 성매매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준현(2016),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 ‘유엔마담’과 ‘양공주’에 얽힌 대중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Vol. 59, 41-68쪽.
- 김지영(2009), “사회적 재생산-생산하는 재생산의 역학”,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3권, 81~95쪽.
- 김지혜(2009), “1950년대 여성국극의 공연과 수용의 성별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Vol. 30, 247-280쪽.
- 김지혜(2010), “1950년대 여성국극공동체의 동성친밀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26 No.1, 97-126쪽.
- 김지혜(2011), “1950년대 여성국극의 단체활동과 쇠퇴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Vol.27 No.2, 1-33쪽

- 김춘선(1977), “한국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고찰 : 194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태수(2005), “양장-유방을 해방하자”,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서울 : 황소자리.
- 김택현(2014), “자본주의 이행을 다시 생각함: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의 이행론”, 『영국연구』, 제32호, 289~318쪽.
-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37~64쪽.
- 김현미·손승영(2003),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 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Vol.19 No.2, 63-96쪽.
- 김현미·류유선(2013), “재생산적 전환 과정 속의 농촌지역 결혼이주자의 생산/재생산 활동”, 『여성학논집』, 제30집2호, 63-93쪽.
- 김현선(2010), “1950년대 ‘직업여성’에 대한 사회 담론과 실제: 전쟁미망인의 일과생애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 세계』, 서울 : 한울.
- 김현선(2011), “전쟁미망인의 빼앗긴 남편과 사랑, 결혼 이야기”, 『구술사연구』, Vol.2 No.1, 97-115쪽.
- 김현숙(2001), “민족의 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서울 : 삼인.
- 김현숙(2006), “GI와 PX 문화를 통해 본 미국문화: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No.18, 137-162쪽.
- 김현주(2007),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권제2호, 387-416쪽.
- 김현철(2013),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스크린의 정치 : 1960-80년대 영화 속 여공과 여차장, 식모와 다방레”, 『여성연구논총』, Vol.28, 137-161쪽.
- 김형곤(2011), “한국전쟁 사진에 나타난 여성”, 『언론과학연구』, 제11권2호, 123-145쪽.
- 김혜수(2000),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지위와 현모양처론”, 『역사문학연구』, Vol.12, 435-451쪽.
- 김혜정(2013), “한형모 감독의 영화 <자유부인>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제17권 제1호, 98-113쪽.
- 김호준(2015), “이승만정권기 실업교육진흥책의 추진과 그 성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효정·박언주(2018),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성부재와 여성 생계부양노동의 의미- 1920년대 출생 두 여성 노인의 구술생애사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1호, 303-344쪽.
- 김희중(1989), “한국 면방직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

- 위 청구논문(미간행).
- 나보령(2017),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정비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종』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23집, 319-353쪽.
- 나성은(2015), “유자녀 ‘전쟁미망인’의 재혼과 모성”, 『한국여성학』, Vol.31 No.1, 161-200쪽.
- 남미혜(2016),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治産과 경제활동 : 길쌈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Vol 64, 195-220.
- 남미혜(2019), “방적과정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의 길쌈노동”, 『사학연구』 133, 293-325쪽.
- 남윤숙(1990),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노성숙(2015), “주체성”,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 동녘.
- 노지승(2007), “〈자유부인〉을 통해 본 1950년대 문화 수용과 젠더 그리고 계층”, 『한국현대문학연구』, Vol.27, 305-338쪽.
- 류경동(2015), “1950년대 정비석 소설에 나타난 소비주체의 향방”,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31, 131-149쪽.
- 류경동(2017),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연애와 새로운 소비주체”, 『열린정신인문학연구』, Vol.18 No.1, 159-180쪽.
- 류응현(2018), “한국남성복 테일러 문화고찰 : 맞춤복 장인과 신입기술자의 경험 이야기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류제철(2010),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여가시간을 둘러싼 투쟁”, 『사회와 역사』, No.85, 53-82쪽.
- 마정운(2016),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Vol.9 No.3, 155-186쪽.
- 문예은(2018), “수공예를 통한 여성의 직업의식과 정체성 표출”,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1 No.2, 381-422쪽.
- 문예은(2019a), “근현대시기 한국 여성의 수공예 실천과 그 의미변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문예은(2019b), “여성의 ‘일상’에서 전통 문화 ‘유산’으로 : 여성 수공예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Vol.0 No.25, 61-96쪽.
- 박경열(2016), “여성의 전쟁체험 구술에 나타난 가족관계 갈등과 대응방식”, 『한국전쟁 체험담 연구 : 상처와 치유』, 서울 : 박이정.
- 박길순(1993), “우리나라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요인 연구 : 1945~1960년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1 No.1, 33-68쪽.
- 박나나(2010), “근대이후 여자저고리 봉제방법의 특징과 변화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

상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박명림(2008),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건국 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48 No.1, 429-454쪽.
- 박명림(2010), “한국전쟁과 헌법의 변화-‘균등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건국헌법과 전후헌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서울 : 역사비평사.
- 박순양(1992), “한국 남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45년 이후의 양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가정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박승현(2005), “1960~70년대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작업장 문화 : 객공(客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박신미(2014a), “20세기 중 후반 한국패션 고찰 -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 중심으로”, 『服飾』 Vol.64 No.4, 52-75쪽.
- 박신미(2014b), “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 Vol.14 No.2, 89-109쪽.
- 박신미(2016),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1) :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노라노 관련 영화 의상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6 No.4, 89-107쪽.
- 박신미(2017),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2)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17권2호.
- 박신미(2019),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최경자 고찰 - 매체분석을 통해 밝혀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服飾』, Vol.69 No.3, 119-140쪽.
- 박양춘 · 김은정(2001), “한국 섬유산업의 재구조화(II)”, 『지리학연구』, 21호, 1-21쪽.
- 박완서(1999), ‘1950년대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 『우리역사의 7가지 풍경』, 서울: 역사비평사.
- 박정미(2011),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27 No.2, 35-72쪽.
- 박정미(2012),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 역사』, Vol 94, 261-295쪽.
- 박정미(2014),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 ‘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 정치, 1973~1988년”, 『사회와 역사』, No.101, 405-438쪽.
- 박지연(2018),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의 영화 <미망인>과 그 이후”, 『여성연구논집』, Vol 29, 57-72쪽.
- 박진경(2013),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수입 직물의 수용과 의생활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방혜신(1994),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배새롬(2016), “전후 영화의 여성 노동과 ‘귀가’ 양상 재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배은경(2004),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삶과 출산조절”, 『한국학보』, Vol.30 No.3, 24-58쪽.
- 백원담(2015),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Vol. 75, 93-144쪽.
- 백현미(2000), “1950년대 여성국극의 성정치성”, 『한국극예술연구』, Vol. 12, 153-182쪽.
- 백현미(2007), “1950년대 여성국극의 성정치성(2)”, 『대중서사연구』, 18호, 73-116쪽.
- 변재란(2000), “전후영화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재현”, 『순천향 인문과학 논총』, Vol.36 No.3, 137-170쪽
- 변재란(2000), “한국 영화사에서 여성 관객의 영화 관람 경험 연구 :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화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변재란(2017), “전후영화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재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6 No.3, 137-170쪽.
- 서재원(2012),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54, 277-296쪽.
- 서정혜(1993), “의류산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의 조직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소현숙(2015),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 『역사문제연구』 제33호, 97-135쪽.
- 소현숙(2017), “부계 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1950~19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성’스러운 국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 경기도 파주 : 서해문집.
- 손승영(1998), “비공식부문 여성 종사자의 일과 가족”, 『연세여성연구』, Vol.4, 64-88쪽.
- 신경아(2014),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으로”, 『한국여성학』, Vol.30 No.3, 201-208쪽.
- 신경아(2016), “감정노동의 사회학적 탐색 -이론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9, 180-204쪽.
- 신영숙(2000), “해방이후 1950년대의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여성연구논총』, Vol.15, 113-138쪽.
- 심진경(2010), “자유부인의 젠더 정치: 성적 가면과 정치적 욕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46, 153-175쪽.
- 안미경(2013), “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 사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4권, 167-212쪽.

- 안서영(2011), “‘아프레겔’의 패션 소비를 통해서 본 1950년대 한국 소비문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안선경(2001), “한국적 복식문화의 현대성에 나타난 미국화와 규율권력”, 숙명여대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안선경·양숙희(2001), “한국 근대 복식문화에 나타난 아메리카니제이션(Ameircanization)에 관한 연구 :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5 No.1, 50-60쪽.
- 안순덕(2002), “1950년대 도시부녀자 계소동 일고찰,”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안연선(1988),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안태운(2007a), “딸들의 한국전쟁: 결혼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본 미혼여성들의 한국전쟁 경험”, 『여성과 역사』, No. 7, 49-85쪽.
- 안태운(2007b), “일제말 전시체제가 여성에 대한 복장통제 -몸빼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 『사회와 역사』, Vol 74, 한국사회사학회, 5-33쪽.
- 안태운(2011), “후방의 ‘생계전사’가 된 여성들 : 한국전쟁과 여성의 경제활동”, 『중앙사론』, 33집, 257-295쪽.
- 안현민·김혜경(1955), “양장생활의 설계”, 『가정학보』, No 3, 7-13쪽.
- 양동숙(2010a), “대한부인회의 결성과 활동연구”, 『한국학논총』 34, 1147-1192쪽.
- 양동숙(2010b),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연구(1945~1950)”,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양동숙(2010c),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375-430쪽.
-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Vol.60, 60-98쪽.
- 엄미옥(2010), “소설 <자유부인>에 나타난 의복의 정치학”,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Vol.47, 311-334쪽.
- 엄미경(2001), “전쟁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제51집, 210-237쪽.
- 우현용(2013), “영화 속 전쟁미망인 표상 연구 - <미망인>, <동심초>, <동대문 시장 훈이엄마>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Vol.9 No.2, 201-222쪽.
- 원숙연(2017),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국제비교: 젠더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접근”,

- 『여성학논집』, 제34집 1호, 131-172쪽.
- 유선영(2000), “육체의 근대화: 할리우드 모더니티의 각인”, 『문화과학』 24, 191~118쪽.
- 유수경(1989), “韓國 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유숙란(2006), “1955년 광주 계(契)소동을 통해 본 젠더관계”, 『사회·교육과학연구』 제9권 제1호, 129-150쪽.
- 유지영(2009), “전후 멜로드라마 영화에 재현된 ‘아프레절’ : ‘범죄’와 ‘고백’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유철인(2017), “구술된 경험과 서사적 주체성 : 여성 사업가의 구술생애사 읽기”,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427-454쪽.
- 윤선자(2007), “해방 직후(1945년 8월~1950년 6월) 여성지에 나타난 여성문화와 여가에 관한 담론”, 『역사와 담론』, 46, 79-102쪽.
- 윤자영(2012),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9(3), 184-211쪽.
- 윤정란(2007),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 서울에 정착한 타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7집, 87-122쪽.
- 윤정란(2010), “4월 혁명과 여성들의 참여 양상 - 여성신생활운동과 장면정권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Vol.12, 69-110쪽.
- 윤진영(2013), “국내 여성엘리트 집단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 변화 :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윤태림(2010), “여성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의 쟁점과방법론적 논의”, 『여성학논집』, Vol.27 No.2, 77-111쪽.
- 윤태림(2012), “분단의 경험과 통일에 대한 인식: 미수복 경기도 신탄진의 구술 생애사를 통하여”, 『통일인문학』, Vol.53, 79-112쪽.
- 윤태림(2013), “분단과 여성의 다중적, 근대적 정체성 : 1930년대 초 출생한 두 신탄진 여성의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29 No.1, 127-162쪽.
- 윤희숙(2004), “한국전쟁과 여성”, 『젠더·경험·역사』, 조옥라·정지영 엮음, 도서출판 베개.
- 이구경숙·이현옥·김영정·박중희(2017), “사회적 경제와 여성노동 재의미화의 가능성”, 『한국여성학』, Vol.33 No.1, 201-237쪽.
- 이대근(1990), “한국전쟁과 세계 자본주의의 부흥”, 『역사비평』, No. 9, 149-159쪽.
- 이령경(2003), “한국 전쟁 전후 좌익관련 여성유족의 경험 연구 : 여성주의 평화개념에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명순(2010), “1950년대 한국 여성담론 연구 : 젠더화된 근대인식과 여성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명휘(2015), “1954~1956년 한국 여성신용조직의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여성과 역사』, Vol 23, 101-129쪽.
- 이미정(2015),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 연구: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23-350쪽.
- 이민정(2010), “복식과 이데올로기 :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배용(1996),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159-214쪽.
- 이배용·김정선·이승희·김점숙·김수자(1996),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 IV: 1945~1948년”, 『여성학논집』 13, 9-95쪽.
- 이병례(2012),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병천(1987),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과정”,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서울 : 한길사.
- 이봉범(2015),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No.39, 221-276쪽.
- 이상철(2001),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의 전개 (1953-1961)”, 『한국경제성장사』, 서울 : 서울대출판부
- 이상화(2008), “《여원》에 나타난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19, 371-402쪽.
- 이상희(1982), “한국 의류산업의 현황 및 의류수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과 교육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선미(2006),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1950년대 한국의 미국영화 상영과 관람의 의미 1”, 『상허학보』, No.18, 73-105쪽.
- 이선미(2008),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Vol.34, 51-81쪽.
- 이선미(2009a), “1950년대 여성문화와 미국영화: 《여원》의 미국영화 담론과 여성문화 형성의 주체적 논리”, 『한국문학연구』, Vol. 37, 469-509쪽.
- 이선미(2009b), “1950년대 젠더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 『여성문학연구』, 제21집, 161-201쪽.
- 이선미(2009c),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255-286쪽.

- 이선미(2011), “미국영화, 교양과 소비, 젠더”, 『한국영화와 민주주의』, 서울 : 선인.
- 이선미(2012), “‘헵번 스타일’, 욕망/교양의 사회, 미국영화와 신문소설”, 『현대문학의 연구』, No.47, 225-262쪽.
- 이성숙(2007),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No.7, 123-164쪽.
- 이세진(2016),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국경제성장의 조건”, 『역사문화연구』, Vol.59, 77-132쪽.
- 이세진(2017),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변화: 재정안정계획과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Vol.63, 59-104쪽.
- 이세진(2018), “1950~60년대 한국경제의 자본축적 구조에 대한 연구 : 가격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송희(2009),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들의 삶”, 『항도부산』, Vol.25, 89-140쪽.
- 이수자(1984), “한국 영세제조업 부문의 성별노동분업 연구: 평화시장 의류봉제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시은(2005),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No. 26, 139-165쪽.
- 이옥임(1963), “양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의 복장형태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옥임(1979), “洋裝을 中心으로 韓國女性의 服裝形態分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은아(2007), “여성과 국가”, 『여성학』, 서울 : 미래M&B, 272-292쪽.
- 이임하(2003a),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Vol.122, 293-327쪽.
- 이임하(2003b),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戰爭未亡人)’의 삶을 중심으로”, 『여성과평화』, No.3, 88-112쪽.
- 이임하(2003c),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고려사학회(편), 『한국사학보』, 제14집, 251-278쪽.
- 이임하(2004),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제14호, 107-148쪽.
- 이임하(2005),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연구』 No.15, 33-62쪽.
- 이임하(2006),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생계활동 - ‘군경미망인’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71호, 11-39쪽.
- 이임하(2007),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1950년대, 반공 · 동원 · 감시의 시대』, 서울 : 선인.
- 이임하(2016), “1950년대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조산사의 양성”, 『사회와 역사』, No. 111,

- 185-218쪽.
- 이재경(2012), “서문 :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 : 아르케.
- 이재운(2014), “1920-30년대 한국의 이상적 “신여성” 이미지와 패션”, 『服飾』, Vol.64 No.7, 172-183쪽.
- 이재혁(2000),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정신”, 『아시아문화』, 16, 337-371쪽.
- 이정옥(1988), “한국의 공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 1960-1980”, 『女性問題研究』, Vol.16, 5-17쪽.
- 이정옥(1990),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정은(2017), “박정희 정권 시기 대자본의 외자도입과 금융기관 진출 연구 (1960~197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정은(2020), “한국전쟁 이후의 나일론 유행과 기업의 행보”, 《전쟁의 유산과 이후 경제상(經濟像)》 한국사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사학회 개최.
- 이정화(2004), “여성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분야 소기업 창업과 기업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주실(2012), “1950년대 후반 실업 문제의 대두와 이승만 정부의 실업 대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진민(2004), “전시체제(1937~1945)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대한 연구”, 『服飾』, Vol.54 No.2, 121-133쪽.
- 이진옥(2012),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본 발전국가의 재해석”, 『여성연구』, 제22권 1호, 73-101쪽.
- 이행선(2013), “해방공간 ‘미국 대리자’의 출현, 조선의 미국화와 책임정치”, 『한국문화연구』, Vol. 45, 269-304쪽.
- 이현옥(2017), “전지구적 정치경제 구조변화를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방법”, 『한국여성학』, Vol.33 No.4, 247-252쪽.
- 이현재(2015), “현대도시의 일상성 분석을 위한 페미니즘의 개념적 제안: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일상과 “수행적 반복”으로서의 일상실천”, 『시대와철학』, 제26권2호, 161-189쪽.
- 이현재(2016), “집순-그레이엄 :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경제학”,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고양 : 사월의책.
- 이현진(2004), “1950년대 한국 경제사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문화연구』 6, 227-238쪽.
- 이현진(2017), “195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과 시대적 연속성”, 『역사와 현실』,

- No.105, 23-105쪽.
- 이호숙(2015), “여성의 창업을 통해 본 기업가정신과 젠더전략”, 『여성학연구』, 제25권제3호, 99-140쪽.
- 이화진(2014), “여성국극의 ‘오리엔탈 로맨스’와 (비)역사적 상상력”, 『한국극예술연구』, No.43, 167-200쪽.
- 이효재(1973), “日帝下 女性勤勞者 就業實態와 勞動運動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Vol.22, 307-344쪽.
- 이효재(1976), “日帝下の 韓國女性勞動問題研究”, 『韓國學報』, Vol.2 No.3, 141-188쪽.
- 이효재(1985),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 : 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집』, Vol.2, 147-167쪽.
- 이효재(1986), “한국 여성 노동주기(Work Cycle)에 관한 연구”,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Vol.49, 143-170쪽.
- 이효재(1992), “계간세평-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경제와 사회』, 16호, 12-15쪽.
- 이희영(2008),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 광주 전남방직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4권1호, 165-207쪽.
- 이희형(2013), “구술사와 여성주의의 오래된 동맹과 과제”, 『여성학논집』, Vol.30 No.1, 263-268쪽.
- 임미진(2014),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 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No. 29, 33-60쪽.
- 임미진(2017),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임선애(2005), “전후 여성지식인, 자유부인의 결혼과 일탈 - 정비석의 <자유부인(自由夫人)>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Vol.31, 61-89쪽.
- 임옥희(2004), “복장의 정치학과 식민지 여성의 소비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서울 : 여이연.
- 임은혁(2011), 한국복식과 서구복식에 나타난 몸과 복식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 비교, 『복식문화』, Vol.19 No.3, 501-517쪽.
- 장미경(2005), “근대화와 1960, 70년대의 여성 노동자 : 여성 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1960, 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장미영(2008), “전후 여성 담론과 소비의 윤리학 - 《여원》의 연재만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No.13, 63-96쪽.
- 장미현(2016),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숙련과 ‘작업장 질서’의 전복”, 『역사문제연구』, No.36, 59-102쪽.

- 장미현(2017), “산업화 시기 정부와 여성단체의 ‘여성직종’구상과 여성들의 대응,”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제2호, 125-156쪽.
- 장필화(1991), “공장자동화와 생산직 여성노동의 변화 : 의류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전기통신학술연구과제』, 61-106쪽.
- 장필화·노지은(2013),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한국여성철학』, Vol.20, 207-230쪽.
- 장필화·정영애·강선미(1993), “정보화와 생산직 여성노동 :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Vol.10, 141-182쪽.
- 전명숙(2000), “노동 시장 유연화 명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전방지(2001), “여성과 기업 : 여성의 창업과 경영의 특성,” 『경제와 사회』, 제51권, 240-261쪽.
- 전윤경(2014), “한국근대 여성국극의 변천과 특성,” 『한국학논총』, Vol.41, 277-336쪽.
- 정미경(2002), “1950년대 ‘자유부인’의 성정치,” 『여성이론』, No. 6, 266-277쪽.
- 정미숙(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세계적 연구 :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성진(2000), “한국전쟁과 영구군비경제,”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성진(2013),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o.1, 12-48쪽.
- 정소영(2005), “할리우드 스타의 패션 아이콘 : 1930~1950년대 여성 스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일용(1987), “6-25동란후 미국원조의 성격과 그 귀결,” 『學峴邊衡尹博士 華甲紀念論文集 : 韓國經濟論』, 서울 : 까치.
- 정지영(2005), “여공 70, 그녀들의 反역사,”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213-215쪽.
- 정지영(2015), “침묵과 망각으로 말하는 ‘구술/사’,” 『동북아문화연구』, 43, 117-135쪽.
- 정진상(2000),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진성(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Vol.4, 49-100쪽.
- 정진성(1999),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15 No.2, 쪽없음.
- 정진아(2007),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진아(2012),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담론,” 『사학연구』 제

- 105집, 321-364쪽.
- 정현백(2017),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의 젠더인식”, 『여성학연구』, Vol.27, 139-172쪽.
- 정현주(2005),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여성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 : 현대여성단체의 기원”, 『유관순연구』 제5집, 89-108쪽.
- 정희진(2019), “반미문학을 통해 본 식민지 남성성의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희진(2020), “한국사회의 ‘포스트’담론에 대해서: 추격발전주의를 중심으로”, 『녹색평론』, 11~12월호, 88-99쪽.
- 조 형(1985), “비공식부문 여성노동”, 『한국여성과 일』,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경원·이배용(2000), “해방이후 여성교육정책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양상 : 미군정기(1945)~제1공화국시기(1960)”, 『한국교육사학』, Vol.22 No.2, 261-283쪽.
- 조미진(1986), “한국 도시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 『연구논집』, Vol.14, 171-188쪽.
- 조순경(2000), “한국 여성학 지식의 사회적 형성: 지적 식민성 논의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 No. 45, 172-197쪽.
- 조순경(2007), “시장노동을 넘어서: 여성노동연구의 유기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적 시론”, <제3회 이화여성학포럼> 발표문.
- 조석곤·오유석(2003), “압축성장을 위한 전제조건들의 형성: 1950년대 한국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No. 59, 258-302쪽.
- 조효숙(2006), “옷감과 바느질”,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 동아, 65-123쪽.
- 조효순(1997), “여학생 복식이 한복변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3, 307-318쪽.
- 조효순(1998), “근대 女性洋裝의 유입과 변천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논집, Vol.1, 155-172쪽.
- 조 은(1986a),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Vol.2, 9-49쪽.
- 조 은(1986b), “가부장제와 경제”, 『한국여성학』, Vol.2, 95-135쪽.
- 조 은(2011), “한국전쟁의 긴 그림자: ‘월북 가족’ 여성들의 생애이야기”, 『구술사연구』, Vol.2 No.1, 75-95쪽.
- 조은선(2007), “전후 한국 멜로드라마 담론을 통해 본 영화적 근대성과 근대적 여성상”, 『문학과 영상』, Vol.8 No.3, 231-252쪽.
- 조 형 외 5인(1983), “자영업”,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43-45쪽.
- 주유신(2005), “<자유부인>과 <지옥화>: 1950년대 근대성과 매혹의 기표로서의 여성섹슈얼리티

- 티”, 『한국영화와 근대성』, 서울 : 소도.
- 주창윤(2009),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韓國 言論學報』, Vol.53 No.2, 277-299쪽.
- 주희진(1999), “여성의 기업활동에 대한 연구 : 창업자원과 환경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지은희(1985),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 여성과 일』,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진수미(2016), “한국 영화에 나타난 하위주체의 재현 연구 : 한국 영화 중흥기(1956~1961)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화영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차철욱(2002a), “1950년대 대일수입구조와 부산 인건직물업의 변화”, 『역사와현실』, 제44호, 195-226쪽.
- 차철욱(2002b), “1950년대 미국의 대한 원조정책변화와 이승만정권의 수출정책”, 『지역과 역사』, 제11호, 224-255쪽.
- 차철욱(2015), “부산지역 피란민 유입과 피란민 공간만들기 -우암동 피란여성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Vol 63, 229-269쪽.
- 최규진(2011), “직업여성, 또는 ‘걸’그룹”, 『내일을 여는 역사』 43, 278-317쪽.
- 최나현(2020),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 청년 여성 자영업자의 일 경험과 의미 연구”, 『여성학연구』, 제30권 제1호, 45-76쪽.
- 최상오(2001), “1950년대 외환제도와 환율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최세양(1993), “1950년대 한국 섬유산업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최수아(2009), “해방이후 한국패션에 나타난 미국화·탈미국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최은수(2006), “우리 옷을 밀어낸 양장과 양복”,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336-387쪽.
-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추지현(2018), “여자 혼자 장사하기 : 범죄 ‘기회’ 차단을 위한 젠더화 사업 전략과 효과성”,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67-104쪽.
- 한봉석(2017),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한정훈(2018), “도시 이주와 정착, 여성 노동자의 정체성 구성 연구 : 광주 지역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천민속학연구』, Vol 32, 219-256쪽.

- 함인희(2006), “한국전쟁, 가족 그리고 여성의 다중적 근대성”, 『사회와 이론』, Vol.9, 159-189쪽.
- 함한희(2010), “한국전쟁과 여성”, 『역사비평』, No.91, 22-52쪽.
- 허 윤(2009),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권, 93-124쪽.
- 허 윤(2013a), “1950年代 洋公主 表象의 變轉과 國民 되기 -崔貞熙의 『끝없는 浪漫』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Vol.41 No.1, 257-283쪽.
- 허 윤(2013b),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여성문학연구』, 30권, 43-71쪽.
- 허 윤(2016),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No.35, 79-115쪽.
- 허 윤(2017), “전쟁기 희망과 남성성의 젠더 전략”, 『이화어문논집』, Vol 43, 143-170쪽.
- 홍병숙(1975), “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 최근 20년간의 양장을 중심으로”, 중아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홍수경(2009),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에 나타난 근대 여성의 패션 스타일 : 한형모(자유부인 1956), 신상옥(지옥화 1958)의 의상과 분장을 중심으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Vol.4 No.3, 21-32쪽.

<해외문헌>

- Barracclough, Ruth(2012), *Factory girl literature : sexuality, violence, and representation in Industrializing Korea*, 김원·노지승 옮김(2017), 『여공 문학 : 섹슈얼리티, 폭력, 재현』, 서울 : 후마니타스.
- Barracclough, Ruth and Faison, Elyssa(2009), *Gender and labour in Korea and Japan : sexing clas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Bezanson, Kate and Meg Luxton(2006), “Social Reproduction and Feminist Political Economy,” in Kate Bezanson and Meg Luxton(eds.), *Social Reproduction : Feminist Political Economy Challenges Neo-liberalism*,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Burggraf, Shirley P.(1997), *The Feminine Economy and Economic Man : Reviving the Role of Family in the Post-industrial Ag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Chung, Steven(2014), *Split Screen Korea : Shin Sang-ok and Postwar Cinema*, Minneapolis, Minnesot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sta, Mariarosa Dalla and Capanna, Raffaella(2015), *Family, Welfare, and the State : Between Progressivism and the New Deal*, 김현지, 이영주 옮김(2017), 『집안의 노동

- 자 :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서울 : 갈무리.
- Cowan, Ruth Schwartz(1983), *More Work for Mother*, 김성희 · 장윤희 · 김은정 · 박상혜 · 안수미 옮김(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 : 학지사.
- Craik, Jennifer(1993), *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옮김(2001), 『패션의 얼굴』, 서울 : 푸른솔.
- Crane, Diana(2003),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서미석 옮김(2004), 『패션의 사회 문화사』, 서울 : 한길사.
- Cumings, Bruce(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2002), 『한국전쟁의 기원』, 서울 : 일월서각.
- Cumings, Bruce(1993), “Silent But Deadly: Sexual Subordination in the U.S.-Korean Relationship”, *Let the good times roll : prostitution and the U.S. military in Asia*, New York : New Press : Distributed by Norton, 김윤아 옮김(2003), “조용한, 그러나 끔찍한 : 한-미관계 속의 성적 종속”,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의 미국과 매매춘』, 서울 : 잉걸.
- Cumings, Bruce(2010), *The Korean War : a History*, 조행복 옮김(2017),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서울 : 현실문화.
- Custers, Peter(1997), *Capital accumulation and women's labour in Asian economies*, 박소현, 장희은(2015),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 아시아의 자본 축적과 여성 노동』, 서울 : 그린비.
- Elson, Diane(1998), “The Economic, the Political and the Domestic: Business, States and Households i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New Political Economy*, 3(2), pp.189-208.
- Eckert, Carter J(1991),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주익중 옮김(2008), 『제국의 후예 :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서울 : 푸른역사.
- Entwistle, J.(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New York: Berg.
- Federici, Silvia(2004),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황성원 · 김민철 옮김(2011), 『캘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서울 : 갈무리.
- Federici, Silvia(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황성원 옮김(2013),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서울 : 갈무리.

- Folbre, Nancy(2001), *(The)invisible heart : economics and family values*, 윤자영 옮김(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서울 : 또하나의문화.
- Fortunati, Leopoldina(1995), *(The) arcane of reproduction : housework, prostitution, labor and capital*, 윤수중 옮김(1997), 『재생산의 비밀』, 서울 : 박종철출판사.
- Fraser, Nancy and Arruzza, Cinzia and Bhattacharya Tithi(2019), *Feminism for the 99 Percent, A Manifesto*, 박지니 옮김(2020), 『페미니즘 선언』, 고양 : 움직씨 출판사.
- Gamber, Wendy(1997), *The Female Economy : The Millinery and Dressmaking*, C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ibson-Graham, J. K and Gibson, Katherine and Graham, Julie(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엄은희, 이현재 대표번역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 여성주의 정치경제 비판』, 서울 : 알트.
- Gibson-Graham, J. K and Cameron, Jenny and Healy, Stephen(2013), *Take Back The Economy: An Ethical for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황성원 옮김(2014),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파주 : 도서출판 동녘.
- Gill, Tiffany M.(2010), *Beauty Shop Politics: African American Women's Activism in the Beauty Industry*,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Goggin, Maureen Daly and Tobin, Beth Fowkes(2009), *Women and The Material Culture of Needlework & Textiles 1750-1950*, Farnham, England ; Burlington, VT : Ashgate.
- González, M. Ana and Bovone, L.(2012), *Identities Through Fash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London: BERG.
- Gordon, Andrew(2011), *Fabricating Consumers: The Sewing Machine in Modern Japa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reen, Nancy L.(1997), *Ready-to-wear and ready-to-work : a century of industry and immigrants in Paris and New York*,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 Harris, Jessica L.(2021), *Italian Women's Experiences with American Consumer Culture, 1945-1975: The Italian Mrs. Consumer*, London : Palgrave Macmillan.
- Horn, J. Marilyn, Gurel, M. Lois(1981),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Im, Chong-myong(2004), "intro", *The ma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odern Nation-state, August 1948-May 1950*, (PhD.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78-292.
- Irigaray, Luce(1977), *Ce Sexe Qui N'en Est Pas Un*, Les Editions de Minit, 이은민 옮김

- (2000), 『하나이지 않은 성』, 서울 : 동문선.
- Kim, Janice C. H.(2009), *To Live to Work : Factory Women in Colonial Korea, 1910-1945*,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Kelly, Katherine Feo(2011) , “Dress, Modernity, and Radical Suffrage Body,” *Fashion Theory*, 15(3).
- Kim, Charles(2017), *Youth for Nation: Culture and Protest in Cold War South Kore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im, Janice C. H(2009), *To live to work : factory women in colonial Korea, 1910-1945*,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m, Seung-Kyung(2000),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shawn Harris, 2016, *Sex Workers, Psychics, and Numbers Runners : Black Women in New York City's Underground Econom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Lauretis, de T.(1987), *Technologies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 NewYork: Macmillan.
- Lee, Jin-kyung(2010), *Service Economies: Militarism, Sex Work,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나병철 번역(2015),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 성 노동, 이주 노동』, 서울 : 소명출판.
- Lerman, E. Nina and Oldenzien, Ruth and Mohun, Arwen P.(2003), *Gedner & Technology: A Reader*,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wenhak, Sheila(1980), *Women and Work*, 김주숙 번역(1995), 『여성 노동의 역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wis, Susan Ingalls(2009), *Unexceptional Women: Female Proprietors in Mid-Nineteenth-Century Albany, New York, 1830-1885*, Columbus, Ohio :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Loschek, I.(2009), *When Clothes Become Fashion: Design and Innovation Systems*, New york: Berg.
- Mies, Maria(1986),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최재인 옮김(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서울 : 갈무리.
- Mies, Maria and Bennholdt-Thomsen, Veronika(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꿈지모(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 옮김,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서울 : 동연.

- Milkman, Ruth(1987), *Gender at work :the dynamics of job segregation by sex during World War II*, 전방지·정영애 옮김(2001), 『젠더와 노동 : 제2차 세계 대전기 성별 직무 분리의 역학』,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iller, Maria R.(2006), *The Needle's Eye: Women and Work in the Age of Revolution*,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Moon, Seungsook(2005),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이현정 옮김(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 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서울 : 또하나의문화.
- Mohanty, Chandra Talpade(2003), *Feminism without borders :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문현아 옮김(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서울 : 여이연.
- Moon, Katharine H. S(1997), *Sex Among Allies :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이정주 옮김(2002), 『동맹속의 섹스』, 서울 : 삼인.
- Oertzen, Christine von(2007), *The Pleasure of a Surplus Income: Part-Time Work, Gender Politics, and Social Change in West Germany, 1955-1969*.
- Pyun, Kyunghye · Wong, Aida Yuen(2019), *Fashion, Identity, and Power in modern asia*,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macmillan.
- Rai, Shirin(2002),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from Nationalism to Globalization*, 이진옥 옮김(2014),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민족주의와 지구화』, 서울 : 후마니타스.
- Rubin, Gayle(2011), *Deviations : A Gayle Rubin Reader*,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운(2015), “여성 거래 : 성의 ‘정치경제’에 관한 노트”, 『게일 루빈 선집 일탈』, 서울 : 현실문화.
- Ruddick, Sara(1995), *Maternal Thinking : Toward a Politics of Peace*, 이혜정 옮김(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 Scott, James C.(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김춘동 옮김(2004),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서울 : 아카넷.
- Scott, Joan W.(1988), “Comment: Conceptualizing Gender in American Business History”, *The Business History Review*, Vol. 72, No. 2, Gender and Business (Summer, 1998), 242-249쪽.
- Scott, Joan W.(1992), “experience”,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 London : Routledge.

- Scranton, Philip(2001), *Beauty and business : commerce, gender, and culture in modern America*, New York : Routledge.
- Sparks, Edith(2006), *Capital intentions : female proprietors in San Francisco, 1850-1920*, Chapel Hill, NC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Tilly, Chris and Tilly, Charles(1998), *The Labor World of Capitalism*, 이병훈 · 조효래 · 윤정향 · 김종성 · 김정해 옮김(2006),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파주 : 한울아카데미.
- Tilly, Louise A and Scott, Joan Wallach(1987), *Women, Work and Family*, 김영 · 박기남 · 장경선 옮김(2008), 『여성 노동 가족』, 서울 : 후마니타스.
- Yoo, Theodore Jun(2008), *The Politics of Gender in Colonial Korea: Education, Labor, and Health, 1910-1945*,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和田春樹(1996), 『朝鮮戦争』, 東京 : 岩波書店.
- 小泉和子(2004), 『洋裁の時代 : 日本人の衣服革命』, 東京 : 農文協 : OM出版株式会社.

ABSTRACT

A Study on the Post-war “Female Economy” in the 1950s Reflected in Dressmaking Shops

Kim, MeeSun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female economy” formed in the post-war society by looking into dressmaking shops that Korean women ran after the Korean War. Existing studies on the post-war society in the 1950s have focused on the economic history centered around the nation and private enterprises and have taken critical approaches to the discourse of reconstructing patriarchal nationalism. These approaches, however, cannot shed a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activities women carried out in the recovery process after the war.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earch aims at discovering how economic activities women took when the national economy was devastated by the war and male breadwinners were absent, especially in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were gendered, and how women’s economic activities mattered in the post-war society. To that end, the research poses a series of questions: what were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drove women to run the dressmaking business in pre-industrial and post-war society; how female owners ran dressmaking shops, which were the place where female workers gathered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ir own; and what role had, consequently, these women come to play in the post-war society. The paper, therefore, attempts to highlight what meaning and potential as well as contradiction did the “female economy” that post-war female self-employed formed through gendered economic participation have, and how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identified themselves as a “professional” who took a gendered economic role. The theoretical resources drawn was to review the production of handicraft products and independent businesses, and the research methods used was to collect and analyze oral sources through oral life history.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alities, such as the changes in the economy brought by the expans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breakdown of the household economy after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economic challenges in the household due to the absent male breadwinners led to women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to support their family. In the process, many women began participating in different economic activities they had not taken before by starting their own businesses in all sizes, including dressmaking shops. Running a dressmaking shop, in particular, had come to be regarded as “appropriate” for the female’s gender role through competition and hierarchization spurred by capability gaps among women.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had different experiences in the ways and processes of learning dressmaking skills where some acquired the skills through education for women give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hile others by taking dressmaking training courses or through apprenticeship at the shops after the independence. Different experiences among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resulted in differences in the way they secured resources for their shops and ran the business. Those who learned dressmaking skills under the colonial rule, particularly, utilized their capabilities as economic resources when the demands of dressmaking increased among the public. Thus, in the post-war garment industry, dressmaking business was regarded to be one for women from the gender role perspective, and became where female made up the most of the workforce, which created an economic sector for women in the clothing industry among other economic industries.

Second, dressmaking shops were where women worked outside their home. The shops functioned as a production line and a store at the same time in which dresses were produced and sold to female customers.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procured store spaces, facilities, such as sewing machines, and materials, including fabric, among others. They also furnished shop signs, display windows, interior decorations, etc. as visual elements to drive female customer traffic and encourage spending.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broke away from male breadwinners' rule and control and employed themselves to supervise the business operations in a free and independent way, and used their social life as resources. In addition, free and independent operations of dressmaking business by post-war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were made possible through not only their expertise in dressmaking but also constant self-development they pursued to hone sensory abilities to cater to customer tastes and follow the trends. They also were required to have social skills in their interaction with employees and customers. In the patriarchal discourse against career women in the post-war society,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selectively highlighted the production process that occurred inside the shop while making external operational activities, such as the procurement of fabrics and other materials, less visible despite they are necessary, in order to justify their career as one for women. Additionally, these women claimed that dressmaking shops were the place that were "appropriate and safe" for women and were "like" or "connected" to home where they could keep their house and raise children.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blurred the lin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life domains by simultaneously running the business while doing house chores and childcare. However, they still needed to suffer from excessive labor in the workplace and home without a break, and an identity crisis in which they could not place themselves as an independent business woman because their husband or father still represented these women or the family at large.

Third, dressmaking shops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female economy". Dressmaking shop owners identified themselves as a skilled professional with expertise in dressmaking with a strong sense of pride and taught female employees who worked for them the skills. Dressmaking shops, therefore, played a role as a place for training skills, and contributed to developing skilled dressmaking workers. However, in the shops, conflicts arose from time to

time owing to hierarch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staff, interference among workers in acquiring skills from one another, and employees' welfare and treatment. Yet dressmaking professionals built a network of their own where they socialized and exchanged information while teaching and learning skills and working together, which served as the cornerstone on which the female-centered economic sector was formed and operated. Moreover,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improved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by "localizing foreign dresses," and produced dresses communities needed in the post-war society. They, therefor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developing a new female culture through the dressmaking culture, which in tur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not only the local societies but also the local communities in the post-war era. Not only that, dressmaking shops were the foundations for creating women's communities based on confidence and intimacy they have built while interacting with the customers in the local communities. Of course, consumption culture shared among women who lived in cities that was developed through dressmaking culture categorized "women" and widened the gaps in classes and ranks among women at the same time. Likewise, dressmaking shops had significance in that it formed a "female economy" in the post-war society. Professional dressmakers that dressmaking shops, as a "female economy," developed were mobilized for their technical capabilities to work for export-driven apparel industry the nation promot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process, dressmaking shops became less visible, yet continued to exist while being marginalized.

As such, the research explains gendered economic activities carried out by post-war women as a "female economy," and reveal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female business ownership that built women-centered economic networks. Thus,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he "female economy" led by female dressmaking shop owners in the post-war society was a women-centered economic structure or system that consisted of female-centered networks based on business operations in specific areas led by women. The paper also reveals that the "female economy" carried a dual role of economic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this regard, the "female economy" was the economy for livelihoods and self-sufficiency as well as for "community" as it built women-centered economic relationships and a variety of networks that went beyond the family. The "female econom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osed the limits in explaining the post-war society in

the 1950s only as the beginning of patriarchal nation and male-centered capitalism, and revealed that women's non-capitalistic, gendered economic participation played a key role in recovering local communities in the post-war society. Focusing on dressmaking shops owned by post-war women as an example of the "female economy" is meaningful in that it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search on female labor that only investigated wage labor and housework, and proposes women's self-employment or female business ownership that formed women-centered networks as a new research area. Further research that could advance and extend the discussions around the "female economy" in Korea of the 20th century by expanding the historical approach to female business ownership based on technical skills, going forward, is required.